

국역 이승만 일기

국역 이승만 일기

1904~34
☐ 1944

류석춘,
오영섭,
데이빗 필즈,
한지은
공편

『근현대사 번역총서』 제3권을 발간하면서

2012년 12월에 개관한 이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국립 현대사박물관으로서 균형 잡힌 한국 현대사 연구를 통한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활발한 학술 사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료 수집, 전시, 교육 등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한국 근현대사에 관한 학문적 성과들을 모아 간행하는 발간사업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한국 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쓴 『한국현대사 교양총서』, 현대사의 주요 쟁점과 주제를 심층적으로 서술한 『한국 현대사 연구총서』, 그리고 국내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한국 근현대사 관련 외국서적을 발굴하여 국내에 소개하는 『근현대사 번역총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한국 근현대사에 관한 연구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그 내용도 심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언어의 장벽 등으로 인해 그 성과들이 국내에 충실히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근현대사 번역총서』는 다양한 언어로 쓰인 한국 근현대사를 다룬 의미 있는 저서들을 번역하여 국내에 소개함으로써, 세계인들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알리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독자들이 더욱 풍성한 모습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도 관련 학계의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근현대사 번역총서』 제3권은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이 1904년부터 1934년까지, 그리고 1944년에 친필로 기록한 영문일기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일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활동뿐만 아니라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던 다양

한 인사들의 활동과 그 당시의 상황이 상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 직접 남긴 기록이라는 점에서 이 일기는 한국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인본과 영어 편집본, 국문 번역본을 함께 간행함으로써 관련 학계의 연구에 참고 자료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책이 학계의 근현대사 연구를 더욱 진작시키는 작은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책의 간행을 위해 훌륭한 번역과 편집으로 총서를 빛내주신 공동 편집자 여러분 및 감수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질정을 바랍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김왕식

공동 발간사

이 책은 1919년 상하이 프랑스조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건립될 당시부터의 건국대통령으로서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한 이승만 박사의 일기이다. 이 일기의 출판으로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이인수 박사, 그리고 조혜자 여사께서 오랫동안 보존해온 「이승만 문서」가 연세대학교로 이관된 이후 이루어진 일련의 작업들 중에서 중요한 공백 하나가 메워졌다. 「이승만 문서」의 기증과 출판사업은 1997년 당시 김병수 연세대 총장과 유영익 연세대 현대한국학연구소 창립소장, 삼성그룹, 그리고 최송옥 여사 등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 일기가 출판되기 앞서 1998년 『이화장 소장 우남이승만문서: 東文篇』(전18권)이 영인 출판되었고, 2000년 『The Syngman Rhee Telegrams』(전4권), 2005년 이승만의 대통령 재임 시(1948-1960) 공사(公私)문서 목록, 그리고 2009년 『이승만 東文 서한집』(전3권)과 『The Syngman Rhee Correspondences in English, 1904-1948』(전8권)이 출간된 바 있다. 이번에 우남 자신이 영문으로 기록한 일기가 정리, 번역, 영인 출판됨으로써 「이승만 문서」를 관통하고 있는 1904년부터 1944년까지 그의 발자취와 내면세계를 추적해볼 수 있는 기초자료를 공유하게 되었다.

이 일기 출판에 공동으로 참여한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의 오영섭 박사, 위스콘신 대학의 데이빗 필즈 박사과정생 그리고 연세대 한지은 박사과정생 등의 학문적 기여는 높이 평가될 것이다. 원고정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잡다한 행정적 지원을 마다하지 않고 성의를 다해 도와준 연구원의 유지운 선생, 그리고 국문본과 영문본의 내용을 비교 확인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연세대 언더우드 학부 김규은 학생의 노고에 감사한다.

이 일기 발간 프로젝트는 이승만연구원 창립 원장이자 공편자 대표인 류석춘 교수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이 책이 지닌 공적인 의미에 주목하여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과 함

께 공동출판을 맡아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왕식 관장의 결심 덕분에 가능했음을 밝히고 그들의 노고를 기린다. 이 책의 출판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준 정갑영 연세대 총장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

2015년 10월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원장 김명섭

CONTENTS

발간사 · 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장 김왕식

공동발간사 · 6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 원장 김명섭

CHAPTER 1

1904~1918 · 9

도미, 유학, 귀국, 하와이 정착(29~43세)

CHAPTER 2

1919~1932 · 77

파리강화회의의 한국대표, 상해임시정부 대통령, 대한인동지회 총재(44~57세)

CHAPTER 3

1933~1934 · 157

제네바 국제연맹 활동, 모스크바 방문, 미 본토 순방(58~59세)

CHAPTER 4

1944 · 257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69세)

부록

1. 「이승만이 작성한 여정 일지(1909.11~1945.10)」
2. 「이승만의 해외 체류 기록(1904~1940)」
3. 「게일 선교사의 이승만 추천서」

CHAPTER 1

1904~
~1918

CHAPTER 1

1904년



오후 1시에 일행과 함께 서울 출발.

11월 5일

오후 3시, 증기선 오하이오(Ohio)호로 항해 시작. 도중에 강풍을 만나 밤새 어딘가에 멈춰 서 있었음. 새벽녘에 다시 항해를 시작하여 하루 종일 계속 감.

11월 6일

오후 6시에 목포에 도착한 후 혼자 배에서 내려 교회로 감. 오웬(Clement C. Owen) 박사¹⁾ 부부, 벨(Eugene Bell) 목사²⁾, 프레스턴(John F. Preston) 목사³⁾, 김흥린⁴⁾ 그리고 몇몇 다른 사람들을 만남. 집으로 전보를 쳤고, 편지와 엽서도 발송.

11월 7일

오후 3시에 항해 재개. 매우 평화롭고 즐거운 뱃길.

1) 생몰은 1867-1909년. 한국명은 오기원(吳基元).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버지니아 의대 졸업 후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로 내한하였다. 1899년 목포진료소를 개설하고 전라남도 최초의 서양의료진료소를 운영하였으며, 이듬해 이승만의 영어 과외 선생을 지낸 미국 북장로회 화이팅(Gregoriana Whiting) 의료선교사와 결혼 후 호남 지역 선교에 힘쓰다가 순회 전도 중 급성폐렴에 걸려 1909년 별세하였다.

2) 생몰은 1868-1925년. 한국명은 배유지(裴裕址). 1895년 아내 로티 위더스푼(Lottie Witherspoon)과 함께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로 내한하여 교육과 의료 사업을 벌였고, 목포 정명학교, 영흥학교, 광주기독병원(현 제중병원)을 설립하였다.

3) 생몰은 1875-1975년. 한국명은 변요한(邊要翰). 1903년 내한하여 목포 선교부를 중심으로 교회를 개척하였고, 목포 영흥학교와 광주 송일학교 교장을 역임하였으며, 티몬스(Henry L. Timmons) 의료선교사와 순천 알렉산더 병원을 설립하였다. 1940년 일제에 의해 본국으로 강제 소환되어 1975년 별세하였다.

4) 원문의 'Kim Hung Kin'은 'Kim Hung Rin'의 오타로 보인다.

일러두기

1. 이 책은 연세대학교 이승만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이승만 문서」 중 ‘이승만 일기’를 국역한 것이다.

2. ‘이승만 일기’는 이승만(李承晩, 1897-1965) 박사가 1904년부터 1944년까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벌일 때에 수첩과 노트에 일지식으로 기록한 것이다.

3. ‘이승만 일기’는 1) 1904~1934년간 필기체로 수첩에 쓰인 일기를 타이핑하여 책자로 묶어 놓은 책자형 일기, 2) 책자형 일기의 저본인 수첩 일기 두 점(1932.12~1933.2, 1933.6~1933.8), 3) 난해한 필기체로 쓰인 1944년분의 필기체 일기로 이뤄져 있다.

4. 이 번역본의 말미에는 이승만 박사가 직접 작성한 해외여행 기록을 수록하였다. 또 이 박사가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갈 때에 지냈던 추천서 19통 중 가장 대표적인 게일(James S. Gale) 선교사의 추천서를 수록하였다.

5. 동양 인명의 경우 한자명을 괄호 안에 적어 두었으며, 인명 표기는 현행의 한글 표기법과 두음법칙을 따랐다. 중국 인명의 경우 현행의 발음 체계를 따랐다.

6. 서양 인명이 성(姓)만 나온 경우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괄호 안에 성명(Full name)을 적어 넣었다.

11월 8일

오전 9시에 부산항 도착. 동래감리(東萊監理) 이무영(李懋榮)⁵⁾의 집무실에 가니 식사하고 가라고 함. 초량(草梁)으로 가서 최유봉(崔有鵬)⁶⁾의 자택에서 점심 식사. 저녁 7시, 부산 출발.

11월 9일

오전 6시 30분에 시모노세키에 정박. 하선하지는 않음.
오후 1시 30분에 향해 재개.

11월 10일

오후 3시에 고베에 도착하여 최상호(崔相浩)⁷⁾의 집으로 감.

11월 11일

밤 11시에 벨 목사의 사촌 로건(Charles A. Logan)⁸⁾ 목사에게 감. 거기에서 코트(Robert T. Coit)⁹⁾ 씨에게 갔다가 하디(Robert A. Hardie)¹⁰⁾ 박사를 만남. 코트 선교사는 이틀 전 전보를 받았다고 하며 우리에게 100엔을 줌. 오후에 송 씨와 다른 사람들도 만남.

11월 12일

일행과 시내를 둘러보고 스시아마(Sushiyama) 식당으로 감.

5) 대한제국기에 예식원 번역관을 거쳐 동래감리와 무안감리를 지냈다. 1905년에 다시 동래감리(정3품, 임관)에 임명되었고, 1906년에 옥구감리를 거쳐 옥구부윤으로 부임하였다.

6) 초량의 객주 출신 자선가. 1905년 화폐개혁으로 소자본 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자 구포저축회사 설립에 참여하였다. 1907년 동래 명륜학교 설립을 위한 명륜당 모임에도 참가하고, 천주교인으로서 부산 최초의 여자청년회를 조직하여 여성의 사회진출을 도왔다.

7) 1906년 일본 유학생들이 조직한 재일본조선기독교청년회 부총무를 지냈다. 귀국 후 서울 YMCA 간사를 역임하고, 1911년에 도쿄 재일조선YMCA 총무로 부임하였으며, 1914년 이승만의 초청으로 하와이로 건너와 이승만을 도와 호놀룰루에서 기독교 학생청년회를 조직하였다.

8) 일본에서 활동하던 장로교 선교사이다.

9) 프레스턴 목사와 함께 순천에서 사역한 코이트(高羅福) 선교사이다.

10) 생몰은 1865-1949. 한국명은 하리영(河鯉泳). 캐나다 토론토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파송된 의료선교사이다. 부산과 원산을 중심으로 의료사역을 하고, 1903년 원산부흥운동을 주도하여 한국 교회 부흥의 아버지로 불린다. 1907~1924년 감리교 협성신학교의 교수와 교장을 지냈다.

11월 13일

오전 9시에 로건 목사의 예배당에서 연설. 오후에는 갤릭(Gaelic)호로 가서 하와이로 떠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

11월 16일

저녁엔 야마(Yama) 씨 집의 식사 초대에 다녀옴. 중국인 환전상에게 1불 15센트를 주고 금화를 삼.

11월 17일

두 사람 배 샀은 126엔. 하나는 한성감옥 부소장의 동생 하워드 레이(Howard Leigh, 이 중혁(李重燾))¹¹⁾의 것.

4시 반에 시베리아(Siberia)호에 승선.

11월 18일

오전 6시, 고베 출발.

11월 19일

오전 6시, 요코하마 도착.

11월 20일

오후 3시, 요코하마 출발.

11월 25일

이틀간 향해 계속.¹²⁾

11) 한성감옥서 부서장을 지낸 이중진(李重鎭)의 동생. 영어 이름은 Howard Leigh이다. 이중진 형제는 이승만의 옥중 전도에 영향을 받아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이승만의 미국행 예비 일부는 이중진이 부담하였다.

12) 이날 이승만은 날짜변경선(International Date Line)을 통과하였다.

11월 28일

오전 10시, 작은 섬 하나를 지나감.

11월 29일

오전 7시에 하와이 호놀룰루항에 정박했다. 검역소 관리들이 승선하여 승객들을 검사했다. 배가 부두에 닿자 나는 하선 허가를 받았으나 3등실 승객들은 하선이 허용되지 않았다. 내가 하선하려고 할 때 미 이민국 통역사 박윤섭(朴允燮)¹³⁾이 나를 만나려고 승선했다. 그는 하와이 교우들이 이틀 전에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를 환영하기 위해 여러 곳으로 회람을 돌렸다고 귀띔해 주었다.

미국 감리교선교부 와드맨(John W. Wadman)¹⁴⁾ 박사는 내가 하선 허락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어 도움을 주려고 한인 교우들을 데리고 마중을 나왔다. 아무튼 우리는 한인 교회로 갔다. 아! 사랑하는 친구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던지. 저녁엔 모두 기차를 타고 호놀룰루에서 12마일 떨어진 한인 농장의 에바(Ewa) 교회¹⁵⁾로 갔다. 약 2백 명의 한인 교우들이 모여 주님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다. 와드맨 박사가 예배를 집전했다. 10명의 교인이 세례를 받았다. 와드맨 박사는 이곳에서 우리의 사업이 아주 훌륭하게 추진되고 있고, 성령께서 보내신 전보가 우리 형제¹⁶⁾에게 전해져 이 성찬례에 참석하려고 한국에서부터 머나 먼 길을 왔노라고 나를 소개했다. 우리는 그가 우리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지만, 그는 미국으로 가는 길이므로 그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며 다시 그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등의 말을 덧붙였다.

와드맨 박사의 설교에 이어 내가 거의 11시까지 연설을 길게 했고 함께 애국가¹⁷⁾도 불렀다. 예배가 끝나자 식사를 하고 2시 반경에 윤병구(尹炳求)¹⁸⁾와 잠자리에 들었다.

13) 35세 때인 1903년에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하와이로 이민을 갔다. 1904년 11월 이승만이 하와이에 도착했을 당시 이민국의 통역 겸 감시관을 지냈으며, 하와이 신민회 회원이자 하와이 한인감리교회의 교인이다.

14) 1904년 하와이 감리교단 감리사로, 재임기간은 1905~1914년이다. 1905년 한인감리교선교회를 한인감리교회로 승격시키고, 교회당을 누우아누 스트리트 1485번지로 옮겨 교회당을 확장하였다. 그의 부인(Mame Wadman)은 1906년 7월, 설립된 한인기독교교의 초대 교장을 맡았다.

15) 하와이 오아후 섬의 에바 농장에 있는 에바 한인감리교회를 말한다.

16) 이승만을 의미한다.

17) 당시에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에 가사를 붙여 불렀다.

18) 생몰은 1880~1949년. 영어명은 P. K. Yoon으로, 1903년 선교사 자격으로 하와이로 건너가 신민회를 조직하고, 「시사신보」를 창간하였다. 에바 친목회를 결성하여 일본상품 배척 운동을 벌이며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05년 이승만과 함께 미국

11월 30일

오전 6시 30분에 시내로 돌아옴. 아침을 먹고 또 즐거운 모임을 가짐. 교우들이 여비에 쓰라며 30불짜리 금화를 내놓음. 강연을 하고 11시 30분에 시베리아호에 승선, 오후 1시가 다 되어 출발. 많은 교우가 일행을 배웅하러 나와 주었고,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부두에서서 모자와 손수건을 흔들며 작별을 아쉬워함.

12월 4일

저녁 티 파티에서 연설.

밤 9시경, 배 한 척이 더 지나감.

12월 6일

오전 10시에 샌프란시스코에 정박, 오후 3시에 하선.

스톡턴 가(Stockton St.) 401의 일본인이 경영하는 호텔 ‘오이소야와 메이지(Oisoya & Meiji)’¹⁹⁾에 투숙.

더블베드가 있는 방은 일박에 50센트이고 식사는 제일 싼 것이 10센트.

12월 8일

이스트 오클랜드 12번가 475 E의 안정수(安定洙)²⁰⁾에게 감.

루스벨트 대통령을 만나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고, 1907년 헤이그 특사 이상설, 이위종과 함께 구국 외교 활동을 추진하고 자 유럽 순방 외교를 떠났다. 1912년 대한인국민회 제2대 중앙총회장에 선임되었고, 3·1운동 후 미주 한인사회의 독립열기 고취에 기여하고, 1945년에 이승만과 함께 국제연합 창설대회(일명 ‘샌프란시스코 회의’)에 참가할 임시정부 대표단의 일원에 선임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귀국하여 국방국 친선 외교와 한미 간 협약 작성 등의 일을 맡았으며, 1949년 6월 별세하였다.

19) 원문의 ‘Miji’는 ‘Meiji’의 오기이다.

20) 1879년생. 한성외국어학교에서 영어와 수학을 가르쳤고, 인천 내리교회 권사였다. 하와이 노동이민 때 최초의 통역원으로, 1903년 호놀룰루에 도착해 윤병구와 함께 한인감리교회를 설립하였다. 1907년 일제의 한국 침략 규탄과 동포들의 상호부조를 위해 결성한 뉴욕 한인공제회의 초대 회장을 지냈으며, 1926년 뉴욕 한인교회 기금모집위원회 위원장과 1931년 재미조선문화회 뉴욕 지역 이사를 역임했다.

12월 9일

안정수와 생 라파엘 애비뉴 614-5 피시(Fish)²¹⁾ 씨 집에서 여장을 꾸민다.

12월 15일

금문교미술관(the Golden Gate Park Museum)²²⁾에 한국 동전(當百錢) 2냥을 놓고 옴.

12월 16일

베일(Vail) 씨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카고를 경유하여 워싱턴으로 가는 기차표를 남태평양철도회사(Southern Pacific Railway Company)에서 반값(53불 75센트)에 구입.

오후 5시 30분, 샌프란시스코 출발.

12월 17일

정오에 로스앤젤레스 도착. 휴 신(Hugh H. Cynn)²³⁾이 마중 나옴.

12월 19일

오전 11시에 출발 예정이었으나 출발을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음.

12월 25일

교회에서 강연.

21) 피시 부부의 아들은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다.

22) 미국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정원 안에 있는 드영 미술관(de Young Museum)을 말한다. 드영 미술관은 샌프란시스코의 신문 재벌인 드 영(M. H. de Young)의 이름을 딴 곳으로, 1894년 국제박람회 전시장으로 사용된 뒤 미술관으로 전환되었다.

23) 생물은 1883-1959년. 한국명은 신흥우(申興雨). 개신교인으로 입문하여 한국 감리교 지도자에 올랐다. 이승만과 함께 배재학당에서 대중계몽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단체인 협성회에 가담하고, 이어 정치 개혁 운동을 벌이다가 한성감옥에서 옥살이를 하였다. 1903년 선교사들을 통해 미국에 유학한 후 귀국하여 배재학당 교장을 역임하였고, 민족운동과 종교활동을 벌인 신간회, 흥업구락부, 조선기독교청년회전국연합회(YMCA) 등에서 활동하였으며, 이승만의 친구인 신공우의 동생으로 어려서부터 이승만과 친하게 지내며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도왔다. 1920년 『The Rebirth of Korea』를 출판하였다.

12월 26일

오후 8시에 산타페행 기차로 워싱턴 출발.

12월 30일

오전 9시, 시카고 도착. 캠벨 파크(Campbell Park) 장로교회 목사 매징거(Matzinger) 박사에게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²⁴⁾ 박사의 서한 전달. 오후 3시에 펜실베이니아행 열차 탑승.

12월 31일

오전 7시 30분, 피츠버그에서 열차 환승.

오후 1시 45분, 해리스버그에 도착. 2시 50분 차로 워싱턴을 향해 출발.

오후 7시에 워싱턴 도착. 그날 밤 한국공사관²⁵⁾과 언약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of Covenant) 담임 목사인 햄린(Lewis S. Hamlin) 박사를 찾아감.²⁶⁾

24) 생물은 1859-1916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1885년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와 함께 인천에 도착하여 광혜원에서 교육을 담당하였고, 고아학교와 새문안교회, 조선성교서회를 세웠다. 고아학교는 경신학교를 거쳐 연희전문학교로 발전하였고, 연희전문학교의 초대 교장을 지냈다. 1890년 한국 최초의 『영한사전』을 간행하였으며, 1906년부터 건강이 악화되어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사역하다 1916년에 애틀랜틱시티에서 별세하였다. 이승만의 미국 유학을 지원한 후원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25) 조선정부 및 대한제국정부가 1891년부터 1905년까지 사용한 워싱턴의 주미한국공사관(Korean Legation)을 말한다. 현주소는 '1500 13th St. N. W. (Logan Circle 15번지), Washington D.C.'이다.

26) 햄린 박사는 주미한국공사관의 법률고문인 니드햄 박사가 학장인 조지워싱턴 대학의 콜롬비아 문리대학 특별생으로 이승만을 편입시켜 주었다.

CHAPTER 1

1905년

1월 1일

오후 12시 30분에 햄린 목사의 교회에 들러 그의 사택에서 점심 식사. 저녁에는 한국공사관에서 식사를 하고 교회 두 곳을 다녀옴.

1월 2일

노스웨스트 2307-1번가 구엘리메모리얼 장로교회(Gueley Memorial Presbyterian Church) 목사 버브라이키(Verbrycke) 박사 사택을 찾아감.

1월 6일

오후 6시에 햄린 박사에게 2불을 받음.

1월 7일

오후 5시에 파크 애비뉴 487 마운트 버논(Mt. Vernon) 호텔에서 H가 2122 스미스(W. H. H. Smith) 목사 사택으로 숙소를 옮김.

1월 8일

오후 5시, 누군가가 햄린 박사를 통해 3불을 보내옴. 오전엔 성경반, 저녁엔 공려회(共勵會: Christian Endeavor Society)²⁷⁾에서 연설. 두 번 모두 스미스 목사 교회.

27) 1881년에 개신교 교회의 청년들이 전도와 봉사를 위해 설립한 교파를 초월한 종교 단체이다.

2월 12일

주일 오전 11시, 구엘리메모리얼 장로교회에서 연설 초청받음. 신도들이 학비에 보태라며 12불 79센트를 줌.

2월 20일

공관에서 방값 6불을 보내옴.

3월 26일

햄린 감리교회(Hamline M. E. Church)에서 강연.

부활절 아침 워싱턴 DC의 언약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of the Covenant)에서 햄린 박사에게 세례받음.²⁸⁾

4월 2일

주일 6시 30분, 메트로폴리탄 침례교회(The Metropolitan Baptist Church)²⁹⁾에서 강연. 로렌스 목사가 2불을 줌.

4월 23일

부활절 주일 언약장로교회에서 세례받음.

5월 3일

수요일 저녁 8시, 메트로폴리탄 장로교회에서 강연. 교통비 3불 받음.

28) 3월 26일은 이승만의 생일날이다.

29) 해방된 자유 흑인 노예들이 뉴욕에 설립한 교회이다.

6월 4일

주일 저녁, 하보우(George W. Harbough)³⁰⁾ 씨가 태산아(Taisanah)³¹⁾를 데리러 옴.

6월 6일

태산아와 함께 사우스이스트 A가 320 하보우 씨 집으로 감.

6월 19일

태산아를 워싱턴에 남겨 놓고 뉴저지의 오션 그로브(Ocean Grove)로 출발. 험린 박사가 왕복표와 5불을 줌.

6월 29일

윤병구가 15불짜리 송금환을 보내옴.

7월 12일

피츠제럴드 감독(Bishop Fitzgerald)에게서 5불을 받음.

7월 13일

방문객들에게 전시회에서 강연을 하고 게이멜(Francis D. Gamewell)³²⁾ 박사에게 10불을 받음.

30) 이승만이 아들 태산을 맡아 줄 기독교 가정을 구한다는 기사 'Taisanah Rhee Finds New Home'가 '워싱턴 타임스' 1905년 6월 5일자에 실리자 이를 보고 태산을 일시 맡아 돌보았다. 하보우의 외아들(Sadie B. Harbough)은 한국에 파견되어 활동한 선교사이다.

31) 이태산(李泰山, 1899-1906)은 이승만과 그 부인 박승선(朴承善)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7대 독자로, 본명은 이봉수(李鳳秀)이며, 태산은 아명이다. 이승만이 도미한 후 박용만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1906년 2월 25일 필라델피아의 한 시립병원에서 디프테리아로 사망하였다. 이승만이 아들들 "태산아(TAISAN AH)"라고 부르자 이승만과 이태산을 지원한 미국인 보이드(Boyd) 부인이 '태산아'를 '이태산'의 이름으로 간주하여 이태산이 사망한 후에 묘비명에 '태산아'라고 적었다.

32) 생몰은 1857-1950년. 청국의 의화단운동(Boxer Rebellion) 당시 외국 공사관을 보호한 공으로 유명해졌다. 감리교 선교본부의 Open Door Commission의 간사를 역임하였다.

7월 14일³³⁾

강연 후 홀 협회(Association Hall)에서 여러 여신도가 1불 75센트를 줌.

7월 14일

뉴욕으로 출발.

7월 18일

뉴저지 오션 그로브로 돌아옴.

7월 27일

필라델피아의 제이슨(Philip Jaisohn)³⁴⁾ 박사 집으로 감.

7월 28일

워싱턴 도착.

7월 31일

서재필을 만나러 필라델피아로 출발. 윤병구에게 편지를 발송했는데 바로 그날 그가 옴.

8월 1일

워싱턴으로 돌아옴.

33) 1905년 7월 14일자 일기가 두 개이다.

34) 생몰은 1864-1951년. 이승만의 배재학당 스승이자 독립운동의 협력자이다. 한국명은 서재필(徐載弼). 일본 도야마 육군유년 학교에 들어가 군사훈련을 받고, 1884년 갑신정변에 가담하였으나 정변 실패 후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웰크스베어 시의 해리 힐만 아카데미를 마치고 컬럼비아 대학교 의과대학 야간부를 다니며 의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1896년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배재학당과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계몽활동을 전개하였으나 러시아와 일본의 추방운동으로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여 필라델피아에서 인쇄·문구 사업을 운영하였다. 3·1운동 후 한국문제를 세계 여론에 호소하고, 친한적인 미국인을 모아 '한국친우회'를 조직, 이승만·정한경과 함께 '대한인총대표회의'를 열고, 한국통신부를 설립하여 『Korea Review』를 발간하였다. 1922년 워싱턴 군축회의에 독립청원 연명서를 제출하고, 1925년 호놀룰루의 범태평양회의에 한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여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였으며 광복 후 귀국하여 미군정청 최고고문을 역임하였다. 정계와의 불화 및 시국의 혼란함을 개탄하고 미국으로 돌아가 의사로서 여생을 마쳤다.

8월 2일

필라델피아로 다시 감.

10월 10일

케이던스빌(Cadensville) 장로교회에서 강연. 경비 외에 5불을 받음.

11월 5일

뉴저지 캠프(Camden)의 YMCA에서 강연을 할 때 한국 YMCA 브록맨(Francis M. Brockman)³⁵⁾ 사무총장을 위한 모금이 있었음.

모든 경비를 제외하고 5불을 줌. 제일장로교회(The First Presbyterian Church)에서 강연.

11월 13일

조지타운 중앙연합선교회(Georgetown Central Union Mission)에서 강연.

11월 15일

메트로폴리탄 감리교회 국제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에서 강연.

11월 26일

오전에는 유니온 감리교회, 저녁에는 캠프 남서부의 한 감리교회에서 강연.

12월 1일

뉴욕 장로교회에서 강연.

12월 3일

갈보리 침례교회 중국어 성경반에서 강연.

35) 1887년생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활동한 선교사이다.

12월 5일

오전 11시 30분, 10번가와 G가 모퉁이에 소재한 제일회중교회(The First Congregation Church)에서 강연.

12월 6일

오전 11시,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 시 메디슨 가의 제일장로교회에서 파크 애비뉴 818번지에 거주하는 와일리(M. Wylie) 부인에게서 9불을 받음. 저녁 8시, 도널드 구드리(Donald Guthrie) 목사에게 15불을 받음.

12월 10일

오후 7시, 파운드리(Foundry) 감리교회 엠티스 청년회(Epworth League)³⁶⁾와 만남.

12월 13일

토마스 서클(Thomas Circle)에서 20분 걸리는 제일침례교회에서 강연. 7불 40센트를 모금해 줌.

12월 15일

오후 1시 30분, 트리니티 감리교회(The Trinity M. E. Church)에서 강연.

12월 17일

주일 오후 7시 30분, 브라이트우드파크(Brightwood Park) 감리교회의 파워스(E. C. Powers) 목사가 9불 97센트를 모금해 줌.

12월 24일

주일 저녁, 브룩랜드(Brookland) 침례교회에서 강연.

36) 1889년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우정 예배를 보았다. 그리스도교적 사회 봉사, 성서 연구 등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감리교 청년 단체로, 1941년 다른 단체와 합체하여 감리교청년동맹(Methodist Youth Fellowship)으로 발전하였다.

CHAPTER 1

1906년

1월 3일

중앙연합선교회(Central Union Mission)에서 강연.

1월 7일

토요일, 메트로폴리탄 감리교회에서 강연.

1월 8일

제4장로교회 여성해외선교회(Women's Foreign Missionary Society)에서 강연.
선교회에서 2부를 줌.

1월 14일

오전 10시에 파운드리 교회, 오후 4시에 햄턴 선교회에서 강연.

1월 19일

브룩랜드 교회에서 강연을 하고 2불 45센트를 받음.

1월 21일

주일 저녁, 노스웨스트 7번가와 G가에 소재한 웨슬리채플(Wesley Chapel) 감리교회에서 강연.

1월 26일

마운트 플레즌트(Mt. Pleasant)의 제4장로교회에서 강연. 대표가 3불을 줌.

1월 28일

주일 저녁, 워(Waugh) 감리교회에서 강연.

2월 4일

주일 오전, 조지타운 감리교회에서 강연.

2월 11일

주일 저녁, 노스이스트 9번가와 메디슨 애비뉴에 소재한 켈러메모리얼 루터 교회(Keller Memorial Lutheran Church)의 정규 예배와 YMCA에서 강연.

2월 18일

주일 저녁, 브라이트우드 감리교회의 엡윗청년회 예배와 정규 예배 시간에 강연.

2월 25일

주일 저녁, 리버데일(Riverdale) 장로교회에서 강연. 바일(Vile) 여사가 5불을 줌.

2월 25일 (병원에 입원 18일 하오기)

오후 7시, 태산아가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시립병원에서 숨을 거둠.

2월 26일

오후 5시, 오펀로 묘지(Oddfellow Cemetery)에서 장례식이 거행됨.

기록: 입원(24일)해 있는 동안 기생충 약을 복용하느라 이틀간 단식을 했다. 밤 11시 30분에 전보를 받았다. 발신인이 필라델피아 네이션(The Nation)인 전보엔 '아들 태산아 위독'이라 적혀 있었다.

곧장 기차역으로 갔다. 2시간 반쯤 후에 떠나는 필라델피아행 기차가 있었다. 전신국으로 급히 돌아와 '지금 꼭 가야 하는지 즉시 응답 바람'이란 전보를 네이션 앞으로 보냈다. 곧 '점

차 호전됨. 다시 연락하겠음. 네이션'이라고 적힌 답신을 받았다. 반가운 소식에 한결 마음이 놓여 다음 전갈을 기다리기로 했다.

25일 일요일 오후 2시경, 전보가 또 왔다. '태산아 위독. 아치(Arch)가 1520으로 속히 올라'고 보이드(E.E. Boyd)³⁷⁾ 여사가 보냈다. 여사에게 9시 30분 워싱턴을 출발한다고 전보를 보낸 후 그 시각에 출발했다.

26일 새벽 2시 반, 보이드 여사 집에 도착했다. 그녀는 태산이가 3일 동안 아팠는데 의사가 디프테리아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디프테리아는 끔찍한 전염병이다. 시립병원에 입원했으나 아무도 면회할 수가 없었다. 태산이를 보러 병실에 들어가면 방역법에 의해 최소한 한 달간 병원에 격리되어 있어야 했다. 나는 격리 조치를 받겠다고 했다. 그러면 오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녀가 말했다. 역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으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오전 11시, 웨스턴 홈(Western Home) 41번가와 베어링 가(Western Home 41 & Baring St.)의 머피 양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다. 태산아가 25일 저녁 7시에 숨을 거두었다고 적혀 있었다. 필라델피아 브루덴버크스(Broodenberks) 가 오펠로(Oddfellow) 묘지에 안장했다.³⁸⁾

3월 4일

주일 저녁 바일 여사의 집이 있는 리버데일(Riverdale)에서 좀 더 내려가는 장로교회에서 강연을 했다. 모금액이 28불이었다. 꼬마 엘리스(Ellis)가 쪽지와 함께 25센트가 든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쪽지에는 '막내 엘리스가 이승만 선생님에게 사랑을 전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37) 이승만을 지원하고 그의 아들 이태산을 돌봐 준 필라델피아 거주 미국인 부인. 이태산이 죽은 후에 보이드 부인은 뉴저지 주 오션 글로브(Ocean Grove)의 여름 별장에서 종종 이승만을 대접하였다.

38) 이태산의 묘는 필라델피아 근교의 론뷰(Lawnview) 공동묘지에 매장되었다. 묘비에 'RHEE TAISANAH 1899-1906' 이라고 쓰여 있다.

3월 11일

버윈(Berwyn) 장로교회에서 강연. 5불 43센트를 받았고 꼬마 엘리스가 교통비로 15센트를 줌.

3월 18일

주일 저녁, 레이클랜드 흑인침례교회(The Lakeland Colored Baptist Church)에서 강연. 1불을 받음.

4월 15일

주일 저녁, 알렉산드리아의 트리니티 감리교회에서 강연. 목사님이 교통비로 2불을 주심.

4월 20일

YMCA 연회와 교육부 수료식 연습 시간에 강연.

4월 22일

주일 저녁, 조지타운의 서부장로교회에서 강연. 선교부에서 3불을 줌.

4월 29일

주일 저녁, 조지타운 서부장로교회에서 연설. 선교사회로부터 3불 받음.

5월 2일

수요일 저녁, 버윈 장로교회에서 강연. 교통비로 2불을 받음.

5월 8일

러스트홀 국립훈련학교(Rust Hall National Training School)의 선교사대회(Missionary Convention)에서 강연.

5월 13일

주일 저녁, 리버데일 장로교회에서 강연을 하고 나중에 10불을 받음.

5월 15일

화요일 밤, 브룩랜드 침례교회의 선교 전시회에서 강연.

5월 29일

주일 저녁, 템플 침례교회(Temple Baptist Church)에서 강연.

10월 14일

브라이트우드파크 감리교회 엠피스 청년회에서 강연.

10월 28일

하얏츠빌(Hyattsville) 감리교회에서 강연. 1불 47센트가 모금됨.

11월 25일

주일 저녁, 메트로폴리탄 침례교회에서 강연을 하고 5불을 받음.

12월 10일

주일 오후, YMCA 워싱턴 DC 지부가 있는 노스이스턴 템플(North Eastern Temple)에서 강연 후 아놀드 총무에게 5불을 받음.

12월 14일

금요일, 감리교회 여성회 선교사 모임에서 강연.

12월 23일

주일 저녁, 클라렌든(Clarendon) 감리교회에서 강연. 리버스(Rivers) 목사가 담임.

CHAPTER 1

1907년

1월 1일

6번가와 이스트 가에 소재한 기독교여성금주회(Young Women's Christian Temperance)³⁹⁾ 리셉션에서 강연.

1월 22일

씨키드(Thirked) 총장 요청으로 하워드(Howard) 대학 수요회 모임에서 강연.

4월 7일

주일, 클라렌든(Clarendon) 감리교회 저녁 예배 시간에 강연.

4월 28일

엠피스 감리교회 주일 저녁 예배에서 강연.

4월 30일

YMCA 교육부 연례 만찬에서 강연.

5월 25일

주일 저녁, 조지타운 갈보리(Calvaery) 감리교회 예배 시간과 엠피스청년회에서 강연.

39) 1873년 일리노이에서 창설된 기독교여성금주연맹(Women's Christian Temperance Union)의 하부 조직이다. 1874년에 전국적인 모임으로 성장하였고, 현재는 세계적인 모임으로 발전하였다. 처음엔 주류 판매 금지를 주요 목표로 내세웠으나 나중에는 노동, 건강, 위생, 복지 등으로 활동 분야를 넓혀 갔다.

5월 27일

수요일, 보스턴의 미국재림교대회(American Adventist Convention)에서 강연.

6월 2일

볼티모어의 브라운메모리얼 교회(The Brown's Memorial Church)에서 개최된 여성 크리텐튼회 회의(The Conference of Women's Crittenton Society)⁴⁰에서 강연.

6월 5일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음.

6월 9일

주일 아침, 구엘리메모리얼 교회에서 강연. 어린이날이었음.

6월 12일

YMCA 워싱턴 DC 지부에서 환등기로 사진 자료를 보여 주며 강연.

7월 2일

주일, 이턴타운(Eatontown) 재림교회에서 오전과 저녁에 설교. 이턴타운은 뉴저지 주 롱브랜치(Long Branch) 인근에 소재. 교회 재정부에서 14불을 줌.

8월 13일

토요일, 오션 그로브에서 개최된 여성해외선교대회에서 강연.

12월 10일

매사추세츠 주 캠브리지 제일침례교회에서 강연.

40) 19세기에 설립된 미국의 개혁 운동 단체이다.

12월 15일

시카고의 캠벨파크 장로교회 주일학교에서 강연. 스테이트 스트리트 감리교회(State St. M.E. Church) 엡윗청년회 예배와 YMCA 만찬 예배에서도 강연을 함.

12월 16일

월요일, 프리메이슨 예배당(Masonic Temple)에서 개최된 장로교 설교자회(Presbyterian Preachers Meeting)에 한국 대표로 참석.

12월 22일

주일, 브룩클린 감리교회 주일학교 예배에서 기도와 강연을 함.

CHAPTER 1

1908년

3월 11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국제선교대회(International Missionary Convention)에서 연설.⁴¹⁾ 3천 명의 대표가 참석. 중국의 왕(C.T. Wong)도 연사였음.

3월 12일

사우스엔드(South End) 장로교회의 기도 모임에서 강연. 모금한 17불 15센트를 받음. 8월, 하버드에서 석사 과정 수료.

10월 11일

뉴욕 주 시러큐스의 이스트 제네 시(East Genesee) 장로교회 주일 오전예배와 메모리얼 장로교회 주일 저녁 예배에서 강연.

10월 12일

뉴욕 주 시러큐스에서 ‘한국의 각성(Awakening of Korea)’이란 주제로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⁴²⁾ 박사와 사이들담(Sideltham) 씨가 참가한 특별 모임에서 강연.

10월 24일

주일 오전, 뉴욕 주 로체스터(Rochester)의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에서 세 번 강연을 함.

41) 이 대회에서 이승만은 ‘한국의 굴욕과 기독교의 소명(Korea's Humiliation, Christianity's Call)’이란 제목으로 연설을 했다.

42) 1908년에 언더우드는 한국 선교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얻고자 미국 각지를 순회하며 1907년 한국 평양대부흥회(Korean Pentecost of 1907)에 대한 강연을 했는데, 이승만은 여러 번 언더우드와 함께 경연회에 참가하였다.

저녁엔 메모리얼 장로교회에서 에비슨(Oliver R. Avison)⁴³⁾ 박사와 강연.

10월 25일

언더우드 박사와 힐버트(Homer B. Hulbert)⁴⁴⁾ 씨와 함께 저녁 거실 모임(Parlor Meeting)을 가짐.

10월 26일

오후에 에비슨 박사와 언더우드 박사와 함께 브릭(Brick) 장로교회에서 모임. 두 분과 거실 모임을 가짐.

10월 27일

베어드(Baird) 박사와 뉴턴(Newton) 장로교회에서 강연을 하고 5불을 받음. 위에서 언급한 모임은 모두 선교 운동을 위한 모임이어서 모금된 돈은 모두 선교 활동을 위해 사용됨. 오늘의 모임은 선교 운동과는 별개의 것이어서 베어드 박사와 나에게 주어진 10불을 반씩 나눔.

저녁에는 언더우드 박사와 중앙장로교회(Central Presbyterian Church)에서 강연.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위의 모임들이 뉴욕 로체스터에서 개최됨.

10월 28일

프린스턴 신학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의 캘빈 클럽⁴⁵⁾에서 강연.

43) 생몰은 1860-1956년. 한국명은 어비신(魚介信). 캐나다 태생의 의사 겸 선교사로, 1892년부터 1935년까지 한국에 체류하며 종교 활동을 하였다. 조선기독교대학(Chosen Christian College) 교수와 제중원(濟衆院) 제4대 원장을 지냈고, 세브란스 전문학교와 연희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하며 오늘날 연세대학교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승만을 적극 후원한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

44) 생몰은 1863-1949년. 선교사로 내한하여 육영공원에서 외국어를 가르쳤다. 을사늑약 후 고종의 밀서를 가지고 미국에 돌아가 대통령을 면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한국평론』을 통해 일본의 침략정책을 규탄, 고종에게 헤이그 특사 파견을 건의하고 외국인 특사로써 활동했으며, 1908년 미국으로 돌아가 한국 독립운동 지지 활동을 벌였다. 1920년 여름 미국 중부, 북서부 지역을 돌며 10여만 명에게 한국 사정을 알렸고, 대한민국 수립 후 국민으로 내한했다가 병사하여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혔다. 『The History of Korea』, 『The Passing of Korea』 등을 저술하였다.

45) 프린스턴 신학교의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이 조직한 클럽이다.

11월 18일

주일, 필라델피아 베다니(Bethany) 장로교회에서 강연. 프린스턴 졸업생 세 명과 홀(Ernest F. Hall)⁴⁶⁾ 목사와 함께 한국을 위한 모금을 함.

11월 11일

수요일, 서부 필라델피아의 월넛 스트리트 장로교회(The Walnut St. Presbyterian Church)에서 강연. 데이나(Dana) 박사가 담임 목사.

저녁 기도 시간에 11불 77센트를 받음.

11월 18일

수요일, 필라델피아 부근 조이랜드(Joyland)의 하츠빌(Hartsville) 장로교회에서 강연 후 경비로 7불을 받음.

11월 27일

금요일,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유클리드 애비뉴의 갈보리 장로교회 담임 목사 맥윌리엄스(McWilliams) 박사 사택에서 여성해외선교회 모임을 가짐.

11월 29일

얼 메모리얼 교회(Eel's Memorial Church)에서 한국 홍보를 위한 강연을 함.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서 펼치고 있는 언더우드 박사의 선교 운동의 일환임. 우들랜드(Woodland) 장로교회 주일 오전 예배, 레이크우드 애비뉴의 세브란스(Severance)⁴⁷⁾의 교회(병원),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장로교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강연을 함.

46) 생몰은 1868-1955년. 이승만이 서울에서 사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출신의 북장로교 선교사로 이승만에게 프린스턴 대학에 진학할 것을 강력히 권한 인물이다.

47) 생몰은 1838-1913년. Louis Henry Severance. 미국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태생의 기독교 실업가 겸 자선 사업가로 1889년 한국에서 사역하던 캐나다 출신 미국 북장로교 의료선교사 에비슨(O.R. Avison)이 휴가차 뉴욕에서 행한 '국제선교사대회'에 참석한 후 한국 의료선교의 꿈을 품었다. 그 후 한국 의료기관의 현대화에 참여하고자 병원 설립비로 1만 5천 불, 선교부에 1만 불을 기증하여 세브란스 병원이 설립되는 데 공헌하였다.

12월 2일

필라델피아 북부 티오가(Tioga) 장로교회에서 강연 후 담임 목사 던(Dunn) 박사에게 왕복 요금을 제외하고 10불을 받음.

12월 4일

금요일, 뉴저지 주 트렌턴의 제5장로교회에서 환등기로 사진 자료를 보여 주며 강연을 함. 하지(Richard M. Hodge)⁴⁸⁾ 교수의 형⁴⁹⁾이 그 교회 목사님. 직접 환등기를 조작해 주심.

12월 6일

주일, 뉴저지 주 트렌턴 제5장로교회 주일학교 모임에서 강연 후 교통비로 1불을 받음.

12월 9일

수요일, 필라델피아의 독일인 거주지 저먼타운(Germantown)의 제2장로교회에서 환등기를 이용해 강연을 하고 17불 65센트를 받음. 밤새 흥겨운 시간을 가짐. 담임 목사는 헨리 리(Henry Lee).

12월 14일

주일 오전, 올리벳(Olivet) 장로교회에서 설교 후 하비 클래어(Harvy Klaer) 목사님으로부터 5불 50센트를 받음.

주일 저녁, 배스(Bath) 장로교회에서 설교 후 다우니(Seth Russell Downie) 목사님에게 6불 50센트를 받음.

12월 18일

금요일, 프린스턴 신학교 2학년 교실에서 설교.

48) 유니온 신학대학(Union Theological Seminary)의 교수였다.

49) Samuel C. Hodge.

CHAPTER 1

1909년

1월 3일

주일, 펜실베이니아 주 야드빌(Yardville)의 야드빌 장로교회 주일학교와 저녁 예배 시간에 강연 후 목회자의 정규 급료로 5불을 받음.

1월 6일

프린스턴의 감리교회 연합기도회에서 강연. 세 교회가 참석.

1월 7일

사우스 스트리트 장로교회에서 금요일 예배 시간에 환등기를 이용한 강연을 함. 알렉산더 매콜(Alexander McCall) 목사님이 모금한 19불 41센트를 주심.

1월 10일

필라델피아의 와나메이커(Wanamaker) 씨가 베다니 장로교회 주일학교에 나를 소개해 줌. 주일 저녁, 로버트 목사의 교회인 템플 장로교회에서 강연 후 나중에 11불을 받음.

1월 21일

프린스턴 신학교 캘빈클럽(Calvin Club)⁵⁰에서 밤을 새움. 일종의 '휴가 체험(Holiday experience)'.

50) 프린스턴 신학교의 캘빈 클럽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미국 대학에 설립된 사교 클럽의 일종인 식사 모임(eating club)으로서, 여기에서 시와 소설 발표, 공연, 기타 여흥이 이루어졌다.

1월 24일

남서부장로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서 강연. 맥헨리(McHenry) 목사님이 나중에 5불을 보내음.

애빙턴(Abbingdon) 장로교회 주일 저녁 예배에서 강연. 윌리엄스 목사님이 3불을 주심.

2월 26일

화요일 밤, 프린스턴 신학교 YMCA에서 '한국에서 온 전갈(A Message from Korea)'이라는 주제로 연설.

2월 28일

주일날, 트렌턴 정션(Trenton Junction) 장로교회의 랜더스(Landers) 씨를 위한 저녁 예배에서 강연을 하고 5불 30센트를 받음.

3월 11일

수요일, 서부 필라델피아 세인트폴 장로교회(St. Paul's Presbyterian Church)에서 강연. 담임 목사는 밀러 박사. 루이스(Lewis) 씨가 영접을 했고 10불을 받음.

3월 21일

주일 오전, 프린스턴 신학교 하지 홀(Hodge Hall)에서 기도 모임. 한국에 관한 강연을 함.

3월 24일

수요일, 펜실베이니아 주 미플린(Mifflin)의 여성해외선교대회에서 강연.

3월 25일

어제와 같은 곳에서 짧은 연설. 로리(Lowrie) 양은 펜실베이니아 용사들의 사역회(Warriorsmark) 회장.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 힐스(Hills) 박사가 대회를 주관.

3월 28일

주일 오후 4시 30분, 펜실베이니아 브린 모어(Bryn Mawr)의 브린 모어 대학 채플에서 YMCA 회원들에게 강연. 회장인 도우스(Deaws) 양이 선물로 5불을 줌.

주일 저녁, 필라델피아 17번가와 스프루스(Spruce)가에 소재한 제10장로교회 독노회 23주년 기념식에서 강연. 브라운슨(Marcus A. Brownson) 박사가 담임 목사. 청중들이 꽃다발과 경비를 포함하여 20불을 줌.

4월 4일

오전 예배 시간에 강연. 한국에서의 사역을 위한 모금도 개최. 강연 후 600불이 모금되길 바라며 한국을 위한 정기 기부용 카드 배부. 펜실베이니아 주 독일인 거주지 저먼타운(Germantown)의 마켓스퀘어 장로교회에서 강연 후 헤즐랩(Herbert Hezlep) 목사에게 경비를 제외하고 5불을 받음.

주일 저녁에 펜실베이니아 주 저먼타운의 웨스트사이드 장로교회에서 강연. 리(Potter Lee) 목사님이 7불 50센트를 주심.

4월 7일

수요일, 뉴저지 주 트렌턴 제일장로교회 여성선교회에서 강연. 회장인 맥킬베인(McIlvaine) 양이 6불 94센트를 줌.

4월 11일

부활절 주일 오전엔 워싱턴 DC의 펙 메모리얼 채플(Peck Memorial Chapel)에서 강연. 헨리(선교사로 중국에 갈 예정) 씨가 담임 목사.

저녁엔 콩코드(Concord) 감리교회에서 강연. 담임 목사는 메릿 얼(Merritt Earl).

4월 14일

수요일, 펜실베이니아 주 랑혼(Langhorne)의 랑혼 장로교회에서 강연. 패스트(Past) 목사님이 8불을 주심.

4월 24일

주일 저녁, 뉴저지 주 프린스턴 제2장로교회 독노회에서 강연.

5월 11일

뉴저지 주 트렌턴 웨스트스테이트 321. 스트라이커(Stryker) 부인 자택에서의 거실 모임(Parlor Meeting)에서 강연. 맥킬베인(McIlvaine) 양 대접함.

5월 12일

수요일, 델라웨어 주 윌밍턴(Wilmington) 서부장로교회에서 강연. 엘리스(Alex. Alison) 목사를 위해 환등기를 사용하며 연설. 교통비가 없이 14불을 받았으나 대접을 잘 받음.

5월 16일

주일 오전, 뉴저지 주 트렌턴의 제일장로교회 주일학교에서 강연. 강연료로 맥킬베인 양이 50불을 줌.

저녁엔 프린스턴 학생이었던 미드키프(Midkiff)를 위해 야드빌에서 강연.

5월 31일

배럿(Barret) 여사의 요청으로 뉴저지 주 애즈버리 파크(Asbury Park)의 제일회중교회 플로렌스 크리텐턴(Florence Crittenton)⁵¹⁾ 모임에서 연설.

6월 2일

펜실베이니아 주 클라리온(Clarion)의 여성해외선교회에서 환등기를 이용하여 강연. 경비 포함 51불 25센트를 받았고 후에 10불을 더 받음.

51) 12~21세 어린 여성들의 임신과 육아를 돕는 기구이다.

6월 10일

뉴저지 주 모리스빌(Morrisville) 장로교회에서 강연. 버지스(Burgess) 여사가 회장, 페리(Ferry) 씨가 담임 목사. 2불을 받음.

6월 16일

수요일 저녁, 뉴저지 주 프린스턴 제2장로교회에서 강연. 담임은 캠벨 목사.

7월 12일

하버드 여름학교 연례 모임에서 강연.

9월 22일

수요일, 뉴저지 주 프린스턴 감리교회에서 강연.

10월 25일

프린스턴 신학교의 주일 아침 선교사 모임. 하지홀(Hodge Hall) 응접실에서 모임을 주도함.

11월 3일

수요일, 뉴저지 주 트렌턴 제일장로교회(오후 모임)에서 환등기로 강연을 하고 12불을 받음.

저녁엔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에서 강연. 롤린슨(Rollinson) 씨가 회장. 경비로 4불 받음.

11월 7일

서부 필라델피아 제4장로교회로 감.

오전엔 청년 모임, 주일학교와 초등부 모임. 오후에는 대규모 집회가 있었음.

도일(Doyle) 목사 저녁 예배 집전. 커닝엄(Cunningham) 씨가 주관을 했고 보언(Bowen) 여사가 접대. 15불을 받음.

11월 14일

주일 오전, 뉴저지 주 프린스턴 제2장로교회 주일학교에서 강연. 바이어(Buyer) 씨가 회장.

11월 17일

뉴저지 주 프린스턴 제2장로교회 수요일 기도 모임에 참석. 캠벨 목사가 담임.

11월 23일

뉴저지 주 램버트빌(Lambertville)의 램버트빌 장로교회 기도 모임과 선교단특별연합회(Special Union Meeting of Mission Band)에서 강연. 스완(Swan) 부인이 밤새 대접을 함. 맥커빈(McKubbin) 목사가 15불을 모금해 줌.

12월 2일

목요일 저녁, 뉴저지 주 프린스턴에서 선교반을 주관하며 정치 상황에 관하여 강연을 함.

12월 20일

주일 저녁, 트렌턴 체스넛 애비뉴의 루터 교회에서 강연.

12월 21일

트렌턴 제5장로교회 소년부에서 강연. 하지 목사가 교통비로 1불을 줌.

CHAPTER 1

1910년

1월 5일

필라델피아 서부 세인트 폴 장로교회에서 강연. 밀러 박사가 담임 목사. 루이스(Lewis)가 대접을 했고 10불을 줌.

1월 9일

클린턴 애비뉴의 침례교회 성경학교와 저녁 예배 시간에 강연. 콩클린(Conklin) 목사님이 대접을 했고 교통비로 3불을 주심.

1월 10일

프린스턴 제일장로교회 여성선교부에서 강연.

1월 27일

트렌턴 제2장로교회에서 강연을 했다. 부쉬(Albert C. Busch) 목사님이 경비로 2불을 주심.

1월 30일

주일, 교회 두 곳에서 강연. 뉴저지 주 콜럼버스는 맥마틴(McMartin) 목사님이 담임.

2월 10일

수요일, 뉴저지 주 모리스빌(Morrisville) 장로교회 선교사 모임에서 강연. 세이리(Sairie) 목사님이 담임.

2월 20일

뉴저지 주 알렌타운(Allentown)의 장로교회에서 오전 및 저녁 주일 예배 시간에 강연. 조지 스완(George Swan) 목사님이 담임. 교통비 없이 15불을 받음.

2월 23일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 수여.

3월 6일

주일, 이스트 트렌턴(East Trenton) 장로교회 저녁 예배에서 강연. 뉴먼(Fred B. Newman) 목사님이 담임.

3월 13일

뉴저지 주 브리지턴(Bridgeton)의 제2장로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강연을 하고 5불을 받음. 비들(Beadle) 목사님이 담임.

오후엔 주일학교에서 강연.

저녁엔 뉴저지 주 브리지턴(Bridgeton)의 서부장로교회에서 환등기를 사용하여 강연.

에윈(Joseph Lyons Ewing) 목사님이 담임이고, 교회는 커머스 가와 자일즈 가에 소재.

3월 20일

주일 저녁, 트렌턴의 필그림 채플(Pilgrim Chapel)에서 강연. 미드키프(Midkiff) 목사님이 경비로 1불 50센트를 줌.

3월 25일

금요일, 뉴저지 주 트렌턴 마켓 가 403에 소재한 브렐리(Angie Brearly) 양의 집에서 선교 연구반을 대상으로 강연. 제2장로교회 부쉬(Busch) 목사님이 경비로 2불을 줌.

4월 6일

수요일, 프린스턴 제1장로교회. 비치(Beach) 박사가 담임. 제2장로교회와 연합하여 환등기로 강연. 20불을 받음.

4월 10일

주일, 장로교회에서 오전과 저녁에 설교를 함. 존스(Jones) 목사님이 10불을 줌.

4월 17일

제2장로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서 설교. 제1장로교회에서 에드몬슨(John Blair Edmondson) 목사님을 초대.

저녁 모금액이 21불 77센트. 오후엔 뉴저지 주 벨비디어(Belvidere) 제1장로교회에서 강연. 브루언(Bruen) 목사님이 담임이고 그의 아들⁵²⁾은 대구에 있음.

4월 23일

토요일 저녁, 뉴욕 8번 애비뉴의 선교회 주관. 레이(Ray) 양이 회장.

4월 24일

메트로폴리탄 빌딩 앞 공터에서 레이 회장을 위해 강연. 뉴욕 국제성경클럽의 거실 모임에 참석. YMCA는 뉴욕 W 23번가, 24번가와 9번 애비뉴 부근 감리교 엠피스 청년회에서 교통비로 2불 50센트를 받음.

4월 25일

저먼타운(Germantown) 제1장로교회 특별모임에서 강연. 제닝(Jenning) 목사님에게 10불을 받음.

52) 생몰은 1874-1955년. Henry Munro Bruen, 한국의 대구 지역에서 선교 활동에 종사하였다.

5월 4일

수요일, 합동(Consolidated) 장로교회에서 강연. 셰퍼드(Sheppard) 목사님이 담임.

5월 6일

뉴저지 주 트랜턴의 장로교 독노회에서 강연.

5월 22일

주일, 브룩랜드(Brookland) 감리교회 파워스(Powers) 목사님을 위해 강연. 저녁엔 워싱턴 DC의 서부장로교회에서 강연.

세계주일학교대회(World's Sunday School Convention)에 참가할 예정.

6월 17일

제3장로교회에서 강연.

6월 19일

주일, 메릴랜드 주 포코모크(Pocomoke) 시티⁵³⁾의 록 크릭(Rock Creek) 교회에서 오전엔 주일학교, 저녁엔 예배 시간에 강연. 맥컬로우(W. J. McCullough) 목사님이 10불을 줌.

6월 29일

뉴욕 주 스테튼 아일랜드 프린세스 베이의 연합교회(Union Church)에서 강연. 필립 랜더스(Philip Landes) 목사님이 11불을 모금해 줌.

7월 8일

수요일, 뉴저지 주 뉴 브런즈윅(New Brunswick) 제1장로교회에서 강연. 녹스(W.W. Knox) 목사님에게 7불을 받음.

53) 미국 메릴랜드 주 워체스터 카운티에 있는 도시이다.

7월 10일

필라델피아의 호프만(Hoffman) 목사님 교회에서 오전 예배 시간에 강연. 저녁엔 하이 애비뉴 146 라이트하우스(Lighthouse)⁵⁴에서 강연.

7월 11일, 12일, 13일

3일간 소년들을 대상으로 강연.

7월 17일

포코메이크(Pokomake)의 장로교회 주일학교에서 강연. 주일 저녁에는 머리(Murry) 목사님의 감리교회에서 강연. 존스(George H. Jones)⁵⁵ 박사님도 참석. 오후에는 맥컬로우(McCullough) 카운티 교회, 저녁엔 장로교회에서 강연.

7월 18일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 취득.⁵⁶

9월 3일

뉴욕을 출발, 발틱(S. S. Baltic)호에 몸을 싣고 리버풀로 향함. 고국으로 가는 길에 유럽 경유.

54) 1893년 다문화 공동체의 정착을 돕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55) 생물은 1867~1919년. 한국에서 선교 활동에 종사한 경력의 지닌 감리교 선교사. 『The Korean Repository(韓國彙報)』(1892~1898)와 『The Korea Review(韓國評論)』(1901~1906)의 발행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56)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역사학과 국제법, 정치학을 전공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박사 학위 논문 제목은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미국의 영향하에 성립된 국제법상의 중립)이다. 이 논문은 1912년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간행되었다.

11월 27일

주일, 서울 YMCA 건물에서 열린 주일 오후 이상재(李商在)⁵⁷의 성경반에서 세 남자가 예수님을 영접.

12월 11일

성탄절 동안 세례를 받으려는 스물두 명의 남성이 이름과 주소를 남김. 이들의 선호도에 따라 11개의 교회가 거론됨.

12월 12일

세례를 받기로 결정한 YMCA 주간학교 학생들의 이름을 접수받음.

(1910년 10월부터 1912년 3월까지 한국에서 체류).

57) 생물은 1850~1927년. 주미한국공사관 1등서기관, 학부 및 법무 참사관, 법무 참사관, 중추원 1등 의관, 의정부 총무국장, 독립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1898년 독립협회운동으로 일시 구금되고, 1902년 개혁당 사건으로 한성감옥에서 3년간 복역할 때 이승만의 전도로 기독교를 수용하였고, 러일전쟁 후 특사로 출옥하여 황성기독교청년회(YMCA) 종교부의 총무 및 교육부장을 맡았다. 3·1운동 때 민족대표로 참여교섭을 받았으나 참가를 거부하고, 1921년 조선교육협회 회장으로서 북경에서 열린 만국기독교청년연합대회에 조선 대표로 참석하였다. 1927년 신간회 초대 회장에 추대되었고, 이승만이 스승으로 받은 인물이자 국내 이승만 지지 세력의 일원이다.

CHAPTER 1

1912년

(3월 26일 여행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의 기록. 나는 4년마다 개최되는 세계감리교대회의 평신도 대표로 선정됨).

3월 26일

오전 9시 35분에 도쿄(東京)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가기 위해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싣고 서울을 출발했다.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東京朝鮮基督教青年會)로부터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개최되는 학생대회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을 받았다. 도쿄에 머물다 미니아폴리스에서 개최되는 감리교 총회(General Conference of the M. E. Church)에 참석하기 위해 4월 6일에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서울을 출발한 열차는 오후 7시, 부산에 도착했다. 우리 일행은 8시에 메고카마루(Megoka Maru)호에 승선했다.

시모노세키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아침 8시. 9시 30분에 시모노세키를 출발했다. 맹렬한 바람과 함께 휘몰아치는 빗줄기에 객실마다 승객들로 가득한 작은 배 안은 훨씬 더 축축하게 느껴졌다.

3월 28일

오전 12시 30분, 교토(京都)에 도착했다. 역에서 일본 기독교청년회(YMCA) 회원 두 사람을 만났다. 그중 한 사람인 뉴욕 국제부 펠프스(G. L. Phelps) 총무가 내게 안부를 보내왔다. 도쿄로 가는 한국인 학생과 그의 가족은 나와 함께 일본 협회에서 나를 위해 예약해 준 호텔로 갔다.

오늘은 목사님들과 교토 YMCA 회원들이 베풀어 준 관광과 여흥으로 하루 종일 즐겁게 보냈다. 저녁 8시 20분에 도쿄를 향해 교토를 출발했다.

3월 29일

밤 9시, 도쿄 신바시(新橋) 역에 도착했다. 역에는 한국인 학생 25명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일본식 호텔[芳館]에서 밤을 보냈다. 전날 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마중을 나왔으나 실망하여 돌아갔다고 한다. 도쿄에 도착했을 땐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다. 호텔은 도쿄의 조선기독교청년회관 부근에 있었다. 이 건물에서 일본협회가 주관하는 환영회가 열렸고, 학생 67이 참석했다. 백남훈(白南薰)⁵⁸이 사회를 보았고 조용은(趙鏞殷)⁵⁹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어 길렛(Gillet) 여사와 크램(Cram) 여사 그리고 내가 답사를 했다.

3월 30일

일행은 도쿄에서 약 60마일(97km) 떨어진 가마쿠라[鎌倉]⁶⁰로 갔다. 30명이 차를 한 대 빌렸다. 대회는 의장인 S. R. 박사⁶¹의 연설과 함께 30일 오후 7시에 개회가 공식적으로 선언되었다.

4월 5일 저녁 9시 30분, 대회가 폐막되었다. 다음 날 오전 8시에 30명의 참가자가 도쿄를 향해 가마쿠라를 출발했다. 신바시 역에서 도쿄 친목회 대표들을 만났다. 그들은 회원 중 24명이 마련한 연회가 준비되어 있는 호텔로 우리를 안내했다. 우리는 호텔 앞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며 함께 사진을 찍었다. 연회에서는 친목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연설들이 이어졌다.

58) 생물은 1885-1967년. 경신학교와 보성학교 청강생을 거쳐 일본에 유학하여 1913년 메이지학원, 1917년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 졸업하였다. 대학 재학 중 학생운동과 독립운동을 주도하며 재일조선유학생학우회 회장에 중임하였고, 1917년부터 재일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 총무를 6년 동안 맡았으며, 1919년 2·8독립운동의 실무를 전담하였다. 1923년 귀국하여 광복 전까지 각지 학교의 교장을 맡아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고, 일제 말기까지 창씨개명을 끝까지 거부하였으며, 광복 후 한민당에 가담하였다. 1955년 민주당 발족 이래 최고 위원으로 야당 육성에 주력하였다.

59) 조소양(趙素昂). 생물은 1887-1958년. 일본 메이지대 법대 졸업 후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벌였다. 3·1운동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인 임시헌장과 국회법에 해당되는 임시 의정원법을 기초하고,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의 비밀통신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해방 때까지 임시의정원 의장, 내무총장, 외무부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의 삼균주의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통해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균등 생활을 이루며, 세계일가를 추구한다는 이론 체계이다. 해방 이후 단정 수립에 반대하며 남북협상에 참가하는 등 조국의 통일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950년 5·30선거에 출마하여 전국 최다 득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나 1950년 9월에 남북되어 1958년 서거하였다.

60) 일본 가나가와 현[神奈川縣] 미우라 반도에 위치한 도시. 1889년 철도가 개통되면서 도쿄에 가깝고 기후가 온난하다는 이점 때문에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았다.

61) Dr. Syngman Rhee(이승만)를 의미한다.

연회를 마치기 전에 나는 오후 2시에 거행되는 아오야마 학원[靑山學院]⁶²⁾ 혼다(Honda)⁶³⁾ 감독의 장례식에 참석해야 했다. 장례식 후 일행은 최상호의 집에서 식사를 했다. 그리고 도쿄 YMCA로 왔다.

저녁 7시, 특별집회에는 218명의 한국인 학생이 참석했고, 크램 여사와 길렛 여사가 각자 짧은 연설을 했다. 나는 ‘한국 학생들의 기대(Expectations from Korean Students)’란 제목의 연설을 했다. 즉석에서 도쿄 조선 YMCA 건축 기금으로 1,362엔 50센이 모금되었다.

오늘 모임에서 발표된 사실에 따르면 YMCA 본부 국제부(International Committee)에서 2만 엔을 보냈고, 다른 기금으로 1,056엔, 건물 매매 대금 370엔, 수보(subo) 50개 판매금 355엔, 합계 2만 4,976엔이 마련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토지대금 1만 5,450엔, 등기비 1엔, 건축비 1만 9,000엔, 총 3만 4,450엔이 필요하니 현재 1만 474엔이 부족하다.

1,362엔 50센의 목돈이 모이도록 기부에 참여한 학생 수가 167명이나 되었다. 이는 1인당 평균 8엔 50센씩 기부했음을 의미한다. 4월 9일은 박태규가 협회에 와서 건축 기금으로 60엔을 내놓겠다고 맹세를 했다. 정 선생이라는 사람도 5엔을 기부했고, 또 다른 한 명도 2엔 50센을 기부했다.

주일, 학생복음성가대(Students' Gospel Band) 결성을 완료하고 노정일(盧正一)⁶⁴⁾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전 친목회 회장 정세윤(鄭世胤)⁶⁵⁾과 다른 학생 한 명도 자진해서 성가대에 가입했다.

4월 10일 오전 8시 40분, 기차로 도쿄를 떠나 오전 11시에 요코하마 항에서 탐바마루(Tamba Maru)호에 승선했다. 내 자리는 일등실 10번 침대 위 칸.

62) 1874년 선교사 소퍼(Julius Soper) 박사가 세운 영어 교육 중심의 경교학사(耕敎學舍, 1881년 東京英學校로 개명)와 1879년 설립된 미회신학교(美會神學校)가 합쳐 1894년 교명을 아오야마 학원(靑山學院)으로 바꿨다.

63) 1912년 사망. 일본 개신교의 지도자로서 일본 감리교회 초대 감독이다. 개신교연맹 초대회장, 세계학생 기독교연맹 부의장 등을 역임하였다.

64) 1898년생. 일본 정산학원 중학부 졸업하고 도미하여 웨슬리언 대학, 콜롬비아 대학을 졸업하고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재직 중 다시 도미하여 1927년 네브라스카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22년 중앙기독교청년회 이사, 조선청년연합회 평민대학 강사를 역임하였고, 1924년 민중 본위의 경성자유대학 설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65) 1910년 동경유학생의 친목 단체인 삼한구락부 초대회장을 지냈으며, 1912년 동경유학생 단체인 학우회를 조직하여 초대 회장을 맡았다. 1914년 도쿄 자혜의원 의학전문학교 졸업하고, 1920년 조선물산장려회 발기인, 1928년 평안남도 평의원회 평의원, 1931년 평양사회단체 대표자, 1932년 평양부 의원을 역임하였다.

오후 2시에 요코하마 항을 출발했다. 김정식(金貞植)⁶⁶⁾, 최상호, 민충식(閔忠植)⁶⁷⁾이 나를 전송하려고 승선했다.

1912년 4월 7일 주보

일본 도쿄.

한국 학생들이 YMCA 건물에서 크램(Cram) 목사에게 세례를 받음.

세례자 명단은 다른 곳에 적어 둠.

1912년 4월 5일, 일본 가마쿠라에 학생 성가대가 조직됨.

창단 회원은 26명. 명단 참조.⁶⁸⁾

4월 17일

수요일, 날짜 변경선을 지났다. 그리하여 또다시 수요일이 되었다.

3일 동안 심한 폭풍을 만났으나 수요일을 연거푸 두 번 맞이하는 등 향해 내내 즐거웠다. 보이는 것이라곤 바다밖에 없는 망망대해를 15일간이나 항해를 하여 24일 아침에야 비로소 일본으로 돌아가는 가마쿠라마루(鎌倉丸)를 보았다. 그리고 나서 몬트리올로 가던 중 4월 14일에 화이트 스타 선박회사 소속의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했다는 사고 소식을 무선으로 들었다. 우연히 인근 해역을 지나가던 증기선이 800여 명을 구출했을 뿐 승객(2,400명) 대부분이 익사했다고 한다.⁶⁹⁾

밤 11시경에 캐나다 밴쿠버의 일부분인 육지를 보았다. 오전 6시, 빅토리아 항에 닿을 내렸다.

66) 생몰은 1862-1937년. 대한제국기에 경무관으로서 독립협회운동을 지원하였다. 1902년 개혁당 사건에 연루되어 한성감옥에 투옥되었고, 이때 이승만의 전도에 따라 기독교를 수용하였다. 1904년 3월 출옥 후 옥중 동지들과 연동교회에 입교하고, 황성기독교청년회에 가입하여 초대 한인 총무가 되었다. 1906년 일본 도쿄에 파송되어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를 창설하고 초대 총무에 오르고, 성경연구반을 운영하였으며, 우치무라 간조와 교분을 쌓고 무교회주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1914년 귀국 후 YMCA운동에 종사하였다.

67) 생몰은 1890-1978년. 경신학교를 거쳐 일본 메이지 대학 경제학과를 수료하였다. 1912년 도쿄에서 독립운동 지사들과 교류하며 항일 독립운동에 가담하였고, 1913년 노령 연해주로 이주하여 이상실, 이동녕 밑에서 동포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3·1운동 이후 상하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임시의정원 의원으로서 독립운동을 수행하였다.

68) 일기 원문에 성가대 창단 명단이 빠져 있다.

69) 타이타닉호는 승객과 승무원 2,224명이 승선했고 1,502명이 사망했다.

4월 25일

검역소 관리들이 승선하여 승객들을 검사했다. 오전 9시 30분에 서너 시간 하선하기로 하였다. 해리스(Merriman C. Harris)⁷⁰⁾ 감독과 나는 시내를 걸어 다니다 편지를 부치고 엠프레스(Empress) 호텔에서 점심을 먹었다.

오후 5시, 빅토리아 항을 떠나 저녁 7시에 타운센드(Townsend) 항⁷¹⁾에 도착했다. 증기선이 검역소 관리들을 향해 고동을 울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우리는 할 수 없이 밤새도록 항구에 정박해 있었다.

4월 26일

오전 6시에 검역을 마치고 6시 30분, 시애틀을 향해 출발했다. 검사가 오래 걸려 약 30분 동안 기다려야 했다.

오전 10시에 시애틀에 도착했다. 우리는 YMCA 건물에 방을 예약했고, 홀(Ernest F. Hall) 선생도 그곳에 예약되어 있었다. 그는 여성해외선교부 모임에서 강연을 했고 나는 제일장로교회 오찬에 초대를 받았다. 여성 200여 명이 참석한 오찬 모임에서 연설을 했다.

예배가 끝나자 우리는 일본 교회 기공식에 참석했다.

부두에서 이호우(李昊宇)를 만나 박(Bak) 여사와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그는 워싱턴 주 시애틀 킹 스트리트 665에서 살고 있다.

오후 3시 30분, 제일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레너드(Leonard) 박사가 대학 교정, 숲, 호수를 따라 우리를 차로 워싱턴과 유니온 역을 구경시켜 주었다. 토요일 저녁에 떠나려고 했으나 주일 오전 예배를 보고 가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70) 생몰은 1846-1921년. 감리교 동북아시아 책임자였으며, 1873~1886년 일본에서, 1886년~1904년 미국 서부 연안에서 약 30년간 일본인들에게 선교 활동 전개하였다. 1904~1908년 한·일 관리감독, 1908~1916년 일본 명예감독 및 한국 관리감독을 역임하였으며, 1905년 내한하여 1916년 은퇴하기까지 한·일 양국을 오가며 활동했다. 친일적 성향이 강하여 일제의 한국통치에 순응하고,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일본인 고위 관료들과의 잦은 접촉을 가졌으며, 일본의 한국병탄을 '하느님의 뜻'이라고 하여 한국인들의 지탄을 받았다. 이승만은 해리스 감독의 도움으로 출국하여 일제의 체포를 피했다.

71) 미국 서북부 워싱턴 주에 있는 항구도시이다.

4월 27일

주일 오전 9시 30분, 주일 학교에서 강연을 했다. 신도 1,000여 명이 모였다. 해리스 감독과 나는 일본어반 등 여러 반 앞에서 강연을 했다. 오전 11시에 감독과 함께 오전 예배를 집전했다. 약 1,500명이 참석했다. 예배가 끝난 후 레너드 박사 사택에서 식사를 했다.

저녁 7시, 북태평양 철도로 미니애폴리스를 향해 출발했다.

5월 1일

오전 7시 30분, 미니애폴리스에 도착했다. 하버드 체임버스(Harvard Chambers)에 노블(William A. Noble)⁷²⁾ 박사와 나를 위해 숙소가 예약이 되어 있었다. 오전 10시에 대회가 개막되었다. 감리교총회는 5월 29일까지 계속된다.

5월 11일

토요일 미네소타 주 위노나(Winona)로 갔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약 115마일 떨어진 미시시피 강 기슭에 위치한 아름다운 고장이었다. 제일장로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집전할 해리스 감독과 함께 갔다.

다음 날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학교에서 강연을 했고, 해리스 감독과 함께 저녁 예배와 엠틀청년회에서 강연을 했다. 13일 월요일, 우리는 미니애폴리스로 돌아왔다.

5월 25일

약 3마일 정도 떨어진 미네소타 주 노스필드(Northfield) 부근의 던대(Dundas)라고 불리는 작은 곳에 소재한 교회 두 곳에서 26일 주일에 젊은 영국인 목사 로버츠(W. Roberts)를 위해 설교를 하라는 초대를 받았다.

미니애폴리스로 돌아와 주일 저녁에는 어린이복음선교회(Children's Gospel Mission)에서 설교를 했다.

72) 생몰은 1866-1945년. 한국명은 노보(魯普乙)이다. 1892년 미 감리교 선교사로 내한하여 40여 년간 배재학당 교사, 평양·수원 등지의 감리사로 활동하였다. 이승만이 배재학당에서 맨 처음 만난 외국인 선교사이자 영어를 처음 가르쳐준 선교사이다. 한국 감리교회가 일제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중국 북부 협의회와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이승만과 노블은 국제감리교 4년총회에서 사정위원회를 제외한 16개 상설 분과위원회의 한국 대표로 이름이 올라 있었다.

5월 29일

총회 폐막. 해리스 감독과 함께 노스웨스턴 철도(Northwestern R. R.)로 시카고를 향해 미니아폴리스를 떠났다. 저녁 7시 55분에 역을 출발했다.

미니아폴리스 주 클리프턴(Clifton) 애비뉴의 앤드루스(A. C. Andrews) 선생 딸과 테니스를 쳤고, 앤드루스 양이 나를 역까지 차로 데려다 주었다.

5월 30일

오전 9시, 시카고 도착. 스타크스(Lizzie G. Starks)⁷³⁾ 부인이 노스웨스턴 역에 마중을 나왔다. 첫날밤은 시카고 남부(S. Chicago)에서 보냈고 나머지 3일 밤은 시카고에서 보냈다.

6월 3일 월요일 오후 3시 15분, 펜실베이니아행 열차로 필라델피아를 향해 시카고를 출발했다.

6월 4일

화요일 오후 5시 49분, 필라델피아에 도착하여 15번 가(街)와 아치 가 사이에 위치한 YMCA에 투숙했다.

6월 5일

제시 윌슨(Jessie Wilson)⁷⁴⁾ 양과 라이트하우스(Lighthouse)에서 모임을 가졌다.

6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필라델피아를 떠나 메릴랜드 주 포코모크 시에 도착했다. 맥컬로우(W. J. McCullough) 선생이 역에 마중을 나왔다.

73) 미국 오레건 주 포틀랜드 출신으로 1905년 뉴저지 주 오션 글로브(Ocean Grove)에서 이승만과 처음 만난 후 이승만의 학업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였다. 1913년경 하와이에서 감리교단이 운영하는 여선교회와 한인여학원의 교사를 지냈다. 선교 활동의 일환으로 자원 봉사를 하며 이승만의 교육 활동을 도왔고, 1916년경 이승만에 이어 한인기독교학원 교장을 맡았다. 스타크스 여사의 여동생 케이스(Effie Keith)도 1918년 뉴저지 주 Asbury Parks에서 하와이로 건너와 언니의 교육 활동을 도왔다.

74) 생몰은 1887-1933년. 정식 이름은 Jessie Wilson Sayre Papers. 미국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T. Woodrow Wilson)의 둘째 딸로 프린스턴 대학 시절에 이승만은 제시 윌슨과 연애 감정에 빠진 일이 있을 만큼 친하게 지냈다. 한국에 건너가 YWCA 활동을 벌이려던 생각을 갖고 있었으며,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다가 미국 YWCA 전국위원회에서 근무하였다.

주일 오전 장로교회에서 강연을 한 후, 17일 월요일 오후 1시 40분, 필라델피아로 떠날 때까지 휴식을 취했다.

6월 17일

월요일 저녁 8시 10분, 프린스턴에 도착하여 알렉산더홀의 게스트 룸에서 잤다. 다음 날 아침 A호실에 여장을 풀었다.

6월 19일

웨스트(Andrew F. West)⁷⁵⁾ 학장님이 나의 박사논문 「미국의 영향하에 성립된 (국제법상) 중립(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50부를 학교 경비로 인쇄해 주셨다.

오후 4시 50분에 프린스턴을 출발하여 시 거트(Sea Girt)⁷⁶⁾로 향했다. 오후 6시 44분, 그곳에 도착할 예정이다. 왕복 1불 80센트였다.

뉴저지 주 시 거트의 주지사 별장(cottage)⁷⁷⁾에서 모임을 가졌다(우드로 윌슨⁷⁸⁾이 당시 주지사였다).

6월 20일

화요일 제시 윌슨 양과 재회.

6월 21일

오전 7시 44분, 시 거트를 출발하여 오전 8시 45분 프린스턴 도착.

오전 11시 11분, 뉴욕을 경유하여 노스필드(Northfield)로 가기 위해 프린스턴 출발.

75) 생몰은 1853-1943년. 이승만이 프린스턴 대학에 재학할 당시의 대학원장으로, 1908년 겨울, 이승만은 서울에서 사귀었던 북장로교 선교사 홀(Ernest F. Hall)을 만나 함께 프린스턴 대학을 방문하여 웨스트 대학원장과 입학에 협의하였다.

76) 미국 뉴저지 주 먼마우스 카운티(Monmouth County) 소속의 자치구이다.

77) 주지사의 여름 별장.

78) 생몰은 1856-1924년. 미국 제28대 대통령으로 재임은 1913~1921년이고, 프린스턴대 학사, 존스홉킨스대 정치학 박사, 1890년부터 프린스턴대, 웨슬리언대 교수를 거쳐 1902년 프린스턴 대학 총장에 올랐다. 1911년 뉴저지 주 주지사 재임 중에 민주당 후보로 추대되어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4년 후엔 재임에 성공하였다. 1918년 1월 민족자결주의를 내걸고 14개 평화 원칙을 발표하였고, 파리강화회의에서 국제연맹 창설을 주도했으나 미국 상원이 베르사유 조약의 비준을 거부해 미국은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못하였다. 1919년 노벨평화상 수상하였다.

오후 1시 뉴욕 도착. 그날 밤은 뉴욕 23번가 YMCA에서 보냄.

6월 22일

토요일 오전 9시 15분, 그랜드 센트럴 디포(Grand Central Depot) 역에서 노스필드를 향해 뉴욕을 출발.

오후 2시에 노스필드에 도착. 굴드 홀(Gould Hall) 211호에 투숙.

6월 29일

오후 1시 35분, 노드필드를 떠나 오후 3시에 매사추세츠 주 스프링필드에 도착. YMCA 트레이닝 스쿨에 와 있던 조남복(趙南復)⁷⁹⁾ 선생 방문. 오후 5시 55분에 우스터(Worcester)를 향해 출발.

6월 30일

오전 7시, 뉴욕에 도착하여 오후 3시에 애즈버리 파크(Asbury Park)를 향해 뉴욕 출발. 오후 5시에 도착. 주일, 저녁에는 시 거트의 윌슨 가족을 방문.

7월 1일

월요일 오후 1시 39분, 애즈버리를 출발하여 오후 2시 30분에 프린스턴 역에 도착. 오후 4시 14분까지 연결 열차 없음. 선로를 따라 프린스턴 신학교까지 걸어감.

7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 33분, 프린스턴을 출발하여 오전 11시 30분에 뉴저지 주 벨마(Belmar)에 도착. 3번 애비뉴와 B 스트리트의 우드바인 코티지(Woodbine Cottage)에 들렀다. 제시 윌슨 양과 시 거트를 다시 방문.

79) 1905년 을사늑약 전후 황성기독교청년회에서 활동하였다.

7월 16일

월요일 오전 8시 50분, 프린스턴을 향해 벨마(Belmar) 출발.

7월 20일

토요일, 주일날 김장호(金長浩)⁸⁰⁾를 만나려고 필라델피아를 향해 프린스턴 출발. 오후 5시, 브로드 스트리트(Broad St) 역 도착.

7월 22일

월요일 오후 3시 30분, 뉴저지 주 브리지턴(Bridgeton)을 향해 출발했으나 그날 밤은 캠든 YMCA에서 보냄.

7월 23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캠든을 떠나 브리지턴으로 향함. 오전 9시 15분에 도착. 보언(Bowen) 여사가 역에 마중을 나눔.

7월 25일

오후 3시, 브리지턴을 출발하여 오후 7시 20분에 프린스턴으로 돌아옴.

7월 27일

토요일 오후 3시, 프린스턴을 출발하여 오후 5시 20분에 뉴저지 주 스톡턴(Stockton)에 도착. 다음 날 울버턴(Wm. H. Woolverton) 목사를 위해 장로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의 가족과 함께 주일을 보냄.

80) 1876년생. 대한제국군인 출신으로 1904년 하와이로 이민 가서 미주리 주 메콘 시의 사립 블리스 군사학교에서 수학하였고, 박용만의 요청으로 커니 소년병학교 군사교관, 헤이스팅스 병학교의 임시 교장을 맡았다. 1910년 말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의 특파 극동전권위원으로 만주와 연해주 각지를 시찰하고 미국으로 돌아왔다. 1917년에 Franklin & Marshall 대학을 상과 전공으로 졸업하고 3·1운동 후 서재필을 도와 독립운동 전개하였다.

7월 29일

월요일 오전, 프린스턴으로 돌아와 오후 3시 37분에 뉴욕을 향해 출발. 팜리(Pamly) 씨를 만나려고 뉴어크(Newark)에 들림.

7월 30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뉴어크(Newark)를 출발하여 뉴욕 시에 도착. 데스브로스 가(Desbroses St) 선착장에서 모스(Morse)호를 타고 실버 만(Silver Bay)로 갔다. 셔우드 에디(Sherwood Eddy)⁸¹⁾의 초대를 받아 조지 호수(Lake George)에서 그와 그의 가족과 함께 일주일을 보낼 예정.

7월 31일

목요일 오후 4시, 실버 만에 도착하여 월넛 2(Walnut 2)에 정박.

8월 2일

토요일, 저녁 식사 후에 에디 씨와 함께 글렌 이로쿼스(Glen Iroquois) 캠프⁸²⁾로 가서 하룻밤을 보냄.

주일 오전 캠프 강당에서 150명의 젊은이에게 강연. 회장은 티빗(Tibbit). 월요일 오전에 실버 만으로 돌아옴.

8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네브래스카 주 헤이스팅스(Hastings)를 향해 출발했으나 돈이 송금되지 않아서 오후 4시 30분에 조지 호수로 돌아와 실버 만의 장로교회 목사님 사택에서 하룻밤을 보냄. 담임은 윌콕스(Jennie V. Wilcox)⁸³⁾ 목사.

81) 생몰은 1871-1963년. 미국인 선교사로서 YMCA의 간사 겸 국제전도사를 지냈다. 1913년에 펴낸 『A New Era in Asia』에서 이승만의 육중 개종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82) YMCA 간사 티비츠(George F. Tibbitts)가 설립한 소년들을 위한 하계 캠프이다. 이 캠프는 미국 뉴욕 주 북부에 위치한 조지호수(Lake George)에 위치하였다.

83) 윌콕스 목사는 Albert W. Wilcox와 함께 이승만의 한인기독교학원을 후원하고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도왔다.

8월 11일

주일 오전, 윌콕스 목사와 택시로 10마일이나 달려 한 시골 교회에서 설교. 또 다른 곳으로 가 주일 학교에서 가르치고 강연을 하고 저녁식사를 함. 왕복 20마일을 달렸음.

8월 12일

월요일 오후 2시 40분, 레이크 조지를 출발하여 네브래스카 주 헤이스팅스로 향함. 알바니, 버펄로, 시카고와 링컨을 경유.

8월 13일

화요일 오후 12시 50분, 시카고 도착. 오후 5시에 네브래스카 주 헤이스팅스로 출발.

8월 14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헤이스팅스 Y. M. 파크에 도착. 한 소년이 헤이스팅스에서 약 4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나를 만나러 기차역으로 옴. 역에는 군복을 입은 34명의 소년이 총으로 내게 사열식을 해줌.⁸⁴⁾

8월 17일

토요일 오후, 헤이스팅스에서 약 14마일 떨어진 네브래스카 주 도니판(Doniphan)으로 가서 주일 아침 작은 교회에서 설교. 담임 목사는 영국인 킬번(Kilburn). 주일 오후, 헤이스팅스 대학으로 돌아와 한인 소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

8월 19일

월요일 오후 12시 20분, 헤이스팅스에서 실버 만으로 가는 길에 오마하(Omaha)를 경유하기로 함. 오후 6시 15분에 오마하에 도착.

84) 1910년 박용만이 네브래스카 주 헤이스팅스에 세운 한인소년병학교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헤이스팅스에 도착한 이승만을 한인소년병학교의 생도들이 환영해 준 것이다. 이승만은 졸업식 전날인 8월 15일에 생도들이 마련한 만찬에서 사회를 보았고, 8월 16일에 헤이스팅스 대학의 부속교회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였다. 한인소년병학교는 1916년까지 운영되었다.

8월 20일

화요일 7시 15분, 오마하를 출발하여 시카고로 향함. 저녁 9시 10분에 시카고에 도착. 그 날 밤은 시카고 남부에서 보냄.

8월 21일

수요일 오후 5시 30분, 레이크 쇼어(Lake Shore)⁸⁵행 급행열차로 시카고 출발하여 실버만으로 향함.

오후 1시 50분에 알바니 도착. 4시 15분, 그곳을 출발 오후 6시 40분에 레이크 조지에 도착. 그날 밤은 윌콕스 목사 사택에서 보냄.

8월 22일

목요일 오전 9시 50분, 조지 호수를 출발하여 오후 12시 10분에 실버만 도착.

8월 28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프랭크 브록먼(Frank Brockman) 일행과 실버만 출발. 오후 5시 50분에 뉴욕 시 도착. 23번가 YMCA에 투숙.

8월 29일

목요일 오후 3시, 뉴욕 출발하여 오후 5시에 뉴저지 주 캠든에 도착. YMCA 건물에 투숙.

9월 5일

목요일 오후 3시에 뉴저지 주 캠든 출발, 메릴랜드 주 포코모크 시로 향함. 오후 8시 30분에 도착.

85) 미국 미네소타 주 카스 카운티에 있는 도시이다.

9월 7일

오전 6시 35분에 포코모크 출발, 새벽 1시에 캠든 도착.

저녁 8시에 필라델피아 출발, 밤 10시 10분에 펜실베이니아 주 랭커스터(Lancaster)에 도착. 주일날 아펜젤러 여사⁸⁶에게 들러 제일감리교회(The First M. E. Church) 주일학교에서 아침과 저녁에 설교. 그 결과 아펜젤러 기념교회를 위해 200불이 약정되었다고 그날 저녁 배로든(Baroden) 목사님이 보고를 함.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랭커스터를 출발, 12시에 필라델피아 도착. 그 후 캠든으로 향함.

9월 16일

월요일 10시 12분, 애틀랜틱(Atlantic) 시를 향해 출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되는 YMCA 대회에 참석하기 위함.

9월 18일

수요일 오후 5시, 애틀랜틱 시를 출발, 오후 6시 25분에 캠든 도착.

10월 14일

오후 12시에 리딩 철도(Reading R. R.)로 필라델피아 출발, 오후 2시에 뉴욕 도착.

10월 15일

저녁 7시 50분에 뉴욕 출발, 밤 11시에 캠든 도착.

86) 배재학당 설립자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의 부인인 닷지(Ella J. Dodge) 여사. 생몰은 1854-1915년. 1884년 펜실베이니아 주 랭커스터의 제일감리교회에서 아펜젤러와 결혼 후 이듬해 임신 중인 몸으로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와서 남편의 선교 활동을 도왔다.

10월 21일

월요일 저녁 9시에 노블(William, A. Noble) 목사의 전보를 받고 캄든 출발. 뉴욕 시를 경유하여 뉴욕 주 빙햄턴(Binghamton)으로 향함.

10월 22일

오전 8시에 빙햄턴 도착.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50분에 빙햄턴 출발, 오후 4시 30분 뉴욕 도착. 밤 9시에 필라델피아를 향해 출발, 밤 11시 5분에 필라델피아 브로드가 역에 도착 예정.

11월 4일

월요일 9시 30분에 캄든을 '영원히' 떠남. 10시 30분, 워싱턴 DC를 향해 필라델피아 출발. 도중에 볼티모어에서 하룻밤을 보냄. 그날 밤 그곳에서 대규모 선교사 대회인 '세계가 볼티모어에(the World in Baltimore)' 행사 관람.

11월 5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워싱턴 도착.

11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워싱턴 출발, 오전 11시 54분에 볼티모어 도착.

11월 17일

주일 오후 3시 35분에 전차로 워싱턴 출발, 볼티모어로 향함. 오후 5시에 도착.

11월 18일

월요일 오후 3시, 워싱턴을 향해 볼티모어 출발. 주일 저녁 파크 애비뉴 장로교회에서 강

연. 패리시(Parrish) 목사님이 밤새도록 대접을 잘해 주심.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1시, 워싱턴을 출발하여 필라델피아로 향함.

오후 5시, 레이머(Edward F. Reimer)⁸⁷⁾ 목사를 만남. 주일 예배를 위해 펜실베이니아 주 매리에타(Marietta)에 있는 그의 교회로 나를 데리고 감. 저녁 8시에 매리에타에 도착.

주일 오전과 저녁에 그의 장로교회에서 설교를 함. 오전에는 약 300명, 저녁엔 약 350명의 신도가 참석.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20분, 레이머 목사와 매리에타를 떠남. 그는 해리스버그까지 멀리 나를 배웅해 줌. 오후 4시 40분에 워싱턴으로 돌아옴.

12월 17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 워싱턴을 출발하여 포코모크 시로 향함. 저녁 8시 17분 도착 예정.

12월 21일에 워싱턴으로 돌아옴. 오후 3시에 메릴랜드 주 타코마 파크(Takoma Park)의 해외선교신학교(Foreign Mission Seminary)를 향해 워싱턴 출발.

크리스마스 새해 첫날을 신학교에서 보냄.

87) 장로교 목사로 미국 스와스모아 대학의 교수를 역임하였다. 이승만과 프린스턴 대학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으며, 1919년 4월 14~16일에 서재필, 이승만, 정한경 등이 필라델피아 리틀극장에서 대한인총대표자대회를 개최할 때 연사로 참석해 한국 독립을 지지하였다. 미국 하계 문화교육학교의 강사로서 한국에 대한 강연 활동을 전개하였다.

CHAPTER 1

1913년

1월 6일

월요일 12시, 워싱턴 해외선교신학교(Foreign Mission Seminary)로 감. 케니스(Kennyes) 씨 댁에서 저녁을 보내고 정기환(鄭基煥) 집에 묵음.

1월 7일

화요일 오전 8시에 제이슨(서재필) 박사를 만나려고 필라델피아를 향해 워싱턴 DC 출발. 12시에 필라델피아 도착하여 제이슨 박사를 만남.

오후 5시 3분에 필라델피아 출발, 오후 6시 4분에 프린스턴 도착.

1월 10일

금요일 오후 1시 12분, 필라델피아와 시카고를 향해 프린스턴 출발.

오후 2시 30분, 필라델피아 도착. 4시 31분에 시카고를 향해 필라델피아 출발.

1월 11일

토요일 오전 9시,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에 들러 김 씨들을 만남. 세 명 모두 김씨. 안정수도 봄. 저녁 9시 45분(중부 시간), 시카고를 향해 콜럼버스 출발.

1월 12일

주일 오전 7시 30분, 시카고 도착. 시카고 남부 스타크스(Starks) 여사 집으로 곧장 감.

1월 15일

수요일 밤 11시, 로스앤젤레스를 향해 시카고 출발. 박처후(朴處厚)⁸⁸와 김승제(金承濟)⁸⁹가 역으로 배웅 나눔.

1월 20일

월요일 오전 8시, 로스앤젤레스 도착. 민찬호(閔贊鎬)⁹⁰와 다른 4명의 한인이 마중을 나눔.

1월 21일

화요일 오후 5시, 샌프란시스코를 향해 로스앤젤레스 출발.

1월 22일

수요일 오전 9시 15분, 샌프란시스코 도착.

1월 24일

금요일, 샌 안셀모 신학교(San Anselmo Seminary) 도착. 27일에 프리스코(Frisco)로 돌아옴.

랭던(Langdon) 박사가 신학교 학장. 평양의 이광윤(李光潤)이 신학교 재학 중.

88) 1883년생으로 1905년에 하와이로 이민. 1907~1912년간 커니 고등학교, 커니 사범대학, 네브라스카 대학 문리대를 졸업하였고, 네브라스카 한인소년병학교 교사와 교장을 역임하였다. 1916년에 귀국하여 전도 사업을 전개하고, 3·1운동 후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 독립운동에 종사하였다.

89) 1907년 일제의 한국 침략 규탄과 동포들의 상호 부조를 위해 결성한 뉴욕한인공제회의 발기인 겸 회원이며, 3·1운동 후 이승만이 세운 구미위원부의 공채표 발매사업을 도왔다.

90) 배재학당 재학 중 학생 YMCA에 깊이 관여하였고, 이후 미국 본토 및 하와이의 한인교회와 연결되어 1905년 하와이 호놀룰루의 한인교회 목회자로 초빙되었다. 1909년에 하와이 한인 단체를 규합하여 국민회를 조직하고 민족운동에 힘쓰는 한편, 로스앤젤레스 신학교에서 수학하고 남가주대학을 졸업하였다. 하와이 한인 감리교회 초대 목사를 거쳐 1919년에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목사로 부임하면서 한인기독교회의 학감을 맡았으며, 1921년에 호놀룰루에서 이승만 후원 단체인 동지회를 창립하고 이승만을 도와 독립운동에 힘썼다.

1월 28일

화요일 오후 2시, 샌프란시스코를 출발, 시에라(Sierra)호로 호놀룰루⁹¹⁾로 향함. 특등실은 79호.

2월 2일

월요일 오전 8시, 호놀룰루 도착. 부두에 많은 한인이 나를 마중 나옴.
서울 집에서 부친이 별세하셨다는 전보를 받음.

5월 14일

오전 10시에 박상하(朴相夏)⁹²⁾와 함께 호놀룰루를 떠나 증기선 마우나 케아(Mauna Kea)호를 타고 하와이 섬⁹³⁾의 마후코나(Mahukona)로 감.⁹⁴⁾

6월 12일

목요일 오전 5시, 하와이 섬과 마우이 섬 방문 후 호놀룰루로 돌아옴.

91) 미국 하와이 주(州) 오아후 섬의 남동부에 있는 하와이 주의 주도(州都)이다.

92)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과 단체활동을 전개하였다. 1910년 하와이 국민회 재무, 1912년 하와이 국민회 기관지인 『신한국보』 주필, 1913년 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자치규정 기초위원, 1913년 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총회장, 1914년 한인성공회교회 전도사, 1914년 하와이지방총회 회관 건축비 수전위원을 역임하였다. 1937년 국민회와 동지회의 통합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국민회측 대표로 참여하였다.

93) 미국 하와이 주에서 가장 큰 섬인 하와이 섬(Big Island).

94) 이승만은 1913년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대한인국민회 총회장 박상하와 함께 하와이 섬과 마우이 섬을 순회하며 한인들의 이민 생활상을 둘러보았다.

6월 26일

수요일⁹⁵⁾에 호놀룰루를 출발하여 카우아이(Kauai) 섬의 리후에(Lihue)⁹⁶⁾로 감. 즐거운 여행이었음. 안현경(安玄卿)⁹⁷⁾이 나와 동행.⁹⁸⁾

7월 9일

수요일 오전 6시 홀(S.S. G.W. Hall)호로 카우아이 섬 리후에(Lihue)에서 호놀룰루로 돌아옴.

7월 29일

화요일 오후 6시, 어린이 6명⁹⁹⁾을 데리고 클로딘(S.S. Claudine)호로 마우이 섬의 카훌루이(Kahului)를 떠나 다음 날 아침 5시 30분에 호놀룰루 도착.

95) 목요일의 오기이다.

96) 카우아이 섬에서 가장 큰 도시로, 행정, 문화, 상업, 경제의 중심지로서 나월리윌리 만(灣) 가까이에 있다. 1849년 독일 식민주의자들이 사탕수수농장을 설립하고 1883년에 루터파 교회를 설립하였다.

97) 생몰은 1881-1957년. 노동이민자로서 하와이로 건너가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1913년부터 광복 후까지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도왔으며, 1914년 『한인교회보』 발행인, 1917~1918년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총회장을 역임하였다. 1920년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위원, 임시의정원 의원을 지내며 이승만의 비밀통신원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1921년 7월에 하와이에서 동지회를 조직하고, 대한인교민단 총무 및 국민보 주필 역임하였고, 이후 동지회 임원으로 활동하였다.

98) 이승만은 6월 26일부터 7월 29일까지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총회 총무 안현경과 하와이를 순회 시찰하였다.

99) 이 어린이들은 하와이의 감리교단이 운영하는 기숙학교인 한인기숙학교(Korean Compound School)에서 교육을 받았다.

CHAPTER 1

1914년

4월 29일

오전 10시, 증기선 마우나케아호를 타고 호놀룰루를 출발하여 하와이로 향함.

5월 15일

오전 10시, 마우나케아호로 하와이 섬 힐로(Hilo)를 떠나 다음 날(5월 16일) 오전 6시 30분에 호놀룰루 도착.¹⁰⁰⁾

7월 15일

오전 10시, 마우나케아호로 호놀룰루를 떠나 마우이 섬 라하이아(Lahaina)로 향함.

100) 이승만은 1914년 4월 29일부터 5월 16일까지 두 번째로 하와이의 섬들을 둘러 본 후 한인들의 종교, 경제, 노동, 교육 등의 주제를 다룬 「하와이 섬 여행기」를 『태평양잡지』 1914년 6월호에 수록하였다.

CHAPTER 1

1915년

2월 3일

호놀룰루를 출발하여 오후 3시 30분, 마우이 섬 라하이아에 도착.

스타크스(Lizzie G. Starks) 여사¹⁰¹⁾와 나는 파이오니어(Pioneer) 호텔에 여장을 품.

2월 10일

오후 5시, 스타크스 여사와 클로딘(Claudine)호로 마우이 섬 카훌루이(Kahului)를 떠나 다음 날(11일) 새벽 5시에 호놀룰루로 돌아옴.

3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스타크스 여사와 동행하여 마우나케아호를 타고 하와이 섬으로 가려고 호놀룰루를 출발.

3월 7일

주일, 오전 7시 30분에 하와이 섬 힐로에 도착하여 웨이트츠(Waits) 여사 집에서 묵음.

월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자동차로 킬라우에아(Kilauea)를 향해 출발. 저녁 9시 15분에 힐로로 돌아옴. 화산이 거대한 불의 호수처럼 검붉고 뜨거운 용암을 마구 쏟아내고 있었음.

3월 19일

금요일 오후 4시, 호놀룰루를 향해 하와이 섬 코할라(Kohala)를 출발. 스타크스 여사도 오고 있는 중.

101) 한인기숙학교 교사이다.

3월 20일

토요일 오전 7시, 호놀룰루에 도착.

3월 26일

금요일, 스타크스 여사와 함께 오후 3시에 호놀룰루를 떠나 카우아이 섬 리후에(Lihue) 부근의 나윌리윌리(Nawiliwili)에 도착.

4월 4일

새벽 3시 30분에 우리 일행 하선. 상당수의 소녀와 친구들이 호놀룰루 부두에 마중 나온다.

5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 어린 소녀 두 명을 데리고 호놀룰루를 향해 나윌리윌리를 떠남.¹⁰²⁾

8월 28일

오후 3시에 호놀룰루 출발. 다음 날 29일 주일 아침 6시 30분에 하와이 섬 힐로에 도착.

9월 17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어린이 몇 명을 데리고 하와이 섬 하마쿠아(Hamakua)를 떠나 다음 날 18일 아침 6시 30분에 호놀룰루에 도착.

102) 1913년 8월, 와드만 감리사는 감리교선교부에서 운영하는 한인기숙학교(Korean Boarding School for Boys)의 교장인 자기 부인의 후임으로 이승만을 임명했다. 이승만은 이 학교가 하와이 군도의 모든 학교의 중앙이 되길 바라는 뜻으로 한인중앙학원(Korean Central School)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여학생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승만은 한성감옥 수감 당시 미국의 교육 제도에 관한 책을 읽고 관심을 두었던 남녀공학제를 하와이 한인들을 위하여 실시하기 위해 많은 여학생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다.

9월 25일

토요일 밤 10시에 카우아이 섬의 리후에(Lihue)에서 열리는 시민대회(Civic Convention)에 참가할 대표들과 키나우(Kinau)호에 승선하여 다음 날 주일 아침 7시, 리후에에 도착.

10월 5일

화요일 오후 5시, 리후에를 떠나 다음 날 아침 새벽 4시에 호놀룰루에 도착.

12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마우이의 라하이아(Lahaina)를 향해 호놀룰루 출발.

1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20분, 호놀룰루를 향해 마우이 섬 하나(Hana)를 출발.

12월 23일

새벽 2시 30분에 호놀룰루 도착.

CHAPTER 1

1916년

4월 16일

4월 15일 토요일, 스타크스 여사와 디킨슨(Miriam Dickinson) 양¹⁰³과 함께 킬라우에아(Kilauea)호로 하와이 섬 코나(Kona)로 출발.

4월 28일

금요일 오후 4시, 스타크스 여사와 디킨슨 양과 동행하여 증기선 마우나케아호로 하와이 섬 마후코나(Mahukona)를 떠나 다음 날 아침 7시에 호놀룰루에 도착.

8월 25일

금요일에 카우아이 섬을 향해 호놀룰루를 떠났다가 9월 3일 일요일에 돌아옴.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마우나케아호로 하와이 섬 힐로를 향해 호놀룰루를 출발.

12월 8일

금요일 오후 4시, 호놀룰루를 향해 하와이 섬 코할라의 마후코나를 출발.

12월 9일

토요일 오전 7시, 어린 소녀 3명을 데리고 호놀룰루에 도착. 안현경(Hyun Kyung Ahn)과 몇 사람이 부두로 마중을 나눔.

103) 미국 메릴랜드 주 포코모크(Pocomoke)에서 하와이로 건너와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호놀룰루 한인여학원 기숙사 사감이다.

CHAPTER 1

1917년

6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레이(Rey, 李喜儼¹⁰⁴) 박사와 김성기(金星基¹⁰⁵)와 함께 소녀 몇 명을 데리고 마우이 섬 라하이아를 향해 호놀룰루를 떠남.

6월 18일

월요일 오후 12시, 라하이아를 떠나 다음 날 화요일 오전 7시 30분에 호놀룰루로 돌아옴.

10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 킬라우에아호를 타고 하와이 섬 코할라를 향하여 호놀룰루를 출발.

11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 킬라우에아호로 하와이 섬 힐로를 출발하여 호놀룰루로 향함.

104) 생몰은 1890-1941년. 영어명은 Hee Kyeong Rey. 1904년 도미하여 시카고 대학에서 의학 전공 후 박사 학위를 획득하였다. 1915년 하와이에서 병원을 개설하여 무료 진료 활동을 전개하였고, 1918년 귀국 후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의정원 평안도 대표위원, 임시정부 외곽 단체인 대한적십자사 회장, 임시정부 외무차장을 역임하였다. 1935년 10월, 미국 아퍼트 제약회사의 동양특파원으로 가장하고 귀국하던 중 일제에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었다.

105) 1921년 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 부회장, 1923년 『태평양잡지』 주필, 1924년 동지회 주무원(사무원), 1925년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부목사, 1926년 하와이 재정위원 및 한인선교부 위원 이사, 1929~1931년 하와이 힐로 한인교회 목사 겸 힐로 동지회 이사를 역임하고, 1933년에 서거하였다.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이승만의 독립운동과 종교 활동, 동지촌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다.

CHAPTER 1

1918년

7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마우나케아호로 하와이 섬 코할라를 향해 호놀룰루 출발. 김영우(金永遇)¹⁰⁶와 김인규¹⁰⁷가 부두까지 배웅해 줌.

7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하와이 섬 힐로를 출발하여 오후 6시에 호놀룰루에 도착.

8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트레이시(Tracy) 양¹⁰⁸, 하트슨(Mabel Hartson) 양¹⁰⁹과 함께 마우나 케아호를 타고 호놀룰루를 출발하여 오후 4시 30분에 마우이 섬 라하이어나에 도착.

8월 26일

월요일 오후 12시에 트레이시 양과 하트슨 양과 함께 마우이 섬 라하이어나를 떠나 다음 날 27일 오전 8시 호놀룰루로 돌아옴. 이번 여행은 할레아칼라 산¹¹⁰을 둘러보기 위한 산행.

106) 이승만의 열렬한 지지자로서 이승만이 세운 한인여학원의 교사와 한민기독교학원의 학감을 지내고,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 서기와 재무를 역임하였다. 1919년 호놀룰루의 태평양잡지사를 통해 한국의 독립운동을 정리한 『대한독립철 전기』를 발간하였다. 1923년 6월에 한민기독교학원 학생 23명을 이끌고 고국 방문을 추진하고, 그 답방으로 1924년 6월에 고국의 야구단이 하와이를 방문할 때 환영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07) 이승만의 제자. 1931년 대한인동지회 하와이 피아아 지역 이사, 1939년 하와이 라나이 지방 한민기독교교회를 담당하였다.

108) 호놀룰루 한민기독교학원 교사이다.

109) 호놀룰루 한인여학원 교사, 한민기독교학원 초대 교장을 역임하였다.

110) 마우이 섬 남동부에 있는 높이 3,058미터의 휴화산이다.

11월 4일

월요일 오후 5시에 키나우호에 승선하여 카우아이 섬을 향해 호놀룰루를 출발, 다음 날 화요일 새벽 2시에 나일리일리 항에 도착. 이종관(李鍾寬)¹¹¹과 김충현(Kim Chung Hyun)이 운전을 하여 나를 콜로아(Koloa)로 데려다 줌.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이어백 학생을 데리고 호놀룰루를 향해 카우아이 섬 리후에 출발. 김충현이 차를 몰고 이종관과 안시흠(Ahn See Hup)¹¹²도 부두까지 배웅 나눔.

111) 생몰은 ?~1959년. 감리교 목사. 1914년 태평양잡지사 콜로아 지사원, 1918년 한민기독교교회 설립 대표단 일원, 1919~1920년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장, 1921년 이승만의 친위조직인 대한인동지회의 발기인 및 임원, 1931년 동지회 이사 및 한민기독교교회 재무, 1935년 국민회와 동지회 합동 논의 시 동지회 대표, 1941년 한민기독교교회 목사를 역임하였다. 하와이 한인사회의 이승만의 지지자이다.

112) 영어식 이름은 Henry Syherp Ahn이고, 감리회 선교부 소속 목사. 1917~1919년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서 목회 활동을 전개하고, 대한인동지회 간부직, 1929년 한민기독교교회 목사를 역임하였다.

CHAPTER 2

1919~
~1932

CHAPTER 2

1919년

1월 6일¹¹³⁾

오후 6시에 증기선 엔터프라이즈(S.S. Enterprise)호에 승선하여 호놀룰루 출발. 안현경, 김영우, 서기문¹¹⁴⁾, 애다 영(Ada Young)이 19번 부두에서 나를 전송. 승객은 단 16명.

1월 8일

오후 4시에 호놀룰루를 출발. 9시에 취침.

1월 9일

항해 이틀째. 화요일, 저녁 7시에 일어났다가 다시 누움. 다음 날 아침까지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음. 먹은 건 사과 한 개가 전부.

1월 10일

항해 사흘째. 오전 7시에 기상, 밤 10시 30분에 취침. 자정을 한참 지나서야 잠이 듦.

1월 11일

항해 나흘째. 목요일, 오전 7시에 기상. 쾌청한 날씨. 밤 10시 30분에 취침. 밤새 배가 심하게 요동침.

113) 1919년 1월 6일자 일기가 두 번 나오는데, 출발 시간이 오후 6시와 오후 4시로 각기 다르다.

114) 이승만이 설립한 한인기독교학원을 다녔다. 1921년도 호놀룰루 한인학생연합회 회장을 역임하고, 1923년 모국방문학생단의 일원으로 고국을 방문하였다. 1923년에 하와이 교민단이 한인들의 생활교정운동을 위해 한인교풍회를 조직할 때 한인기독교학원을 대표해 참석했고, 1924년 하와이대 졸업 후 1925년에 미국 LA의 남가주대 제약과에 입학해 공부하고, 하와이 동지회에서 활동하였다.

1월 10일

항해 5일째. 오전 7시 30분에 기상, 밤 10시에 취침. 밤새도록 내가 심하게 흔들려 누군가 침대에서 떨어짐.

1월 11일

항해 6일째. 오전 7시 25분에 기상. 몸이 안 좋아 점심 식사 후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음.

1월 12일

항해 7일째. 방에서 아침 식사. 편지를 쓴 후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음. 안창호(安昌浩)¹¹⁵⁾에게 전보 발송.

1월 13일

항해 8일째. 오전 7시 30분에 기상. 파리예비강화회의(Preliminary Peace Conference)¹¹⁶⁾는 연합된 하나의 중국을 선호. 종일 글을 씬.

1월 14일

항해 9일째. 오전 7시 30분에 기상. 무선 아침 뉴스. 제 1차 파리강화회의에서 일본이 중국을 대표하지 않기로 결정. 우리 파견 대표단의 수를 결정하려고 중지를 모음.

115) 생몰은 1878-1938년. 18세 때 독립협회 평양지회 결성식이 열린 평양 쾌재정에서 애국 연설을 하여 명성을 얻었다. 1900년, 미국에 건너가 신문명을 배우고 공립협회를 세워 교포의 생활 개선을 지도하고, 1906년에 귀국하여 비밀결사 신민회를 조직하여 독립을 위한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하였으며, 1908년 청년학우회를 조직하여 무실역행주의로 민족계몽을 적극 추진하였다. 1911년에 다시 미국으로 망명하여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을 맡아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3·1운동 후 상하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총장과 노동총판을 지냈다. 1932년 상하이에서 윤봉길 의거 후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본국에 송환, 대전감옥에서 3년 간 복역한 후 가출옥, 1937년 동우회 사건으로 다시 체포되어 투옥되었다가 이듬해 병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간경화증으로 서거하였다. 독립운동 당시 이승만의 협력자이자 경쟁자였다.

116) 파리강화회의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 1919년 1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회의로, 최종 회의는 1920년 1월 20일까지 지속되었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1918년 11월 25일에 이승만, 정한경, 민찬호 3인을 파리강화회의와 뉴욕의 소약속국동맹회(The League of Small and Subject Nationalities)에 파견키로 결정했으나 이들은 미국의 여권 발급 거부로 파리에 가지 못하였다.

1월 15일¹¹⁷⁾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샌프란시스코 도착. 데이빗 리(David Lee)¹¹⁸⁾와 백일규(白一圭)¹¹⁹⁾가 마중 나옴. 키스톤(Keystone) 호텔에 여장을 풀.

1월 15일

항해 10일째. 오전 9시 30분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하선. 데이빗 리와 백일규가 32번 부두로 마중 나옴.

키스톤 호텔에 여장을 풀 후 샌 안셀모(San Anselmo)로 가서 블레어(Blair) 양을 만남.

1월 16일

버클리(Berkeley)를 방문. 조지 황(George Whang: 黃鎮南)¹²⁰⁾과 필지성(Pil Chi Sung)¹²¹⁾이 동반. 프린스턴 대학 시절 나의 국제법 스승이셨던 엘리엇(Edward G. Elliott) 교수를 만남.

117) 1919년 1월 15일자 일기가 두 개이다.

118) 생몰은 1878~1928년. 한국명은 이대위(李大爲). 평양 숭실학교에서 수학하였고, 1903년경 도미하여 친목회와 공립협회에 참여하였으며, 1906년 상향한인감리교회의 창립 교인이다. 1908년 오레곤 주 포틀랜드 아카데미, 1916년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 분교 졸업, 국민회 상향지방회장과 총회장 대리를 거쳐 1913~1919년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을 2차례 역임하였다. 국민회 기관지 「신한민보」의 편집에 담당하고, 국민회 총회장 재임 시에 주필도 겸하였으며, 1915년 인터타이프 한글 식자기를 발명하여 신문의 발행에 기여하였다. 1911년부터 상향한인감리교회의 목사로 시무하였으며, 3·1운동 후 이승만의 구미위원부 재무담당 위원을 역임하였다.

119) 생몰은 1880~1962년. 1905년에 하와이로 가서 에바농장의 노동자로 활동하다 1907년 대동보국회에 가담, 1908년 대동보국회 총회장, 장인환·전명운 양의사후원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1909~1914년까지 박용만의 한인소년병학교 교관으로 활동, 「신한민보」 주필을 지내며 1918년 UC버클리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였다. 1917~1935년까지 대한인국민회 북미 지방총회 부회장, 중앙총회장 대리 및 부회장, 대한인국민회 총회장, 「신한민보」 사장 겸 주필을 역임하였다. 1943년 「독립신문」의 사장 겸 주필, 1947~1949년간 하와이 대한인국민회의 기관지 「국민보」 주필로 활동하였다.

120) 이승만이 설립한 하와이 한인중앙학원 졸업.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베를린 대학, 소르본 대학을 졸업하였다. 1919년 안창호와 상해로 건너가 국무원 참사, 의정원 의원을 역임하였고, 1920년 외무부 참사로서 여운형과 함께 미의원단을 상대로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독립 지원을 호소하였다. 1921년 임병직과 파리로 건너가 1923년 재독한인대회에서 일본대지진 당시 한인 학살을 고발, 일제의 침략 정책을 규탄하고, 해방 이후 건국 동맹에 가입하여 여운형의 측근으로 활동하였으며, 인민당 중앙위원과 조선과도입법의원 관선의원을 역임하였다.

121) 안창호의 유년기 친구인 필대은의 아들이다. 3·1운동 후 독립의연금과 대한인국민회 의무금을 납부하며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중학교 졸업 후 워싱턴 주와 오레곤 주의 교회와 집회의 단골 연사로 초빙돼 한국사정 선전활동을 벌였다. 1924년 모국 야구단을 환영하고자 하와이로 건너가 1925년부터 하와이 누우아누의 기독교청년회와 Honolulu Advertiser에서 활동하였으며, 1926년 오레곤으로 이거하여 한국 문제를 주제로 계속 선전 활동을 전개하였다.

1월 17일

금요일. 백일규와 필지성과 함께 쇼핑.

1월 18일¹²²⁾

오전 8시 30분에 조지 황과 필지성이 동행하여 샌프란시스코를 출발, 오후 7시 30분에 다뉴바(Danuba)에 도착.

1월 18일

필지성과 조지 황이 동행하여 샌프란시스코를 출발, 오후 7시 20분에 다뉴바(Danuba)에 도착. 이범녕(李範寧)¹²³⁾과 이순기(李舜基)¹²⁴⁾가 마중 나옴. 이순기의 집으로 가 밤을 지새움. 김승현도 한밤중에 나를 만나러 옴.

1월 19일¹²⁵⁾

오전 8시 20분에 필지성과 다뉴바 출발. 조지 황은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감. 오후 7시 20분, 로스앤젤레스 도착.

1월 19일

오전 8시 20분에 필지성과 다뉴바 출발. 조지 황은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감. 박교상(Park Kio Sang)의 부인과 많은 사람이 나를 전송하러 나옴.

오후 7시 20분, 로스앤젤레스 도착. 여러 친구가 우리를 마중하러 역에 나와 클라크(Clark)

122) 1919년 1월 18일자 일기가 두 개이다.

123) 생몰은 1892~1982년. 국민회 다뉴바지방회 회장을 지내고 1919년에 대한인노동사회개진당을 조직하여 활동하였으며, 1929년 동지회 나성(LA)지회가 결성된 후 동지회의 중추 인물이 되고, 1931년 임원 개선 때 부회장에 선임되어 이승만의 외교 활동을 적극 후원하였다. 1943년 9월부터 동지회북미총회의 기관지 「북미시보」의 주필로서 동지회와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후원하고 선전하는 데 앞장섰다.

124) 생몰은 1883~1943년. LA한인청년회 초대 회장과 공립협회 LA지방회 서기 및 학무를 역임하고, 1911년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외교원, 1918년 대한인국민회 다뉴바지방회 회장에 선임되었다. 3·1운동 이후 대한인노동사회개진당을 설립하고, 1929년 나성(LA)한인장로교회 장로에 선출되어 시무하였다. 1929년 LA동지회를 설립하고, 동지식산회사 지원을 위한 자금 모금활동을 벌였으며, 1943년 이승만을 절대 옹호하기 위해 나성민중대회에 참가하였다.

125) 1919년 1월 19일자 일기가 두 개이다.

호텔로 데리고 감. 다음 날 20일 정오, 1월 20일 필지성과 함께 애들레이드(Adelaide)와 주 어부첸(Zurbuchen)¹²⁶⁾을 방문.

1월 20일

필지성과 애너하임(Anaheim)으로 가서 애들레이드를 방문. 그날 밤 로스앤젤레스의 한 인들이 연회를 베풀어 줌.

1월 21일

화요일. 민찬호(閔贊鎬)의 자택에서 저녁 식사.

1월 22일

안창호에게 1,119불 50센트를 지불. 뉴욕에서 개최되는 약소국과 주권국 회의¹²⁷⁾에 대표를 파견하기 위해 하와이에서 모금한 2,000불의 일부. 박용만(朴容萬)¹²⁸⁾ 파견.

1월 23일

전차에서 우연히 존스톤(Johnston)과 조우. 나중에 스토리 빌딩에 있는 그의 사무실을 들름.

1월 24일¹²⁹⁾

오전 10시, 산타페(Santa Fe)행 열차로 로스앤젤레스 출발.

126) 한인중앙학교 교사였으며, 내외가 자문 봉사 고문이었던 줄부첸(Rudolph Zurbuchen) 부부이다.

127) 정식명칭은 소약속국동맹회(The League of Small and Subject Nationalities). 제1차 회의는 1917년 10월 29~31일, 제2차 회의는 1918년 12월 14~15일, 뉴욕의 맥알핀호텔에서 열린 약소국의 국제회의이다. 세계의 소약국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종합하여 전후 처리를 위한 국제회의에 제출할 의안 작성을 준비하기 위한 회의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일랜드, 폴란드 및 발칸 반도의 여러 나라 대표 등 24개국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1917년 10월 제1차 회의 때 한국대표 박용만은 회의장에 두 번째로 출석하고, 김현식은 인도, 폴란드, 체코, 아일랜드의 대표들과 함께 대회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제2차 회의 때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이승만, 민찬호, 정한경 3인을 한인 대표자로 파견하였다.

128) 생몰은 1881~1928년. 1909년 미국 네브래스카 주에서 한인소년병학교를 설립하고, 무장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1910년 네브래스카 대학 정치과 졸업, 1911년 「신한민보」 주필로 근무하며 「국민개병설(國民皆兵說)」을 집필하였으며, 1912년 「신한국보」 주필로 하와이로 초빙되었다. 1914년 사관 양성 기관인 대조선국민군단 창설, 1917년 뉴욕에서 열린 소약속국동맹회에 참석, 1918년 「태평양사사」 창간, 1919년 대조선독립단 설립, 3·1운동 후 임시정부 외무총장에 오르고, 베이징으로 가서 군사통일회의의 조직하였으며, 1926년 무장군사활동의 근거지를 확보하고자 북경에 대본공사를 설립하였다. 1928년 베이징에서 피살되었으며, 외교독립론을 중시하는 이승만과 달리 무장투쟁론을 중시하였다.

1월 24일¹²⁹⁾

오전 10시에 산타페(Santa Fe)행 열차로 시카고를 향해 로스앤젤레스 출발. 안창호, 송양환(Song Yang Hwan)¹³⁰⁾, 윤병희(Yoon Byunghi)¹³¹⁾, 조성환(Cho Sung Hwan) 및 기타 인사들이 역에서 나를 전송.

1월 25일

하루 종일 몹시 아픴. 엽서 몇 장 작성.

1월 26일

편지와 엽서 몇 장 작성.

1월 27일

오전 10시 20분에 시카고 도착. 다수의 친구가 역에 마중을 나와 플라자 호텔로 감.

1월 29일

수요일 오전 9시 5분, 디트로이트를 향해 시카고 출발. 장평인지 장인명¹³²⁾ 인지가 역으로 전송 나눔. 오후 3시 30분에 디트로이트 도착. 박봉래(朴鳳來)¹³³⁾와 이용선¹³⁴⁾이 마중 나와

129) 1919년 1월 24일자 일기가 두 개이다.

130) 승용환(承龍煥)의 오기(誤記)인 듯하다. 승용환은 1915년 하와이 한인사회가 이승만 지지자와 박용만 지지자로 갈려 독립할 때 이승만 지지자로 활동하였다. 1916년 하와이지방총회 구제원, 1919년 「국민보」 주필, 1920년 주간지 「한미보」 출판, 기독교가 우세한 하와이 한인사회에서 천도교인으로 지냈다. 1920년 1월 반국민회 계열인 대조선독립과 합세하여 한인공동회를 결성할 때 회장에 선임되어 반이승만 활동으로 돌아섰다.

131) 1880년생. 1910년 뉴욕 항에 입항했으나 여권 문제로 상륙 허가가 나지 않자 프린스턴 대학 박사 과정생이던 이승만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교섭을 추진하여 입항시켰다. 미국 상륙 과정에서 이승만과 맺은 인연으로 나성(LA)에서 세탁업을 하면서 나성한인장로교회의 장로이자 동지회의 주요 회원으로서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후원하였다.

132) 이승만 지지단체인 대한인동지회에 가담, 1944년 6월 이승만이 조직한 주미외교부 협찬회의 내사부 부원을 역임하였다.

133) 생몰은 ?~1923년. 3·1운동 후에 대한인국민회 디트로이트 지방회 설립을 발기하여 총무를 맡았다. 1919년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로부터 회교위원회에 선임되어 미국 내 중국인을 상대로 독립의연금 모금활동을 전개하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이 공채 발행에 착수하자 공채 발행을 통해 이승만과 그가 설립한 구미위원부의 활동을 적극 협조하며 후원하였다. 1923년에 석탄광산에서 일하는 도중 갱 내 폭발 사고로 별세하였다.

134) 1916년 유학을 위해 도미. 3·1운동 후 재미한인 청년들이 청년혈성단을 결성할 때 청년 23명과 함께 참여하였고, 1920년 레드우드 비행학교 졸업 후 미국 각지에서 비행 교육을 받은 한인 청년들과 함께 월로스 비행학교의 교관이 되어 독립 전쟁을 준비하였다. 1935년부터는 대한인국민회 나성지방회의 총무 및 서기로 활동하였다.

스태틀러(Statler) 호텔로 함께 감.

1월 31일

오후 7시 10분, 디트로이트 출발. 박봉래와 이용선이 역까지 배웅해 줌.

2월 1일

오후 12시 10분에 뉴욕 도착. 맥알핀(McAlpin) 호텔로 갔으나 헨리 정(Henry Chung:鄭翰景)¹³⁵은 워싱턴에 체류 중. 1848호실에 여장을 풀고 김헌식(金憲植)¹³⁶과 신성구(申聲求)¹³⁷를 만나러 감. 정한경에게 전보 발송.

오전엔 호텔 방에서 보냄. 스미스(Marion A. Smith)¹³⁸ 양을 만나러 가 긴 대화를 나눔. 다음 날 서재필과 정한경이 보낸 전보 수신.

2월 3일

장택상(張澤相)¹³⁹은 필라델피아의 벨뷰 스트래드포드 호텔(Belview Stradford Hotel)에 체류 중. 직접 필라델피아로 가서 일행과 호텔에서 회동.

135) 생몰은 1891-1985년. 'Henry Chung' 혹은 'DeYoung'이라 하였다. 191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안창호 등과 함께 대한민국 민회를 조직하여 재미동포의 독립정신 함양과 자치활동에 공헌하였으며, 1919년 2월 대한민국인회 파리강화회의 대표로서 한국의 독립 보장을 요청하는 독립청원서를 윌슨 미국 대통령과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하고, 미국 상원에서 한국 독립 문제가 토의되도록 하였다. 1921년 워싱턴 DC의 아메리칸 대학에서 박사 학위 취득, 이승만이 세운 구미위원부의 위원으로서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돕고, 1944년 임시정부 외무위원으로서 대미외교를 전담하였다.

136) 생몰은 1869-?. 1896년 일본 게이오 의숙 유학 중 동료들과 미국으로 건너가 서광범 주미공사의 주선으로 흑인대학인 하워드 대학의 특별과에서 수학하였고, 1907년 뉴욕한인공제회 회원을 거쳐 1910년 뉴욕한인애국회 회장을 맡으며 일본 규탄 활동과 한인 권익 보호운동에 앞장섰다. 1913년 미래 한국이 사회주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1916~1917년 미 연방수사국 정보원, 1918년 소약속국동맹회의 집행위원 선임, 뉴욕 한인들과 신민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 전개하였다. 1919년에는 이승만의 위임통치청원을 비판하였다.

137) 갑오경장 이후 미국에 유학하였다. 1900년 의친왕 이강 미국 유학 시 수행원, 주미한국공사관 서기, 1907년 한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내건 뉴욕한인공제회 회원, 1918년 파리강화회의에 대비해 한국 독립을 위한 외교 활동을 표방한 신민회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138) 피압박 민족의 민족 자결을 돕기 위해 조직된 소약속국동맹회의 비서로, 이승만은 1917년 뉴욕에서 소약속국동맹회가 조직될 때에 스미스와 서신을 주고받았다.

139) 생몰은 1893-1969년. 영국 에든버러 대학교를 중퇴하였고, 8·15광복 후 수도경찰청장을 역임하며 재임 중 좌익세력 축출과 치안 유지에 공을 세웠다. 대한민국 초대 외무부장관, 민의원 부의장, 1952년 국무총리, 1956년 원내국민주권옹호투쟁위원장 역임, 1958년 제4대 민의원으로서 반공투쟁에 앞장섰다. 5·16군사정변 후 재야 정치인으로 활동하였다.

네 명¹⁴⁰이 밖에서 저녁을 먹고 밤 11시까지 호텔에 머물다 뉴욕으로 돌아옴.

2월 4일

오전 7시, 뉴욕 도착. 정한경은 밤 10시경에 도착했으나 맥알핀 호텔은 물론 다른 호텔에도 빈 방이 없어서 1848호실에 나와 함께 묵기로 함. 병(피부병)이 더 악화되기 시작.

2월 5일

남한 부호의 자제 장택상이 최근 런던에서 뉴욕으로 왔다. 민규식(閔奎植)¹⁴¹ 역시 참정대신을 지낸 한국 최고의 갑부로 알려진 민영휘(閔泳徽)¹⁴²의 자제로 같은 무렵에 뉴욕에 도착했다.

서재필 박사는 이 두 젊은이를 붙잡고 50만 불의 자본금으로 영어잡지를 출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장택상과 민규식에게 각각 20만 불씩 출자하라고 하고, 이 박사¹⁴³가 하와이에서 10만 불을 모금하면, 자기 소유의 인쇄기와 기타 시설 전부를 내놓겠다고 하였다.

두 젊은이는 정한경이 부편집인을 맡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며 모두가 한 목소리로 나의 지도하에 즉시 사업을 시작하자고 입을 모았다.

나는 하와이 한인들이 파리강화회의에서 한국을 대표하라고 나를 파견하였으니 다른 일을 맡기 전에 우선 이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파리에 가는 일은 가능성이 희박한 '무모한 일'이나 마찬가지로 걱정을 하며 그만두라고 나를 말렸다. 나는 일단 그 일을 맡았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140) 이승만, 서재필, 정한경, 장택상.

141) 생몰은 1888-?. 민영휘의 셋째 아들. 일본 게이오 대학 이재과(理財科),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졸업,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원을 중퇴하였다. 일제 강점기에 한일은행 상무이사, 동민회 평의원, 동일은행 대표이사, 조선실업구락부 이사를 역임하였고, 일제 말기에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 국민총력조선국맹 평의원, 조선임전보국단 준비위원, 중추원 참의를 역임하며 일제에 다액의 금품과 물품을 헌납하였다. 해방 후 한민당 창당 발기인, 민족대표외교사절후원회 재정부원, UN조선단환영준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으며, 1950년 7월에 납북되었다.

142) 생몰은 1852-1935년. 초명은 영준(泳駿)으로 1877년 과거에 급제하였다. 갑신정변을 진압하고, 평양감사·협판내무부사를 거쳐 1891년 경리사를 맡으면서 세도권을 장악하고, 1893년 내무부독판·선혜청당상 겸직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군이 일어나자 청국에 지원을 요청하고, 갑오경장 후 민씨 척족과 함께 귀양형에 처해지자 청국으로 도피하였다. 이듬해 귀국하여 중추원의장·시중원경·헌병대사령관 역임하였으며, 휘문학교를 설립하여 계몽운동을 벌였고, 1910년 경술국치 후 일제에 의해 자작이 되고 거액을 투자하여 천일은행을 설립하였다.

143) 이승만 박사 자신을 의미한다.

2월 13일

필라델피아에서 한인대회를 개최하고 독립기념관(Independence Hall)¹⁴⁴까지 퍼레이드를 하자고 제안함. 서재필과 내가 서명한 회람을 돌림.¹⁴⁵ 대한인총대표회의(The First Korean Congress)¹⁴⁶에 관한 보고서 참조.¹⁴⁷

2월 21일

오전 11시에 워싱턴 출발, 오후 8시 20분에 포코모크 도착. 크로켓(Crockett) 씨가 역으로 마중 나옴.

2월 24일

오후 1시, 포코모크를 출발하여 밤 10시 10분에 워싱턴 요양원(Washington Sanitarium)으로 귀환. 한인성(Hahn In Sung)이 토요일 버지니아 주 세일럼(Salem)에서 올 예정. 포드(Alexander H. Ford)¹⁴⁸의 서신에 의하면, 레인(Franklin K. Lane)¹⁴⁹ 장관에게 서한을 발송했다고 함.

2월 25일

레인 장관 사무실에 전화를 했으나 부재중. 대통령을 만나러 백악관에 출타. 그의 비서 코터(Cotter)는 포드의 서신을 받았고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함. 내일 12시 50분에

144)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의 중심에 있는 미국 독립의 상징적 건물로, 이곳에서 독립선언서(1776)와 미합중국 헌법(1787)이 논의되고 채택되었다.

145) 이 회의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First Korean Congress』(Philadelphia, 1919) 참조.

146) 1919년 4월 14~15일은 필라델피아 드랜 시에서, 17일은 The Little Theatre에서 미주한인 대표들이 모여 개최하였다. 1774~1775년 필라델피아에서 두 차례 소집되었으며, 미국의 독립선언과 헌법제정의 산실 역할을 수행한 대륙회의(The Continental Congress)에서 착안한 회의로서 미국에서의 3·1운동에 해당한다. 대외적 명칭은 '제1차 한인회의(The First Korean Congress)'이며, 대내적 명칭은 '대한인총대표회의'이다. 미국의 건국 과정과 유사한 형태로 한국도 새로운 국가 건설에 착수했다는 선전의 필요에서 서재필, 이승만, 정한경 3인의 주도로 열렸다.

147) 대한인총대표회의에 대한 보고서가 이승만 일기 원문에 빠져 있다.

148) 생몰은 1868~1945년. '하와이의 선각자'로 불리며,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평화와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1917년 5월에 설립된 범태평양협회(the Pan-Pacific Union)의 창설자이며, 이승만도 이 협회의 이사로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149) 생몰은 1864~1921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발탁되어 1913~1920년간 내무부장관(Secretary of Interior)을 역임하였다.

장관을 만나러 가기로 함.¹⁵⁰

2월 26일

오후 12시 30분에 레인 장관과의 약속 때문에 내무부에 갔으나 의사당에 가고 없어 다음 날 만날 수 있었음. 정한경이 뉴욕에서 옴. 워싱턴에서 환영 퍼레이드.

워싱턴 요양원에서 워싱턴 호텔로 숙소를 옮김. 뉴 윌리아드(New Williard) 호텔에서 정한경을 만남. 레인 장관 면담. 윌슨 대통령이 하원이나 클레망소(Georges Clemenceau)¹⁵¹에게 나를 소개를 해줄 수 없다고 함. 대신 폴크(Frank L. Polk)¹⁵² 국무성 차관보에게 소개장을 써주어 그를 면담함. 그는 우리의 참석 가능 여부를 질의하는 공람을 파리로 발송.

3월 1일

튜멀티(Joseph P. Tumulty)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서한 발송. 그는 이 문제가 대통령 지시로 국무부로 이양되었다고 응답.

3월 2일

튜멀티의 답신을 일요일 수신.

3월 3일

폴크 차관보의 비서가 내방. 파리에서의 회신이 수요일 도착 예정이라고 말함.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서신을 튜멀티 비서실장에게 발송. 튜멀티는 면담이 불가능하다는 통보와 함께 대통령의 관심을 환기시켜 보겠다는 답신을 보내옴.

150) 이승만과 포드(Alexander H. Ford)는 1917년 와이에서 열린 범태평양협회에서 레인(Franklin K. Lane)을 만난 적이 있으며, 이때 이승만은 레인을 환영하는 연설을 했다.

151) 생몰은 1841~1929년. 프랑스의 정치가이자 언론인으로, 상원의원과 총리 겸 내무장관을 지내고, 육군장관으로서 제1차 세계대전에서 프랑스를 승리로 이끌었다. 파리강화회의에 프랑스 전권대표로 참석하여 베르사이유 평화회의의 의장을 맡았으며, 19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후 총리직을 사임하고 정계를 은퇴하였다.

152) 미 국무성의 고문을 지내다가 1919년 7월에 국무성 차관보에 발탁되었다.

3월 4일

윌슨 대통령에게 파리강화회의에 한국인들의 호소문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수락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서신 발송.

3월 5일

국무성의 폴크 차관보의 비서 매키크런(McEachran)을 방문. 그는 차관보가 출타 중이나 파리에서 회신이 도착하여 차관보가 나를 만나길 원한다는 뜻을 전하며 추후 내게 연락을 주겠다고 말함. 쇼(Shaw)에게서 전화가 옴. 파리에서 온 전문에 의하면 ‘유감스럽다(unfortunate)’고 되어 있어 우리 대표단의 참석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함. 그에게 한국인들의 호소문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¹⁵³⁾

3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에 필라델피아를 향해 워싱턴을 출발. 민규식과 서재필의 요청 때문. 일러스 목사가 우리의 임무에 관한 기사가 신문에 게재된 사실을 전함.

3월 11일

민규식과 시케인(Secane)¹⁵⁴⁾의 서재필 자택 방문. 밤 11시 필라델피아로 돌아옴.

153) 이때의 호소문이 윌슨 대통령에게 전달해 달라고 이승만과 정한경이 공동으로 서명한 1919년 2월 25일자 위임통치청원서이다.

154) 서재필 자택이 있는 미디어 시 인근의 지역명이다.

3월 10일

월요일. 한국이 독립을 선언했다고 안창호가 보낸 전보를 서재필이 가지고 옴. 이상재, 김선주(吉善宙)¹⁵⁵⁾와 손병희(孫秉熙)¹⁵⁶⁾가 파리로 파견됨. 그들을 도우러 나도 파리로 갈 계획. 상해의 현순(玄楯)¹⁵⁷⁾도 합류할 예정(파일 참조).¹⁵⁸⁾

3월 12일

장택상과 정한경이 뉴욕에서 필라델피아로 옴. 서재필과 콜로네이드(Colonnade)에서 만나 국무성으로 전문 발송. 조지(David Lloyd George)¹⁵⁹⁾에게 소규모로 잡지를 출판하기로 결정했음을 알리는 전보 발송. 민규식과 워싱턴을 향해 필라델피아 출발.

3월 13일

민규식과 워싱턴을 향해 필라델피아 출발. 오후 3시 25분에 출발, 오후 6시 45분에 도착. 레저(The Ledger) 신문의 기자와 인터뷰.

3월 17일

오후 1시에 민규식과 워싱턴 출발, 오후 4시 10분에 필라델피아 도착.

155) 생몰은 1869-1935년. 독립협회 평양지부를 조직하고 구국운동에 가담하였고, 1901년 장대현교회의 장로서 평안도 황해도에서 전도 활동을 하였다. 1903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1907년에 졸업하고, 평양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장대현교회 목사가 되었다. 목회자 겸 부흥사로서 개종운동과 부흥운동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고, 많은 교회를 설립하였으며, 교육사업에도 힘써 송실학교, 송덕학교를 설립하였다. 3·1운동 때 33인의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를 공포하여 2년의 옥고를 치렀으며, 석방 후 북간도를 비롯한 전국을 순회하면서 부흥집회를 인도하였다.

156) 생몰은 1861-1922년. 1894년 동학농민운동 때 북접의 농민군을 이끌고 일어났으나 일본군의 개입으로 실패하였고, 1897년부터 3년간 지하에서 교세 확장에 힘쓰다가 1901년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1904년에 개혁운동을 목표로 진보회를 조직하고, 1905년에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고 제3세 교주에 취임하여 교세 확장운동을 벌였다. 출판사를 창립하고, 학교를 인수하여 교육·문화사업에 힘썼으며, 1908년 교주자리를 박인호에게 인계하였다. 1919년 3·1운동을 주도하고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고, 1920년 병보석으로 출감 치료 중 서거하였다.

157) 생몰은 1880-1968년. 1902년 하와이로 건너가 목회활동을 하다가 1911년 귀국하였고, 3·1운동이 일어나자 목사로써 적극 참여하였다. 그 후 상하이로 망명하여 미국 대통령 윌슨과 파리평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내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미국 각지의 한인들에게 독립운동의 현황을 알려 주었다. 임시정부 외무위원과 내무차장을 역임하며 이승만의 비밀 통신원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승만이 구미위원부를 설치하자 미국으로 건너가 구미위원부 위원으로 활약하였으며, 1921년 임시정부 주미대사 임명 문제로 이승만과 갈라선 후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외곽단체인 시사책진회를 조직하여 통일단결을 꾀하였다. 이후 하와이에 거주하여 임시정부 목회활동과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158) 이승만 일기 원문에 파일이 빠져 있다.

159) 생몰은 1863-1945년. 1916~1922년간 영국 수상을 역임하였다.

3월 18일

민규식과 चे스넛 가의 웨이트먼(Weitman) 빌딩 811호의 새 사무실로 입주.
 오후 2시에 뉴욕을 향해 필라델피아 출발.
 밤 12시 45분에 뉴욕 출발, 4시에 필라델피아 도착.

3월 22일

오전 10시, 뉴욕을 향해 필라델피아 출발. 장택상의 숙소에서 회의를 하고 그곳에서 묵음.
 그날 밤 필라델피아에 있던 민규식도 합류.

3월 23일

회의 재개. 오후 6시에 민규식과 출발하여 오후 8시에 필라델피아 도착.

3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민규식과 뉴욕을 향해 필라델피아 출발, 오후 3시에 도착.

3월 30일

오후 12시 22분에 민규식을 뉴욕에 남겨 놓고 워싱턴을 향해 뉴욕 출발, 오후 5시에 도착.

3월 31일

월요일. 노스웨스트 셰퍼드 가 321번지의 윌콕스 목사 사택에 묵음.

4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워싱턴을 출발, 정오에 필라델피아 도착.

4월 5일

만주 임시정부의 내각에 관한 기사가 신문에 게재됨.

4월 10일

안창호가 호놀룰루를 경유하여 상해 출발. 그는 아무런 통지도 없이 캘리포니아를 떠남.

4월 18일

오후 5시 15분에 윤병구와 필라델피아 출발, 오후 8시에 워싱턴 도착.

4월 19일

토요일. 국무부에 여권 갱신 여부를 문의. 여권을 그곳에 두고 옴.

4월 21일

로렌스 토드(Lawrence Todd)¹⁶⁰를 주당 20불에 임시로 고용. 오후 5시에 워싱턴 출발, 8시에 필라델피아 도착.

4월 22일

오후 5시에 필라델피아 출발, 저녁 8시 15분에 워싱턴으로 귀환.

5월 2일

금요일 오후 1시 5분에 워싱턴 출발, 오후 6시 30분에 뉴욕 도착.

5월 4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뉴욕 출발, 정오에 필라델피아 도착. 12시 30분에 시케인을 향해 필라델피아 출발.

160) 생몰은 1882-1957년. 언론인 겸 미국 사회당 대표인 마이어 런던(Meyer London)의 전 비서. 사회주의자로서 소련을 지지하며 소련 타스(TASS) 통신사의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이승만은 한국 문제를 홍보하도록 토드를 단기간에 가르쳐 고용한 것으로 보인다.

5월 5일

오전 8시 30분에 필라델피아 출발, 오전 11시 30분에 워싱턴 도착.

5월 15일

오전 11시에 리딩(Reading)에서의 모임 참석차 필라델피아를 향해 워싱턴 출발.

5월 16일

오전 8시에 리딩 출발, 10시 25분에 필라델피아 도착.

오전 11시 38분에 필라델피아 출발, 오후 3시에 워싱턴 도착.

6월 22일

일요일 오후 1시에 민규식과 워싱턴 출발, 저녁 7시에 뉴욕 도착.

6월 26일

오후 1시에 워싱턴으로 직행하는 민규식과 뉴욕 시 출발, 필라델피아로 향함. 4시에 도착하여 7시에 그곳을 떠나 10시 30분에 워싱턴 도착.

7월 17일

한국 공관(Legation)¹⁶¹⁾을 워싱턴 DC 매사추세츠 애비뉴 1804로 옮김.

10월 10일

오전 11시 10분에 워싱턴 출발, 오후 2시 30분에 필라델피아 도착 예정. 저녁에 캠프 YMCA에서 강연 후 필라델피아 아돌피아(Adolphia) 호텔 투숙.

161) 이승만은 1919년 4월, 서울에서 한성임시정부가 자신을 '집정관 총재'로 추대한 사실을 접한 후 6월 14일부터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직함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이승만은 자신이 거처하는 사무실을 '한국 공관'으로 표현하였다.

10월 13일

월요일 오후 4시 10분. 임병직(林炳稷)¹⁶²⁾과 위더홀드(Wiederhold)와 필라델피아를 출발하여 스티어링(Sterling) 호텔 투숙. 그날 밤 서재필, 나, 헐버트와 위더홀드가 YMCA에서 강연. 밤 11시 35분에 트랜턴 출발, 새벽 1시에 필라델피아 도착.

10월 15일

수요일. 오후 3시에 필라델피아 출발, 오후 4시 30분에 프린스턴 도착. 웨스트(West)와 어드먼(Charles R. Erdman)¹⁶³⁾을 방문하고, 저녁 8시에 알렉산더 홀에서 강연.¹⁶⁴⁾ 밤 11시에 프린스턴 출발, 새벽 1시 15분에 필라델피아 도착. 새벽 3시 기차로 아침 8시에 워싱턴으로 귀환.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9시 10분에 워싱턴 출발, 오후 12시 25분에 필라델피아 도착. 오후 3시, 제이슨(서재필) 박사와 필라델피아를 출발하여 4시에 애틀랜틱 시 도착. 샬폰티(Chalfonte) 호텔에 투숙. 리오즈(Leods)가 고등학교에서 강연함.

10월 22일

오전 9시 30분에 애틀랜틱 시를 출발하여 오전 11시 30분에 서부 필라델피아에서 워싱턴행 기차에 탑승. 오후 3시에 워싱턴 도착.

162) 1913년에 이승만의 알선으로 미국 오하이오 주 디킨스 대학에서 수학하며 『한국학생평론』 편집장을 맡아 일제의 한국 강점을 폭로하고 세계에 독립 지원을 호소하였다. 1919년 이승만과 함께 필라델피아에서 재미한인대회에 참가하여 독립운동 방안을 토의하였고, 대회 종료 후 집정관 총재비서, 구미위원부 임시위원으로서 이승만의 독립운동 보좌하였다. 1920년 말 이승만 임시정부 대통령의 상하이행을 수행하였고, 1943년 재워싱턴한인협회 수석비서관을 지냈으며, 1944년 미국전략사령부에 근무하며 OSS작전을 적극 지원하였다. 임시정부 대통령부 무관으로서 전시 중 한미교섭에 크게 활약하였고, 1949년 외무부장관, 1951년 주유엔대사로서 한국의 국제적 지위향상에 공헌하였다.

163) 생몰은 1866-1966년. 프린스턴 신학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의 신학 담당 교수였다.

164) 어드먼은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회의 겸 숙소를 위한 건물이고, 알렉산더 홀 역시 프린스턴 대학의 건물이다.

11월 6일

오전 11시 10분에 Ben C. 림(임병직)과 워싱턴 출발, 오후 2시 30분에 필라델피아 도착. 저녁 7시에 그곳을 떠나 다음 날 아침 7시에 뉴욕 유틀카에 도착 예정.

11월 7일

금요일 오전 7시에 유틀카 도착하여 유틀카 호텔에 투숙. 정오에 로터리 클럽 오찬 모임에서 강연. 밀러 회장이 사회를 맡음.

11월 8일

토요일 오전 9시 50분에 뉴욕 중부에 위치한 유틀카를 떠남. 오후 4시 50분에 뉴욕 출발, 밤 10시 20분에 워싱턴 도착.

11월 11일

화요일 오후 7시 15분에 임병직과 펜실베이니아의 이리(Erie)를 향해 워싱턴 출발.

11월 12일

오전 9시 40분에 이리에 도착하여 로렌스 호텔에 투숙. 12시 15분에 로터리 클럽과 상공 회의소에서 강연. 오후 4시 15분에 아카데미 고등학교에서 연설. 교장선생님은 존 딜(John C. Diehl). 저녁 8시에 이리 출발.

11월 13일

10시 30분에 버펄로(Buffalo)에 도착하여 이로크와(Iroquois) 호텔에 투숙. 스탠틀러(Statler) 호텔에서 개최된 로터리 클럽 오찬 모임에서 강연. 일라이어스(Elias)가 회장. 오후 2시 30분에 버펄로 출발, 3시 50분에 나이아가라(Niagara) 도착. 클리프턴 하우스(Clifton House)에 투숙.

11월 14일

금요일 오후 7시 5분에 나이아가라 출발, 10시 30분에 이리 도착. 로렌스 호텔에 투숙.

11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이리 출발하여 동부 시간으로 저녁 8시에 신시내티 도착. 신턴(Sinton) 호텔에 투숙. 그날 밤 헬시(J. Halsy)와 조우(헬시는 프린스턴에서 함께 수학했던 친구).

11월 16일

오후에는 와이오밍 장로교회에서, 저녁에는 헬시가 담임 목사인 제7장로교회에서 강연.

11월 17일

제일장로교회에서 강연. 오후 12시 45분에 B&B 열차로 신시내티를 출발하여 다음 날인 11월 18일 오전 7시 20분에 워싱턴 도착.

11월 18일

오전 7시 20분에 임병직과 워싱턴 도착.

12월 4일

오전 9시 20분에 임병직과 워싱턴 출발, 오벌린(Oberlin)으로 향함.

12월 5일

밤 12시 30분에 클리블랜드 도착, 홀렌든(Hollenden) 호텔에 투숙. 오전 9시 30분에 클리블랜드 출발, 오전 11시에 오벌린 도착. 벡(Stephen A. Beck)¹⁶⁵과 회동 후 오벌린 대학에

165) 한국명은 백서암(白瑞岩) 혹은 배액(裵額). 1899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내한. 1905~1908년 YMCA 회계, 1903~1918년 미국 감리회 조선연회 서기를 3차례 역임. 1910년 이승만이 귀국한 후부터 이승만과 친분을 유지. 1919년 11월경 이승만의 스승 이상재가 건네준 3·1운동 관련 서류를 신흥우를 통하여 이승만에게 전달. 1920년 필라델피아 한국통신부 선전원으로 미국 대서양 연안의 여러 주를 돌며 20여만 명에게 한국 사정을 강연.

서 강연. 킹(King) 총장이 사회를 봄.

2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 45분에 오벌린 출발, 오전 11시에 클리블랜드 도착.

12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 15분에 클리블랜드 출발.

12월 9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에 필라델피아 도착, 아델피아호텔에 투숙. 뉴저지 주 해든필드(Haddonfield)에서 강연.

12월 10일

정오에 필라델피아 출발, 오후 2시에 뉴욕 도착. 맥알핀 호텔에 투숙.

12월 12일

오후 12시 20분에 벡(S. A. Beck)과 뉴욕 출발, 5시 30분에 워싱턴 도착.

CHAPTER 2

1920년

1월 10일

오후 7시 30분에 임병직(Ben C. Lyhm)과 뉴욕 전역에 걸친 순회강연을 위해 워싱턴 출발.

1월 11일

오전 8시 30분에 보스턴 도착. 양유찬(梁裕燦)¹⁶⁶과 김계봉¹⁶⁷이 마중 나옴. 매사추세츠 주 캠브리지 하일랜드 가 32번지의 조지 켄들(George Kendall)의 사택에 여장을 풀. 마운튼버논 교회와 보스턴 대학에서 강연.

1월 13일

정오에 보스턴 신학교에서 강연. 밤 11시에 임병직과 워싱턴을 향해 뉴욕 출발.

1월 14일

오전 7시에 뉴욕 도착, 그랜드 호텔에 투숙.

166) 생몰은 1897~1975년. 1912년 한인기숙학교, 1916년 하와이 맥킨리 고교를 졸업하였다. 1923년 보스턴 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이후 하와이로 돌아와 병원을 개업하고 사회사업을 전개하였다. 호놀룰루 한인 YMCA 이사, 호놀룰루 한인기독교재단 회장, 한인기독교학원 재무, 교장대리, 이사장 역임하며 재미동포의 단결과 친목에 노력하였다. 1951~1960년 주미대사, 1951~1958년 유엔총회 한국수석대표, 1953년까지 한일회담 수석대표, 1960년 주미대사 겸 브라질대사를 역임하며 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승만의 측근 가운데 한 사람이다.

167) 하와이 호놀룰루 공립중학교 졸업 후 보스턴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여 의사로 활동하였다. 1919년 보스턴 대학에서 한국친우회가 결성될 때 양유찬과 함께 이승만의 선전 외교 활동을 도움을 주었고, 1944년 이승만이 워싱턴 DC에서 주미 외교위원부 협찬부를 조직할 때 교육부 협찬원에 선임되었다.

3월 15일

오전 11시에 뉴욕 출발, 오후 1시에 필라델피아 도착. 오후 3시 20분에 필라델피아 출발, 저녁 8시에 워싱턴 도착.

3월 7일

오후 3시에 임병직과 사우스캐롤라이나를 향해 워싱턴 출발.

3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샬스턴(Charleston) 도착, 팀로드 여관(Timmrod Inn)에 투숙. 오후 8시 30분에 레드서클 클럽(Red Circle Club)에서 강연.

3월 9일

오후 12시 25분에 샬스턴 출발.

3월 10일

오전 10시에 조지아 주 사바나(Savannah) 도착, 디소토(De Soto) 호텔에 투숙. 사바나 상인회(Great Savannah Commercial Club)에서 강연. 오후 8시 15분에 워싱턴을 향해 출발.

3월 11일

오후 4시에 워싱턴 도착.

3월 17일

오후 6시에 덴버를 향해 워싱턴 출발.

3월 18일

오후 3시에 시카고 도착. 밤 11시에 벌링턴(Burlington) 루트로 돌아옴.

3월 19일

네브래스카 링컨 역에서 정한경과 조우. 오전 7시 30분에 덴버 도착, 셸리(Sherley) 호텔에 투숙.

3월 20일

오후 3시, 그레이스 감리교회(Grace M. E. Church) 공개 포럼에서 강연.

3월 21일

오전 9시 30분, 루스(Luth)와 함께 YMCA 총무들 대상으로 강연.

오전 11시 30분에 감리교 목회자 모임, 정오엔 여성회 모임, 저녁 8시엔 한인회에서 강연.

3월 22일

오후 12시 15분에 덴버 대학, 그 후 '애드(Ad)' 클럽에서 강연. 밤에는 정한경과 웰러스(Wellers)¹⁶⁸ 부부 방문.

3월 23일

정한경, 임병직, 안재창과 함께 한인 농장 방문.

3월 24일

오후 4시에 덴버 출발, 볼더 대학촌의 볼더로도(Boulderodo) 호텔에 여장을 풀. 와일리(Wiley)가 대접을 잘해 줌.

3월 25일

콜로라도 주 그랜드 캐니언으로 자동차 여행. 저녁 8시에 와이오밍 주의 슈퍼리어(Superior)를 향해 출발.

168) 콜로라도 주 덴버 출신으로 한국에 파송된 감리교 선교사 윌러(Orville A. Weller)를 말하는 듯하다.

3월 26일

백낙관이 록스프링스(Rock Springs)로 마중 나옴. 오후 4시에 슈퍼리어 도착. 다음 날 모임에 한인 25명 참석.

3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 참석. 덴버를 향해 슈퍼리어 출발, 오후 1시에 워싱턴 도착.

3월 30일

오전 9시 30분에 시카고 도착, 라셀르(La Salle) 호텔에 투숙.

3월 31일

5시 45분에 볼티모어-오하이오선 열차로 시카고 출발, 워싱턴으로 향함.

4월 1일

오후 4시 40분에 워싱턴 도착. 임병직과 신형호(申衡浩)¹⁶⁹가 역에 마중 나옴.

4월 19일

오전 9시 15분에 워싱턴 출발, 보스턴으로 향함.

4월 20일

오전 8시 30분에 보스턴에 도착하여 서머셋(Sommerset) 호텔에 여장을 풀. 보스턴 대학에서 강연. 찬들러(Chandler) 박사가 사회를 보았고 헐버트(Homer B. Hulbert)도 강연을 함.

169) 1891년생. 미국명은 Hanal Narasin 혹은 Narasin Hanal이다. 1914년 미국 네브라스카 주 헤이스팅스 소년병학교 교사, 1918년 대한인국민회 시카고지방 회장, 1919년 구미위원부의 통신원 역임하였다. 1921년 동지회 창립에 참여, 1922년 구미위원부 서기, 1938년 동지회 워싱턴 지부 위원, 3·1운동 이후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적극 도왔다.

4월 21일

밤 11시 30분에 보스턴 출발.

4월 22일

오전 7시 30분에 뉴욕의 맥알핀 호텔 별관 도착.

4월 23일

헐버트와 뉴저지 주 잉글우드의 올리버 라이포드(Oliver Lyford) 여사 자택에서 강연.

4월 26일

오후 5시 55분에 뉴욕 출발, 밤 11시 30분에 워싱턴 도착.

5월 14일

저녁 8시에 워싱턴 출발, 아이오와 주의 디인(Des Moines)으로 향함. 신마실라(Marcella Syn)¹⁷⁰도 동행.

5월 16일

오전 8시 30분에 디모인 도착, 브라운 호텔에 투숙. 김영섭(金永燮)¹⁷¹과 오기선(吳基

170) 1914년 이화숙, 김엘리스와 함께 제1회 이화학당 대학과를 졸업하였고, 졸업식 때 '한국미술탐구'라는 주제로 연설하였다. 1918년 유학을 위해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도미하여 펜실베이니아 대학에 입학하였으며, 국내 여성 지도자들의 지원하에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려 했으나 자금 부족 문제로 좌절하였다. 3·1운동 후 이승만을 도와 독립운동 전개하고, 대한적십자회 지원을 요청하는 강연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25년 펜실베이니아 대학 문학사 졸업하고 뉴욕에서 개인 사업으로 독립 자금을 마련하여 독립 단체에 지원하였다. 해방 후 미국 각지에서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강연.

171) 생몰은 1888-1950년. 일본 와세다 대학 문과와 아오야마 학원 신학부에서 수학 후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하여 1923년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27년 귀국 후 서울의 정동제일교회와 중앙감리교회 담임 목사로 시무하다가 흥업구락부사건으로 피체되었다. 1938년 내선일체를 위한 감리교 특별위원회에 참가하고, 1939년 도쿄에서 조선과 일본의 감리교단 통합 논의가 열리자 전권위원으로 참석하였으며, 광복 후 감리교단 내부에서 친일 청산 문제가 부각되었을 때 친일 목사로 지목되었다. 이후 호놀룰루 총영사를 지내고 귀국하여 다시 중앙교회에서 시무하였다.

善)¹⁷²⁾과 회동.

5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디모인 출발, 워싱턴으로 향함. 도중에 시카고,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 경유.

5월 28일

오전 9시 30분에 워싱턴 도착.

6월 2일

오후 5시에 워싱턴 출발, 밤 10시 15분에 뉴욕 도착. 코모도(Commodore) 호텔에 여장을 풀.

6월 5일

오후 6시에 명동(明東)¹⁷³⁾과 신형호와 뉴욕 출발, 저녁 8시에 뉴저지 주 벨마(Belmar) 도착. 엘리자베스 하이어(Elizabeth Hyre)와 스타크스(L. G. Starks) 여사를 만나 9번 애비뉴 609번지로 감.

6월 6일

오후 6시에 명동과 신형호를 동행하고 벨마를 출발하여 뉴욕으로 향함. 애즈버리 파크의 콜먼(Coleman) 호텔에서 하룻밤 묵음.

172) 생물은 1877~1946년. 1908년 함종교회 전도사를 거쳐 1911년 감리교협성신학교 졸업하고, 1912년부터 서울 YMCA에서 청년운동에 헌신하였다. 1914년 일본 동경한인교회 목사로 부임하여 동경 YMCA사업을 지도하고, 1916년 귀국 후 목사 생활을 하다가 3·1운동에 가담하였으며, 1921년 동경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관동대지진 당시 한국인 학살자 가족의 위문과 구호사업을 전개하였다. 1924~1939년 15년간 평양 남산현교회 목사 역임하였으며, 1930년 남북감리교회의 통합교회인 조선감리교회의 탄생에 공헌하였다.

173) 3·1운동 후 미국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이승만의 구미위원부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시카고 자유단 단원이다.

6월 7일

오전 8시 15분에 애즈버리 파크 출발, 오전 10시 45분에 필라델피아 도착. 서재필의 자택 방문.

6월 8일

오후 5시에 필라델피아 출발, 밤 10시 30분에 워싱턴 도착.

6월 12일

오전 7시 30분에 워싱턴 출발. 해리스버그 역에 벡(S.A. Beck) 목사가 마중 나옴. 오후 12시 30분에 해리스버그 역 출발.

6월 13일

밤 12시 20분에 클리블랜드 도착, 홀렌든(Hollenden) 호텔에 투숙.

6월 14일

오후 12시 33분에 김노디¹⁷⁴⁾, 김신실¹⁷⁵⁾, 주영순¹⁷⁶⁾과 클리블랜드 출발. 그들은 학교로 돌아갔고, 나는 오후 7시 30분에 시카고 도착. 콩그레스(Congress) 호텔에 투숙.

174) 생물은 1898~1972년. 미국명은 Nodie Dora Kim, 한국명은 김혜숙 혹은 노디김. 1905년 부모를 따라 하와이 이민하여 1915년 이승만이 설립·운영한 한인중앙학원을 졸업하였다. 1916년 이승만의 추천으로 오하이오 주의 우스터 교교에 입학, 졸업 후 후버 대학교를 거쳐 오벌린 대학교로 편입하여 정치학을 전공하였다. 1919년 4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대한인총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한국 여성에 관한 연설로 유명해졌고, 이어 미 동부를 여행하며 일제 치하 조선의 사정을 알리고 한국친우회의 회원이 될 것을 호소하였다. 1922년 9월부터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학원 교사로 근무하며, 이듬해 한인기독교학원 신축기금 모금을 위해 학생고국방문단을 데리고 한국에 다녀왔으며, 이후 한인기독교학원에서 1932년까지 교장으로 근무하였다.

175) 1899년생. 김신실(Kim Shin Sil), 14살 때 부모를 따라 하와이로 이주하여 이승만의 추천으로 오하이오 주 오벌린 대학에 들어가 체육학과를 졸업하였다. 1930년 이화전문학교 교수, 광복 후 이화여대 체육학과 신설, 민족 스포츠인 궁술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한 한국 최초의 여성 체육인이다.

176) 1919년 한인기독교학원 졸업 후 이승만의 주선으로 오하이오 주 오벌린 대학에서 수학하였다.

6월 16일

유니온퍼시픽(Union Pacific) 열차로 시카고 출발, 오후 7시인가 8시인가에 샌프란시스코 도착.

6월 19일

오후 3시에 새크라멘토 도착. 역에 이(S. K. Lee)가 마중 나옴. 일행은 쉬너드(Shinud) 호텔에 투숙. 김 목사와 여러 사람이 환영회 개최.

6월 20일

오후 1시 30분에 새크라멘토 출발, 오후 5시 30분에 샌프란시스코 도착. 일행과 키스톤 호텔에 여장을 풀.

6월 21일

밤에 한인 교회에서 환영회 개최. 강영소(姜永韶)¹⁷⁷가 진행.

6월 22일

오후 4시에 정한경과 32번 부두에서 마노아(S. S. Manoa)호에 승선. 많은 친구가 부두에 환송 나옴.

6월 29일

오전 8시에 호놀룰루 도착. 수많은 사람이 환영. 알렉산더 영 호텔에 투숙.

177) 생몰은 1886-1934년. 1905년 하와이로 이민하여 공진회와 에바농장의 에바친목회에 가담하였고, 1907년 국권회복과 교민사회 발전을 내건 한인합성협회의 서기와 총무를 역임하였다. 1909년 한인합성협회와 공립협회의 통합기관인 국민회 탄생에 기여하였고, 1913년 흥사단 창립회원, 1916년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장, 1919년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특파위원으로 독립단체의 협력과 연락을 담당하였다. 1920년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장, 1923년 임시정부재정후원회 위원, 신한민보사 시카고 지국장 역임하였으며, 부친과 5형제가 모두 독립운동에 가담하였다.

7월 12일

영 호텔을 출발, 호놀룰루 푸우누이(Puunui) 애비뉴 2456번지로 향함.

10월 12일

임병직이 맷소니아(S. S. Matsonia)호로 본토에서 도착.

10월 28일

김규식(金奎植)¹⁷⁸, 임병직, 노백린(盧伯麟)¹⁷⁹, 최동호¹⁸⁰와 카웰라(Kawela Bay) 만으로 출발.

11월 5일

카웰라에서 호놀룰루로 귀환. 블레이스델(Blaisdell)에 투숙.

11월 6일

모아나(Moana) 호텔로 숙소를 옮김.

178) 생몰은 1881-1950년.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에게 입양되어 근대교육을 수학하였고, 1903년 미국 로복 대학 문학과를 졸업하였다. 귀국 후 경신학교 교감, 연희전문 교수를 역임하였고, 1919년 임시정부 파리강화회의 대표로서 일본의 한국침략 규탄활동을 전개하고, 미국에서 이승만이 설립한 구미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1920년 상하이로 가서 임시정부 학무총장을 역임하였다. 1935년 중국 남징에서 민족혁명당을 조직하여 의용대원을 모집하고, 1944년 임시정부 부주석으로서 주석 김구와 함께 광복군 양성에 힘썼다. 광복 후 민족자주연맹 위원장을 맡아 좌우합작운동을 펼치고, 1948년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에 반대하고 북한에 가서 남북협상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6·25전쟁 때 납북되었다가 사망하였다.

179) 생몰은 1876-1926년. 1899년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1900년 육군 참위에 임관된 후 육군무관학교 교장, 헌병대 대장, 육군연성학교 교장 등 육군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경술국치 후 신민회에 가담하고 해서교육총회장으로서 교육운동을 전개하였고, 1916년 하와이로 건너가 박용만과 함께 대조선국민군단 운영에 참여하고, 1920년 2월 김중림의 지원을 얻어 월로우스에 비행학교를 설립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군용사를 양성하였다. 3·1운동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무총장, 국무총리, 1925년 임시정부 참모총장이 되어 독립군 육성에 진력하였으며, 그 후 다시 도미하여 워싱턴의 구미위원부 외교위원으로서 외교독립 활동을 전개하였다.

180) 1937년 6월, 뉴욕에서 제12회 북미대한인유학생총회 동부대회를 개최할 때 안정수와 함께 후원금을 냈다.

11월 8일

모아나에서 윌리엄 보스윅(William Borthwick)¹⁸¹⁾의 자택으로 감.

11월 16일

임병직과 호놀룰루 출발, 웨스트 히카(West Hika)호에 승선하여 상하이(上海)로 향함. 다음 날 아침 오전 8시가 되어서야 우리가 탄 것이 ‘눈에 뜨임’(보스윅의 주선으로 그 화물선으로 여행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

11월 17일

임병직과 나는 부자지간으로 알려짐. 항해 중에 겪은 일들을 한시 몇 수로 적어 봄(한시 모음집 참조).¹⁸²⁾

12월 2일

섬들을 지나감.

12월 5일

오전 10시에 상하이에 도착, 맹연관(孟淵館)¹⁸³⁾에 투숙(맹연관은 일본인들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중국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 장봉(張鵬)¹⁸⁴⁾에게 서신 발송. 그가 와서 함께 의논 후 나의 거처를 임시정부에 알리기로 결정.

181) 생몰은 1872~1973년. 1872년 일리노이 주 출생으로 하와이에서 장의사를 운영하였다. 1932~1934년 하와이 영토의 조세 위원, 1934~1950년 호놀룰루저축은행장을 역임하였고, 상하이로 가기 위해 하와이에 도착한 이승만을 자기 거처, 바닷가(Kawela Bay) 별장, 와이키키의 모아나 호텔 등에 머물게 하고, 일본을 거치지 않고 상하이로 직항하는 밀항 편을 주선해 주었다. 이승만이 하야 후 하와이에 왔을 때에도 적극 돌봐준 이승만의 50년 지기이다.

182) 상하이행 배 안에서 지은 한시 5수는 이승만의 한시집인 『체역집(替役集)』 말미에 수록되어 있다.

183) 원문의 ‘孟淵旅館’은 ‘孟淵館’의 오키이다. 이승만이 상하이에 도착하여 직접 지은 한시의 제목에는 ‘孟淵館’이라고 되어 있다.

184) 생몰은 1877~1955년. 영어명은 Peter Chang. 1911년 장로교에 입교하여 1916년 전도사에 임명되었고, 1919년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다. 1919~1923년까지 임시정부 사료조사편찬부 위원, 임시의정원 경기도 의원, 국제연맹회 제출안 기초위원, 상해대한교민단장, 태평양회의 외교후원회 서무간사,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하였다. 임시정부 내에서 이승만의 비밀 통신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1923년 말에 하와이로 건너와 목사로 시무하였다.

12월 7일

맹연관에서 벌링턴(Burlington) 호텔로 숙소를 옮김(임시정부가 그 호텔에 머물도록 주선).

12월 12일

벌링턴 호텔을 나와 상하이 드 지카웨이(de Zikawei) 3번로의 크로프트(J. W. Crofoot) 목사 사택으로 감¹⁸⁵⁾(크로프트 목사는 제7일 안식일 침례교 선교사. 여운형(呂運亨)¹⁸⁶⁾이 내가 그곳에서 지내도록 주선해 줌).

185) 크로프트 목사의 사택은 프랑스 조계 내에 있는 선교사의 사택이라서 이승만의 신변 보호에 유리한 곳이었다.

186) 생몰은 1886~1947년. 1914년 중국 난징 금릉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였고, 1918년 신한청년당을 조직하여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 대표로 파견하였다. 1919년 일본이 조선의 자치문제를 타진하자 일본에 건너가 각계 인사들에게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1920년 고려공산당에 가입, 1929년 영국의 식민정책을 비판했다가 영국 경찰에 피체되고 일본 경찰에 넘겨져 3년간 복역하였다. 1944년 비밀독립단체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하여 위원장에 취임했으며, 해방 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여 부주석이 되었으나 우익 진영의 반대와 미군정의 불인정으로 실패하였다. 1947년 근로인민당을 창당하여 정치활동을 하다가 한지근에게 암살당하였다.

CHAPTER 2

1921년

3월 5일

오전 9시 30분에 피터 장(장봉)과 기차로 상하이 출발, 오후 3시 30분에 난징(南京) 도착. 질레트(Philip L. Gillet)¹⁸⁷ 선교사 부인이 역에 마중 나와 우리를 데리고 그녀의 자택으로 감. 남편은 병환 중(그는 전 서울 YMCA 총무).

3월 10일

밤 11시에 난징 출발, 다음 날 11일 아침 7시에 상하이 도착.

3월 25일

오후 12시 30분, 크로푸트 목사 내외와 상하이로 출발하여 기차로 난샹(南翔)¹⁸⁸으로 갔다. 그곳에서 증기선을 타고 자딩 현(嘉定縣)¹⁸⁹ 류허(劉河)로 갔다. 싱클레어(Mariam Sinclair) 박사와 크랜델(Grace Crandell) 박사는 짐꾼을 부두로 보내 주었다.

우리는 제7안식일 침례교의 선교병원인 혜중병원으로 걸어서 갔다. 저녁 8시 30분경에 그곳에 도착했다.

임시정부의 국무원 측 내각이 내게 대통령직을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만일 그들이 후계자를 선출한 후 그를 지지하겠다고 동의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그들은 이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대동여사(大東旅舍)¹⁹⁰에서 대규모 오찬모임을 가졌다.

187) 생물은 1874-1939년. 한국명은 길예태(吉禮泰). 매사추세츠 스프링필드 YMCA 전문학교 및 콜로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1901년 미국 YMCA 국제위원회로부터 한국 YMCA 창설 책임자로 선임되어 내한하였다. 1903년 한국 YMCA를 창설하여 초대 총무를 맡아 1913년까지 한국 YMCA의 기초 확립과 발전을 위해 공헌하였고, 105인 사건의 실체를 전 세계에 알리려 노력했다가 1903년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당했다. 이후 상해에 머물며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였으며, 1910년 이승만을 한국 YMCA 한국인 총무로 초빙하였다.

188) 상해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만두의 일종인 사오롱바오(小籠包)가 유래한 곳이다.

189) 상해 북서부 교외에 위치한 고을이다.

190) 원문의 '大東旅館'은 '大東旅舍'의 오키이다. 당시 상해에서 임정 요인들이 모임을 가진 곳은 '大東旅舍'이다.

3월 27일

부활절 주일 오후 12시 15분. 손수레꾼을 동행하여 용화사(龍華寺)¹⁹¹를 출발하여 자딩현으로 감. 족히 3시간이 걸림. 오후 3시 30분에 선착장에 도착, 5시 30분에 증기선이 난샹 도착. 6시 30분경 그곳을 출발, 저녁 8시에 상하이 도착.

5월 14일

신익희(申翼熙)¹⁹²와 쑤저우(蘇州)로 감. 실버 여관(Silver Inn)에서 저녁을 먹고 R. R. 호텔로 가서 하룻밤을 묵음. 다음 날 크로푸트 내외를 만나 류위안(劉園)¹⁹³, 시위안(西園)¹⁹⁴, 한산사(寒山寺)¹⁹⁵ 등을 둘러봄.

5월 15일에 저녁 기차로 상하이로 돌아옴.

5월 19일

친구들과 작별을 고하고 우쑹(吳淞)¹⁹⁶으로 와서 포트(Fort) 호텔에 투숙.

5월 24일

상해의 크로푸트 내외에게 다시 옴.

191) 삼국시대인 242년 오나라 쑤취엔이 창건한 상하이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이다.

192) 생물은 1894-1956년. 일본 와세다 대학 재학 때 한국 유학생 단체인 학우회를 조직하여 총무, 평의회장, 회장을 역임하였다. 귀국 후 서울 중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1917년 보성법률상업학교 교수로 부임하였고, 3·1운동 때 해외연락 임무를 위해 중국을 다녀오고, 일경의 체포를 피하여 상하이로 망명하였다. 임시정부에서 내무차장, 외무차장, 국무원 비서장, 외무총장 대리 등을 역임하고, 광복 당시 임시정부 내무부장 자격으로 환국하였다. 귀국 후 임시정부 인사들과 노선을 달리하여 정치공작대, 정치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이승만 노선을 따랐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에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부위원장, 자유신문사 사장, 국민대학교 초대학장,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대의원 의장, 대한민국당 대표최고위원, 제헌국회 부의장을 역임하고, 정부 수립 후에 제헌국회 의장에 피선되었다. 1956년 대통령 출마 후 유세 도중에 별세하였다.

193) 16세기 말에 건립되어 동원으로 불렸다. 개축을 거듭하여 청대에 이르러 '유원'이라 불렸으며, 청대 정원 양식을 대표하는 정원이다.

194) 명대의 정원을 대표하는 취정위안(拙政園)의 일부로서 류위안(劉園)과 함께 중국 4대 정원의 하나이다.

195) 쑤저우의 서북쪽에 있는 사찰로 기원전 502년에 건조되었고, 7세기 당나라 시인 한산(寒山)이 기거해서 한산사로 불린다. 당나라 시인 장지(張繼)의 「풍교야박(楓橋夜泊)」이란 시로 유명해진 절이다.

196) 상하이의 동쪽에 위치한 해안가의 어촌 마을로 현재는 상하이 시로 편입되었다.

5월 28일

크로프트 목사가 부두까지 나를 전송. 밤 10시에 콜롬비아(S. S. Columbia)호에 승선. 다음 날 새벽 5시에 항해 시작.

6월 2일

오후 2시에 마닐라 도착. 여권이 없어서 하선이 허락되지 않았으나 버그홀즈(Leo Allen Bergholz)¹⁹⁷⁾가 손을 써 마닐라 호텔에 투숙(출입국 관리들이 인근 해안가에 머물도록 요구함).

6월 7일

저녁 8시 30분에 마닐라 호텔에서 나와 아나작 페럴(Issac Peral)의 스타인메츠(Harry H. Steinmetz)¹⁹⁸⁾ 박사 방문.

6월 9일

오전 8시에 기차로 마닐라 출발, 데모티스(Damortis)라고 부르는 작은 역에 도착. 자동차로 출발, 오후 5시 30분에 바기오(Baguio) 도착. 파인즈(Pines) 호텔에 투숙.

6월 12일

오전 7시에 바기오 출발, 오후 5시에 마닐라로 귀환.

6월 14일

밤 11시에 마닐라 출발, 그레나이트 스테이트(S. S. Granite State)호에 승선. 다음 날 6월 15일 새벽 5시쯤 항해 시작.

197) 1857년생. 3·1운동 당시 서울 주재 미국영사로서 일본의 한국인 탄압의 증거들을 수집하여 미국정부에 제출하였고, 1921년에 중국 광둥 주재 미국영사로서 이승만과 같은 배를 타고 마닐라로 여행하였다.

198) 필리핀에서 활동한 침례교 의료선교사이다.

6월 29일

오전 8시에 호놀룰루 도착. 7번 부두에 동지들이 마중 나옴. 보스워드 환영 나옴.

8월 10일

오전 10시에 호놀룰루 출발, 샌프란시스코로 향함. 15번 부두에 많은 사람이 마중 나옴. 휴 신(신홍우, 범태평양회의¹⁹⁹⁾에 참석)도 나옴. 돌아가는 길에 매코이(Vaughan MacCaughey)²⁰⁰⁾ 박사 방문.

8월 16일

오전 8시 30분에 샌프란시스코 도착. 하선하기 전에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나를 인터뷰함.²⁰¹⁾ 클리프트(Clift) 호텔에 투숙. 파테 뉴스(Pathe News)와 주간 국제뉴스(International News Weekly)가 금문교 공원에서 촬영.

8월 19일

밤 11시에 샌프란시스코 출발, 다뉴바로 향함. 프레스노(Fresno)에 도착, 하룻밤을 지새움. 다뉴바 한인교회에서 환영회 개최. 프레스노 호텔(Hotel Fresno)²⁰²⁾에 투숙.

8월 20일

오후 1시 15분에 윤병구와 프레스노를 나와 밤 9시에 새크라멘토 도착. 호텔 새크라멘토에 투숙.

199) 태평양 연안 국가와 민족들 간의 이해증진을 목표로 1917년 창립된 민간기구인 범태평양협회(The Pan-Pacific Union)가 1921년 8월 11~24일 호놀룰루에서 개최한 제1차 범태평양교육회의(First Pan Pacific Educational Conference)를 말한다. 신홍우는 이 대회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인간성의 진보'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란 주제로 연설을 했다. 이승만은 이 대회를 기획·주관한 범태평양협회의 초대이사였다.

200) 하와이 준주의 공공교육 감독관이다.

201) 이 인터뷰에서 이승만은 워싱턴 군축회의(Washington Naval Conference)에서 한국민의 독립을 호소하고자 워싱턴으로 돌아왔으며, 회의가 미국 영토에서 열리기 때문에 파리평화회의에서처럼 한국 대표들이 일본 외교관들에게 질식을 당하지는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 『Oakland Tribune』 1921년 8월 17일자.

202) 지금의 버지스 호텔(Hotel Burgess)을 말하며, 당시는 위네스 호텔(Hotel Winnes)이라 불렀다.

8월 21일

오후 2시에 새크라멘토 출발, 시카고로 향함.

8월 24일

오후 3시에 버링턴(Burlington)행 기차가 푸에블로를 지남. 우흥태(禹興泰)²⁰³와 여러 사람이 역으로 마중 나옴.

오전 7시에 덴버 도착. 소년들과 아침을 먹고 오전 10시 30분에 출발. 폭풍우로 콜로라도주 그랜드 정션(Grand Junction) 서쪽에 물난리가 나서 기차 한 대가 탈선되어 11시간 정도 연착됨.

8월 25일

오후 3시에 시카고 도착. 많은 한인이 역으로 마중 나옴. 콩그레스(Congress) 호텔에 투숙.

8월 26일

밤 10시 30분에 볼티모어-오하이오행 기차로 시카고 출발.

8월 27일

밤 10시 30분에 워싱턴 도착. 역에서 동지들을 만남. 포틀랜드(Portland) 호텔 투숙.

10월 6일

오전 9시에 신형호와 워싱턴 출발, 오후 2시 20분에 뉴욕 도착. 많은 한인이 역으로 마중 나옴. 그날 밤 왈도프-아스토리아(Waldorf-Astoria) 호텔 연회장에서 회동.

203) 구미위원부의 콜로라도주 푸에블로 지방위원을 역임하였다.

10월 9일

3시 25분에 신형호와 뉴욕 출발, 저녁 8시 25분에 워싱턴 도착.

11월 1일

신형호와 포틀랜드 호텔에서 나와 워싱턴 DC 노스웨스트 1327-16번가 한국선교회(Korean Mission House)로 옮겨 옴.

11월 22일

오후 3시에 토마스(Charles S. Thomas)²⁰⁴ 상원의원, 돌프(Fred A. Dolph, 법률고문)²⁰⁵, 나, 민병수(閔丙壽)²⁰⁶, 민대식(閔大植)²⁰⁷의 아들은 필라델피아 대규모 집회 참석.

11월 23일

오전 8시 30분에 토마스 상원의원, 민병수와 함께 필라델피아 출발, 오전 11시 30분에 워싱턴으로 귀환.

204) 생몰은 1849-1930년. 콜로라도 주의 전 주지사 겸 민주당 상원의원으로, 1920년 2월 미 상원에서 '민족자결의 원칙에 따라 한국민의 독립의지에 동정을 표하며 한국이 국제연맹의 일원이 되는 것을 선언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수정안을 제출하는 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워싱턴 군축회의(Washington Naval Conference) 기간 동안 이승만의 구미위원부 법률 고문으로 고용되어 활동하였다.

205) 생몰은 1870-1927년. 미국 일리노이 주 출신의 변호사로 1919년 6월 이승만이 대한공화국 대통령으로 활동할 때 법률 고문으로 기용되었다. 이승만의 구미위원부의 법률고문으로서 구미위원부 공문을 작성하고 법률 문제를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1926년 사망 때까지 구미위원부 위원들과 협력하며 한국 독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Brief of Korea, Japanese Stewardship of Korea, Balance Debits and Credit in Far East」 등의 항일 문건을 집필하여 배포함으로써 미국 사회에 일본의 한국병합을 규탄하고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홍보하였다.

206) 생몰은 1900-1969년. 버지니아 주 로녹 대학에서 수학하고, 잠시 이승만이 설립한 구미위원부의 선전, 외교 활동을 도왔다. 귀국 후 부친의 경영 활동을 도우며 1936년 동일은행 취체역 회장을 지냈고, 1937년 일제에 국방헌금을 바쳤다.

207) 생몰은 ?-1951년. 조선말 세도가인 민영휘의 둘째 아들로 대한제국기 육군 참령을 역임하였다. 1920년 민영휘를 이어 은행업에 뛰어들어 실업계의 거물로 활동하며 1931년 동일은행을 창설하고 은행장격인 두취를 맡았다. 조선토지개발주식회사, 조선신탁회사, 조선맥주주식회사 취체역, 경성전기사회 감사역, 조선금융제도조사위원회 촉탁을 역임하며, 1935년 일제가 선정한 353명의 공로자에 포함되었다. 광복 후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CHAPTER 2

1922년

2월 20일

오전 11시에 뉴욕을 향해 출발. 오후 4시에 도착. 펜실베이니아 역에서 백남칠(白南七)²⁰⁸을 만남. 호텔 필라델피아에 투숙.

2월 23일

오전 8시 10분에 뉴욕 출발, 오후 1시 30분에 워싱턴 도착.

2월 25일

오후 3시에 워싱턴 출발, 뉴욕 도착. 저녁 8시 10분에 펜실베이니아 역에서 백남칠과 회동. 맥알핀 호텔에 여장을 풀.

2월 28일

오전 10시 10분에 뉴욕 출발, 오후 3시 45분에 워싱턴 도착.

2월 15일

워싱턴 DC 노스웨스트 1327-16 한국선교관(Korea Mission House)이 활동을 중단하여 정한경과 이곳에서 지내게 됨.

208) 생몰은 1892-1959년. 3·1운동 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경상도 의원 겸 서기로 선출되었고, 1920년 임시정부 외무위원으로서 외교·홍보를 위해 프랑스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갔다. 로복 대학 졸업 후 구미위원부에서 이승만을 도와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2월 20일

오후 3시 30분에 워싱턴 출발, 펜실베이니아행 열차로 시카고로 향함. 민병수와 이용직(李容稷)²⁰⁹이 역으로 마중 나옴.

2월 21일

오전 9시 55분에 시카고 도착, 콩그레스 호텔에 투숙. 한인회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

2월 22일

저녁 8시 10분에 오버랜드(Overland) 열차로 시카고 출발,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로 향함.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 도착. 역에서 많은 한인을 만남. 권영태(權榮泰)²¹⁰의 자택 방문. 문양목(文讓穆)²¹¹의 자택에서 점심 식사. 오후 1시 30분에 권영태가 운전을 하여 새크라멘토 출발. 권영태의 매제 박희성(朴熙成)²¹²과 안영렬(安瑛烈)²¹³이 안내.

209) 생몰은 1894-1950년. 납북. 미국명은 William Y. Lee. 1911년 평양 송실학교, 1915년 미국 파크 대학 3년을 마치고 이승만의 구미위원부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1년에 조지워싱턴 대학 정치학 학사, 1928년 유니온 신학교 신학 학사를 마치고 1929년 한인기독교회에 부임하였다. 1930년 한인기독교회의 건축부채 해소를 위해 교회를 미국 감독교회에 예속시키는 방안을 제기하였고, 1931년 교회의 분열과 위신 타락을 이유로 이승만으로부터 파면을 당하자 교민단 총회관에서 한인기독교회 이름을 사용하며 교인들과 계속 예배를 드려 한인기독교회가 둘로 분열되었다. 1934년 임시정부로부터 하와이 외무특파원에 임명되었으나 평양으로 돌아갔다.

210) 원문의 'Kwon Tai Young'은 'Kwon Yung Tai'의 오키로 보인다. 구미위원부 새크라멘토 지방 지방위원을 역임하고, 1924년도 LA 지역 한인학생회의 회장에 피선되어 활동하였으며, 이후 LA에 살면서 과일, 채소 장사를 하였다.

211) 생몰은 1869-1940년. 동학농민운동 때 관군에 잡혔다가 탈출하여 인천에서 서당교사를 지냈다. 을사늑약 체결 후 하와이로 이민하여 1907년 대동보국회를 결성하여 회장 및 기관지 「대동공보」 사장을 역임하였다. 1908년 스티븐스 망연규탄 총대로 활동하고, 장인환·전명운 두 의사의 재판 후원에 앞장 섰다. 1908년 LA에 대동신서관을 설립하여 이승만의 「독립정신」과 박용만의 「군인수지」 등을 간행하였으며, 1911년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장 역임하였다.

212) 생몰은 1896-1937년. 영어 이름은 Howard S. Park. 둘째 형은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박희도이고, 연희전문학교를 거쳐 미국 유학을 떠나 1920년 노백린 등이 설립한 월로스 비행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다. 월로스 비행학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새크라멘토의 미국 민간 비행학교에서 훈련을 계속하여 1922년 국제항공연맹(FIA)으로부터 비행사 자격증 취득하고,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육군비행병 참위로 임명을 받았다.

213) 1917년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윤병구가 워싱턴 주에서 한인학생 교육을 위해 한인교육회를 조직할 때 이를 적극 후원하였다. 1918년 상항청년회에서 회계국장, 대한인국민회 상항지방회의 법무원, 1919년 대한인국민회 평의원 역임하였다. 새크라멘토에서 여관업을 운영하며 이승만이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환대하였고, 1923년 귀국하여 제물포에서 사망하였다.

도중에 스톡턴(Stockton)의 애니 김(Annie Kim)에게 들러 그녀의 남편을 만남. 이웃에 살고 있는 헬렌 전(Hellen Chun)와도 조우.

밤 9시에 캘리포니아 프레스노(Fresno) 도착. 차로 200마일(322km)을 넘게 달림. 이순기를 프레스노 호텔에서 만나 함께 투숙.

2월 26일

안영렬, 윤병구, 김탁²¹⁴ 등이 홍치범(洪治範)²¹⁵의 차로 프레스노를 출발, 오후 5시에 다뉴바에 도착. 김정진(金廷鎭)²¹⁶과 안영렬은 바비스(Barbis) 호텔에 투숙. 한인교회에서 모임을 가짐.

3월 1일

다뉴바에서 성대한 기념식²¹⁷ 개최.

3월 2일

안영렬, 홍치범, 김탁과 다뉴바 출발, 오후 3시경에 캘리포니아 마데라(Madera) 도착. 로즈데일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냄.

214) 1935년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가 한인사회 통합을 위해 각 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때 중가주 지역 대표 중 일인이었다. 1938년 국민회가 미주한인의 단합과 독립운동 선전을 위해 시사위원회를 조직할 때 시사위원 7인 중 일인, 1937년 국민회 중앙감찰위원, 미국 지원과 한국독립을 위한 군사운동을 위해 나성한인경위대가 조직될 때 참위에 선임되었다.

215) 평양 남산현교회의 목사를 지내다가 1903년 하와이로 이민하였다. 안정수, 현순 등과 최초로 하와이에 한인교회를 설립하고 목회활동 전개하였으며, 1909년 「신한국보」 주필을 역임하고, 1915년 미국 서부로 이주하였다. 3·1운동 후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후원했으나 나중에 반이승만으로 돌아섰으며, 1942년 이승만 비판단체인 조선민족혁명당 하와이 총지부의 선전부장 역임하였다.

216) 생몰은 1884-1968년. 일명 김호(金乎). 서울 관립중학교 졸업 후 배재학당과 이화학당 교사 역임하고, 1914년 도미하여 캘리포니아 주에서 농장을 경영하여 재산을 모으고, 재미동포와 유학생을 위한 육영사업에 힘썼다. 대한인국민회에서 독립운동을 펼치고 「신한민보」를 발행하여 재미동포들의 항일의식을 고취하였으며, 3·1운동 후 미국 서부지역을 돌면서 독립자금을 모금하고, 노동사회개진당을 조직하여 중심 인물로 활동하였다. 1931년 미주지역 국민회 인사들을 모아 대한독립당을 결성하고, 1937년 북미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위원장, 1941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위원, 1944년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 위원, 1945년 3월 연합국회의 임시정부 파견대표를 역임하였다.

217) 삼일절 제3회 기념식이다.

3월 3일

오전 7시 30분에 마데라 출발, 홍치범의 차로 하루 종일 달려 저녁 7시에 샌프란시스코 도착. 스튜어트 호텔에 투숙.

3월 4일

교회(중국인)에서 모임을 가짐.

3월 5일

오전 11시에 김탁, 최응선(崔應善)²¹⁸과 나는 홍치범의 차로 샌프란시스코 출발. 안영렬, 임정구(任正九)²¹⁹와 박희성은 기차로 새크라멘토로 향함.

오후 5시에 새크라멘토 도착. 권영태와 다른 몇 사람이 차로 마중 나옴. 새크라멘토 호텔에 여장을 풀고 저녁 7시에 모임을 가짐.

3월 6일

오후 2시 30분에 홍치범의 차로 김탁과 새크라멘토 출발, 오후 6시에 윌로스(Willows)에 도착. 김종림(金宗林)²²⁰의 자택에서 대접을 받고 저녁 8시에 모임을 가짐. 그는 ‘한인 쌀의 왕(Korean Rice King)’으로 알려진 인물.

3월 7일

오전 11시, 윌로스(Willows) 출발. 맥스웰과 새크라멘토에 잠시 들렀다가 오후 6시에 캘리

218) 1918년 대한인국민회가 파리강화회의의 한국대표단 지원을 위한 특별의연금을 모집할 때에 위원을 맡았고, 국민회 기관지인 「신한민보」 주필을 역임하였다.

219) 1920년 구미위원부 스탕톤 지방 총무로, 1935년 국민회 북미총회가 한인사회 통합을 위해 각 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다음 조직한 한인사회 발전책 실행위원회에 오글랜드 대표로 선임되었다. 1937년 대한인국민회 중앙집행위원 역임하였다.

220) 생몰은 1886-1939년. 노동이민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1907년부터 캘리포니아 주 철도건설 노동자로 일하며 대한인국민회에 가입하였다. 아세아실업주식회사와 북미실업주식회사를 통해 한인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인사회 최대의 농장을 운영하며 ‘미곡왕(Rice's King)’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3·1운동 직후 독립의연금 모금활동 때 당시 최대 금액인 3,400달러를 납부하였고, 구미위원부 윌로스 지방위원을 역임하였다. 이승만과의 친분으로 나성동지회에 참가한 다음, 동지회에 깊이 관계하며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후원하였다.

포니아의 스톡턴 도착. 스톡턴 호텔에 투숙.

저녁에 김정학(Kim Ching Hak)의 호텔에서 회동. 김탁과 최응선은 링컨 호텔에 투숙.

3월 8일

오전 10시에 홍치범의 차로 스톡턴 출발, 오후 6시에 다뉴바에 도착하여 바비스 호텔에 여장을 풀.

3월 9일

오전 9시에 홍치범의 차로 다뉴바를 출발, 김정진과 LA로 향함. 저녁 8시 30분에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하여 로슬린(Rossllyn) 호텔에 투숙.

3월 10일

오전 8시 30분에 로스앤젤레스 한국선교회에서 모임 개최.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에 홍치범과 김정진은 폭설에도 차를 몰아 마조브(Majove) 산을 넘어 밤 9시에 캘리포니아의 베이커스필드(Bakersfield)에 도착. 서든(Southern) 호텔에서 밤을 지새우다 홍치범은 다음 날 새벽 4시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드뉴바를 향해 베이커스필드를 출발. 로스앤젤레스에서 다뉴바까지 220마일(354km).

3월 13일

새벽 1시 15분에 남태평양 열차로 베이커스필드 출발, 시애틀로 향함. 오전 9시 15분에 새크라멘토 도착. 역에서 문양목, 안영렬, 권영태, 박희성과 조우. 오후 1시 15분, 새크라멘토 출발.

3월 14일

저녁 8시 15분, 포틀랜드(오레곤 주) 도착. 로버트 스미스도 새크라멘토에서 같은 기차를

타고 옴. 포틀랜드의 선한사마리아인 병원(Good Samaritan Hospital)의 트레이시(L. Tracey)를 만나러 감.

밤 11시 15분에 남태평양 열차로 포틀랜드 출발.

3월 15일

오전 7시 10분, 시애틀 도착. 오전 9시 15분에 기차를 바꿔 타고 시애틀 출발. 오후 3시 30분, 워싱턴 주의 야키마(Yakima)에 도착. 많은 한인이 역에 마중 나옴. 현지인들이 도넬리(Donnelly) 호텔까지 안내. 오후 7시에 한인회에서 모임 개최.

3월 16일

오후 3시 35분, 야키마 출발. 박호근²²¹과 김, 두 사람이 안내. 오후 12시 20분에 시애틀 도착. 이곳 사람들이 사전에 예약해 준 뉴 리치몬드 호텔에 투숙. 밤 11시 20분에 중국 국민당사에서 회동.

3월 17일

오후 3시 20분에 길인영(길선주의 아들)과 시애틀 출발, 밤 10시 30분에 포틀랜드 도착. 필지성과 길인영이 역에 마중 나옴. 벤슨(Benson) 호텔에 투숙.

3월 18일

저녁 7시 15분에 포틀랜드 출발, 스포켄(Spokane)과 게리슨(Garrison)에서 기차를 환승, 밤 9시 15분에 몬타나의 버트(Butte)에 도착.

3월 19일

많은 한인이 역에 마중 나와 버트 호텔로 안내.

221) 대한인동지회 북미총회장을 역임한 이승만 지지자로, 1942년 이승만의 지시를 받은 미서부 연안의 한인들이 북미 민중대회를 열었고, 이승만에 비판적인 재미한족연합회의 임원을 비판할 때에 민중대회의 위원장을 맡았다.

3월 21일

오전 7시 15분에 버트 출발. 두 사람²²²이 나를 역에서 환송.

3월 22일

오전 6시에 와이오밍 주 록스프링(Rockspring) 도착. 그곳에서 자동차로 오전 10시 30분에 와이오밍 주의 슈퍼리어(Superior)에 도착. 캠프에서 모임을 마친 직후 오후 6시 30분에 백만수(白萬洙)²²³, 박길문(朴吉文)²²⁴, 또 다른 한 명과 함께 백만수의 차로 슈퍼리어를 출발, 록스프링으로 돌아옴. 밤 9시, 기차에 탑승.

3월 23일

오전 10시에 덴버 도착. 역에 몇 사람이 마중 나옴. 오전에는 농장에서 모임을 가졌고 오후에는 김영철의 집에서 다른 모임을 가짐.

밤 11시 30분에 서북부선(Northwestern R. R.) 열차로 덴버 출발.

3월 25일

오전 7시 20분에 시카고 도착. 역에는 많은 친구가 마중 나옴. 콩그레스(Congress) 호텔에 투숙.

3월 26일

오후 5시에 시카고 출발, 인디애나 주의 사우스벤드(South Bend)로 향함. 이태영²²⁵, 강영섭²²⁶, 한인성이 안내함.

오후 7시에 사우스벤드 도착. 이일(李逸)²²⁷과 김승제(金承濟)²²⁸가 역으로 마중 나옴. 사

222) 필지성과 길인영이다.

223) 이승만의 외교독립운동단체인 구미위원부의 와이오밍 주 슈피리오 지방의 지방위원이다.

224) 1922년 와이오밍 주의 대한민국민회 지부장이다.

225) 1922년 구미위원부 시카고 수봉원이다.

226) 미국 시카고 거주 교민이다.

227) 미국 인디애나 주 사우스벤드 교민이다.

228) 미국 인디애나 주 사우스벤드 교민으로 구미위원부의 공채금 모금사업에 지원하였다.

전에 예약해 준 올리버(Oliver) 호텔에 투숙. 다음 날 1시 30분에 한인 식당에서 회동.

3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사우스벤드 출발, 클리블랜드에서 환송. 뉴욕행 기차를 타려고 약 40분간 기다림.

3월 28일

오전 8시에 뉴욕 도착. 허정(許政)²²⁹과 김영섭을 만남. 코모도어 호텔에 투숙.

3월 29일

저녁 8시 30분에 한인교회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

3월 30일

밤 12시 30분에 뉴욕 출발, 오전 8시에 워싱턴 DC 도착.

8월 14일

오전 8시 15분에 워싱턴 DC 출발, 정오에 필라델피아 도착. 서재필 박사가 브로드스트리트(Broad Street Station) 역으로 마중을 나와 역 카페에서 점심 식사. 오후 3시 15분에 필라델피아 출발, 오후 7시에 워싱턴으로 귀환.

8월 22일

오후 4시 50분에 퍼시픽라인(Pacific line)으로 워싱턴 출발, 로스앤젤레스로 향함.

229) 생몰은 1896-1988년. 보성전문 법과를 졸업하고, 1919년 3·1운동 참가 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에 참여하였다. 1920년 프랑스에서 재불한인거류민회 회장이 되어 교민들을 단합시켰고,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 한인유학생회 회장으로 활약했다. 1922년 북미한인교민총단장으로서 재미교포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고, 1928년 「삼일신보」 사장 역임했으며, 광복 후 부산에서 제헌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이승만 정부 때 교통부장관, 사회부장관, 국무총리서리, 서울 특별시장, 한일회담 수석대표, 외무부장관 등을 역임하였다. 4·19혁명 후 과도내각의 수반으로서 대통령권한대행직을 수행하였다.

8월 26일

오전 7시 30분에 덴버 도착. 오후 1시 30분에 유니온 퍼시픽 열차로 출발.

8월 27일

오후 3시, 캘리포니아 주 새크라멘토 도착. 오후 4시 10분에 그곳을 출발, 밤 10시 30분에 프레스노(Fresno) 도착. 프레스노 호텔에 투숙.

8월 28일

오전 9시에 택시로 프레스노 출발, 오전 11시에 다뉴바에 도착. 오후에는 강둑에서 여러 지도자와 회동. 저녁 7시 40분에 남태평양 열차로 다뉴바를 떠남.

8월 29일

오전 7시 40분에 로스앤젤레스 도착, 새로 지은 포슬린(Posslyn) 호텔에 투숙.

8월 31일

오후 6시에 로스앤젤레스 출발, 다음 날 아침인 9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샌프란시스코 도착. 스투어트(Stewart) 호텔에 투숙.

9월 2일

오후 1시에 퍼시픽 메일(Pacific Mail) 선박회사의 프레지던트 윌슨(S. S. President Wilson)호로 호놀룰루를 향해 항해 시작.

9월 7일

오후 1시에 호놀룰루 도착. 카이무키(Kaimuki) 애비뉴 1105-3의 집을 빌려 지내기로 함.

CHAPTER 2

1924년

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왓슨 네비게이션 라인(Watson Navigation Line) 선박회사의 마우이(S. S. Maui)호에 승선, 샌프란시스코를 향해 호놀룰루 출발.

1월 29일

오전 9시에 샌프란시스코에 하선. 부두에 임정구가 마중을 나왔고, 스투어트 호텔에 투숙.

1월 31일

오후 4시에 이창규(李昌奎)²³⁰와 증기선 예일(Yale)호에 승선, LA를 향해 샌프란시스코 출항.

2월 1일

오전 11시 10분, 캘리포니아의 윌밍턴(Willmington)에 도착. LA에서 친구들이 환영 음. 뉴 로즐린(New Roselyn) 호텔에 여장을 풀.

2월 7일

오후 6시에 증기선 베네수엘라(S. S. Venezuela)호에 승선, LA 윌밍턴 출발. 정인영, 이순기, 아이작 김, 이창규, 홍치범 등이 환송.

230) 대한제국 군인 출신으로 하와이에 이민하여 1913년부터 이승만과 친분을 유지하였다. 1920년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 군무원, 1923년 하와이 교민단 임원으로서 『태평양잡지』 발간에 가담하고, 1930년 동지회 재무를 지내며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도왔다.

2월 14일

베네수엘라호가 과테말라의 참페리코(Champerico)에 정박. 다음 날 아침 하선해 주변을 관광.

2월 15일

베네수엘라호가 참페리코를 출항.

2월 16일

베네수엘라호가 살바도르의 산호세(San Jose)에 정박. 승객 50여 명은 짧은 관광 가능. 일행은 하선하여 차로 항구에서 약 45마일(64.4km) 떨어진 수도 산살바도르로 향함. 오후에 베네수엘라호에 승선.

2월 18일

산호세를 출발, 다음 날 오전 7시에 니카라과의 코린토(Corinto)에 정박. 24명의 승객이 약 230마일(370km) 떨어진 니카라과의 수도 마노구아(Managua)로 기차를 타고 감. 오후 12시 20분에 도착. 라 폴린(La Polean) 호텔에 투숙하여 주변을 관광.

2월 21일

오전 9시 30분에 마노구아(Managua) 출발, 오후 4시에 배에 다시 승선. 코린토(Corinto)에서 출항.

2월 24일

오후 6시, 파나마의 발보아(Balboa) 도착. 파나마 시티의 안콘(Ancon)에서 하룻밤을 보냄.

2월 25일

오전 6시에 베네수엘라호에 승선하여 발보아(Balboa) 출항. 운하를 지나 오후 2시 30분에 파나마 콜론의 크리스토팔(Cristobal) 도착.

2월 26일

밤 9시 30분에 크리스토팔 출발, 쿠바의 아바나(Havana)로 향함.

3월 1일

오후 1시 30분에 하바나 도착.

3월 2일

오후 4시에 볼티모어를 향해 하바나 출발. 축제가 오후 늦게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우리 배는 예정대로 출항.

3월 5일

7시 30분에 볼티모어 도착. 세관원들이 나에 대한 외교적 예우로 수하물을 검색하지 않음.

오후 12시 55분에 워싱턴의 힐더브랜드(Hildebrand) 씨와 볼티모어 출발, 밤 1시에 워싱턴 도착. 남궁염(南宮炎)²³¹이 예약해 준 버링턴 호텔에 투숙.

3월 8일

오후 2시에 워싱턴 출발, 오후 5시에 필라델피아 도착. 서재필의 집으로 가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냄. 다음 날인 3월 9일 일요일 오후 2시에 기차로 필라델피아 출발, 오후 4시에 뉴욕 도착. 펜실베이니아 역에 많은 친구들이 마중 나와 한인교회로 감. 월요일 저녁 모임을 위해 펜실베이니아 호텔에 투숙.

231) 생몰은 1888-1961년. 미국명은 David Y. Namkoong. 개화관료 남궁역의 아들로 배재학당 졸업 후 도미하여 버지니아 주 랜돌프 매건 대학에서 수학하였고, 대학 재학 중 이승만을 만나 독립운동을 적극 도왔다. 1921년 북미한인학생회 대표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뉴욕에서 이승만 등과 비밀결사를 결성하였으며, 이승만의 독립운동 지원을 위해 동지회 뉴욕 지부를 결성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해방 전까지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 위원, 구미위원부 임시위원장, 삼일신보사 창립 발기인,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 뉴욕지부 대표후보, 북미동지회 총지부장, 재미한족연합위원회 경제위원을 역임하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뉴욕 총영사, 외자청 겸임 이사관을 지냈다.

3월 11일

오전 9시에 뉴욕을 떠나 오전 11시, 뉴저지의 애본(Avon)에 도착. 스타크스 여사와 그녀의 동생을 방문한 후 오후 4시 50분에 애본, 정확히 말하면 애즈버리 파크를 출발하여 밤 11시에 워싱턴으로 귀환. 버링턴 호텔에 투숙.

3월 21일

워싱턴의 버링턴 호텔에서 카이로 호텔로 숙소를 옮김.

4월 30일

자정에 워싱턴 출발, 아침 7시에 뉴욕 도착.

5월 1일

오후 3시 25분에 뉴욕 출발, 저녁 8시 30분에 워싱턴으로 귀환.

8월 20일

수요일 오전 9시에 남궁염의 결혼식²³²⁾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 출발, 오후 2시에 뉴욕 도착. 코모도어 호텔에 투숙.

8월 21일

오후 4시 10분에 뉴욕 출발, 오후 6시에 뉴저지의 벨마 도착. 리버 애비뉴 306에 소재한 맥화든(McFaden)의 자택에 여장을 풀.

8월 22일

오후 12시 1분에 벨마 출발, 오후 6시 20분에 워싱턴으로 귀환.

232) 남궁염은 뉴욕 한인교회에서 부인 우복자(미국명 조앤)와 결혼식을 올렸다. 이 결혼식에서 이승만은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하였고, 우복자의 부친은 서울 YMCA에서 맺은 인연으로 미국에 와서도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적극 도운 우형태이다.

10월 14일

오전 9시, 워싱턴 DC 출발.
오후 2시 45분에 뉴욕 도착, 코모도어 호텔에 투숙.

10월 15일

오전 10시에 뉴욕 출발, 정오에 필라델피아 도착. 서재필 박사를 만나려고 펜실베이니아 미디어로 감.
오후 3시 50분에 미디어 출발, 오후 5시에 필라델피아를 거쳐 오후 7시에 뉴욕 도착.

10월 16일

오전 8시 30분에 뉴욕 출발.

10월 17일

오전 9시에 시카고 도착, 콩그레스 호텔에 투숙.

10월 18일

오전 8시 30분에 시카고 출발.

10월 20일

12시 45분에 애리조나의 윌리엄스(Williams)에서 기차를 환승, 오후 4시에 그랜드 캐년 도착. 엘 토바드 호텔에 투숙.

10월 21일

오전 8시 30분, 그랜드 캐년 출발.

10월 22일

오전 7시 30분, 로스앤젤레스 도착. 뉴 로슬린 호텔에 투숙.

10월 25일

12시에 칼라와이(S. S. Calawai)호로 로스앤젤레스 출항. 이창규가 동행.

11월 1일

오전 8시에 호놀룰루 도착. 파롤로(Palolo)의 집으로 감.

CHAPTER 2

1925년

11월 20일

오후 5시에 하리카라(S. S. Haleakala)호에 승선하여 호놀룰루 출발, 오전 7시에 하와이 섬 힐로(Hiro)²³³ 도착. 다음 날(21일)은 김성기가 동행.

12월 11일

오전 7시에 김성기와 하와이 섬과 마우이 섬을 둘러본 후 마우이 섬의 라하이나(Lahaina)로 돌아옴.

233) 미국 하와이 주에서 가장 큰 섬인 하와이 섬(Big Island)의 군청 소재지이다. 하와이 주에서 주도(州都)인 호놀룰루 다음으로 큰 도시이며, 힐로 만에 면한 항구도시로서 주변에 사탕수수 재배가 성하여 관련 산업이 발달하였다.

CHAPTER 2

1926년

1월 5일

오후 5시에 호놀룰루(S. S. Honolulu)호에 승선하여 호놀룰루 출항, 다음 날 오전 7시에 하와이 섬 힐로(Hilo)에 도착.

1월 7일

김경낙²³⁴과 그의 가족이 힐로에서 18마일 떨어진 수페(Supe)라는 곳으로 이사 옴. 나도 그들과 동지촌(同志村)이라 부르는 천 에이커의 새 농장으로 입주.²³⁵

오후 5시에 하리카라호에 승선하여 힐로 출항, 1월 25일 오전 7시에 호놀룰루로 귀환.

2월 2일

호놀룰루 출항, 다음 날(3일)에 힐로 도착.

4월 1일

오후 5시에 힐로 출항, 오전 7시에 호놀룰루로 귀환.

234) 이승만이 설립한 동지식산회사의 부사장 역임하였다.

235) 1925년 12월에 이승만은 동지식산회사 사업의 일환으로 동지회 활동에 필요한 재정 확보와 늘어 가는 한인 동포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동지식산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자본금 7만 달러로 시작하여 점차 20만 달러로 확대하기로 하고, 초기에 모집된 3만 달러의 자금 중 1만 3,662달러를 투입하여 힐로 섬 올라이(Olaa)의 임야 960.33에이커(약 389만 평방미터)를 매입하였다. 초기의 계획은 여기서 벌목을 하여 선박 건조나 가구용 목재를 만들어 팔려고 했으나 재질이 적합치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에 미 해군 당국과 화학 제작용 목탄을 만드는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벌과금을 포함한 3만 달러의 부채를 짊어졌다. 당시 벌목한 산지를 농지로 개간하여 이곳에 '동지촌'을 건설했는데, 1927년 당시 동지촌에는 21가구(성인 남녀 40명과 아동 13명)가 입주하였다. 1930년 10월에 동지식산회사는 자본 부족과 대공황으로 인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하는 재정 보고서를 공표하였다.

4월 19일

하리카라호로 호놀룰루 출항, 다음 날 오전 7시에 힐로 도착. 동지촌이 있는 레후아(Lehua) 역으로 감.

5월 2일

오후 4시에 하리카라호로 힐로 출항. 다음 날(3일) 오전 7시에 호놀룰루 도착.

6월 15일

오후 4시에 호놀룰루 출항, 다음 날 오전 7시에 힐로 도착.

8월 8일

오후 4시에 힐로 출항, 다음 날(9일) 오전 7시에 호놀룰루 도착.

9월 14일

오후 4시에 민찬호 부인²³⁶과 강수산나(Susanna Kang)와 함께 호놀룰루 출항, 다음 날 오전 7시에 힐로 도착.

10월 14일

오후 4시에 힐로 출항, 다음 날 오전 7시에 호놀룰루 도착.

10월 19일

오후 4시에 하리카라호로 호놀룰루 출항, 다음 날 오전 7시에 힐로 도착.

12월 26일

오후 4시에 힐로 출항, 다음 날 오전 7시에 호놀룰루로 귀환.

236) 하와이 감리교회의 동료였던 홍치범 목사의 동생인 몰리에 흥(Mollie Hong)이다. 몰리에 흥과 민찬호는 1919년 1월 21일 이승만이 LA를 방문했을 때 결혼식을 올렸다.

CHAPTER 2

1927년

3월 15일

오후 4시에 스파크스 부부와 캘리포니아의 할리우드에 살고 있는 그들 부부의 딸과 함께 호놀룰루 출항, 다음 날 오전 7시에 하와이 섬 힐로 도착.

3월 21일

힐로 출발, 다음 날 오전 7시에 호놀룰루로 귀환.

5월 17일

오후 4시에 호놀룰루 출항, 다음 날(18일) 수요일 오전 7시 30분에 힐로 도착.

6월 19일

일요일 오후 4시에 안원규(安元奎)²³⁷와 힐로 출항, 다음 날 아침 7시에 호놀룰루 도착.

11월 1일

화요일 오후 2시, 하리카라호가 검사를 받고 있어서 마우나 키아(S. S. Mauna Kea)호로 호놀룰루 출항, 다음 날 아침 7시에 힐로 도착. 홍수산나 부인²³⁸, 최기룡과 그의 딸 살로메도 같은 배에 승선하여 우리의 농장 동지촌으로 감.

237) 하와이 노동이민자로서 1906년 공동회 회장, 1907년 한인합성협회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1909년 국민회 창립 주도하였고, 광복 전까지 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의 핵심 인사로서 독립운동 전개하였다. 1911년 한인농상주식회사 설립하여 1914년 1,500에이커의 농장을 국민회에 기부해 대조선국민군단 창설에 기여하였으며, 1938년 국민회와 동지회의 합동논의 대의장, 1940년 연합한인위원회 관리부 재무담당, 1941년 3·1절 경축위원장, 1941년 해외한족대회 국민회 대표, 1941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부위원장, 1943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위원장, 1944년 주미외교위원부 외교위원을 역임하였다.
238)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소속 평신도이다.

12월 4일

오후 4시에 하리카라호로 힐로 출항, 다음 날(5일) 아침 7시에 호놀룰루 도착. 홍수산나도 같은 배의 3등실에 승선.

12월 23일

오후 4시에 호놀룰루 출항, 다음 날 오전 7시에 힐로에 도착.

CHAPTER 2

1928년

5월 5일

오후 4시에 하와이 섬 힐로 출항, 다음 날 오전 7시에 호놀룰루 도착.

5월 9일

저녁 8시에 김경준²³⁹과 증기선 킬라우니아(Kilnaunea)호로 호놀룰루 출항. 다음 날 새벽 5시 30분에 카우아이 섬 리후에(Lihue)의 아후키니(Ahukini) 부두에 닿음. 이병두(李炳斗)²⁴⁰의 부인이 차를 가지고 마중 나옴.

5월 15일

오후 6시, 카우아이 섬 리후에의 아후키니 선착장 출항. 이병두의 부인이 김경준과 나를 선착장으로 데려다 줌. 엘리스 박(박맹조)²⁴¹은 이신근과 함께 카우아이 섬 하나마우루(Hanamaulu)에서 한턱을 냈고, 임일관 부부와 이대보는 카우아이 섬 카파(Kappa)에서 하와이안 레이(Lei)²⁴²를 가지고 와서 전승.

5월 18일

하리카라호로 호놀룰루 출항, 다음 날(19일) 오전 7시에 힐로 도착.

239)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창설 대표단의 일원이다. 한인기독교회 이사, 1928년 한인단체의 통합을 위한 대한민족통일촉성회 발기인을 역임하였고, 1930년 한인기독교회의 분란 당시 반이승만파에 가담하였다. 1935년 반이승만 단체인 중한민중동맹단 창립 발기인, 1939년 중한민중동맹단 이사원 역임하였다.

240) 1920년 미시간 주에서 한국의 독립을 후원한 외국인 후원단체인 한국친우회의 실행서기 역임하였다.

241) 하와이 동지회에서 이승만 후원 활동하였다. 1948~1956년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부속의 한인양로원 원장, 1951~1952년 하와이 동지회 구제부장을 역임하였다.

242) 하와이안 레이(Lei)는 특별한 손님의 목에 걸어주는 꽃목걸이이다.

5월 27일

오후 4시에 하리카라호로 힐로 출항, 다음 날(28일)에 호놀룰루로 귀환.

6월 5일

오후 4시에 호놀룰루 출항, 다음 날 오전 7시에 힐로에 도착.

6월 17일

오후 4시에 힐로 출항, 다음 날(18일) 오전 7시에 호놀룰루에 도착.

8월 3일

오후 4시에 조지 윈터(George Winter)²⁴³와 호놀룰루 출항, 다음 날 아침 7시에 힐로에 도착. 윈터는 동지촌에 석탄 화로를 설치할 예정.

8월 26일

오후 4시에 힐로를 출항, 다음 날(27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호놀룰루로 귀환.

9월 4일

오후 4시에 톰킨스(Orville H. Tompkins)²⁴⁴와 호놀룰루 출항, 다음 날 아침 7시에 힐로 도착. 그는 오히아나무(Ohia) 목재를 가공할 수 있는 제재소를 건립할 예정.

243) 호놀룰루 직업학교(Honolulu Vocational School)의 강사로 많은 실험을 거쳐 증류 혹은 가열 방식의 새로운 숯가마를 1828년 8월에 설치하는 데 성공하였다. 24시간마다 4톤의 숯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244) 시애틀과 포틀랜드에 지점이 있는 Perine Machinery Company의 호놀룰루 지점장으로 이승만이 숯 300자루를 미국 서해안 지역의 회사에 납품하도록 주선해 주었다.

9월 23일

오후 4시에 힐로 출항. 이극로(李克魯)²⁴⁵ 박사와 하리카라호의 같은 선실에 승선.²⁴⁶ 다음 날 아침 7시에 호놀룰루에서 하선.

9월 28일

오후 4시에 호놀룰루 출항, 다음 날 아침 7시에 힐로 도착.

10월 25일

오후 4시에 헨리 김(金鉉九)²⁴⁷과 힐로를 출항, 다음 날 아침에 호놀룰루 도착.

11월 9일

오후 4시에 호놀룰루 출항, 다음 날 아침 7시에 힐로 도착.

12월 9일

오후 4시에 힐로 출항, 다음 날 아침 7시에 호놀룰루에 하선.

12월 18일

오후 4시에 호놀룰루 출항, 다음 날 아침 7시에 힐로 도착.

245) 생몰은 1893-1978년. 1912년 서간도로 망명하여 백산학교와 동창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였다. 1920년 중국 상하이 동제대학 예과,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해 1927년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28년 6월~12월 영국, 미국, 일본을 여행했는데, 이때 하와이를 방문하였다. 1929년 귀국 후 한글의 연구와 보급을 통한 민족의식의 고취를 추구하는 조선어연구회에 가입하여 국어운동을 전개하였고,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체포되어 복역하였다. 광복 후 국어운동을 재개하고 남한만의 단독선거에 반대하여 남북제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에 참여하였다.

246) 이극로는 1928년 9월 21일 하와이 섬의 화산을 둘러보고 동지촌에 들러 하룻밤을 자면서 이승만으로부터 동지촌의 사정을 자세히 듣고, 다음 날 동지촌의 생활상태를 두루 살펴보고, 23일 석양 무렵 힐로 항에서 배를 타고 호놀룰루로 향했다.

247) 생몰은 1889-1967년. 대한자강회의 회원. 1909년 도미 후 네브라스카 주 헤이스팅스 소년병학교에서 국문을 가르쳤다. 오히오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3·1운동 후 「신한민보」 주필, 국민회 북미지방총회 부회장 역임하였다. 1926~1929년 구미위원부 위원, 1929년 교민단 서기, 재무로서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돕다가 1930년 반이승만 세력에 가담하였다. 이후 호놀룰루 해외한족대회 하와이 대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위원, 주미외교위원부 외교위원, 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 총회장 등을 역임하며 임시정부 후원 및 외교 선전 사업을 전개하였다.

CHAPTER 2

1929년

1월 10일

오후 4시에 하와이 섬 힐로 출발, 다음 날 아침 7시에 호놀룰루 도착.

1월 15일

오후 4시에 호놀룰루 출발, 다음 날(16일) 아침 7시에 힐로 도착.

3월 14일

오후 4시에 힐로 출발, 다음 날 아침 7시에 호놀룰루로 귀환.

3월 22일

오후 4시에 호놀룰루 출발. 다음 날 아침 7시에 오히아 목재 7만 보드 피트(board feet)를 진주만으로 가져와 달라 주문을 받고 힐로에 옴. 톰킨스가 자신의 제재소에서 오히아 목재를 자를 수 있다고 보증을 해주어 미 해군과 계약을 맺었으나 목재를 인도하지 못했음.

5월 23일

오후 4시에 힐로 출항, 다음 날 아침 7시에 호놀룰루 도착.

5월 28일

오후 4시에 호놀룰루 출발, 다음 날 오전 힐로 도착.

7월 21일

오후 4시에 힐로 출항, 다음 날 아침 7시에 호놀룰루 도착.

8월 2일

오후 4시에 호놀룰루 출발, 같은 날 저녁 9시 30분에 마우이 섬의 라하이아(Lahaina) 도착. 밤에 택시로 와이루쿠(Wailuku) 호텔로 가서 하룻밤 묵음.

8월 3일

오전 8시에 우편 배달차를 이용하여 오후 3시에 마우이 섬 하나(Hana)에 도착. 토요일 밤은 한인교회에서 보냄. 다수의 한인과 회동. 다음 날 아침 주용한이 아침 예배를 집전했고, 나는 오후 2시에 김영조²⁴⁸⁾의 부인과 아랍이 몰고 온 차로 하나를 출발하여 일요일 오후 6시에 와이루쿠(Wailuku)로 돌아옴. 라하이아에서 다음 날(4일) 새벽 1시에 하리카라호에 승선, 오전 7시에 호놀룰루로 돌아옴.

8월 7일

오후 4시에 호놀룰루 출발, 다음 날 오전 7시에 힐로 도착.

8월 8일

오후 4시에 힐로 출발, 다음 날 오전 7시에 호놀룰루 도착.

8월 23일

오후 5시 호놀룰루 출발, 다음 날 오전 7시에 힐로 도착.

9월 1일

오후 4시에 힐로 출발, 다음 날 오전 7시에 호놀룰루 도착.

9월 10일

오후 4시에 호놀룰루 출발, 다음 날 오전 7시에 힐로 도착.

248) 1941년 6월경 한국 독립과 미주 한인단체 통합을 위해 설립된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지방위원회의 마우이 섬 서부 지방의 재무를 맡았다.

9월 26일

오후 4시에 힐로 출발, 다음 날 오전 호놀룰루로 귀환.

10월 5일

오전 10시에 호놀룰루시(S. S. City of Honolulu)호에 승선하여 로스앤젤레스를 향해 호놀룰루 출항.

10월 11일

오전 7시에 호놀룰루시호가 캘리포니아의 산페드로(San Pedro)인가 웰밍턴(Wilmington)인가에 도착. 수하물 검색과 이민국 수속 때문에 승객들이 오전 10시 30분에야 하선. 로스앤젤레스에서 다섯 대의 차로 많은 친구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중 나옴. 최영기²⁴⁹⁾, 이순기와 그의 자녀들, 정지영²⁵⁰⁾, 김종립과 그의 아내 임영선 여사, 김성권²⁵¹⁾, 서정우 등.

웰밍턴 YMCA에서 점심 식사 후, 신차 뷰익 세단을 타고 다른 차들의 호송을 받으며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미리 예약을 해둔 클락(Clark) 호텔에 투숙. 김중수²⁵²⁾와 전진택²⁵³⁾이 내가 로스앤젤레스에 체류하는 동안 안내해 줌.

10월 15일

노던 호텔(Northern Hotel)로 숙소를 옮김.

249) 1917년 샌프란시스코 상륙하였다. 1918년 대한인국민회 프에블로 지방회와 와이오밍 지방회를 설립하고 서기를 역임하였으며, 로스앤젤레스에서 과채상을 운영하였다. 1929년 나성동지회 설립에 참가하고, 1930년 나성동지회 회장, 1930년 7월 호놀룰루에서 동지미포대표회가 개최될 때 로스앤젤레스 대표로 참가, 하와이에서 한인기독교회의 이사원이 되어 이승만의 활동을 적극 후원하였다.

250) 1924년 이승만 계열의 로스앤젤레스 한인교민단 창설 발기인이다. 1935년 북미 국민회 총회의 단체통합운동 당시 남가주 지역의 대표단 중 일인이며, 1939년 조선의용대 미주후원회의 집행위원 역임하였다.

251) 1935년 북미의 대한인국민회 총회가 한인사회 발전과 임정 후원을 위한 단체 통합운동을 벌일 때 남캘리포니아 지역의 대표단 중 일인으로 참가하였다.

252) 1945년 반이승만계 인사들로 구성된 재미한족연합위원회의 집행부가 한인구체회를 조직할 때에 사무원으로 참여하였다.

253) 1931년 이승만의 친위조직인 대한인동지회 LA지부 서기 역임하였다.

10월 24일

김정진, 한석진, 이민식이 다뉴바(Dinuba)와 리들리(Reedly)에서 와서 그들이 마련한 환영회로 우리를 데리고 감. 전진택과 그들이 몰고 온 차로 리들리의 위네스(Winnes) 호텔에 투숙. 25일 저녁 모임 개최.

10월 26일

김정진과 이민식, 한석원 목사가 리들리와 다뉴바에서 옴. 9시에 로스앤젤레스 출발. 전진택과 다른 세 명과 함께 차로 리지 웨이(Ridge Way)로 갔다가 그날 오후에 리들리로 돌아옴. 전진택과 위네스 호텔에 투숙.

10월 27일

오후 6시에 한인 감리교회에서 환영회 개최. 3개 지역 대표 60여 명의 한인이 참석. 7시 30분에 다뉴바의 한인 장로교회에서 환영회 개최. 이살음(李薩音)²⁵⁴이 주관.

10월 28일

김형순(金衡琄)²⁵⁵의 부인²⁵⁶, 루스 김(Ruth Kim)²⁵⁷과 그녀의 딸 등 12명이 자동차 두 대에 나눠 타고 요세미티 관광. 요세미티 오두막(Yosemite Lodge)에서 하룻밤 묵음. 다음 날 주일, 돌아오는 길에 와워나 트리(Wawona tree)²⁵⁸ 등 유명한 관광지 유람 후 리들리로 귀

254) 생몰은 1892-1966년. 1917년 도미하여 대한민국민회 샌프란시스코지방회 서기, 학무원, 법무원, 1919년 「신한민보」 주필, 1919년 구미위원회 지방위원, 대한노동사회개진당 대표 역임하였다. 다뉴바 한인교회 목사로 중가주 지역 한인공동체를 이끌었으며, 1931년 임시정부 후원에 앞장섰다. 1941년 국민회 중앙집행위원, 1944년 동지회 북미총회 총회장, 1945년 이승만이 단장인 샌프란시스코회의 한국대표단의 단원을 역임하였다.

255) 생몰은 1886-1977년. 1914년 국민회 샌프란시스코지방회에 가입하고, 1922년 국민회 다뉴바지방회 실업부원, 1930년 국내 독립운동 후원을 위한 중가주대한인공동회 회장에 선임되었다. 1932년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구미위원부 후원활동 전개하였으며, 1933년 미주한인연합회 제2차 통상회에 LA동지회 대표로 참석, 1937년 국민회 제1차 대표대회 중앙집행위원, 1938년 국민회 중가주지방회 지방대표, 1941~1944년 국민회 중가주지방회 대표원, 선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256) 한덕세. 이화여대에서 성악을 공부하고 김형순과 결혼하여 도미하였다. 이화학당 시절 스승이던 김호(김정진)를 사업 동업자로 끌어들이 김형제상회를 만들었다.

257) 김형순. 한덕세 부부의 둘째 딸로 한국명은 김영옥이다. 루스 김이 김호의 외동아들 김경한과 결혼해 김호와 김형순은 사돈간이자 김형제상회의 동업자가 되었다.

258)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 약 2,300년 된 세쿼이아(삼나무의 일종) 나무로 밑동이 터널처럼 뚫려 있어 차가 지나다닐 수 있었으나 1969년 2톤가량의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후 '쓰러진 터널나무(Fallen Tunnel Tree)'라고 불렸다.

환. 저녁 8시에 리들리 한인감리교회에서 설교.

월요일에 리들리에서 김형순과 그의 가족이 일행을 접대. 저녁에 이살음이 우리를 그의 자택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 식사를 마치고 위네스(Winnes) 호텔²⁵⁹로 돌아옴.

10월 29일

김정진의 차로 리들리 출발, 델라노(Delano)의 컨(Kern) 호텔에 투숙. 이순기의 집에 40여 명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냄.

10월 30일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와 노던 호텔(Northern Hotel)에 투숙.

로스앤젤레스에 머무는 동안, 일행과 함께 리버사이드(Riverside), 앞랜드(Upland), 오렌지(Orange), 포모나(Pomona) 등 인근의 교외 지역들을 여러 번 둘러봄.

11월 5일

화요일 저녁 9시 45분에 시카고행 산타페 열차 '치프(Chief)'로 로스앤젤레스를 출발. 많은 친구가 기차역에 나와 이별을 아쉬워함.

11월 8일

오전 9시 45분에 시카고 도착. 기차역에 많은 친구가 마중 나와 차로 렉싱턴(Lexington) 호텔로 감. 목요일 저녁에 정태은(鄭泰殷)²⁶⁰의 가게에서 동지회가 주관하는 한식 만찬 개최. 오한수(吳漢秀)²⁶¹의 아내와 김일선 여사 등 여성 두 명을 포함하여 40명이 넘는 한인이 참가.

259) 버지스 호텔의 전신이다.

260) 3·1운동 후 정태은의 처소가 이승만 세력의 시카고 지역 비밀서신 수신처 역할을 수행하였다. 1928년 후반 구미위원부의 재정을 지원하고, 광복 후 시카고에서 중국 요리재료 도매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1954년 미국 중서부 동지회 지부장, 1964년 이승만의 시카고 방문 시 시카고 영사에 임명되었다.

261) 1909년 네브라스카 주 헤이스팅스의 한인소년병학교에서 군사훈련과 민족 교육을 받았다. 1928년 시카고에 동지회가 설립될 때 참가하여 의사부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31년 대한민국민회 시카고 지방회에 재가입하였고, 1931~1934년 정안회사가 시카고에 동양식품회사를 설립해 영업할 때 한인소년병학교 동기생들과 함께 운영하였다.

11월 10일

오후 1시에 B&O 철도회사의 기차를 타고 시카고에서 워싱턴으로 향함. 시카고에서 워싱턴까지 19시간이 걸리는 가장 빠른 기차. 다음 날(11일) 오전 8시에 워싱턴 도착. 윤치영(尹致暎)²⁶², 김도연(金度演)²⁶³, 이훈구(李勳求)²⁶⁴, 김종철(金鍾哲)²⁶⁵, 안승화(安承華)²⁶⁶가 해밀턴(Hamilton) 호텔에 투숙.

11월 1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워싱턴 DC 출발, 오후 4시에 뉴욕 시에 도착. 주영순과 그녀의 '친구'

262) 생몰은 1898-1996년. 와세다 대학 법학과 졸업 후 동경유학생의 2·8독립선언에 참가하고, 1923년 하와이에서 이승만을 도와 『태평양잡지』를 발간하면서 이승만의 측근으로 부상하였다. 1934년 아메리칸 대학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1937년 귀국하여 조선기독교청년회 부총무, 흥업구락부 간사를 역임하였다. 1938년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후 친일 활동을 벌였으며, 광복 후에 이승만의 비서실장, 민주의원 사무총장을 역임하였고, 1948년 5월 제헌의원에 당선, 8월 정부수립과 함께 초대 내무장관에 임명, 1949년에 국회부의장에 선출되었다. 자유당정권에서 이승만을 지지하면서도 여당인 자유당에 불참하였다.

263) 생몰은 1894-1967년. 1919년 일본 게이오 대학 이재학부를 수료하였다. 1927년 도미하여 컬럼비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1931년 아메리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 취득, 1932년 귀국 후 연희전문학교 강사, 1934년 조선흥업주식회사 사장을 역임하였다.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렀고, 광복 후 한국민주당 총무, 남조선 민주의원 의원, 남조선 과도정부 입법의원, 1948년 제헌국회 의원,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초대 재무부장관을 지냈다.

264) 생몰은 1896-1961년. 1924년 일본 도쿄 대학 농학과 3년 수료 후, 1927년 미국 캔자스 주립농과대학에서 농업경제학 석사 수료, 위스콘신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30년 중국 난징 금릉대학 교수, 1931~1937년 숭실전문학교 농과 교수, 1938년 『조선일보』사 주필 겸 부사장, 광복 후 제헌국회 의원, 단국대 학장과 성균관대 총장, 4·19혁명 후 민주사회당을 창당하여 위원장이 되고, 초대 참의원의원에 당선되었다.

265) 1925년 하와이에서 열린 제1차 범태평양회의에 보성전문학교 대표로서 송진우 등과 함께 조선 대표로 파견되었다. 회의 종료 후 유학 차 서재필을 따라 미 본토로 건너가 1927년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 동지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266) 1899년생. 난징 금릉대학을 다녔다. 1924년 도미하여 LA에서 식물상점, 1928년 뉴욕에서 서양 요리점을 경영하였다. 뉴욕의 상과대학과 워싱턴 DC의 아메리칸 대학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1929년 뉴욕의 북미대한인유학생총회 동부대회 때 대회준비 재정위원, 대한인유학생총회 워싱턴지방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뉴욕에서 동양식품점 경영하면서 1931년 뉴욕에서 유미한인산업협회의 회계로서 「산업」 잡지를 발간하고, 1934년 뉴욕한인교회 이사회 재정위원, 1937년 뉴욕한인연합중국후원회를 결성해 중국의 항일전쟁을 지원하였다.

인 최순주(崔淳周)²⁶⁷, 김마리아(金瑪利亞)²⁶⁸, 윤홍섭(尹弘燮)²⁶⁹, 허정, 강해룡, 남궁염과 그의 아내 등이 펜실베이니아 역으로 마중 나옴. 펜실베이니아 호텔 1480호에 여장을 풀.

11월 24일

오전 10시에 뉴욕 출발. 남궁염, 허정, 이기봉, 최용진(崔龍鎭)²⁷⁰, 최순주가 역으로 배웅 나옴. 정오에 필라델피아 도착 체스터(Chester)로 감. 박범구(朴範九)²⁷¹ 박사가 차를 가지고 역으로 마중 나와 나를 태우고 자신의 집으로 감. 그날 밤은 그의 자택에서 보냄. 마실라 신(Marcella Syn)이 그날 저녁 애다(Ada)의 초대로 필라델피아에서 도착하여 함께 저녁 식사.

11월 25일

체스터에서 필라델피아로 옴. 크로켓(Magaret Crockett)과 마실라(Marcella)와 회동. 그날 오후 체스터로 돌아와 펜실베이니아 대학 아파트에서 밤을 보냄. 박범구의 차로 미디어의 서재필 박사 부인에게 감. 서재필 박사는 펜실베이니아 주 리딩(Reading)의 요셉 병원에서 근무 중.

267) 생몰은 1902-1956년. 연희전문학교 상과를 졸업하고, 1923년 도미하여 사우스다코다 주의 휴론 대학(학장 George S. McCune, 尹山濶)에 입학, 1927~1930년 뉴욕대학 상과 대학원 졸업, 귀국 후 연희전문학교 상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1927년 북미대한인유학생총회 동부대회 때 조사위원 자격으로 조선과 미국의 무역 연구, 유미한인산업협회 발기 시에 주역으로 참여, 1927년경 뉴욕에서 동지회 가입, 광복 후 이승만 정권 때 조선은행 총재, 재무부장관을 역임하였다.

268) 생몰은 1891-1944년. 1919년 동경유학생의 2·8독립운동에 가담하고, 『독립선언서』 10여 장을 숨겨 들여와 여성계에 조직적 결기를 촉구하다가 피체되어 5개월 수감 생활을 하였다. 석방 후 대한민국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다시 체포되어 3년형을 언도받고 복역 중 병보석으로 석방되었고, 이후 상해로 건너가 상해애국부인회 간부와 의정원 의원을 역임하였다. 1928년 시카고 대학 사회학과에서 수학을, 1930년 뉴욕 비블리컬 세미너리(성경신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이때 근화회를 조직하여 재미 한인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고 일제의 식민정책을 서방국가에 알렸으며, 1935년 귀국 후 여생을 기독교 전도사업과 신학 발전에 기여하였다.

269) 해풍부원군 윤택영(尹澤榮)의 장남으로 일본 와세다 대학 유학하였으며, 3·1운동 직전 윤용구에게 독립운동 참여를 권유했다가 체포되어 취조를 받았다. 1922년 자녀를 남겨 두고 부인 한유상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친이승만 계열의 뉴욕 한인 유학생들이 1928년에 창간한 「3·1신보」 발기인과 영업부 직원을 지냈다. 1935년 아메리칸 대학에서 국제정치와 비교헌법 전공으로 박사 학위 취득하였고, 1935년 귀국 후 흥업구락부에 가담하여 체포되었으나 일제의 회유를 거부하였다. 광복 후 한국민주당 창당 발기인과 심사위원, 구왕궁청 사무장관을 역임하였다.

270) 1900년생. 일리노이 주 크레인 주니어 대학을 다녔다. 1933년 동지회 뉴욕 지방회 회장 재임 시 김규식의 독립운동 지원을 위해 뉴욕 교민단과 뉴욕 국민회와의 연합으로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 뉴욕 지부를 설립하였다. 1936년 뉴욕 한인 교회 이사를 역임하고, 1942년 이승만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한인자유대회에 참가하고, 1944년 이승만이 주미외교위원부 협찬부를 조직할 때 경제부의 협찬원에 선임되었다.

271) 부모를 따라 하와이로 이민하여 호놀룰루 밀스 중학교 졸업 후 미 본토로 건너가 고학으로 필라델피아 스와트 대학의 학과를 졸업하였다. 1919년 4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대한인총대표회의에 참가하고, 1941년 이승만이 위원장을 맡은 주미외교위원부 산하의 정치부 위원을 맡았다.

11월 27일

오후 6시 30분에 워싱턴 DC를 향해 체스터 출발. 오후 8시 15분에 유니온 역(Union Depot)에서 윤치영, 안승화, 이훈구와 회동. 해밀턴 호텔로 와서 532호에 투숙.

11월 28일

추수감사절에 윤치영과 볼티모어로 가서 송필만(宋必滿)²⁷²을 만남. 피바디 음악학교(Peabody Conservatory)의 메리 앤 김(Mary Anne Kim)과 함께 워싱턴으로 와서 구미위원회가 주관하는 추수감사절 만찬을 즐김. 노라 안(Nora Ahn)도 참석. 만찬 후 윗놀이. 시간이 한참 지나 김종철이 메리를 볼티모어까지 데려다 줌.

12월 4일

밤 10시 30분에 워싱턴 출발. 친구들 모두 유니언 역에서 나를 환송. 다음 날 아침 8시에 펜실베이니아행 기차로 피츠버그 도착. 오전 10시에 디트로이트를 향해 출발, 오후 8시에 도착. 양필정과 안재창(安載昌)²⁷³이 마중 나옴. 양필정이 차를 가지고 나와 그의 자택으로 가서 지냄.

12월 7일

밤 9시에 디트로이트 출발, 다음 날 아침 7시 20분에 시카고 도착. 친구들이 역으로 나왔으나 길이 엇갈려 만나지 못하고 라살레(La Salle) 호텔에 투숙. 나중에 김홍기(金鴻機)²⁷⁴가 예약을 해 둔 스티븐스(Stevens) 호텔로 숙소를 옮김. 3,000개의 객실과 3,000개의 욕실

272) 생몰은 1890-1978년. 일본 주오[中央] 대학 법과 졸업. 1919년 연희전문학교 교수를 거쳐 1923년 유학차 도미하여 동지회 중앙부 총무로서 「태평양잡지」를 발행하였다. 1927년 미국 서남대학 졸업, 광복 후 국민대회준비회 조직부장, 한국민주당 총북도당 위원장을 거쳐 1948년 5.10총선거에서 총북 진천군에서 당선되었다.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위원과 부위원장, 민주당 중앙당부 상무위원과 총북도당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73) 생몰은 1873-1963년. 1903년 미국 하와이로 이민하였고, 1909년 박용만의 한인소년병학교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유지단(維持團)을 조직하였다. 네브래스카 주 링컨 시에서 농장을 경영하던 1913년경부터 이승만과 친분을 유지하고, 1929년 동지회 디트로이트지회, 1942년 대한인국민회 디트로이트 지방회 등을 조직하였다.

274) 1914년 미국 네브래스카 주 헤이스팅스 소년병학교에서 국어교관으로 재직하였고, 1919년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서오성을 지원하였다. 1920년 시카고 한인학생회 서기, 1923년 제1회 북미대한인유학생총회 국문서기 겸 재정위원, 1928년 동지회 시카고지회 서기, 1933년 시카고 동지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1944년 이승만이 주미외교부 협찬회를 조직할 때 교육부 위원, 1944년 주미외교위원회 협찬부 조직 시 내무부의 협찬원에 선임되었다.

을 갖추고 있는 아마도 세계 최대의 호텔.

12월 14일

밤 10시 30분에 산타페 기차로 시카고 출발. 많은 친구가 역에서 전송.

12월 15일

일요일 오전 8시 15분에 캔자스 시에 도착. 이중혁(Howard Leigh)이 마중을 나와 트로아스트(Troast) 애비뉴 3400에 새로 개업한 그의 식당으로 안내. 이완수, 전목사, 김(K. S. Kim) 박사와 그의 부인 그리고 신태임과 회동. 모두 벨 스트리트 4500에 소재한 김 박사의 자택으로 가서 그날 밤을 즐겁게 보냄.

12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버링턴(Burlington) 급행열차로 캔자스 시 출발, 몬태나 주의 뷰트(Butte)로 향함. 18일에 도착 예정.

12월 18일

오전 8시 5분에 뷰트에 도착, 택시로 핀렌(Finlen) 호텔로 감. 다시 택시를 대절하여 램sey(Ramsay) 도착. 한주선과 회동. 친구들이 9마일을 달려와 일행을 데리고 나감. 19일에 모임 개최. 장용호와 다른 한인들이 파이프스톤(Pipestone)에서 옴.

12월 19일

오후 4시 45분에 몬태나 주 뷰트 출발, 다음 날 아침 7시 30분에 솔트레이크(Salt Lake) 시에 도착. 박희성과 신성원이 역으로 마중 나옴. 빙햄 캐년(Bingham Canyon) 광산의 ‘캠프 보스(camp boss)’인 이민식(Jaison Lee)도 옴.

이민식의 차로 화이트 하우스 호텔에 들러 일행을 태우고 그의 광산으로 감.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덮혀 있음. 오후에 광산으로 올라감. 한 시간쯤 차를 달려 산에 올라 오후 7시에 캠프에서 모임 개최. 회합을 마친 후 나를 솔트레이크 시로 데려다 주어 윌슨(Wilson)

호텔에 투숙.

12월 21일

오후 1시 30분에 솔트레이크 시 출발. 이민식의 차로 약 120마일(약 193km)을 달려 오후 6시에 캐슬 게이트(Castle Gate)에 도착. 도로는 눈과 얼음이 덮여 매우 미끄럽고 솔저 서밋(Soldier Summit)²⁷⁵은 날씨가 몹시 추움. 이곳은 60년 전 초기 몰몬교 이주민들이 학살당한 곳. 남녀 한인 20여 명이 나를 만나러 옴. 회합을 마친 후 애니 웡(Annie Wong)은 그녀의 큰 차로 미리 자신이 예약해 둔 헬퍼(Helper) 호텔까지 일행을 태워 줌. 이병목도 같은 호텔에 투숙.

12월 22일

오전 8시 30분에 애니가 차로 스프링 캐년(Spring Canyon)으로 데리고 감. 한인 두 가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아침 식사. 오전 11시에 서재필과 그의 차를 타고 솔트레이크 시를 향해 출발, 오후 3시 30분에 도착. 메리 웡(Mary Wong)과 카페에서 저녁 식사. 오후 5시 30분에 유니언 퍼시픽 콘티넨탈(Union Pacific Continental) 열차로 솔트레이크 출발, 오후 5시 30분에 로스앤젤레스 도착.

12월 23일

이창규, 최영기, 김영우 등 많은 친구가 역으로 마중을 나와 노던(Northern) 호텔로 나를 데리고 감.

275) 1861년 7월 쿡(Philip St George Cooke) 장군이 이끄는 군인들이 캠프로 돌아오다가 갑작스런 눈 폭풍을 만나 대부분 사망하여 정상에 묻힌 후 이곳은 솔저 서밋(Soldier Summit)으로 불린다.

CHAPTER 2

1930년

1월 2일

정오에 로스앤젤레스 출발. 상 페드로(San Pedro)에서 시티 오브 로스앤젤레스(S.S. City of Los Angeles)호에 승선. 김순권²⁷⁶, 서정우, 최영기, 조종익, 김종립 여사, 허성 여사, 그들의 자녀들 등 많은 사람들이 부두로 전송 나옴. 신문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음.

신문사 기자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본사의 프랭크 하우(Frank B. Howe),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웨인 케어(Wayne B. Care) 그리고 프레스 텔레그램(Press Telegram)의 맥그래스(John McGrath) 편집장.

1월 8일

오전 8시 15분에 호놀룰루 도착. 많은 친구가 마중 나옴.

2월 4일

오후 4시에 하리카라(Haleakala)호로 호놀룰루 출항, 다음 날 오전 7시에 하와이 섬 힐로 도착. 부두에 많은 친구가 마중 나옴.

2월 13일

오후 4시에 힐로 출항, 다음 날 아침 7시에 호놀룰루 도착.

276) 생몰은 1885-1941년.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때 미군으로 참전해 큰 공을 세운 김영욱의 아버지이다. 하와이에 노동 이민으로 와서 1906년부터 로스앤젤레스에 정착하였고, 공립협회 나성(LA)지방회 회원이자 대한인국민회 나성지방회 평의원을 역임하였다. 1924년 로스앤젤레스에 대한인교민단이 설립될 때 설립위원으로 참가하고, 1929년 교민단을 폐지하고 동지회가 설립될 때 설립 주역의 일인으로 활동하였다. 1929년 10월 이승만의 로스앤젤레스 방문 환영식 때 동 지식산사회를 위해 1,600달러의 고본을 약정하며 이승만을 돕는 데 앞장섰다.

2월 18일

오후 4시에 호놀룰루 출항, 다음 날 오전 7시에 힐로 도착.

2월 23일

오후 4시에 힐로 출발, 다음 날 오전 7시에 호놀룰루 도착.

4월 8일

오후 4시에 로버트 박과 이순오와 함께 호놀룰루 출발, 다음 날 오전 7시에 힐로에서 하선.

4월 23일

오후 4시에 로버트 박과 와이아리아레(Waialeale)호로 힐로 출발, 다음 날 아침 7시에 호놀룰루 도착.

6월 27일

오후 4시에 김정준과 동행, 후알랄라이(Hualalai)호로 마우이 섬의 라하이어나(Lahaina)를 향해 호놀룰루 출발, 밤 10시에 도착.

6월 30일

밤 9시에 마우이 섬의 카후루이(Kahului) 출발, 7월 1일 오전 7시에 호놀룰루로 귀환.

CHAPTER 2

1931년

4월 7일

오후 4시에 와이아리아라이(Waialaelae)호로 하와이 섬 힐로를 향해 호놀룰루 출항.

4월 8일

오전 7시에 힐로에 도착, 김종현, 김성률, 최애다와 회동.

11월 21일

오전 11시에 시티 오브 로스앤젤레스호로 호놀룰루 출항. 많은 친구가 부두로 환송 나눔.

11월 27일

오전 11시에 캘리포니아의 생 파드레 또는 월밍턴이라고 불리는 곳에 도착. 많은 친구가 마중 나눔. 김정진(김호), 리들리의 김형순 부부의 모습도 보임. 일행은 차를 달려 로스앤젤레스 로슬린(Rossllyn) 호텔에 투숙하기로 함. 나는 930호에서 여장을 풀었고, 다른 사람들은 928호와 929호에 나누어 투숙.

11월 30일

밤 10시 30분에 산타페 열차 '치프(Chief)'로 로스앤젤레스 출발. 많은 친구가 역에 나와 석별의 정을 나눔.

12월 3일

오전 9시에 시카고 도착. 역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함. 택시를 타고 인디아 애비뉴 2312로 감. 도착하는 순간 정태은이 막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부르자 그는 나를 보고 놀라는 기색.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전보에는 날짜가 잘못 기재되어 내가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 호텔로 가서 402호에 투숙.

12월 5일

밤 11시에 볼티모어-오하이오행 기차에 탑승하여 시카고 출발, 다음 날 아침 7시 30분에 오하이오 주의 애크론(Akron)에 도착.

12월 6일

오전 8시 20분에 전차 탑승. 오전 9시 30분에 클리블랜드 도착. 오후 1시 45분에 버스 탑승. 새벽 3시 30분에 오버린(Oberlin) 도착. 허버트 밀러(Herbert A. Miller)²⁷⁷ 교수가 버스 정거장에 마중 나옴. 밀러 교수 집에 들렀다가 밀러 부부의 안내로 오버린 여관(Oberlin Inn)으로 감. 볼티모어-오하이오행 기차역이 있는 클리블랜드(Cleveland)까지 차로 데려다 줌. 밤 9시 15분에 기차로 워싱턴을 향해 출발.

12월 7일

오전 8시 35분에 워싱턴 도착. 윤치영 씨 부부가 마중 나옴. 에프 스트리트 2109 그들 자택에서 아침 식사 후, 해밀턴 호텔로 와서 326호에 투숙.

12월 15일

해밀턴 호텔에서 올드 포틀랜드(Old Portland) 호텔 40-A호로 숙소를 옮김.

277) 생몰은 1875-1951년. 인종과 이민 문제에서 반제국주의와 자유주의적 논리로 유명한 미국의 사회학자이다. 1929~1930년간 아시아 여행 동안에 치압막 민족의 권리에 관해 인도와 한국에서 향한 연설 때문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교수직을 상실하여 학문적 자유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논쟁을 일으켰다. 이승만의 독립운동 후원단체인 한국친우회(League of Friends of Korea)와 한미협회(Korean-American Council)의 열성적인 활동가이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수여받았다.

CHAPTER 2

1932년

1월 3일

오전 10시에 워싱턴 출발. 유억겸(俞億兼)²⁷⁸과 윤치영이 유니언 역으로 환송 나옴.

오후 2시 50분에 뉴욕 펜실베이니아 역 도착. 남궁염 내외와 준이²⁷⁹, 김용중(金龍中)²⁸⁰, 이택주 등이 마중 나옴. 펜실베이니아 호텔 716-A호에 투숙.

1월 9일

WOR 라디오 방송 기자들이 호텔 객실 침입 사건을 취재하려고 애쓰. 시 경찰국장이 형사 둘을 보내 나를 뱀버거 방송국(Bamburger Studio) 멀로니(Mullrone) 국장에게 데려다 줌. 펜실베이니아 호텔의 부지배인이 스위트룸 710호와 708-A호를 내주어 그곳으로 옮김.

1월 18일

펜실베이니아 호텔에서 뉴욕 103가 250의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호텔로 숙소를 옮김.

278) 생몰은 1895-1947년. 아버지는 개화파 유길준(俞吉濬). 1920년 동경대학 법학부 졸업 후 연희전문학교 상과에서 법학을 강의하고, 1923년 연희전문학교 학감, 1934년 부교장을 겸임하였다. 흥업구락부 사건으로 3개월간 옥고를 치르고 연희전문학교 교수직을 사임하고 1937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였다. 1941년 연희전문학교 서무부장에 복직되었다가 1942년 일제의 사립학교 탄압으로 다시 사임하였으며, 광복 후 연희전문학교 교장에 취임하고, 기독교청년회 회장을 지냈다. 1946년에 미군정의 문교부장(지금의 교육부장관)에 취임하였다.

279) 1924년생. 남궁염의 아들 남궁준.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미 항공우주국 리서치 엔지니어를 역임하였다.

280) 생몰은 1898-1975년. 미국 이민 후 안창호의 실력양성론에 따라 하버드 대학, 남가주대학 등에서 수학하였다. 1940년 대한국민회 중앙상무위원회 선전위원, 1941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집행부 선전과장에 선임되어 대서방 외교활동을 수행하였으며, 1942년 한인자유대회에서 한인단체의 단합을 호소하고, 뉴욕의 동맹국원탁회의에서 한국 독립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국광복군 창설 2주기를 맞아 임시정부의 승인과 무기지원을 요청하는 방송을 하고, 1943년 『한국의 소리』를 간행하며 미국 정관계 및 국제기구에 한국의 실상과 독립의 필요성을 알렸다.

2월 26일

오전 10시 15분에 뉴욕의 알렉산드리아 호텔 출발. 남궁염과 최용진이 펜실베이니아 역으로 안내. 워싱턴으로 오는 도중 필라델피아에 들러 신마실라(Marcella Syn)를 만남. 뉴저지 주의 캠든(Camden)으로 가서 스코필드(Frank W. Schofield)²⁸¹의 책²⁸²과 관련하여 해든(Haddon) 출판사 방문. 서부 필라델피아로 돌아와 오후 4시 30분에 펜실베이니아 열차로 저녁 7시 25분에 워싱턴 도착. 포트랜드 호텔에 투숙.

3월 7일

구미위원회가 워싱턴 DC에 소재한 피플즈(Peoples) 생명보험회사 건물 1010호에 입주.

3월 25일

오후 3시에 펜실베이니아행 기차로 뉴욕을 향해 워싱턴 출발.

저녁 8시에 뉴욕 도착. 펜실베이니아 역에서 남궁염을 만남. 펜실베이니아 호텔 7250호에 투숙. 부지배인이 객실로 안내해 줌.

3월 31일

오후 4시에 펜실베이니아 호텔을 나와 모닝사이드 드라이브(Morningside drive) 부근의 116번가 킹스 크라운(King's Crown) 호텔 417호로 숙소를 옮김.

5월 12일

오후 2시 30분에 킹스 크라운 호텔을 나와 뉴욕 시 44번가 호텔 211호실에 투숙.

281) 생물은 1889-1970년. 한국 이름은 석호필(石虎弼)이다. 영국에서 태어나 캐나다에서 수학한 수학자이며, 1916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세균학 교수로 내한하였다. 제1차 대전 후 민족자결 문제가 논의되자 한국의 애국지사들을 격려하고, 1919년 3·1운동 후 교수직을 포기하고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며 일제의 포악상을 촬영하여 외국 각지에 소개하였다. 1920년에 일제의 강압으로 귀국했는데, 한국을 떠날 당시 일제 총독에게 청하여 옥중으로 이상재·오세창 등 독립지사를 예방하고, 귀국 후 캐나다로 돌아가 교편 생활을 하였다. 195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10주년 경축식전에 초청되어 내한하였고, 그후 1969년 한국에 영주할 것을 결심하여 다시 내한하여 한국에서 별세하였다.

282) 스코필드 박사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한국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모은 책이다.

6월 6일

오후 1시 30분에 뉴욕 출발, 밤 11시 30분에 버스로 워싱턴에 도착. 포트랜드 호텔 404호에 투숙.

7월 30일

오전 11시에 강왕조와 워싱턴 출발. 내 차로 필라델피아로 감. 신마실라(Marcella Syn)의 집을 찾느라고 애를 먹음. 어두워진 후에야 가까스로 필라델피아 샌섬(Sansom) 스트리트 3471번지에 도착하여 그녀를 만남. 강왕조와 나는 그곳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 일요일에 필라델피아에서 64마일(102km) 떨어진 애틀랜틱 시로 갔다가 저녁 늦게 다시 돌아옴.

8월 1일

오전 11시에 내 차로 강왕조와 뉴욕을 향해 필라델피아 출발. 오후 4시에 뉴욕에 도착. 남궁염 내외에게 들렀다가 혼자 44번가 호텔 1002호에 투숙.

8월 4일

44번가 호텔을 나와 남궁염 집에서 지냄.

8월 5일

뉴욕을 출발, 남궁염과 강왕조와 함께 뉴저지 주 앨런타운(Allentown) 부근에 있는 운병구의 농장으로 감. 그곳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에 뉴욕으로 돌아와 프린스턴의 슬레이백스(Slaybacks)²⁸³에게 들름. 남궁염의 집에서 함께 지냄.

8월 7일

뉴욕을 떠나 필라델피아로 차를 달려 필라델피아 샌섬가 3471에서 머뭄.

283) 프린스턴 대학 기숙사 직원인 John R.B. Slayback를 말하는 듯하다.

8월 8일

펜실베이니아의 체스터에 있는 박범구 박사에게 감. 박범구와 미디어의 서재필 부부 방문. 체스터 9번가 330의 박범구 집에 여장을 풀.

8월 9일

오전 7시 30분에 체스터 출발, 워싱턴으로 귀환. 노스웨스트 12번가와 14번가 사이에 소재한 프랭클린 파크(Franklin Park) 호텔에 투숙.

8월 20일

메릴랜드 주 포레스트 글렌(Forest Glen)의 스클리(Schooley) 여사와 그녀의 아들, 스톤 여사, 그녀의 이웃 등이 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버지니아 주 루레이(Luray)의 유명한 동굴을 보러 감.

오전 7시 30분에 출발하여 오전 11시에 워싱턴에서 약 94마일(151km) 떨어진 목적지에 도착. 정오에 동굴 부근에서 점심 식사. 스클리 여사의 아들과 동굴로 들어가 오후 2시까지 경이로움과 환상적인 자연의 모습으로 가득 찬 동굴 내부를 탐험.

오후 2시 15분에 블루리지 산맥(Blue Ridge Mountain)의 능선을 따라 집으로 돌아옴. 도중에 남북전쟁의 격전지 등 사적지를 여러 곳 지나옴. 세난도아 동굴을 따라 세난도아 계곡을 가로지르는 렉 하이웨이(Lec Highway)는 환상적임.

버지니아의 스트라스보우(Strasbourg)와 윈체스터에 들렀다가 밤 9시 30분에야 집에 도착. 오늘 하루 동안 약 50마일(80.5km)을 달린 셈.

12월 9일

오후 1시에 워싱턴 출발, 오후 6시에 펜실베이니아행 기차로 뉴욕에 도착. 헐버트(Homer B. Hulbert)와 펜실베이니아호텔 1478호실에 투숙.

12월 11일

오전 10시에 뉴욕 출발, 정오에 필라델피아 도착. 신마실라 방문. 그녀가 미디어의 서재필 박사에게 전화를 했으나 그는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찰스턴(Charleston) 종합병원에서 근무 중. 오후 4시 25분에 필라델피아를 출발, 오후 6시 25분에 워싱턴으로 돌아옴.

미 국무성 극동분과 혼벡(Stanley K. Hornbeck)²⁸⁴ 박사에게 여권 문제로 전화를 했다. 그는 미 국무성은 나라가 없는 무국적의 시민에게 여권을 발급해 주기 어려우니 여권 발급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라고 충고했다. 그의 충고대로 했더니 이틀 정도가 지나자 국무성이 여권 발급 요청을 허락해 주라고 권고하는 미 법무부 장관의 사인이 담긴 공문서가 배달되었다. 문서 끝에는 스티븐스(Henry L. Stimpson)²⁸⁵ 국무장관이 사인을 했다. 그 결과 내 여권은 외교관 여권(Diplomatic Passport)이 되었다.

국무성의 해밀턴(Maxwell M. Hamilton)과 샐리스버리(Laurence Salisbury)²⁸⁶는 혼벡 박사와 상의를 한 후에야 내 여권을 발급해 주었는데, 이런 종류의 여권은 처음 본다고 후일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증언하였다. 이 서류는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그리고 다른 나라 공사관이나 대사관에 보내져 그곳에서 비자를 발급받았다. 당시 프랑스는 미국 이민국이 일부 프랑스 여권을 무시하여 미국과는 좀 꺾끄러운 상태였다. 그 때문에 유럽에 갔을 때 프랑스 세관 관리들이 기차에서 비자를 발급해 주었다.

내 여권에는 유럽 강대국 영사관 관리들이 앞뒤로 스탬프를 잔뜩 찍어 놓았다. 어떤 곳에서는 호기심 많은 관리들이 왜 보통 여권이 아닌 이런 여권을 발급받게 되었냐고 캐묻기도 했다. 그러면 나는 미국 시민은 아니지만 내 평생 대부분을 미국에서 살아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폴란드에서는 모스크바에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어떤 미국인이 내 여권을 보고 '국무성이 이런 일도 하는지 몰랐다'고 했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외교상의 예우와 특혜를 받았다. 뉴욕 항에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284) 생몰은 1883-1966년. 미국의 교육가 겸 외교가로 1919년 베르사이유 강화조약에 파견된 미국대표단의 일원이다. 1922년에 이승만이 '워싱턴에서 혼벡은 한국인들의 진실한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로 이승만과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1928년 미 국무성 극동담당 국장에 임명되었으며, 극동국장 사임 후 국무부 극동국 특별 정치고문을 역임하였다. 이승만의 「일본내막기」를 읽고 정정할 곳을 알려 주었다.

285) 생몰은 1867-1950년. 1929~1933년간 미국 국무장관 역임하였으며, 1932년 1월 미국 정부는 '일제의 만주 침탈을 절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스티븐스 독트린(The Stimson Doctrine)'을 발표하였다.

286) 해밀턴과 샐리스버리는 미 국무성 극동국의 요원들이다.

였다. 특별 관리가 부두에 있는 세관까지 나를 안내했고 내 짐은 검사를 받지 않고 무사통과하였다. 그런데 이 여권 서류를 뉴욕의 한 호텔에서 도난을 당했는데, 그곳에는 일본인 소년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는 동안 하와이 거주 한인들이 내게 제네바로 가서 국제연맹에 한국 문제를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동지식산회사(同志殖産會社) 사업²⁸⁷이 실패로 끝나 모든 걸 포기하고 조용히 워싱턴으로 돌아왔다.

돌아와 보니 여권 서류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12월 20일

오전 10시에 펜실베이니아행 기차로 워싱턴 출발, 오후 12시 45분에 서부 필라델피아 도착. 오후 2시에 필라델피아의 브로드 스트리트 역을 출발, 오후 4시에 뉴욕 도착. 펜실베이니아호텔 1423-A호에 투숙.

12월 23일

오후 5시에 뉴욕 출발. 부두 14번가에서 증기선 라코니아 오브 커나드(Laconia of Cunard Line)에 승선하여 영국 리버풀로 향함. 89호 객실. 많은 친구가 부두에 나와 배웅.

287) 1931년 4월경 동지식산회사는 2만 달러가 넘는 부채를 안고 파산하였고, 실의에 빠진 이승만은 여행길에 오르기 전에 1931년 12월 동지식산회사 구제를 위한 청원안을 하원에 제출하였다. 해군참모총장 아담스(C. F. Adams)는 동지식산회사가 납품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정부가 6,016달러 16센트를 손해 보았고, 회사는 3만 2,300달러의 부채를 안게 되었으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이 1만 5천 달러뿐이라고 보고하였다. 이 청원안은 1933년 2월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여 3월 대통령의 인가로 진주만 해군과의 계약에서 발생한 벌금을 탕감해 주었다.

CHAPTER 3

1933~
~1934

CHAPTER 3

1933년

별날

퀸스타운 디스패치스(Queenstown Dispatches)의 보도대로 유사 이래 최악의 폭풍우가 휩쓸고 간 서든 아일랜드(Southern Ireland) 해안의 등대를 구경하였다.

오후 3시에 퀸스타운(Queenstown) 항²⁸⁸에 닿을 내림. 작은 배가 와서 우편물을 받아가고 승객들도 하선. 리버풀을 향해 계속 항해.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착 예정.

별날

오전 7시에 리버풀 항으로 천천히 다가감. 오전 8시 10분에 승객들이 하선하였다. 오전 10시에 리버풀 역에서 특별열차로 오후 2시경에 런던 유스틴(Eustin) 역에 도착. 피카딜리 호텔 근처의 오데니노(Oddenino) 호텔 67호실에 투숙. 러셀(Russell) 광장 15번지의 장로 교 본부에 들렀다가 러셀 광장 82번지 기독교학생운동본부로 감. 이활(李活)²⁸⁹을 만나 저녁까지 함께 다님.

별날

오전 7시 10분에 런던의 에어 유니온 역(Air Union Station)²⁹⁰ 출발. 이활이 헤이마켓 에어 드롬(Haymarket Air Drome) 또는 착륙장(landing field)이라고 부르는 곳까지 나를 전송해 주었다.

288) 아일랜드 남해안에 있는 항구이다.

289) 생물은 1899~1982년. 1927년 일본 와세다 대학 경제학과, 1935년 영국 런던 대학 경제연구과를 졸업하였다. 1939년 조선운수협회장, 1946년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사무총장, 과도정부 입법의원, 1949년 무역협회장, 1953~1984년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 회장을 역임하였다. 인촌 김성수의 사돈으로 1955년부터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을 지냈다.

290) 에어 유니온(Air Union) 항공사는 1923년 1월 1일 설립된 프랑스 항공사이다. 1933년 합병되어 에어 프랑스(Air France)가 되었다.

오전 8시에 이륙, 오전 10시 45분에 프랑스 파리 도착. 런던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길가의 집들도 잘 보이지 않았으나 시내를 벗어나니 좀 나아져 여기저기 집들도 보이고 들도 볼 수가 있었다. 짙은 안개가 해협 위를 지나가자 그 사이로 푸른 바다와 초록 물결의 들판이 선명하게 시야에 들어왔다. 비행기가 거칠게 상승과 하강을 거듭하자 일부 승객들은 난기류를 만난 건 아닌지 걱정하였다.

파리에서 비행기를 바꿔 타고 오전 11시에 이륙하였다. 이제 안개는 대부분 사라져 근교의 상당 부분이 시야에 들어왔다. 오후 2시 15분에 프랑스 리옹(Lyon)에 착륙. 그러나 악천후 때문에 그날 다시 이륙할 것인지의 여부는 확실치 않았다. 다행히 제네바로부터 기상 정보를 들은 후 작지만 더 좋은 비행기로 옮겨 타고 계속 비행. 승객은 나를 포함하여 단 세 명뿐.

안개가 여전히 자욱했으나 비행기에서 내려다보이는 알프스 산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황홀하게 펼쳐지며 푸른 나무들이 곳곳에 서 있는 초록의 정상과 하얀 눈웃을 입고 있는 산허리가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리옹에서 약 40분쯤 비행하니 제네바 호수(Lake Geneva)가 한눈에 들어왔다. 우리가 탄 비행기는 별 어려움 없이 멋지게 활주로에 내려앉았다.

서영해(徐嶺海)²⁹¹가 공항으로 마중 나와 함께 미리 예약을 해둔 드 루씨(De Russie) 호텔로 향했다. 호텔은 호수 바로 옆에 있어서 내 방 창문을 통해서 호수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1월 5일(제네바 형상)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 스위트 룸 76호에서 좀 작은 46호로 옮김. 서영해와 한나절을 함께 지냄.

291) 생물은 1902~1949년. 3·1운동 참여 후 중국 상하이로 거쳐 프랑스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29년 파리에서 고려통신사를 설립하고, 이후 해방 전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프랑스 통신원, 외교특파원, 주프랑스 예정대사(豫定大使), 주프랑스 대표 등으로 활동하며 유럽 각국에 일제의 강탈과 만행을 알리는 데 기여하였다.

1월 6일

중국 대표 옌후이칭(顏惠慶) 박사²⁹²와 그의 본부에서 긴 회담을 가짐. 서영해가 옌 박사와의 회동을 주선했다. 국제연맹에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한 계획안이 몇 가지가 있으나 어느 안이 합당한지 검토를 요청했다. 옌 박사는 국제연맹 사무국의 일부 회원들과 의논 후 알려 주기로 했다. 중국과 프랑스 정부에 영향력이 있는 리스쭈[李石祖] 박사도 옌 박사와 동석. 두 사람 모두 한국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했다.

1월 7일

AP 통신의 립세이(Plantus J. Lipsey, Jr) 특파원이 호텔로 옴. 긴 대화를 나눔. 적극 협조 약속함. 그는 찰스 러셀(Charles E. Russell)²⁹³의 친구.

1월 7일²⁹⁴

립세이가 호텔로 나를 만나러 옴. 워싱턴의 러셀이 그에게 서신을 보냄. 청원서나 짤막한 성명서를 국제연맹에 제출할 때 국제연맹 내에서 한국 문제를 상정할 사람과 우리의 홍보 문제를 담당할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필요성을 제기함. 그는 추후 홍보 담당 한 사람을 추천해 주겠다고 함.

292) 생물은 1877-1950년. 영어 이름은 W. W. Yen. 미국 버지니아 대학을 졸업하고, 1900년 상하이 성요한대(St. John's University) 영어교수이다. 1908년 주미공사관 참찬, 1911년 북경통일정부 외교부 차장, 1913년 주독일공사, 1920년 중국의 최초 소련대사, 1924년 쑨바오치[孫寶琦] 내각의 국무총리 겸 내무차장, 1925년 주영공사, 1926년 국무총리, 1932년 주영공사. 국제연맹 중국전권대사를 역임하였다. 국제연맹에서 중일 문제 토의로 활약했으며, 1932~1936년 주러시아대사를 지냈다.

293) 생물은 1860-1941년. 미국의 언론인이며, 정치인 겸 풀리처상 수상자이다. 미국 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의 공동 설립자이며,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후 미국사회에 한국 독립 지원활동을 벌이다가 언론인 러셀과 친분을 맺었다.

294) 1933년 1월 7일자 일기가 두 개이다.

1월 8일

주일날, 호텔 인근 미국성공회(The American Episcopal Church) 방문. 헨리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²⁹⁵의 학교 친구이며 감리교 목사였던 와즈워스(Julian S. Wadsworth)²⁹⁶와 조우. 미사 후 블레이크(Blake) 미 총영사와 그의 부인과 회동. 나와 서영해는 버스를 타고 와즈워스 부부가 초대한 최고급 호텔 칼턴 파크(Carlton Park)에서의 점심 식사를 하였다.

국제 화합을 위한 여성연합(Union of Women for International Concord)의 다시스(Clara Guthrie D'arcis) 회장과 여성군축위원회(Women's Disarmament Committee) 재무 담당 등이 나를 만나러 와서 오후 3시까지 그들과 함께 지냈다.

1월 9일

내가 출타 중에 옌 박사가 호텔에 와서 자신의 명함을 두고 갔다.

오후 늦게 립세이가 만나러 와서 아편퇴치운동(Anti-Opium Movement)을 벌이고 있는 알프레드 블랑코(Alfred E. Blanco)라는 젊은이를 추천했다. 저녁엔 그의 사무실에서 보냈다. 다시스 여사와 오랫동안 환담.

워싱턴의 드류 피어슨(Drew R. Pearson)²⁹⁷이 여러 통의 소개서를 보내왔다. 미국영사이며 국제연맹 옹저버인 프렌티스 길버트(Prentiss B. Gilbert)²⁹⁸, 뉴욕 타임즈 특파원 스트레이트(Clarence K. Streit)²⁹⁹, 전 뉴욕 월드 특파원 엘빈 존슨(Albin E. Johnson) 등에게 나를 소개하는 서신이다.

295) 생물은 1858-1902. 드류 신학교 졸업 후 미 감리교 선교위원회로부터 한국 선교사로 임명되어 1885년 조선에 들어왔다. 정동제일교회와 한국 최초의 서양식 학교인 배재학당, 한국선교회를 설립하였고, 성서의 국역을 위해 노력하였다.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번역자회의 참석 차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배 사고로 익사하였다.

296) 1939년 사망. 감리교 목사 겸 국제 구호활동가로 제1차 세계대전 동안 중군목사를 지낸 후 프랑스에서 감리교 감독교회의 구호활동에 종사하였다. 1931~1936년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평화 목사(minister for peace)'로서 감리교회를 대표하였다.

297) 생물은 1897-1969년.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 헤럴드(Washington Times-Herald)'와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에 실려 전국적 인기를 누린 '워싱턴의 회전목마(Washington Merry-Go-Round)'란 칼럼을 집필한 언론인 겸 시사평론가이다.

298) 생물은 1883-1939년. 스위스 제네바 주재 미국 총영사로 국제연맹 이사회에 참석한 유일한 미국인 대표이다.

299) 생물은 1896-1986년. 국제연맹에 파견된 뉴욕 타임즈 특파원으로 1939년에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의 대통합을 촉구한 유명한 책 'Union Now'의 저자이다.

워싱턴의 심스(Wm Philip Simms)³⁰⁰가 전 유나이티드 프레스(The United Press) 통신원 우드(Harry Wood)에게 서신을 발송했다. 나는 그의 호텔에서 오랫동안 환담하며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우리를 위해 홍보 일을 맡아 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유나이티드 프레스와의 관련 때문에 맡을 수 없다고 거절했다. 그 대신 블랑코(Blanco)를 만나 보라고 제안했다. 「뉴욕 타임즈」, 「필라델피아 레저(Ledger)」, 「허스트계 신문(Hearst Newspapers)」 등의 언론사에서 일했으나 요즘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현재 파리에서 지내고 있는 윌리엄스(Whyte Williams)에게 접촉해 보라고도 내게 조언을 하였다.

월 11일

옌 박사를 만났다. 그는 처음에는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우리 문제가 만주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한국 문제를 국제연맹에 상정하는 것이야말로 곧 다른 측면으로 일본에 한 방 먹이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즉시 내 말에 동의하며 우리가 상정하고자 하는 바를 간략하게 상정해 줄 것을 약속했다. 그러고는 지금 제네바에 와 있는 런던 주재 중국대사 궈타이치[郭泰祺]³⁰¹와 웰링턴 쿠[顧維鈞]³⁰²를 만나 보라고 권했다.

월 12일

아침에 궈타이치를 그의 아파트에서 만났다. 우선 그는 ‘한국과 중국을 위해 나와 동포들이 하고 있는 훌륭한 일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그는 옌 박사와 쿠 박사도 동의했지만 자신도 우리가 국제연맹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는 일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말이 난 김에 나는 그에게 스코필드의 책을 어떻게 출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500불에 1,000부를 인쇄하

300) 생몰은 1882-1959년. 스크립스 하워드계 신문(Scripps Howard Papers)의 외신부장으로 활동한 미국 언론인이다.

301) 1889년생. 1916년 대통령부 영문비서장 겸 외무부 참사와 1917년 손문의 호법정부에 참가하였다. 1919년 파리강화회의 중국대표부 전문위원, 1923년 광둥비상대총부 외교부 차장, 쑨원 서거 후 무창 상과대학 교장, 1931년 광둥정부 정무위원회 회원, 1932년 중·일 상하이 정전회의 중국 측 수석대표, 1932년 주영공사, 국제연맹 중국대표단 단원, 1935년 주영대사를 역임하였다.

302) 생몰은 1887-1985년. 영어 이름은 Wellington Koo. 1912년 북경 국무원 및 외무부 비서, 1919년 파리강화회의 전권대사, 1920년 국제연맹 중국대표, 1921년 워싱턴군축회의 중국대표, 1932년 국민당 중앙정치회의 외교위원회 위원, 국제연맹 중국조사단 중국 측 참여원, 린튼위원회(The Lytton Commission) 중국위원, 1935년 국제연맹 총회 대표, 1936년 주불대사를 역임하였다.

기로 출판사와 협상을 하게 된 과정 등을 들려주었다. 그는 이 문제를 동료들과 의논을 하여 출판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내게 쿠 박사와 이야기를 해 보라고 제안했다.

오후에 앨빈 존슨(Albin Johnson)이 호텔로 나를 만나러 왔다. 나는 그가 일본 신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우리의 계획에 대해 상세히 말하지 않았다. 그는 프렌티스 길버트가 나를 만나고 싶어 하며 언제든지 그의 사무실로 한번 들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또 내가 약소국 회원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오후 늦게 나는 국제연맹의 보건기구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라흐만(Ludwik Rajchman)³⁰³ 박사를 만나러 갔다. 그와 그의 부인은 ‘사택’에 있었고 다과를 내어 왔다. 옌 박사가 내게 그를 만나 보라고 제안했다. 그는 처음에는 지금이 한국 문제를 상정할 시기로는 좋지 않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지금이야말로 우리 문제와 만주 문제를 나란히 상정하여 한국이 첫 단계이고 만주가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을 보여 주는 절호의 기회이며, 국제연맹과 중국에게도 그 어느 것보다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국제연맹이 우리에게 독립을 가져다 줄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지만 단지 한국 문제를 상정하여 국제연맹에서 실질적인 현안으로 다루어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그의 태도가 바뀌더니 마침내 우리를 도와줄 만한 회원국들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블랑코를 다시 만났다. 그는 우리에게 소개할 만한 사람을 물색 중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추천받은 사람은 고려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시간 일부를 좀 쪼개어 보겠다고 제안했다.

오후 6시 30분에 우리는 쿠 박사의 사택으로 갔다. 그는 오래전 미국에서 만난 후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가 국제연맹에 제출하기를 바라는 서류들을 중국 대표들이 상정해 주겠다고 말하며 성명서에 두 가지 요점을 분명히 언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1) 일본의 조약 위반과 한국에 대한 배신, (2) 한국에서의 일본의 만행.

303) 생몰은 1881-1965년. 폴란드인 의사로서 1921~1939년간 국제연맹 보건국장을 역임하였다. 개발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국제연맹과 중국 관리들 간의 중재자로 자주 활동하고, 장제스의 의료 자문관 역을 수행하였다.

이어 쿠 박사는 최근 부인회(Women's Society)³⁰⁴ 등 하와이의 한인 단체들이 그에게 보내온 서신들에 대해 질문을 했다. 서신 중에는 국제연맹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도 있으니 나도 한번 읽어 보고 내 의견을 알고 싶다고 했다. 나는 많이 당황하여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 서신들은 우리의 반대 파벌들이 보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유치한 문구의 글을 보냈다고 그들이 생각하게 만들기도 싫었다. 그래서 잠시 미적거리며 뜬을 들이고 있자 그가 자신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냐고 재차 내게 의견을 물었다. 나는 그에게 내가 지금 모든 한국인을 대표하여 이곳에 왔으니 그가 이 서신을 국제연맹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도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하며 그 서신에는 응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스코필드의 책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1월 13일³⁰⁵

미 영사관에 들렀다. 길버트 영사는 꽤나 우호적이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의 나의 직위에 관해 질문을 하며 피어슨의 서한에 나를 '지방 대통령(Provincial President)'라고 명시했는데 지방(Provincial) 대신 '임시 대통령(Provisional President)'이라고 해야 한다고 실수를 고쳐 주었다. 그러고는 내가 어떤 여권으로 여행 중인지도 물었다. 내가 직접 발급한 여권이라고 말하자 모두가 웃었다. 그가 비자를 발급받았냐고 물어 내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길버트 영사가 나에게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여 다음과 같이 응답했다. 우리는 국제연맹과 중국인 그리고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이곳에 왔으며 한국도 중일문제의 한 부분이므로 지금이야말로 이 문제를 국제연맹의 실질적인 현안으로 올리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1910년 강대국들은 일본의 세계 정복 계획을 알지 못했다. 단지 한국을 희생하면 일본이 이에 만족하고 만주에서 개방정책을 펼칠 것이라고만 믿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전 세계가

304)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하와이 각 지방 부인대표 41명이 호놀룰루에 모여 공동대회를 열고 항일독립 외교선전 운동 후원, 하와이 부녀사회의 운동역량 집중, 구호활동을 위한 적십자대 훈련 등을 목표로 '대한인부인구제회(大韓人婦人救濟會)'를 결성하였다. 이 단체의 영어명은 'Korean Woman's Relief Society'.

305) 1933년 1월 13일자 일기가 두 개이다.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한국은 일본의 침략 야욕의 첫 번째 단계이고, 만주가 다음 단계이며,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극동의 평화를 실현하고 국제연맹을 존속시키기 위해 강대국들은 서로 함께 모여 일본을 그들이 원래 속한 섬나라로 돌려보낼 것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나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우리의 요구를 지원해줄 만한 회원국들이 없는지 그의 의견을 구했다. 그는 약소국들이 모두 반(反)일본적이니 당연히 '당신의 동맹국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소국들을 길게 거론하며 그들이 돌아오면 나를 그들과 접촉하도록 주선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1월 13일

중국 홍보부의 양광손(C. Kuangson Young)이 엔 박사와 쿠 박사의 지시로 나를 방문했다. 내가 외출한 사이에 내게 전화를 했다. 그는 앨빈 존슨(Albin E. Johnson)이 일본 신문사 랑고(Rango)와 연관이 있지만 우리 홍보 일을 맡기에 최적임자라고 말했다. 그는 기다렸다가 내 비서 서영해를 포함하여 함께 점심을 먹었다. 그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에 관한 기사 송신은 전적으로 우리의 재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녁에 블랑코가 내게 전화를 걸어 괜찮으면 내 비서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했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그의 집으로 갔다. 그와 그의 부인은 매우 예의바르고 우리를 후대했다. 대화 도중에 나는 그에게 우리의 독립운동에 동참하여 우리의 홍보 업무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그에게 월급은 못 주지만 그가 일을 하는 동안 그를 도울 비서를 고용하면 비서 월급은 한 달에 250불씩 주겠다고 말했다. 그와 그의 부인은 자신들은 돈이 필요하지 않으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홍보 대리인을 고용하지 않고 그가 우리를 위해 일해 주기로 약속했다. 밤 11시 30분이 다 되어서야 서영해와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1월 15일

카네기 재단의 말콤 데이비스(Malcolm Davis)에게 그의 안부 전화에 대한 감사 전화를 걸어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전에 태평양문제연구회(The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IPR)³⁰⁶에서 일한 경력이 있다.

오후에 립세이가 나를 찾아왔다. 그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에 흡족해 했다. 또한 사진이 뉴스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주장하며 나보고 사진을 몇 장 찍으라고 권했다. 한 장은 그의 뉴욕 본사에 보낼 것이니 각각 다른 자세로 대여섯 장을 찍으라고 주문했다.

오후 늦게 중화통신사(The Chinese News Agency)에서 근무하며 조소양(趙素昂)³⁰⁷을 안다는 끄공쩐[戈公振]³⁰⁸이란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의 인터뷰에 응하면서 중국인들이 연합하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한국인들도 합세한다면 일본인들에게 성공적으로 대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나를 중국인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니 큰 사진 한 장과 각기 다른 배경으로 찍은 다른 사진 여섯 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나의 간략한 약력도 원했다.

1월 16일

일요일, 나는 서영해와 사진관으로 갔다. 이상 한파로 날씨가 몹시 추웠으나 일요일이라서 난방이 전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인과 중국인 기자들의 요청으로 사진을 각기 다른 자세로 여섯 장을 찍느라고 45분이 넘게 추위에 떨어야만 했다. 나는 너무나 추워서 서영해 혼자만 교회로 보냈다. 그는 예배를 본 후 머리 데이비스(John Merle Davis)³⁰⁹라는 미국인을 소개받았다고 했다. 내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호놀룰루에서 온 사람을 만나 볼 의향이 없냐고 물었더니, 그는 내가 누구냐고 질문했다. 내가 이름을 밝히자 그는 기뻐하며 다음 날 오후 4시 30분에 와서 나를 데리고 그의 집으로 가 차를 마시자고 답했다.

오후에 블랑코가 왔다. 우리는 조용한 방에서 국제연맹에 제출할 청원서의 초안을 함께 검토했다.

306) 태평양 연안 국가와 민족들 간의 평화와 이해 증진을 목표로 1917년에 설립된 범태평양협회 주최로 1922년에 열린 제1차 범태평양회의에서 주최국인 미국의 제안에 따라 1925년에 설립된 국제적 민간학술단체이다. 이 연구회의 본부는 하와이 호놀룰루에 두고 각국에는 독자적인 지회를 만들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제반 문제에 대한 학술조사와 연구활동을 펼치고 2년마다 열리는 범태평양회의에서 그 성과들을 발표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07) 조용은(趙鏞殷).

308) 생몰은 1891~1935년. 1921~1927년 「상해시보」 기자와 주필을 지냈다. 1927~1929년 일본 및 구미 유력하고, 1929년 「신보(申報)」 부주필, 1932년 국제연맹 중국조사단 중국 측 참여원 수행원, The Chinese News Agency(중화통신사) 특파원을 역임하였다.

309) 생몰은 1875~1960년. YMCA의 선교사로서 제네바의 국제선교위원회의 이사직을 역임하였고, 태평양문제연구회의 창립 멤버이다.

1월 17일

국제연맹에 제출할 문서의 윤곽을 그려 보았다. 엔 박사는 런던 주재 중국공사 궈타이치를 만나 보라고 권했다. 나는 그에게 그의 법률고문이 우리 문서를 검토해 줄 수 있는지와 이를 상정할 준비가 되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자신과 엔 박사, 쿠 박사, 이렇게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한국 문제를 상정하려고 하니 쿠 박사를 만나 보라고 조언했다.

1월 18일

쿠 박사를 만났으나 그는 지금이 한국 문제를 상정할 때가 아니라는 뜻을 내비쳤다. 내가 반박하자 그는 그와 그의 동료들이 한국 문제를 국제연맹에 상정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나도 나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으나 시간이 너무 늦어 그 날은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1월 19일

중국인들의 고문이며 궈타이치의 스승인 콜린스(Collins)³¹⁰가 전화를 해서 궈 공사가 나를 만나 보라고 했다면서 나의 의향을 타진했다. 그래서 나는 국제연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할 것과 국제연맹에서의 회원국의 자격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국제연맹 현장에는 회원국만이 우리와 같은 문제를 국제연맹에 상정할 수 있는 조항이 분명히 있다고 했다. 그러니 우리들의 주장을 정당화하여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임시정부 승인 문제는 제외하고 만주에 거주하는 한국인들과 관련하여 만주 문제만을 우선 상정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궈 박사가 토요일 오후 1시에 그의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나를 초대하여 가겠다고 응답했다.

310)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를 역임하였고, 국제연맹 중국대표단의 고문이자 궈타이치의 개인교사이다.

1월 20일

정오, 아니 오후 1시에 서영해와 꺄타이치의 집으로 가서 중국인 가정부와 시종들이 내어 오는 중국식 오찬을 즐겼다. 꺄어 부인, 꺄 박사, 꺄 부부의 아들과 어린 딸, 콜린스 그리고 6개월간 중국에 가 있을 젊은이, 비엔나의 중국 대리공사 디키엔 텅(Dekien Toung), 동더 치안[董德乾]³¹¹⁾, 용지우[用九], 정연야오[鄭彦藥] 등과 함께 식사를 했다.

식사 후 모두 응접실로 갔다. 다른 사람들이 나가자 꺄타이치, 텅, 콜린스 그리고 나 넷이서 의견을 나누었다. 꺄는 승인 요구 대신에 만주에 있는 한국인 문제 등을 제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나는 괜찮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일단 길을 터놓게 되면 나중에 한국의 독립 문제를 상정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에 동의하고 오후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1월 20일³¹²⁾

오전에 아일랜드 대표 레스터(Sean Lester)³¹³⁾에게 전화를 했더니 오전 11시 15분에 만났으면 했다. 그래서 내가 아일랜드 본부로 갔다. 그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공식 입장에 부합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제출할 청원서가 거부될 것이며 상임이사국들이 이를 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특정 회원국이 상정하고 유포를 요구하는 규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그는 그러면 됐다며 뉴스 전송 준비를 완벽하게 하여 문제가 생길 때마다 즉각적으로 소식을 내보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레스터는 나를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개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는 내가 만나 보면 도움이 될 만한 대표를 몇몇 추천해 주며 한국에 관한 좋은 책이나 문학 서적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고 해서 문학 서적을 몇 권 빌려주겠다고 했다.

311) 오스트리아 비엔나 주재 중국대리공사이다.

312) 1933년 1월 20일자 일기가 두 개이다.

313) 생몰은 1888-1959년. 1940~1946년간 국제연맹의 마지막 사무총장을 역임한 아일랜드 외교관.

1월 21일

꺄타이치가 우리를 도울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라고 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수였으며 현재 중국 대표 자문으로 일하고 있는 콜린스(Collins)를 보냈다. 그가 묻기도 전에 우리는 국제연맹에 보낼 청원서 초안을 그에게 내밀었다. 그래서 첫 번째 초안과 1919년과 1921년에 작성했던 호소문을 그에게 주었다. 그는 준비가 되면 알려 주겠다고 하면서 문서들을 가지고 돌아갔다.

1월 22일

일요일. 서영해와 나는 호텔 근처의 미국성공회교회(The American Episcopal Church)로 갔다. 예배가 끝나자 멀 데이비스(Merle Davis)³¹⁴⁾가 와서 전날 나를 못 만난 데 대해 사과를 했다. 그는 어제 호텔을 잘못 찾아갔다고 하며 오늘 오후에 한국에서 온 선교사 두 명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니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했다.

오후 4시. 데이비스가 호텔로 차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그의 집으로 갔다. 그곳에서 데이비스 부인과 자녀들 그리고 반하트(Byron P. Barnhart)³¹⁵⁾ 부처와 그들의 자녀들을 만났다. 반하트는 서울 Y.M.C.A. 부총무이다. 우리는 차와 간식을 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1월 23일

콜린스가 호소문 초안을 가지고 왔다. 꺄타이치도 읽어 보고 오케이했다고 말하며 검토해 보라고 했다. 내가 확인을 한 후 옌 박사와 쿠 박사가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 문제는 중국 대표들이 한국정부 승인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상정할 수 없어서 한국 문제도 만주 문제의 한 부분임을 명시한 「리튼 보고서(Lytton Report)」³¹⁶⁾를 근거로 만주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 문

314) 1925년 하와이에서 열린 범태평양회의의 간사를 역임하였다.

315) 생몰은 1889-1942년. 1940년 태국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25년간 서울 YMCA의 선교사로 활동하였다.

316) 1931년 9월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 전역을 장악하고, 1932년 3월 괴뢰정부인 만주국을 세워 침략전쟁 병참기지로 삼으려 하자 국제연맹은 중국 측의 제소에 따라 조사단을 파견하여 만주의 제반 현황을 조사하였다. 영국인 리튼(Victor Bulwer Lytton) 경이 이끄는 미국, 독일, 이태리, 프랑스, 영국(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리튼위원회(Lytton Commission)는 사실을 규명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1932년 5월 1차 보고서를 발표하고 10월에 국제연맹 이사회에 제출하였으며, 1933년 2월 24일 국제연맹 본회의에서 일본군의 만주 철병과 만주에 대한 중국 주권을 확인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자 3월 27일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하였다.

제를 의결하고, 만주에 있는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의 주장 때문에 귀화한 중국인으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에 대한 사실 조사를 요청하려면 국제연맹에 호소문을 올려야 한다. 이 청원서는 중국 대표들이 주요 안건과 관련하여 국제연맹에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연맹 현장에는 중국이 한국 문제와 같은 문제의 상정을 허용하며 국제연맹은 이를 기각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청원서가 중국과 일본 문제의 한 부분이 되면 세계적 관심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즉시 새로운 의제가 된다. 이 의제가 국제연맹의 관심을 받게 되면 대한민국의 승인을 요구하는 우리의 호소문을 상정할 회원국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독립 승인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직접 국제연맹에 보냈으나 국제연맹이 이를 거부해 버리면 모든 게 끝나 버린다.

길버트 영사에 의하면 만주국 특사들이 와서 청원서를 직접 제출했으나 국제연맹 사무국(Secretaria)이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거부해 버렸다고 한다.

그리하여 청원서는 회원국들에게 발송되지 않았다. 만약 일본이나 다른 회원국들이 대신 상정을 했더라면 사무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이를 상정한 회원국은 사무국이 청원서를 회원국들에게 발송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만주에 100만 명 이상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청원서를 만주 문제의 일부로 — 이는 포문을 여는 썩기에 불과하지만 — 초점을 맞추도록 결정했다.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내내 나는 청원서 초안 작성에만 매달려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다. 콜린스가 오전에 들러 엔 박사에게 초안을 읽어 보게 하고 빨리 쿠 박사에게 보내어 이를 지체 없이 국제연맹에 제출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엔 박사가 초안을 보내도 좋다는 전화를 주어 그렇게 하였다.

8월 26일

오전 10시, 콜린스가 와서 어제 오후에 엔 박사가 그에게 전화를 해서 청원서는 한인들이 작성한 청원서가 아니라 중국인들이 직접 작성한 청원서가 중국 대표들에 의해 국제연맹에 상정될 것이며, 이는 만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만 국한되기 때문에 한국이 맺은 조약, 일본과의 합병 등에 대한 역사적 설명은 제외된다고 했다. 그는 또한 중국인들만

의 성명서로 청원서를 준비할지를 궤타이치와 의논할 것이라고 했다. 게다가 국제연맹 총회가 아니라 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므로 서두를 필요 없이 앞으로 열흘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는 콜린스에게 더 이상 중국인들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처음에 내가 엔 박사에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계획들은 정부 승인, 국제연맹 회원국 인정, 만주에서의 한인들의 고등 언급, 그 외 중국인들의 제안 등이라고 말했다. 엔 박사가 국제연맹에 청원서를 제출한 한다면 우리는 뭐든지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엔 박사는 ‘좋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다. 궤 박사를 쳐다보았을 때 그도 똑같은 심정을 표출했다. 그리고 당신도 기억하시피 우리 모두 궤 박사 집에 모여 우리 청원서에서 정부 승인과 회원국 가입 요구를 제외하고 대신 만주에서의 한인 문제를 간단히 언급하여 이것이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근거로 중국인들이 청원서를 제출하자는 제안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내게 물었다. 그래서 나는 엔 박사에게 원래 내가 제안했던 사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나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우리를 대신해 국제연맹에 한국 문제를 상정하면 나중에 우리가 직접 호소문을 상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 궤 박사는 당신에게 20쪽 내지 25쪽 분량의 서류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신도 알다시피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인들을 한 단계씩 이끌어 왔는데 이제 와서 중국인들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 이제 또 우리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일주일 내지 열흘을 기다렸지만 그때 가서 그들이 또 다른 소리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인들이 자신들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시도해 보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고 그간의 상황을 되짚어 설명했다.

콜린스는 중국인들이 너무 조심스런 태도를 취해서 그렇지 ‘의도적으로 지체하는 것’은 아니니 그들의 충고를 따르라고 권했다. 궤와 의논을 한 후 나에게 알려 주겠다고 덧붙였다.

콜린스가 오후에 와서 궤와 논의한 결과 그도 엔의 제안을 좋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는 엔이 제안한 바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중국 대표들이 한국 문제를 상정하자는 엔 박사의 생각은 만주의 중국인 60%와 한국인 40%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일본인들이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면 한인 60%와 중국인 40%라고 말할 것이다. 일본인들이 또 다른 대응을 내놓으면 한인 80%와 중국인 20% 등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엔 박

사의 생각이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괜찮은 생각 같아 보이며 이 문제는 중국인들에게 맡길 것이니 그들 좋을 대로 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문제를 직접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어쨌든 이 문제는 며칠 기다려야 할 문제이며 어떤 문제를 제기하든 중국인들이 먼저 당신들을 위한 일을 마무리한 후에야 더 많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둘 사이에 약간의 논쟁이 오간 후 나는 결국 그의 충고를 받아들여 그들이 며칠 내로 상정을 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인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무작정 기약 없이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자 콜린스는 오늘 저녁에 서류 작업을 모두 마치고 내일 아침에 엔 박사를 만난 후 내게 오겠다고 했다. 그에게 우리의 활동을 위해 나를 도울 것인지 묻자 그는 자신이 꺾을 위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동의하면 기꺼이 돕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꺾의 의사를 타진해 보라고 주문했다.

1월 27일

워싱턴 스타(Washington Star)와 일부 일본 신문사들의 에이전트인 존슨(Johnson)이 전화로 핀란드 장관과 에스토니아 장관을 만나 보라고 알려주며 약속을 잡아주겠다고 제안.

1월 28일

콜린스가 전화를 하여 오후에 서류가 엔 박사에게 전해질 예정이니 꺾타이치와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언질을 주어 오후에 그를 만나겠다고 했다. 오후 1시 30분에 비서 서영해를 데리고 핀란드 공사 사택으로 갔다. 루돌프(Holsti Rudolph) 공사는 매우 다정 다감한 사람이었다.

존슨도 에스토니아 공사 슈미트(A. Schmidt)³¹⁷ 부처와 함께 그곳에 있었다. 핀란드 본부는 제네바 샤를 보벳 15번 애비뉴에 있었다. 나는 루돌프 공사에게 1918년 소약속국동맹

317) 생물은 1895-197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한 에스토니아의 육군 장교 겸 외교관이다. 1918~1920년 에스토니아 독립 전쟁의 참전용사로 1940년 소련이 에스토니아공화국을 병탄하자 영국 런던에서 에스토니아 공사로 계속 활동하며 에스토니아의 독립 활동을 벌였다.

회(The League of Small and Subject Nationalities)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으로 가는 도중에 하와이의 한인 모임에서 연설을 했던 마담 맘베르그(Madam Aino Malmberg)³¹⁸를 아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맘베르그 여사가 시력을 상실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녀의 주소를 내게 알려 주었다.

루돌프 공사와 슈미트 공사 둘 다 한국에 관해 큰 관심을 보이며 많은 질문을 했다. 그들은 우리 모두가 우방이며 서로 힘을 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루돌프 공사는 월요일 아침 체코 슬로바키아 베네스(Edvard Benes)³¹⁹ 장관과 만나도록 주선해 주겠다고 제안했다.

모임이 끝난 후 곧장 꺾타이치에게 갔다. 그곳에서 뉴욕 헤럴드 트리분의 젊은 특파원 휘테커(John T. Whitaker)³²⁰를 만났다. 그는 나를 만나서 기쁘다면서 내게 한번 들르고 싶다고 했다. 차를 마신 후 나는 꺾와 상의를 했다. 그는 중국 대표들이 며칠 안으로 만주에서의 한인 시민권 문제를 상정할 것이며, 우리가 콜린스의 도움을 받도록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물론 우리에게 돈을 들이지 않고 사람을 쓰게끔 하겠지만 콜린스를 이곳에 계속 체류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런던에서 다른 사람을 오게 하고 콜린스를 복귀시킬지는 생각 중이라고 했다. 그는 곧 결정 여부를 알려 주겠다고 하며 우리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일종의 도덕적 의무감을 느끼며, 내가 최고 수반으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런 개인적 야망은 없다고 그에게 말했다.

1월 29일

일요일, 나는 서영해와 함께 제네바의 성 베드로 교회인지 성당인지에 갔다. 점심 식사 후 엔 로잔(Lousanne)으로 갔다. 오후 12시 50분에 기차로 제네바를 출발하여 오후 1시 45분에 도착했다. 로마인들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세 언덕(three hills)’ 주변을 걸었다.

메릴랜드 주 포레스트 글렌(Forest Glen) 출신이며 로잔 대학에 유학 중인 미국 여학생 메리엄(Anne W. Meriam)을 만나려고 서반(Servan) 24번 애비뉴로 갔다. 우리는 로잔과

318) 생물은 1865-1933년. 핀란드의 독립주의자 겸 작가로 1917년 7월 하와이에 들렀을 때 하와이 한인대표들에게 소약속국 동맹회(the League of Small and Subject Nationalities) 참석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한국 대표단의 소약속국동맹회 참석에 영향을 미쳤다.

319) 생물은 1884-1948년. 체코의 외교관 겸 독립운동가로 1935~1938년, 1945~1948년 2차례 체코 대통령을 역임하였다.

320) 생물은 1906-1946년. 중군기자로 명성을 떨친 미국 언론인이다.

인접한 오우치(Ouchy) 공원과 호수 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다. 저녁 기차를 타고 제네바로 돌아왔다.

1월 30일

중국인들이 만주의 한인 문제를 국제연맹에 상정한 이후에 우리도 국제연맹에 제출할 청원서를 준비하느라고 바빴다. 나는 중국인들이 한국 문제 상정을 주저하는 그들만의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들을 마냥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할 수만은 없다고 콜린스에게 말했다. 그는 중국인들이 일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답했다. 이것이 우방 기자들 사이에서 형성된 일반적인 공감대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꺄타이치는 일주일 후 돌아올 예정으로 런던으로 떠났고, 콜린스는 남아서 우리를 도왔다.

2월 1일

콜린스가 와서 당장 엔을 만나 우리 문제를 속히 상정할 것을 부탁하라고 일러 주었다. 그러고는 만주국을 지지하는 약 586건의 만주 관련 문건을 언급하며 각국의 대표들에게 발송된 회람의 사본 하나를 가져왔다. 그중에는 만주국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 탄생되었는가를 언급하는 킬림어(Kirin)로 쓴 두 명의 한인 이름도 있었다. 나는 서영해에게 한국통신부(Agency Korea)의 이름으로 항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중국 정보부에 전달하여 등사하도록 했다.

2월 2일

엔 박사를 방문하여 한국 문제를 언제 상정할 것인지 물었다. 그는 하루나 이틀이면 할 것이니 자신들이 먼저 시작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후에 블랑코를 만나러 갔다. 대화 중에 그는 아편퇴치동맹(Anti-Opium League)을 대신하여 국제연맹에 보내는 서신을 보여 주며 '지난 3년간 이 일을 해왔는데 이제야 지난 1월 27일 국제연맹의 회원인 누군가가 내 서신을 회원국들에게 돌리도록 국제연맹 사무국에 요청하여 그렇게 되었다. 이제 나도 공적인 신분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당신이 직접 해라. 레스터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가 이 문제에 매우 관심이 있

어 보였다. 그에게 서신을 보내 그가 국제연맹 사무국이 회람을 돌리도록 하면 어떨까? 레스터가 요청을 하면 사무국이 당신 서신을 돌릴 것이고 그러면 당신 서신도 공적인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국제연맹에 보낼 서신을 작성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내 청을 수락하며 나중에 내게 전화하겠다고 말했다.

2월 4일

오전 10시에 데이비스(Merle Davis)의 집으로 가서 리튼 경(Lord Victor Bulwer-Lytton)³²¹과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즉시 타코머라이(Tacomera) 애비뉴 5번가 친우회(Friends Society)의 픽카드(Bertram Pickard)³²²에게 전화를 걸어 그와 길게 통화를 한 후 즉시 그를 만나 보라고 일러주었다. 그래서 나는 고평스런 도시의 한가운데 우뚝 솟은 성베드로 대성당 인근에 있는 그의 사무실로 갔다.

픽카드는 내게 로마인들이 건축한 건물인 그의 사무실 아래에 있는 오래된 벽을 가리켰다. 그러고는 그 옛날 녹스(John Knox)³²³와 켈빈(John Calvin)³²⁴이 설교를 했던 교회가 그의 사무실과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비스와 통화를 한 후 나를 리튼과 연결시켜 줄 방법을 모색하려 여러 사람들과 통화를 했으나 그들은 리튼이 나를 만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원하는 것은 중국과 일본의 충돌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것인데 이 문제 하나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한국 문제는 거기에서 한 발 나아가야 하는 더 복잡한 문제이며, 또한 뒤로 소급하여 더 오래된 일들을 다루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회원국도 선뜻 이를 다루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한국 문제를 상정하는 것이 평화라는 기체에 초를 치는 행위가 결코 아니며 「리튼 보고서」도 만주 한인들의 심각성을 명확히 잘 보여 주고 있지 않느냐고 즉각 항의를 했다. 뿐

321) 생몰은 1876-1947년. 영국 정치인 겸 식민지 통치가로 일본의 만주 침략을 조사하는 위원회의 수장을 맡았다.

322) 1892년생. 제네바 국제퀘이커본부(the Intional Quaker Centre)를 관할한 영국 퀘이커교도로 국제연맹 설립 후 제네바에서 활동한 비정부기구인 the Federation semi-official and Private International Institutions의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323) 생몰은 1514-1572년.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가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켈빈을 만났으며, 그의 개혁신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324) 생몰은 1509-1564년. 프랑스 신학자이자 법률가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교회 개혁을 위해 일했다.

만 아니라 일본은 「리튼 보고서」가 일으킨 반향을 다각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이를 위해 만주국 통치를 지지하기 위해 만주와 관련된 소위 586건의 서류를 제시했고, 이 서류에 서명한 사람들 중에는 이전에 언급한 두 명의 한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만주의 한인들이 일본의 만주국 통치에 반대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을 피력했다.

그러자 픽카드는 내게 그런 증거가 있으면 리튼 경이 나를 만나려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며 다른 방으로 가서 전화로 약속을 잡아 보겠으니 잠시 기다리라고 말한 후 방을 나갔다. 잠시 후 그가 돌아와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리치몬드 호텔에서 세실 경(Lord Robert G. Cecil)³²⁵과 만나도록 약속을 했으니, 내가 만주국에 반대하는 한인들의 증거를 제시하면 세실 경이 나를 리튼 경과 만나도록 주선해 줄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그는 콘스탄틴 6번가 국제의원연맹(Bureau Interparliament)의 크리스천 랭(Christian L. Lange)³²⁶과의 만남도 주선해 보겠다고 했다.

픽카드가 오후에 전화를 해서 노르웨이 대표인 랭 박사가 「리튼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국제연맹이 임명한 위원회의 19명 위원 중 한 명이라고 전했다. 그에게 전화를 해서 오후 5시에 그의 자택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서영해를 데리고 그의 집으로 갔으나 서영해는 밖에서 기다리게 했다. 그는 중년이 지나 보였고 영어를 잘 구사했다.

나는 랭 박사에게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중국과 일본의 문제가 미묘한 시점이어서 한국 문제를 상정할 회원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한국의 독립 문제가 상정될 것이라고도 했다. 나는 현재로서는 당신이나 국제연맹의 다른 회원국들에게 한국 독립 문제를 상정해 줄 것을 부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직면한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연맹과 중국을 돕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란 국제연맹이 「리튼 보고서」를 채택하느냐 아니면 일본의 요구에 응하느냐 하는 것이다.

325) 생물은 1864-1958년. 1923~1927년간 국제연맹의 영국 대표로, 1923~1945년 국제연맹의 임무를 돕는 역할을 수행한 영국 기구인 국제연맹협회(the League of Nation Union)의 회장을 역임하였다. 국제연맹에서의 활동을 인정받은 193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326) 생물은 1869-1938년. 국제연맹 노르웨이 대표단의 일원으로 국제의원연맹(Inter Parliamentary Union)의 총재를 역임하였으며, 국제주의를 촉진한 공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노르웨이의 학자이다.

일본은 만주국이 일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부 한인들도 포함하여 서류에 서명한 사람들에게 의해 세워졌다고 하면서, 국제연맹 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 「리튼 보고서」가 틀렸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온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일본의 서류를 반박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를 국제연맹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뉴스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준 공문서의 자격(semi-official status)으로 제출하길 원한다. 사무국에게 이를 회원국들에게 돌리도록 요청하려면 중국보다는 다른 회원국이 제출하길 바라며, 이것이 현재로서는 내가 바라는 전부라고 답했다. 그는 나의 의도를 알겠다고 했다. 그는 또한 스웨덴 대표인 스웨덴 수상이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다고 언질을 주며 나를 위해 그와의 만남을 주선해 보겠노라고 덧붙였다. 나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돌아왔다.

2월 6일

일요일, 블랑코(Blanco) 부부가 호텔로 왔다. 오후에 서영해를 데리고 셀라다(Selada)까지 한참을 걸어갔다. 전차와 케이블카가 관광객들을 제네바 호수의 프랑스 쪽 해발 1,000피트(304m) 산 정상까지 실어 날랐다. 날씨가 화창하여 관광객이 많았다.

2월 6일

10시 존슨(Johnson)을 만나 타이피스트를 좀 구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오후 6시에 호텔로 한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다. 서영해는 내일 돌아오기로 약속하고 어제 일요일 저녁 파리로 갔다. 오전 11시 리치몬드 호텔로 가서 세실 경을 만났다. 그는 한인과 중국인들이 친구인지, 만주의 한인들이 만주국 설립에 반대함을 입증하는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다.

그는 이런 증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우리의 전문을 유포하도록 사무총장에게 요구할 만한 약소국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말했다. 그는 스페인 대표 마다리아가(Salvador de Madariaga y Rojo)³²⁷를 만나 보라고 추천하며 소개장을 써주었다.

327) 생물은 1886-1978년. 잠시 국제연맹 군축 분야의 책임자를 지낸 스페인의 외교관, 학자, 철학자이다. 1930~1934년 국제연맹의 국제군축회의에서 약소국 연합을 이끌었다. 일본의 만주 침략에 대한 강한 반대를 표명하여 '만주의 돈키호테'라는 별명을 얻었다.

2월 7일

스페인 대표 마다리아가와 접촉하려고 노력했으나 그는 군축회의의 매우 중요한 위원회 의장이어서 하루 종일 숙소인 호텔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한인 성명서를 준비했다. 국제연맹의 사무총장³²⁸에게 보낼 서신 150부와 「리튼 보고서」 발췌본 150부를 모두 2월 7일자로 두 개의 별개 문건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길버트 미 영사를 만났을 때 그는 우리의 서신을 국제연맹에 보내기 전에 마다리아가와 레스터가 우리를 대신해서 서신을 제출해 줄지 모르니 마다리아가와 우선 의논해 보라고 귀뜸했다.

그래서 하루를 더 기다려 보기로 작성했다. 서영해가 엔 박사의 요청으로 국제연맹 사무국이 발송할 회람 사본을 가져왔다. 이 서신은 만주국 설립을 지지하는 길림성의 만주인들과 두 명의 한인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며 일전에 일본인들이 제출한 소위 586건 서류에 대하여 ‘호놀룰루 한인민족주의당 대한인동지회(大韓人同志會)’³²⁹가 엔 박사에게 보낸 전문에 관한 것이었다. 호놀룰루의 한인들이 나의 제안으로 엔 박사에게 이 전문을 보내어 배포가 되었고 그 결과 일부 신문에서도 보도가 되었다.

2월 8일

아일랜드 대표 레스터가 전화를 하여 날더러 그쪽으로 오라고 했다. 준비된 우리 서신 사본 한 부를 그에게 가지고 갔더니 매우 잘되었다고 말했다. 그가 사본을 하나 달라고 해서 가져간 것이다. 그는 본국의 정부가 지지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나 우리 서신을 유포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할 수 있으면 기쁘겠다고, 자신이 해도 되는지 아일랜드 정부에게 지시를 의뢰하기로 했다. 그래서 오후에 국제연맹으로 서신을 등기로 발송했고, 약 60통은 회원국들에게, 나머지는 특파원들에게 발송했다. 서영해도 친구들에게 준다고 몇 부를 가져

328) 에릭 드럼먼트(Eric Drummond). 생몰은 1876-1951년. 영국 출신의 외교관으로 1920년부터 1930년까지 국제연맹의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329) 약칭은 동지회. 1921년 7월 이승만과 민찬호, 안현경, 이종관 등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조직한 독립운동단체이다.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을 중신 총재로 추대하고, 총재에 대한 절대 복종을 규약으로 삼았다. 활동 목표로 설정한 3대정강은 비폭력주의, 단체행동으로 지도자에 대한 복종, 경제적 자급자족 등이며, 하와이 각지에 지방회를 두고, 미국 본토로 조직을 확대해 시카고, 뉴욕, 몬타나, 디트로이트 등지에 지방회를 설치하여 대한인국민회와 대립하였다. 기관지 「태평양주보」를 발행하여 독립사상과 항일익식 고취에 노력하였고, 북미 각지의 동지회를 통합해 1943년 동지회 북미지방총회를 결성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북미시보」를 발행하였다.

갔고, 더 달라고 해서 두 배인 50부를 더 주문했다. 콜린스는 2월 6일에 궤타이치와 파리로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런던으로 간 것이었다.

서영해는 프랑스로 발간되는 제네바 신문들이 다음 금요일에 프랑스로와 영어로 우리의 항의를 소개할 한 라디오 방송에 관한 기사를 게재했다고 알려 주었다. 그는 또 국제연맹에서 서울의 「동아일보」로 짧은 메시지를 전송하러 갔을 때 일본 언론 지부장이 와서 자신이 이미 서울에 우리 서신의 거의 전부를 전송했기 때문에 전송하느라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므로 그 일본인 덕분에 우리들의 활동이 일본이 낸 비용으로 한국에 보고될 것이라고 했다.

2월 9일

블랑코를 만났다. 그는 우리 문제를 제기하는 호소문 제출이 잘 처리되었다고 내게 축하를 하고 싶어 했다. 내용이 짜임새 있게 잘 작성되었고, 특히 앞부분은 노련한 정치가와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어 사무총장이 이를 읽고 배포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 들도록 했다고 말했다. 길버트도 아주 잘되었다고 말하며 그(블랑코)가 문건 작성에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블랑코는 이렇게 잘 짜인 성명서를 자신이 작성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과찬이라며 겸손해 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사본을 비회원국과 미국, 소련에게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이미 다 발송했다고 전하며 그런 제안을 해주어서 고맙다고 감사를 표했다.

서영해는 중국 언론 지부가 국제연맹에 보낸 우리 서신을 보고하느라고 중국에 700자를 전송했다고 보고했다.

2월 10일

우리는 프렌티스 길버트 영사에게 우리 서신 사본을 보내 스티imson(Henry L. Stimson) 국무장관과 리트비노프(Maxim M. Litvinoff)³³⁰ 소련 대표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호놀룰루에서 온 전보에는 나의 전갈을 뉴욕을 통해 받았다고 전하며 500불을 보내왔다.

330) 생몰은 1876-1951년. 소련 외무성의 인민위원(People's Commissars)이다.

2월 11일

뉴욕에서 발송된 전보는 「뉴욕 타임스」가 우리의 전문을 보도했음을 전했다.

오전 11시에 제네바의 스위스 뉴스 신디케이터를 대표하는 디브리스(E. Debries) 박사가 약속한 대로 와서 오후 12시 45분까지 인터뷰를 했다. 그는 독일과 프랑스 신문에 긴 칼럼을 쓸 것이며 이를 전송하기 전에 내게 보여 주고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나의 사진과 약력도 요구하여 서영해가 이를 제공했다.

2월 12일

일요일, 영국 퀘이커교도 모임에 갔다. 존슨이 전화를 하여 국제연맹 회원국과 언론인들이 우리의 전문을 어떻게 다룰지 의논을 하고 있어서 이제 곧 우리가 보낸 성명서에 대한 반응을 알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후에 와즈워스(Wadsworth) 박사를 방문했다. 그는 우리 전문이 아주 훌륭하게 준비되었고, 내용도 좋다고 하며 나에 관해 글을 쓸 예정이라고 축하를 해주었다. 우리 문건을 받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믿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월 13일

2월 8일, 국제연맹에 우리의 서신을 제출한 이후 많은 친구가 현 상황을 ‘위엄 있고’, ‘노련한’ 방식으로 언급했다고 우호적으로 논평을 했다. 특히 사무국과 회원국들에게 보낸 서신의 첫 단락은 호소력 있게 잘 쓰여 사무국이 이를 전 회원국들에게 배포해야 하는 의무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다고 평했다. 존슨이 전화를 해서 국제연맹 회원들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서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신문들은 일본에 반대하는 19명의 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들을 보도하였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당선자도 국제연맹과 스티븐슨의 정책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반면 영국 외상 존 시몬스 경은 일본에 대항하여 국제연맹이 채택한 어떠한 조치에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서영해는 나를 지지하는 웰링턴 쿠의 성명서를 중국인들이 배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나는 그에게 중국인들이 우리 문제를 상정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내게 아부를 하려 한다고 답했다.

나는 2월 13일부터 국제연맹이 만주의 모든 한인들을 비(非)일본인으로 선언하여 중국이

나 그들이 선택하는 다른 나라로 귀화할 수 있도록 최소한 그들의 권리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리튼 보고서」를 근거로 문건을 작성했다. 「리튼 보고서」에는 일본이 중국인의 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가 국제연맹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길 바라며 문건을 준비해 왔다.

2월 16일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어 자신이 웰링턴 쿠의 비서인데 중국 대표단이 한국을 대신하여 국제연맹에 제출할 성명서 일로 나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다음 날 오후에 오라고 했다. 그는 2월 18일 오후 3시에 드 루씨 호텔로 와서 운즈 킹(Wunsz King)이라고 쓰인 명함을 내밀었다. 그러고는 독립 ‘만주국’의 설립을 반대하는 만주의 한인들을 대신하여 내가 서명하도록 준비한 성명서 초안을 주었다.

국제연맹의 총회가 2월 21일 화요일에 개최되기 때문에 이 문건은 늦어도 월요일 오후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나는 한 번 읽어 보고 내 서명을 받게끔 한 시간 내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가 돌아간 다음 나는 초안의 내용 전부가 만족스럽지 않아 전부 다시 쓰려고 했으나 서영해가 전문 전체를 바꾸지는 말라고 했다. 현명한 생각인 것 같아서 몇 단락을 빼고 대신 만주 한인들의 상태와 그들의 심정을 첨가했다. 식사 후, 그의 집으로 가서 그와 함께 아주 세심하게 문장을 검토했다. 그는 19일 일요일 오후까지 준비를 마치고 내게 전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2월 19일

일요일 오후 5시경에 킹(King)이 전화를 하여 서류 준비가 끝나고 이제 서명 절차만 남았다고 말했다. 나는 이를 쿠 박사의 자택으로 보냈다. 그는 옌 박사에게 보내는 서신 한 통, 성명서 그리고 나의 파일의 사본 2부를 보냈다. 그래서 나는 서명을 한 후에 원본을 다시 돌려보냈다.

2월 20일

월요일 하루 종일 만주의 한인 문제를 논의하는 글을 작성했다. 호놀룰루에서 사태의 진전

을 문의하는 전보가 왔다. ‘국제연맹은 일본이 국제연맹에 남기를 여전히 바라고 있어서 우리의 주장을 지지할 수 없음. 후에 기회가 올 것임. 기금을 좀 더 송금해 주길 바람. 「리튼 보고서」 발췌본을 출판해야 함’이라고 답장을 보냈다.

2월 21일

오전에 로잔느(Lausanne) 대학의 브라운 여사와 미리엄(Anne W. Meriam) 양이 와서 점심 식사를 하고 가라고 했다. 식사 후, 우리는 오후 3시 반에 총회가 개최되는 국제연맹으로 갔다. 호수를 향해 창문이 난 총회장에는 사람들로 붐볐다. 히만(Hyman) 의장은 불어로 연설을 했고 연설문 전문도 불어로 배포되었다. 총회는 오는 금요일에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총회가 휴회되어 많은 사람이 실망을 토로했다.

2월 22일

옌 박사가 국제연맹에 우리의 성명서를 제출했고, 튜발(Teuval)³³¹ 사무총장이 만주국 수립에 항의하는 뜻에서 이를 배포했다. 만주국은 한인들의 운명에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살고 있는 100만이 넘는 한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나라에서 쫓겨나 갈 곳 없는 신세가 되기 때문이다.

나는 ‘만주의 한인들(The Koreans in Manchuria)³³²’이란 제목의 원고를 준비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했다.

3월 4일

‘만주의 한인들’이란 제목의 원고를 멀티그래프사(Multigraph Office)의 플뢰르(Fleur de Lys) 여사에게 건넸다. 여러 출판사를 알아보았으나 이곳이 비용이 가장 저렴했다.

331) ‘튜발’은 국제연맹 제2대 사무총장인 프랑스인 아베놀(Joseph Luis Anne Avenol, 생몰: 1879-1952)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놀은 1932년 12월에 국제연맹 제2대 사무총장에 임명되었으나, 1933년 7월까지의 초대 사무총장인 드루몬트(Eric Drummond)가 공식적으로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었다.

332) 35쪽 분량으로 표지 상단에 ‘Extracts from the LYTTON REPORT with Comments by Dr. Syngman Rhee’란 부제가 붙어 있고, 하단에 ‘Price : 2 Swiss Francs, Geneva 1933’이라고 적혀 있다. 이 책자는 1933년 3월 서영해가 1929년 프랑스 파리에 설립한 고려통신사(Agence Korea)에서 출판되었다.

취리히에서 걸려온 전화를 한 통 받았다. 이한호(李漢浩)³³³가 다음 날 아침 나를 방문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가 교장으로 있었던 한성고등학교(Seoul High School)³³⁴ 시절 내 제자였는데, 유럽에서 10년이 넘게 지내다가 독일 신문에 실린 나의 사진을 보고 내가 제네바에 있다는 걸 알았다고 미리 서신으로 알려왔다. 그의 전화를 받고 나는 서영해에게 파리로 갈 수 없다는 전보를 보냈다.

3월 5일

이한호가 온다고 해서 호텔에 있었다. 그는 12시경에 왔다. 그를 만날 수 있어서 기뻐했다. 그는 취리히에서 유도를 한 반 가르치고 있었고, 하키 선수로서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는 제법 유명했다. 매주 경기가 있는데 이번 일요일은 베른(Berne)에서 경기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경기장이 축축해 경기가 취소되었다. 그래서 그는 나를 만나기로 한 것이었다. 그는 스위스 여성³³⁵과 결혼을 했고, 두 사람 모두 서로에게 적응하느라 애를 쓰고 있다고 한다. 그는 옆방에서 하룻밤을 묵은 후 월요일 아침, 나를 자신이 살고 있는 곳으로 한번 오라고 초대하고는 집으로 돌아갔다.

3월 6일

오후 2시, 제네바를 출발하여 기차를 타고 파리로 갔다. 밤 11시 반 그곳에 도착하니 서영해가 역에 마중 나와 있었다. 우리는 방기라드 가 1번지의 트리아농 펠리스(Trianon Palace) 호텔로 갔다.

파리에서 체류하는 동안 서영해는 나를 데리고 주로 전차나 전철로 다녔으며 저녁에는 공원이나 볼로뉴 숲³³⁶을 지나 고몽(Gaumont) 극장³³⁷까지 걷곤 했다. 우리는 「리튼 보고서」 영문

333) 생몰은 1895-1960년. 경신고보를 거쳐 스위스 취리히 대학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 취득. 취리히에서 유도클럽을 조직하여 이끌면서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 네덜란드 등지에까지 유도의 보급과 지도에 진력하였다. 해방 후 초대 주서독 총영사, 경제사절단장 등을 역임하고, 1957년에 한국 유도사절단장으로 스위스, 네덜란드 등 서유럽 6개국을 방문하여 한국 유도를 유럽에 소개하였다.

334) 이승만은 1910년 10월 귀국 후 서울YMCA의 학감을 맡았는데, 이승만이 일기에 적은 한성고등학교(Seoul High School)는 서울YMCA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335) 이름은 애니(Annie)이다.

336) 파리의 허파라 불리는 파리 서쪽의 큰 숲이다.

337) 1906년 설립된 파리 최초의 영화관이다.

판을 인쇄할 방법을 알아보려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으나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호놀룰루로부터 1년간 제네바에서의 나의 체류비가 지원될 것이라는 전보를 받았다. 제네바에서 다시 전송된 것이었다. 파리에서 「리튼 보고서」 사본을 구하지 못해 즉시 제네바로 돌아와 서영해에게 한 부 보내 주기로 했다.

3월 1일

오전 11시 10분, 파리를 출발하여 오후 9시 15분 제네바로 돌아왔다. 같은 호텔, 같은 방 46호실에 투숙했다.

4월 1일

일요일, 알프스 로슈 드 나이(Rocher de Naye)에서 춘계특별스키대회가 있었다. 브라운 여사와 그의 아들 보타오(Bortao), 메리엄 양이 스키를 꾸려 아침부터 여행길에 올랐다. 나는 오전 8시 5분에 로잔 역에서 그들과 합류하여 몽트로(Montreux)에서 기차를 갈아탔다. 통나무 철길을 두 시간이나 달려 해발 약 7,000피트(2,134m)의 정상인 로슈 드 나이에 도착했다. 스키대회를 구경했다. 가장 스틸 만점인 코스는 선수들이 240피트(73m)를 점프하는 점핑대회. 호텔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돌아왔다.

몽트뢰(Montreux)는 이제까지 내가 방문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의 하나였다. 바이런(George Baron Byron)³³⁸이 그의 유명한 시, 「시옹성의 죄수(Prisoner of Chillon)」³³⁹를 지었다고 알려진 고색창연한 성(城)인 시옹 성(Chatteau de Chillon)³⁴⁰도 보았다.

4월 13일

오전 10시 55분, 급행열차를 타고 제네바를 떠나 취리히로 향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이한호가 부활절을 함께 보내자며 나를 초대했다.

338) 생몰은 1788-1824년. 영국의 낭만파 시인으로 주요 작품으로 「카인」, 「사르다나팔루스」, 「코린트의 포위」 등이 있다.

339) 1816년에 바이런이 사보이 왕조의 탄압으로 시옹 성 지하감옥에 갇혔던 프랑스와 보니바르의 일화를 가지고 지은 시이다.

340) 이탈리아에서 알프스를 넘어오는 상인들에게 통행세를 징수하고 도로를 차단하기 위해 9세기에 처음 세워진 중세의 성벽으로, 현재의 건물은 사보이의 피에르 2세 치하에 건축가 피에르 메니에르가 재건한 것이다.

기차 안에서 스위스 청년과 브라질 여성을 만났는데, 둘 다 영어를 아주 잘해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오후 4시, 취리히에 도착했다. 이한호가 역에 마중을 나왔다. 그와 친구들이 종종 모인다는 인근의 커피숍으로 걸어갔다. 그가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자 뮐러(Muller)인지 밀러(Miller)인지 그의 동서³⁴¹가 부인과 함께 큰 포드 차를 몰고 나와 나를 태우고 집으로 갔다. 뮐러의 부인은 이한호 아내와 자매. 뮐러(Henry Muller)는 건축가이며 취리히 하키 팀의 주장인 꽤나 전도유망한 청년이었다. 일행은 이한호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내를 만났다. 그녀는 나를 만나 기뻐했고 대접을 잘해 주었다.

나는 이한호가 미리 예약해 둔 펜션에 여장을 풀었다. 우리 일행은 뮐러의 차를 타고 모두 저녁 식사를 하러 외출했다. 식사 후, 우리는 뮐러가 주장이고 이한호가 선수로 뛰고 있는 취리히 하키클럽으로 가서 이번 토요일 스페인 팀과 싸우게 될 하키대회에 대한 작전을 논의했다. 나는 흥미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났다. 그 후 우리는 연주회가 개최될 엘리트 호텔로 갔다.

4월 14일

이한호와 나는 호수가로 산책을 나가 취리히 호 남쪽에 있는 공원으로 걸어갔다. 우리는 보트를 빌려 한 시간가량 노를 저어 갔다. 그리고는 이한호의 집으로 돌아와 그의 아내가 준비한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친 후, 취리히에서 약 50마일(80km) 떨어진 라인 폭포(Rhinefall)로 갔다. 뮐러가 새로 산 포드 차에 우리 네 사람이 시승을 했다. 그의 아내는 함께 갈 수가 없었다. 라인 폭포는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다. 우리는 이한호가 새로 산 코닥 카메라로 사진도 여러 장 찍었다.

4월 15일

토요일, 취리히 하키 클럽과 스페인 클럽 간의 경기 관람.

341) 이한호의 스위스인 동서 이름은 Henry Muller이다.

4월 16일

부활절 주일, 오전 8시 30분. 뮐러 부부, 이한호 부부 그리고 나 모두 다섯 명이 뮐러의 포드 신차로 특별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취리히 호수의 남쪽을 따라 달렸다. 베덴스빌(Wadenswil), 라헨(Lachen), 지브넨(Siebnen), 모리스(Mollis), 발렌제(Wallensee, 호수), 발렌슈타트(Walenstadt), 자르간스(Sargans), 라가츠(Ragaz), 쿠어(Chur), 렌제르하이데(Lenzer Heider), 다보스(Davos), 클로스터스(Klosters), 부크스(Buchs), 간스(Garns), 바트빌(Wattwil), 라퍼스빌(Rappeswil), 마일렌(Meilen) 등을 지나 취리히 호수의 북쪽 길을 따라 저녁 9시 15분에 취리히로 돌아왔다. 오늘 하루 400마일(644km)을 달린 셈이었다. 발렌제는 높은 산 위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 작은 마을들을 여럿 가로질러 끝없이 구불구불이어서 내려가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자동차 도로를 따라 내려왔다.

산꼭대기나 높은 절벽 위에 세워진 고풍스런 성들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곳을 지나 라인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멜츠(Melz) 산 계곡에서 잠시 멈추었다. 그곳은 풀과 야생화들의 물결이 끊임없이 펼쳐져 나가는 곳이어서 그곳에서 사진도 찍고 여성들이 가져온 부활절 계란과 간식을 먹었다. 다음엔 라인강의 아름다운 작은 마을 쿠르(Chur)에 들렀다. 이곳은 308년 전 스위스 국민들이 막강한 이태리 군대의 침입을 물리친 역사적인 곳이다.

쿠르에서는 다시 높은 산길을 따라 올라갔는데 정상은 해수면에서 6,000피트(1,830m)가 넘는 높은 곳이었다. 산길은 대부분 아주 좁아서 운전하기가 위험스러웠다. 하지만 뮐러는 노련하게 운전을 잘해서 줄곧 빠른 속도로 달렸다. 렌제르하이데(Lenz Heide)에서는 꽃도 꺾고 태양 아래에서 일광욕도 즐겼다.

다음으로 유명한 곳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호텔이 즐비하고 환자도 많이 몰려 큰 병원도 있고 미국인들이 즐겨 찾는 고급 휴양도시 다보스(Davos)였다. 차를 마시려고 그곳에 잠시 멈추었다. 차를 마신 후 그곳에서부터는 쉬지 않고 달려 취리히로 돌아왔다. 날씨도 이상적이었고 함께한 사람 모두 자신보다는 남을 더 배려하며 즐겁게 여행을 할 줄 아는 친구들이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나는 이번 여행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4월 17일

부활절 다음 날인 월요일, 이한호 부부와 나는 서울의 남산(南山)처럼 도시와 호수, 산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우에틀리베르크(Uetliberg) 산에 올랐다. 매우 가파른 산이었다. 정상에 올라 들판에서 차를 마셨다. 숲을 따라 내려오면서 풀숲에 누워 일광욕을 즐겼다.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이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저녁에는 뮐러 부부와 시티 엑셀시어(City Excelsior) 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머컨틸 티하우스(Mercantile Tea House)에서 커피를 마셨다. 나는 시티 엑셀시어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4월 18일

오전 11시 55분. 취리히를 떠났다. 이한호 부부와 뮐러 부부가 호텔로 와서 뮐러의 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갔다. 내가 탄 기차가 플랫폼을 출발하자 여성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나도 슬픔이 가슴 가득 밀려와 석별의 정을 떨칠 수가 없었다. 로잔에서 하차하여 메리엄에게 전화를 했으나 그녀와 브라운 여사 모두 출타 중이었다. 나는 다시 기차역으로 와서 오후 5시에 제네바로 돌아왔다. 드 루씨 호텔(Hotel de Russie) 매니저는 내가 돌아온 것을 보고 반가워했다. 나는 같은 방 39호실에 여장을 풀었다.

4월 25일

미국 총영사 길버트와 점심을 먹었다. 우리는 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조용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교외의 한적한 곳으로 갔다.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일단의 일본인들이 들어와 우리 옆방의 테이블에 자리를 잡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우린 교외로 나와 길가에 차를 세워 놓고 한참 이야기를 했다. 그는 중국인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문제를 맡아 줄 회원국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러시아로 가려는 나의 계획에 흥미가 있다고 했다.

오후에 후스쩌[胡世澤]³⁴²⁾와 면담을 했다. 그는 국제연맹 중국 상주대표이며 쿠 박사, 엔

342) 1894년생. 영어 이름은 Victor Hoo. 프랑스 파리대학 법학박사이며, 1919년 파리강화회의 중국대표부 외교관보, 1920년 국제연맹 중국대표부 부원 겸 국제재무회의 중국대표부 전문위원, 1921년 워싱턴회의 중국대표부 비서, 1924년 주독 일대리대사, 1930년 외교부 아주 사장(司長), 1931년 러·중 교섭전문위원, 1932년 국제연맹 전권대표 판사(辦事)처장, 1933년 스위스공사를 역임하였다.

박사, 꺾 박사가 없을 경우 중국대표단을 책임지는 인물이다. 나는 조선이 열강과 맺은 조약을 국제연맹에 등록하는 문제와 국제연맹에 또 다른 서류를 제출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후스씨는 쿠 박사가 오후에 떠나기 때문에 그 무렵에 나를 만나기를 원했다. 내가 도움을 청하면 쿠 박사가 떠나기 전에 그와 의논을 해보겠다고 했다. 그는 쿠 박사와 꺾 박사가 회의 참석차 워싱턴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국제연맹에서 어떤 일을 벌이기가 시기상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4월 28일

나는 후스씨를 초대해 호텔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음식을 먹으며 조용한 방에서 유익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그는 엔 박사를 통해 러시아 고위층을 만나고 그곳의 한인 지도자들과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시베리아에도 가려는 나의 계획을 알아채고는 내 여권에 러시아 비자를 얻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4월 29일

드 루씨 호텔에서 데이비스(Merle Davis), 픽카드(Bertram Pickard)와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우리는 극동과 한국 문제를 의논했고 국제연맹 헌장 16항에 따라 국제연맹이 '금수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하는 나의 문건을 함께 읽었다.

후스씨 박사가 전화를 하여 러시아 대표들이 내게 편리한 장소인 파리나 베를린으로 나에 대한 추천서를 보내 주겠다고 알려와 다음 주쯤에 파리로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파리의 러시아 대사관으로 가면 내 여권에 비자를 발급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에는 이한호 내외와 뮐러 내외가 자동차로 제네바까지 와서 드 루씨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4월 30일

일요일 아침, 우리는 자동차 여행을 떠나 빙하가 산들을 덮고 있는 보너빌 샬모니(Bonneville Chamonix)를 가로질러 세인트 모리스(St. Maurice)와 락 르망(Lac Lemman)

호수 남쪽을 따라 달려 로잔느의 정 반대편에 있는 호숫가의 아름다운 작은 마을 에비앙(Evian)의 레전시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샬모니(Chamonix)에서 마르티귀(Martigny)까지는 산세가 험악한 절벽을 따라 좁은 도로가 지그재그로 나 있고,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펼쳐져 운전하기가 매우 위험하였다. 그곳에서 다리를 잘못 건너서 매우 위험한 길을 따라 거의 반 마일 이상을 달렸으나 큰 도로가 나오지 않아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 와야만 했다.

아침에는 날씨가 아주 좋았으나 오후엔 비가 내렸다. 우리는 프랑스와 스위스 국경을 네 번이나 건넜다. 매번 양국의 세관원들이 자동차와 면허증, 여권, 자동차 트렁크를 검사했다. 국경을 건너는 차량은 예외 없이 모두 조사를 했다. 세관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우리도 아무런 문제없이 무사히 통과했다.

5월 1일

월요일 아침, 우리는 낚시 도구를 챙겨 나룻배를 타고 나갔다. 그리고는 에비앙의 시장을 지나 호숫가를 따라 제네바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중에 이한호와 나는 다음 여행 계획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 이한호 일행은 정오에 취리히로 돌아갔다. 돌아와 보니 호놀룰루에서 보낸 비엔나와 베를린 여행에 관한 전보가 도착해 있었다.

5월 2일

국제연맹의 중국 상주대표인 후스씨와 회동했다. 중국대표부는 샤를 갈랑(Charle Galland) 18번가에 있다. 우리는 국제연맹 헌장 16조에 입각하여 일본에 대한 재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국제연맹에 제출하는 문제를 논의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러시아 여행에 누구를 동행할 것인지 말해 주었다. 그러자 그는 다음 날 오후 1시에 중국 대표 숙소에서 중국 식 점심을 하자고 나를 초대했다.

5월 3일

사전에 약속된 대로 크리스천 랭(Christian Lange) 박사 사무실로 갔다. 그는 국제연맹 총회가 임명한 중국과 일본 문제에 관한 자문위원회 의장이다. 우리는 극동의 상황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일본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며 일본이 조만간 어떤 나라와 분명히 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연맹이 앞으로 취할 행동과 관련하여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어떠한 조치를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한국이 국제연맹의 회원이 될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자 그는 국제연맹 내에서 비공식적인 논의가 있었으나 한국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의했으며 지금 우리가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매우 예의 바르고 다정한 사람이었으며 방문해 줘서 고맙다고 내게 몇 번이나 감사를 표시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져서 나는 중국대표단 본부로 갔다. 쿠(Koo) 내외, 킹(King) 내외, 웰링턴 쿠의 비서 그리고 또 다른 중국인 등과 함께 정통 중국식 만찬을 먹었다. 후 부인은 다시 한 번 이런 식사를 함께하자며 나를 초대했다. 매우 즐거운 점심 식사였고 한국과 중국이 처한 상황에 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5월 5일

나는 한국이 타국과 맺은 조약을 국제연맹에 등록하기에 앞서 러시아를 제외하고 한국과 통상 조약을 맺은 모든 나라의 정부 앞으로 조약의 인증 사본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했다.

소틸(Juris Antonie Sottile) 박사가 『국제법 리뷰(Revue De Droit International)』라는 잡지를 보여 주면서 약 2,500프랑을 주면 계간지인 그의 잡지에 한국에 관한 기사를 실어 주겠다고 제의했다. 나는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라이베리아 상주대표이며 사무실은 스위스 제네바 센느 가 105번지이고 전화번호는 46-638.

5월 9일

국제연맹 사무국이 우리 전문을 등기소에서 수령했다고 통보를 했다. 오전에 제네바에서 높은 산인 해발 4,000피트의 살레브(Saleve) 산 정상까지 등반했다. 제네바 쪽으로 뻗은 낭떠러지 위로 올라갔는데 땅이 축축하고 미끄러워서 나무와 덤불을 잡고 올라가야 했다. 간헐적으로 비가 오다가 햇살이 비치기를 여러 번 반복하여 여러 번 비를 맞았다. 텔레페리끄(Telepherique) 역에서 중국 여성 둘을 만나 산림 관리인이 거주하는 곳까지 함께 걸어갔다.

나는 유명한 음식점 13위에 오른 아브레(Arbres) 부근의 한 조그만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날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은 나 혼자였다. 나는 옥외에서 식사를 했고 사진도 찍었다. 조그맣게 생긴 여종업원이 사진을 찍어 주었다. 오후 5시 반쯤 호텔로 돌아왔다.

베를린의 독일은행으로부터 120불을 빌리기가 무척 힘이 들어 커쉬너(Kirschner) 경에게 여러 번 전보도 보내고 그의 여동생에게도 서신을 보냈다. 드 루씨 호텔의 도너(Francesca Donner)³⁴³ 양도 그 은행에 서신을 보내어 마침내 가까스로 그 은행에서 돈을 보내왔다.

5월 11일

중국의 상주대표 후스찌가 베를린의 중국 영사에게 보내는 소개장을 다음과 같이 보냈다.

진소공사(塵蘇公使)는 보아 주십시오. 오랫동안 훌륭한 모습을 뵈지 못하여 때때로 멀리서 생각이 간절합니다. 바라옵건대 공사께서는 안녕하십니까? 한없는 송축을 올립니다. 여기에 부탁드릴 일이 있는데 한국의 총통 이승만(李承晩) 선생께서 작년에 공사(公事)로 인하여 스위스에 오셨는데, 때마침 중국과 일본이 긴급하게 교섭하는 기회를 만나 우리에게 대하여 지극한 동정을 표하고 우리 대표단과는 때때로 왕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께서 스위스에서 독일로 가려 하면서 특별히 서찰로 소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라건대 정중하게 만나 주시면 감사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삼가 안녕하시기를 비우고 아울러 댁내의 안녕을 비웁니다.

후스찌[胡世澤]은 삼가 아뢰입니다.

(겉봉투) 삼가 비웁니다. 이승만 선생이 직접 가지고 가서 전합니다.

리우충쑤[劉塵蘇] 공사는 보아 주십시오.

후스찌[胡世澤]은 절하고 부탁드립니다.

343) 본명은 Francesca Maria Barbara Donner. 생몰은 1900-1992년.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 교외 인서스탈프 읍의 실업가 도너(R. Donner)의 딸이다. 스위스 제네바 드 루씨 호텔에서의 만남을 인연으로 1934년 10월 미국 뉴욕 몽클레어 호텔에서 이승만과 결혼하였다. 영어 국제통역사 자격증과 타자 속기 자격증을 바탕으로 평생을 통해 이승만의 아내, 비서, 동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948~1960년 대한민국 초대 퍼스트 레이디였으며, 1960년 이승만의 하와이 망명 후 남편의 병구원을 담당하였다. 1965년 이승만 별세 후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가 1970년 한국에 돌아와 이화장에서 여생을 마쳤다.

5월 18일

오전 11시 50분에 제네바를 출발하여 몽트뢰(Montreux) 위쪽 글리옹(Glion)의 벨뷰(Belle-vue) 호텔 104호실에 투숙. 트렁크와 밀러 박사의 신작 서적『내일의 시작(Beginnings of To-Morrow)』³⁴⁴⁾을 드 루씨 호텔 직원 랜드리(Landrie)에게 맡김.

5월 19일

테리텃(Territet)을 지나 시옹 성(Castle of Chillon)까지 걸어갔다. 영국 여행객들을 만났고 오래된 지하 감옥, 홀, 프랑스와 보니바드(Francois Bonivard)³⁴⁵⁾가 4년 동안 기둥에 묶여 있었던 탑 등을 둘러보고, 바이런이 세 번째 기둥에 자신의 이름을 써 놓은 것도 보았다. 식당에서 점심을 조금 먹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Company)³⁴⁶⁾까지 걸어가 전차로 호텔로 돌아왔다.

5월 20일

Belle-vue Hotel 早起(벨뷰 호텔에서 일찍 일어나다)

好鳥啼何早 아리따운 새 어찌 일찍부터 울어대나

樓中遠客眠 누각 속엔 먼 나그네 잠들어 있는데.

津湖無限景 제네바 호의 끝없는 경치 중에서

最是曉山天 새벽의 산과 하늘 가장 좋구려.

津湖指 Geneva Lake(津湖는 제네바 호수를 가리킴)

344) 밀러(Nerbert A. Miller)의 『The Beginnings of To-Morrow : an Introduction to the Sociology of the Great Society』(New York: D. C. Heath, 1933)의 제9장 『The Case of Korea』는 한국 독립운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345) 생물은 1493-1570년. 사보이의 영주와 제네바 주교의 권력 증대에 항거하는 정치활동을 벌이다가 시옹 성에 갇힌 제네바의 애국적인 성직자 겸 역사가로, 바이런과 같은 낭만파 시인들에게 자유의 상징이자 폭정에 반대하는 공화정의 대변자로 여겨졌다.

346) 1850년에 설립된 여행 관련 서비스와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욕에 본사를 둔 미국 회사이다.

5월 21일

오후 2시 44분에 몽트뢰와 글리옹 출발. 밀라노-파리 간 특급열차 3등실에 몸을 싣고 밤 11시 10분에 파리 도착. 서영해가 역으로 마중을 나와 로얄 트리아농(Royal Trianon) 호텔 92호실에 투숙.

5월 22일

생미셀 불리바드 133번지의 데 아메리칸스(Hotel des Americains) 호텔 20호실로 숙소를 옮김.

5월 27일

파리 맥마혼(MacMahon) 애비뉴 17번지에서 살고 있는 루이스 루소(Louis Rousseau) 박사 내외가 나와 나의 비서 서영해를 초대하여 르 콜리제(Le Colisee)에서 차를 마시고 ‘리도(Lido)’라는 무도회장으로 감. 리도는 파리에서 가장 화려한 명소.

5월 28일

전차로 베르사이유에 갔다가 오후에 돌아옴. 오는 길에 유명한 휴양지 상 클로드(San Cloud) 경유.

한편 루브르 박물관, 중국인예술전시회, 파리상업 엑스포, 파리에술 엑스포, 노틀담 성당, 마들랭(Madeleine) 성당, 성 어거스틴 성당 등을 둘러 봄.

5월 30일

나는 파이 외곽 오페이(Auteuil)의 롤랑-가로스(Roland-Garros) 경기장에서 열리는 세계 테니스 토너먼트를 보러 갔다. 이토(Itoh)와 코철티(Cochet)의 경기였으나 이토가 허약하여 경기에서 지고 말았다. 그날의 주요 경기는 2만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에서의 단식 토너먼트였다. 독일의 프렌(Prenn)과 영국의 리(Lee), 프랑스의 버나드(Bernard)와 이태리의 스테파니(Stefani). 이 두 경기에서 프렌과 스테파니가 패했다.

이번 파리 여행의 주요 목적은 내 여권에 러시아 비자를 받는 것이다. 5월 23일, 그레넬

(Grenelle) 가 79번지의 러시아 영사관으로 가서 제네바로부터 추천서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문의했다. 영사는 못 받았다고 말하며 일시적 여권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서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는 제네바의 중국 상주대표인 후스찌에게 전보와 서신을 두 번 보내 그의 러시아 친구가 약속한 추천서를 얻어 달라고 부탁했다. 30일까지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블랑코에게 이 일에 관해 다시 서신을 보냈다. 후스찌에게서 온 답신에는 아직도 그 친구와 접촉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한다.

6월 3일

구미위원부(Korean Commission)를 맡고 있는 장기영(張基榮)³⁴⁷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서한에는 기금부족과 위원부 사무실의 폐쇄로 워싱턴을 떠나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뉴욕으로도 서신이 가도록 되어 있었다. 나는 즉시 호놀룰루로 전보를 보내 위원부를 구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돌아가겠다고 알렸다. 다음 날, 호놀룰루에서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사전에 계획한 여행을 미루지 말고 실행하라고 촉구하는 답신이 왔다.

토요일 오후, 러시아 영사관으로 갔으나 약간 늦어서 사무실은 문이 닫혀 있었다. 월요일 아침에 통역으로 오스트리아 학생인 지너리히(Sinnerich) 양을 데리고 영사관으로 가서 안토노프(Antonoff) 총영사를 만났으나 제네바에서 아무런 서신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본국(스위스) 정부로 나의 신청서를 보내어 전보로 지시를 받으라고 부탁했다. 전보 비용을 선불로 지불하고 지시를 받으면 곧 내게 알려 주기로 약속했다.

지너리히 양이 독일 영사관으로 갔으나 내 여권이 정상적인 여권이 아니라고 말하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347) 생몰은 1903-198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시베리아 기관인 한인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였다. 1924년 일본 주오 대학 졸업 후 미국으로 건너가 1930년 버틀러 대학 정치학부를 졸업하고, 인디애나 주립대학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전공하였다. 1932년 이승만의 부름을 받고 구미위원부 위원으로 임명되어 독립자금을 모금하고 교민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43년 봄 주미외교위원부가 재미 한인 청년을 미 국방성 전략정보처(OSS)에 추천하여 특수 교육을 받게 하자 미군에 자원입대하여 교육을 받고 충칭임시정부의 연락원으로 활동하였다.

6월 6일

화요일, 성령강림절(오순절) 휴가가 끝난 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무소가 다시 문을 열어 전보 두 통을 받았다. 하나는 제네바의 후스찌가 보낸 것으로 그의 친구가 파리로 추천서를 보내기로 약속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호놀룰루에서 온 것으로 돈을 더 보낼 것이니 러시아로 가라고 재촉하는 내용이었다. 나는 즉시 러시아 영사관으로 달려가 비자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한호의 비자는 내가 작성할 수가 없어서 여권과 신청서를 항공우편으로 취리히로 보내고 답신을 기다렸다.

6월 10일

아침 일찍 이한호에게서 편지가 왔다. 그의 가족과 뮐러의 가족이 세인트 갈런(St. Gallen)의 휴양지에서 보낸 것이다. 그래서 신청서를 가지고 러시아 영사관의 안토노프 총영사에게 갔다. 그런데 모스크바에 여권을 보내기 전에 이한호의 사진 석 장이 필요했다. 이한호에게는 내가 연락하겠다고 했다.

그런 다음 체코슬로바키아 영사관으로 가서 통과 사증(transit visa)을 요청했다. 그들이 나의 목적지를 물어서 폴란드로 간다고 했더니, 우선 폴란드 비자를 받고 그 후에 비자를 내 주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러시아 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한국이 타국과 체결한 조약의 사본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정부 중에서 벨기에 정부만이 지금까지 유일하게 우리의 요구대로 완벽한 사본을 보내 주었다. 덴마크 외무부는 보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제네바 리서치 워크(Geneva Research Work)의 말콤 데이비스(Malcolm Davis)가 보낸 서신에 따르면, 국제연맹 현장에는 모든 조약을 하나로 묶어서 국제연맹에 등록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국제연맹이 조직되기 전에 체결된 조약도 포함된다고 한다.

6월 11일

일요일 오전 10시 15분, 가장 저렴한 디에프-뉴헤이븐(Dieppe-Newhaven) 정기선으로 파리를 떠나 런던으로 향했다. 오후 6시 30분에 런던에 도착하여 택시를 타고 러셀 광장의

로얄 호텔로 가서 5087호에 투숙했다. 그리고는 윌리엄스(W. Llewellyn Llew)³⁴⁸에게 전화를 했더니 곧장 달려와 함께 식사를 했다. 그는 다음 날도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겠노라고 선언했다.

6월 12일

중국 공사관에 전화를 했으나 꺾타이치 공사와 그의 부인은 외출하고 없었다. 나는 콜린스와 전화상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그가 다음 날 나를 보러 오겠다고 했으나 올 수가 없어서 내가 공관으로 갔다. 그는 공관 건물을 구경시켜 주었다. 그리고는 중앙 응접실로 가서 자리를 잡고 대화를 했다. 나는 러시아로 가려는데 이 때문에 꺾와 옌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먼저 꺾에게 보고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날 내게 알려 주기로 했다. 그는 옌과 쿠 박사는 사보이 호텔에 있고 송쯔원[宋子文]³⁴⁹은 도체스토(Dorchester) 호텔에서 묵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세계경제회의(World Economic Conference)가 오늘 오후 3시에 신학 박물관[Theological Museum]에서 개최되었다. 영국 국왕과 수상이 개막 연설을 했고 중국 대표들도 꽤나 바쁘게 움직였다.

윌리엄스(W. Llew. Williams)가 와서 함께 라디오를 들으면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국왕과 수상의 연설을 논평도 하고 서로 긴 대화를 주고받았다. 그는 내가 의원이나 언론인 중에서 주요 인물들과의 접촉이 있었는지 궁금해 했다. 나는 극동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 정부의 외교 정책은 근시안적이어서 이러한 정책이 지속되는 한 영국이 일본을 화나게 할 일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유럽 국가 중에서 일본에 맞설 만한 나라는 없다. 오직 미국만이 언젠가는 점점 증가하는 일본의 위협에 도전이 될 것이다. 만약 영국 정치인들이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선견지명을 갖추어 일본이 영국의 국익에 어떻게 해가 되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멀리 내다 볼 수만 있다면 그들은 미국과 손을 잡고 대신 일본과 노닥거리는 일을 멈추게 될 것이며,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을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348) 1920년대 초기, 영국에서 한국친우회의 명예서기(Honorary Secretary)를 지냈다.

349) 생몰은 1894-1971년. 중국 4대 재벌의 한 사람으로 중국 국민당의 중심 인물로서 외교부장 역임하였다. 쑨원[孫文]의 부인 송칭링[宋慶齡]의 동생이며, 장제스[蔣介石]의 부인 송메이링[宋美齡]의 오빠이다.

6월 14일

윌리엄스가 영국 상원(House of Peers) 멤버이며 전 한국친우회(League of the Friends of Korea)³⁵⁰ 의장인 맴헤드(Mamhead) 경과의 약속이 12시 45분에 잡혔다고 전화로 통보를 했다. 영국신사클럽(National Liberal Club)에 윌리엄스를 만나러 갔다가 함께 맴헤드를 만나러 클럽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우리에게 차를 대접했고 우리는 극동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그 후 윌리엄스와 나는 클럽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6월 15일

버스 투어로 윈저 성(Windsor Castle), 스토크포지스(Stoke Poges)³⁵¹ 교회 마당³⁵², 이튼 고교, 햄튼 궁(Hampton Palace) 등을 둘러보았다. 제때에 맞게 돌아와 호텔에서 윌리엄스와 그의 누이를 만나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사를 마치자 윌리엄스는 「런던 타임스」의 그레이(Grey) 편집장을 만나 보러 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레이를 만나 그와 짧은 대화를 가졌다.

6월 16일

콜린스에게 점심을 먹으러 오라고 했다. 그는 꺾타이치 공사를 꼭 만나고 가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는 중국공사관이 내 비자를 발급받게 해줄 수 있기를 바라며 모스크바 중국 대사관에 나의 방문을 통보해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꺾가 내게 전화를 했으나 나와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나중에 그가 내게 전화를 걸어 꺾가 다음 날 오전 10시에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350) 서재필이 1919년 5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조직한 이래 이승만, 벡(S.A. Beck), 파이팅(H.C. Whiting) 등의 노력으로 워싱턴 DC, 뉴욕, 콜럼버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캔사스시티, 보스턴 등 21개 지역에서 결성된 친한 단체이다. 본부는 필라델피아에 두고 1923년까지 활동하였으며, 1920년과 1921년에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에서도 한국친우회가 결성되었다. 설립 목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일본의 식민통치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동정과 지원, 압박 받는 한국인에 대한 호의적 중재와 일제에 대한 영향력 행사, 미국 내 한국 홍보활동, 인종 간의 친선과 항구적 평화 및 형제애의 촉진 등을 표방하였다. 회원은 친우회의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정회원과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찬조회원 그리고 중신회원 등으로 구분하였다.

351) 영국 잉글랜드의 버킹엄셔(Buckinghamshire) 주 남부로 런던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352) 18세기 중엽 영국의 대표 시인인 Thomas Gray의 「An Elegy Written in a Country Churchyard」(1751)는 스토크포지스(Stoke Poges) 마을의 교회 묘지를 무대로 삼고 있다고 전해진다.

6월 17일

오전 10시에 중국공사관에 갔다. 꺄타이치 공사가 러시아 대사관으로 비자 문제 때문에 전화를 했으나 러시아 공사는 외출 중이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하여 콜린스를 통해 내게 결과를 알려 주겠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콜린스에게 전화를 했더니, 그는 꺄가 러시아 공사관 사람들과 전화 통화를 했으나 현재 처리 중이며 좀 더 검토를 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자기가 나라면 모든 일을 그들 손에 맡겨 놓고 오늘이 토요일이니 월요일이나 화요일까지는 그저 가만히 앉아 기다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도 월요일에 그가 전화를 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6월 21일

나는 중국공사관에 여러 번 전화를 했으나 콜린스나 꺄타이치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래서 러시아 비자를 발급 받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내일 저녁 파리로 떠날 예정이란 내용의 서신을 콜린스에게 보냈다. 또한 그가 월요일이나 아마도 화요일까지 기다리라고 친절히 충고를 해주어 그에게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렸다는 등의 내용도 언급했다.

6월 22일

중국공사관으로부터 아무런 말도 들을 수가 없어 다음 날 런던을 떠나기로 하였다.

6월 23일

오전 10시 빅토리아 역에서 3등 열차를 타고 런던을 떠났다. 런던에서 파리 간 가장 저렴한 뉴헤이븐-디에프를 경유하여 오후 5시 55분에 파리의 생라자르 역³⁵³에 도착했다. 역에서 택시를 타고 아메리칸 호텔에 도착하여 지난번에 투숙했던 20호실에 여장을 풀었다. 나중에 고려통신사(高麗通信社: Agence Korea)로 편지를 가지러 갔더니 서영해는 외출 중이었다.

353) 1873년에 개설된 파리의 Saint Lazare 기차역이다.

6월 24일

오전 9시에 비자 문제를 알아보려고 러시아 영사관으로 갔으나 토요일이라서 문이 닫혀 있어서 월요일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6월 25일

일요일, 같은 호텔에 투숙한 독일 청년 굼버그(Gumberg)와 브와 드 볼로뉴(Bois de Boulogne)로 갔다.

6월 26일

러시아 영사관으로 갔으나 월요일이어서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경찰이 보고는 영사관은 월요일에 개방하지 않는다는 공고문이 쓰인 동판의 팻말을 가리켰다.

6월 27일

화요일, 러시아 영사관에 들러 안토노프(Antonoff) 총영사에게 모스크바에서 응답이 왔는지, 또 내 여권에 비자를 받아 줄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러시아 비자 문제로 체코슬로바키아 영사관으로 갔더니 우선 폴란드 비자를 발급받으라고 했다. 그래서 폴란드 영사관으로 가서 비자를 발급받고, 체코슬로바키아 영사관으로 가서 출입 사증(transit visa)을 받았다. 점심을 먹고 오페라 광장(Opera Square)에 있는 매표소에서 다음 날 아침 파리발 로잔행 3등석 열차표를 구입했다.

6월 28일

러시아 영사관으로 가서 이한호의 비자 발급에 관해 모스크바로부터 응답이 오면 스위스 취리히의 이한호에게 직접 통보를 해줄 것을 영사에게 부탁했다. 그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한호의 여권을 그에게 맡겼다. 나는 그에게 내가 누구란 것을 밝히고 모스크바 정부 당국에게 보낼 소개서를 부탁했다. 그러자 그는 러시아 정부가 이미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또한 러시아 외무부가 발급이 어려운 내 여권의 비자를 발급

해주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내가 러시아에 가서 외무부에 도착 보고를 하면 그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그래서 이한호의 여권을 그에게 맡기고 제네바로 가기로 했다. 그곳에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6월 2일

오전 9시 30분에 리옹(Lyon) 역에서 3등석으로 파리를 출발하여 스위스 로잔에서 기차를 바꿔 타고 오후 7시에 제네바에 도착, 드 루씨 호텔에 투숙.

7월 4일

오전 11시 8분에 제네바를 출발하여 로잔을 거쳐 뇌샤텔(Neuchatel)과 비엘(Biel)의 아름다운 호수들을 구경하고 오후 4시에 취리히로 왔다. 이한호가 역에 마중 나와 부근의 유명한 커피하우스에서 커피를 마셨다. 나중에 헨리 뮐러와 이한호가 역에서 가방을 찾아와서 브란트웬크 가(Brandschenkestr) 20번지 이한호의 집 부근에 있는 널찍한 펜션에 여장을 풀었다. 내 트렁크는 제네바 드 루씨 호텔의 직원인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³⁵⁴에게 맡기고 왔다.

7월 7일

오전 8시 취리히를 출발하여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향했다. 뮐러와 이한호 내외가 뮐러의 차로 나를 역까지 내려다주어 3등 열차를 타고 밤 10시 20분에 비엔나에 도착했다. 우선 택시를 타고 역 부근의 호텔로 갔다. 값싸게 보이는 호텔이었으나 방값이 더 비싸 취리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추천한 쿠머(Kummer) 호텔 11호실에 투숙했다. 즉시 커쉬너(Kirschner) 양과 도너(Donner) 양에게 편지를 보냈다.

354) 'Charles Landry'는 1933년 5월 18일자 일기에 나오는 드 루씨 호텔 직원 Landrie와 동일인으로 보인다.

7월 8일

중국 공사관에 전화를 했더니 타웅(Dekien Taung) 영사가 내가 와서 반갑다고 하며 오후 5시에 만나자고 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들렀더니 내 앞으로 편지가 두 장이나 와 있었다. 하나는 도너에게서, 다른 하나는 리브스(J. R. Reeves)에게서 온 것이었다.

오후 5시에 중국 공사관으로 갔다. 타웅 영사가 차와 케이크를 대접했다. 나는 그에게 나의 계획을 말해 주고 월요일까지 독일과 헝가리 비자를 얻을 수 있도록 내 여권을 두고 왔다. 그는 일요일 정오에 나를 데리러 와서 임페리얼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시내 구경을 시켜 주겠다고 했다. 이어서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³⁵⁵의 충직한 지지자이자 범인도의 회(Pan-Indian Congress)의 지도자인 한 분과 함께 러시아 영사를 만나 보라고 권했다. 그는 두 사람 모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지금은 러시아 영사가 병환 중이니, 내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곧 회복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도 정치인은 파텔(Sardar Patel)³⁵⁶로 인도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³⁵⁷의 당대표이다.

7월 8일

오전에 친구들과 쉰브룬 궁(Schonbrunn Palace)³⁵⁸에 갔다. 12시 반쯤 타웅 영사가 호텔로 와서 나를 데리고 임페리얼 호텔로 갔다. 그곳은 국왕과 외교관들이 자주 찾는 비엔나 최고의 고급 호텔이다. 그가 사전에 예약을 해두어 우리는 넓은 식당 안에 별도로 분리된 곳에서 식사를 했다. 식사 중에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그가 나의 모스크바 방문과 러시아 관리들과 만나길 원하는 나의 바람을 모스크바 당국에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중국 상해 교통대학(交通大學)의 탕칭쯔[唐慶治] 교수의 아파트로

355) 생몰은 1869-1948년.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이자 인도 건국의 아버지. 남아프리카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유명해졌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 대한 반영·비폭력 운동 등의 비폭력 저항운동을 전개하였다.

356) 생몰은 1875-1950년. 인도의 독립에 중요 역할을 수행한 민족주의자이자 독립운동가로 인도의 두 거대 정당 중 하나인 인도국민회의(Indian National Congress)의 대표를 역임하였다.

357) 1885년에 인도 독립을 위해 결성된 인도의 보수정당이다. 20세기 초 스와라지(독립)를 지상과제로 삼고, 제1차 세계대전 후 인도 전역으로 활동범위를 넓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인도가 공화국으로서 독립하고 의회정치가 실시되자 오늘날까지 제1당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계속 집권하고 있다.

358) 오스트리아 비엔나 서부에 위치한 합스부르크 왕가를 상징하는 궁전이다.

갔다. 그의 부인 위징탕[俞庚棠]³⁵⁹은 중국 강소성 우시[無錫]의 시립교육대학(Provincial College of Education) 교수였다. 타옹이 나를 그들 내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탕 부부는 곧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며 우리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타옹과 나는 비엔나 시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코벤즐(Kobenzl)의 펠리스 호텔인지 쉬로스(Schloss) 호텔인지로 갔다. 그곳에서는 카렌버그(Kahlenberg) 산이 한눈에 들어왔다. 알버그(Alberg) 산맥 끝자락에는 거대한 고성(古城)이 하나 서 있고 그 앞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관통해 흐르는 다뉴브 강이 넓은 들판을 따라 흘러가고 있었다. 우리는 호텔 앞뜰에서 차를 마셨는데 많은 사람이 우리를 쳐다보며 지나갔다. 호텔 지배인과 웨이터들이 중국 영사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차렸다. 임페리얼 호텔에서도 그랬고 나중에 들른 커다란 커피하우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타옹 씨는 지금은 박물관으로 변했으나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고색창연한 흰브룬 궁을 내가 이미 갔다 왔다고 말하자 꽤나 실망하는 눈치였다. 흰브룬 정원도 매우 좋았다. 그는 내게 좀 더 구경을 시켜 주고 싶어 했으나 나는 6시에 약속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운전수에게 쉬와젠베르크(Schwarzenberg) 궁, 오페라 링(Opera Ring), 칸트너 가(Karntner Street)와 합스부르크 가를 돌아 5시 40분에 쿠머(Kummer) 호텔에 도착하게 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프란체스카 도너 양이 나를 데리고 헤르메 빌라(Hermes Villa)로 갔다가 밤에 돌아왔다.

타옹 영사는 독일공사관과 접촉해 보겠다고 약속했고 헝가리 영사에게도 내 비자를 부탁해 보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내 여권을 가지고 가서 비자가 발급되는 즉시 전화를 하겠다고 했다.

7월 10일

오전 10시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갔으나 호놀룰루에서는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동안에 환율이 1달러에 6실링 8그로센까지 급락했다. 달러 가치가 너무나도 가파르게 떨어

359) 생몰은 1897~1949년. 1916~1919년 중서여숙(中西女塾)과 성마리아 서원을 거쳐 5·4운동 때 학생회 주석에 선출되었다. 1919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 사범대에서 듀이에게 교육학을 수학하고 생활이 곧 교육이라는 생활 속의 교육론을 주창하였다. 1922년 당경치(唐慶治)와 결혼하였고, 사립우시[無錫] 중학교 강소성 제이사범학교의 교사를 지냈으며, 상하이[大夏] 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어지고 있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는 미국 여행객들이 유럽 여행 예약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나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게 나의 모스크바행 티켓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더니 환불을 받으려면 스위스 취리히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호놀룰루에 전보를 보내어 마지막으로 자금을 요청했다. 나는 파리, 런던, 제네바, 취리히에서 계속 호놀룰루로 전보를 보냈으나 아직 아무런 소식도 없고 송금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내 여권은 중국 영사 손에 있고 호놀룰루로부터 전보도 오지 않았다. 하여튼 내일까지 더 기다려 보기로 했다.

오후 3시에 타옹 영사가 호텔로 와서 독일과 헝가리 비자가 발급된 내 여권을 건네며, 독일인들은 내가 원한다면 출입 사증 대신 영구 비자를 발급해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에게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고 물었더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모스크바 주재 중국 사무소 웨이[魏良聲]에게 보내는 소개장과 비엔나 기념 책자 하나를 주었다.

타옹 영사는 또 나가자고 하며 흥미 있는 곳을 여러 군데 구경시켜 주었다. 우선 파리의 볼로뉴 숲(Bois de Boulogne)³⁶⁰과 흡사한 프레터(Prater) 공원으로 갔다. 공원 한가운데에는 유명한 커피집인 러스트 하우스(Lust House)가 있어서 우리는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일본인 부부가 들어와 우리 옆에 자리를 잡은 것을 보고 우리는 그곳을 나와 공원 반대편으로 갔다. 그곳에는 공원 안에 예술적인 커피하우스인 크리아우 메이에레이(Kriau Meierei)가 있었다. 그곳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는 오늘 오후 6시에 어떤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로둔테(Rodunte) 스타디움, 박람회장, 프레터 공원 등을 구경시켜 주고 호텔까지 데려다 주었다.

7월 11일

오후 1시 반에 버스로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출발하여 저녁 8시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도착하여 로얄(Royal) 호텔에 투숙했다.

여행 스케치: 오스트리아는 지금까지 들른 유럽 나라 중에서 가장 가난하게 보인다. 특히 전차 안에서 마주친 가난과 비참한 모습이 더욱 절실하게 뇌리에 각인된다. 생활비는 다른 어느 곳보다 저렴하다.

360) 원문의 'Bois de Bologne'는 'Bois de Boulogne'의 오기이다.

다뉴브 강 위에 위치한 부다페스트는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이곳은 오스트리아보다 더 부유해 보였고 시내에는 어디를 가든 사람으로 붐볐다. 부다페스트의 사회생활의 중심지인 콰이(Quai)³⁶¹는 내가 본 중에서 가장 붐비는 광장이었다. 비엔나와 부다페스트 사이의 여행은 특히 인상적이었다. 나라 전체가 추수한 곡식들로 덮혀진 광대한 들판이었다. 지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농장같이 보였다. 농업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길가의 초가집들은 마치 동양의 한 마을을 보는 것만같이 푸근했다.

7월 12일

나는 왕궁(Royal Castle), 다뉴브 카이(Danube Kai)³⁶², 대관식 교회(Coronation Church), 피체바스타(Fischerbasta, 왕궁의 일부)³⁶³, 다뉴브 강가에 세워진 의사당, 오페라 하우스, 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세워진 요새 등을 둘러보았다. 오후 1시 20분에 버스로 부다페스트를 출발하여 저녁 8시에 비엔나로 돌아왔다. 크메르 호텔에 도착하자 직원이 중국공사관으로 전화를 하라고 전해주었다.

타웅 영사는 내가 하루나 이틀 더 머물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다고 하며 그 사이에 러시아 영사를 만나라고 했다. 나는 내일 아침 떠나려고 했는데 더 있겠다고 답했다. 러시아 영사와의 회동이 내일 이루어지면 좋지만 만약 불가능하면 하루 더 기다리기로 했다. 그는 러시아 영사에게 전화를 한 후 내게 알려 주겠다고 했다.

7월 13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가보았으나 아무런 전갈도 와 있지 않았다. 달리는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 지금까지 50퍼센트가 하락했는데 얼마나 더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호텔로 돌아오니 중국대사관에서 보낸 전갈이 와 있었다. 타웅 대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임페리얼 호텔에서 내일 오후 1시 30분에 러시아 영사와 한 여성과의 비밀 식사 회동을 주선해 놓았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호텔로 가겠다고 했더니 그는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겠다고 했다.

361) 다뉴브 강의 제방 혹은 다뉴브 강의 산책로로 알려졌다.

362) 'Danube Quai'를 말하는 듯하다.

363) '어부의 요새(Fisherman' Bastion)'를 말한다.

오후에 비엔나에서 약 10마일쯤 떨어진 뫼들링(Mödling)까지 기차 여행을 했다. 그곳에서 언덕 아래에 있는 오래된 교회와 추모비를 보았다. 추모비는 이미 결혼을 했으나 어떤 공주와 사랑에 빠져 그녀를 총으로 쏘고 자신도 자살하고 만 요세프(Joseph)라는 왕자를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

7월 14일

중국대사가 전화를 해서 오후 12시 30분에 호텔로 오겠다고 했다. 그가 약속 시간에 정확하게 와서 우리는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오찬 때 참석할 귀빈은 러시아 대사 피터브스키(Adolf M. Peterwsky)와 그의 아내, 그의 비서의 아내 슈스터(Shuster) 부인이며, 내가 러시아 대사에게 강조하고 싶은 점 — 점증하는 일본의 위협에 대항하여 러시아, 미국, 중국, 한국이 서로 협력할 필요성 — 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힘을 북돋아 주었다.

타웅 대사는 나를 자기 차에 태우고 임페리얼 호텔로 갔다. 우리 좌석은 넓은 다이닝 룸에 준비되어 있었다. 곧 귀빈들이 도착하였다. 호텔 직원과 웨이터들이 매우 정중하게 음식을 날랐고 우리는 성대한 점심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치고 아름다운 응접실로 갔더니 커피와 담배가 나왔다. 우리는 슈스터 부인의 통역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다. 러시아 대사는 즉시 그의 정부에 나의 방문을 통보하여 모스크바에 도착하면 내가 적절한 예우를 받을 수 있게 요청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은 되도록 피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피터브스키 부인은 뉴욕 브룩클린에 살고 있는 그의 자매의 주소를 내게 주겠다고 제안했다.

아침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부터 내게 전보가 도착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곳에 갔더니 호놀룰루에서 500불을 송금했다는 전보가 와 있었다. 그날은 은행이 문을 닫아서 다음 날 아침에 가야 했다.

7월 15일

아침을 먹고 중국대사관으로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그동안의 도움에 감사를 표시했다. 타웅 대사는 출발역과 시간을 물었다. 근무 시간이라 여러 가지 바쁜 공무가 있을 테니 역까지 나올 필요가 없다고 하자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

고 싶다면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랜더(Lander) 은행으로 가서 500볼을 찾아 여행자 수표로 바꾸기 위해 서둘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 갔다. 기차 시간이 뻑뻑했는데 창구 앞까지 많은 사람이 길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었다. 창구 직원에게 특별히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데 건장한 체구에 미국인같이 보이는 노인이 내 앞에 와서 서더니 한자로 쓰인 명함을 보이며 “이 사람을 아십니까?”라고 물었다. 카드에는 린보크(林柏克)라고 한자로 적혀 있고, 영어로는 림버그(Limberg)라고 하는 것 같았다.

림버그는 중국정부의 고문이었고 1932년 겨울 워싱턴에서 개최된 손문(孫文)³⁶⁴ 추도회의 첫 연사였다. 나도 그때 상해에서 일본군과 싸웠던 중국 19군단에 관한 찬사를 하여 청중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났다. 그래서 “연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나를 모르겠소?”라고 물었더니 그는 “오, 이 박사시군요. 워싱턴에서 멋진 연설을 했지요.”라고 했다. 사람이 모두 우리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어서 나는 그에게 기차를 타려면 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하시던 길을 걸어 오셨군요. 분명 대통령이 되실 겁니다…….”라며 줄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는 여성들에게 내가 기차를 타야 하는데 시간이 늦었다고 양해를 구하였다. 그러자 사람이 한 발씩 뒤로 물러서며 나를 앞으로 가게 해서 나는 마침내 창구에서 여행자 수표로 바꾸어 택시를 타고 이스트(East) 역으로 달려갈 수 있었다.

도너(F. Donner)가 내 짐을 사람으로 만원인 3등 칸에 미리 옮겨 놓았다. 나는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가까스로 도착했다. 타운 대사가 와서 배웅 인사를 건네며 “이번 여행은 매우 중요하니 중국과 한국 모두를 위해 성공을 기원한다.”고 축원을 해주었다. 그는 앞줄에 서고 도너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기차가 커브를 돌 때까지 내게 손을 흔들었다.

오전 10시 10분에 비엔나를 출발했다. 기차 안은 사람들로 붐비고 열기도 대단해서 나는 줄곧 통로에 서 있었다.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국경을 지날 때 나는 3볼을 더 주고라도 2등 칸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다. 그곳에서 조지 입스버그(George Leopold Ipsberg)라는

364) 생몰은 1866-1925년. 1899년 흥한회를 결성, 1905년에 일본에서 중국혁명동맹회 총리에 취임, 1911년 신해혁명을 일으켜 중화민국 건설에 진력하다가 일본으로 망명하여 중화혁명당을 조직하고 이를 중국국민당으로 개칭하였다. 1921년 광동정부를 수립하였으며, 1924년 제1차 국공합작에 성공하고 당 조직을 개조하여 삼민주의를 발표하였으며, 중화민국의 국부로 불린다.

젊은이를 만났다. 그는 에스토니아 철도장관의 아들로서 러시아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에 시베리아 철도 건설의 수석 엔지니어였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에스토니아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나를 초대했다.

밤 11시 20분에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하여 그 에스토니아 청년이 알려 준 대로 폴로니아(Polonia) 호텔 601호에 투숙했다. 토요일 저녁엔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고 여행자 안내소도 문을 닫아 버려 북쪽으로 가는 열차 편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7월 17일 월요일이나 가능했다. 돌아오는 길에 치키에고(Cheakiego)와 크라우구타 가(Traugutta)의 바르샤바 상업은행 건물에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특별주재원 토볼카(J. Tobolka)를 만났다.

그는 모스크바로 가는 기차는 하루에 한 대씩 있는데 오늘은 이미 출발해 버려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그는 국내 여행부 사람들에게 가보라고 권하며 비서에게 길을 안내해 주도록 시켰다. 그리로 갔더니 직원들이 내 여권을 조사한 후 기간이 7월 12일로 만료되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가이드(Bogustow Marjan de Latour)가 나를 러시아 공관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 내 비자는 외교관 비자여서 일반 여행 비자의 반값을 지불하고 한 달을 연장했다.

그런 다음 나머지 시간은 관광을 하며 보냈다. 공원과 왕궁들도 둘러보았다. 바르샤바의 한 포도주 가게는 1610년에 세워진 건물로 오래된 지하 저장소는 옛 타르타르(Tartar)의 왕자들이 볼모로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곳에서 15년 된 꿀³⁶⁵을 한 병 샀다. 폴란드의 역사적인 상징물들은 외세에 의한 통치 시절과 복구 시기를 몸소 보여 주고 있었다.

7월 18일

오전 7시 10분에 바르샤바를 출발했다. 기차는 넓게 펼쳐진 들판을 따라 북쪽으로 달려갔다. 여기저기 작은 오두막집들이 흩어져 있어 내가 본 어느 곳보다도 동양적인 정취를 물씬 풍기는 것 같았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이들이 늪과 흐르는 시내 옆 들판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오리와 거위들이 뒤뚱거리며 달려가는 모습도 보였다. 학과 해오라기들은 긴 목을 쭉 빼고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365) 꿀과 스피릿으로 만든 폴란드 음료인 크루프니크(Krupnik)이다.

러시아 시각으로 오후 6시 경 폴란드-러시아 국경 지대의 도시 네고렐로예(Negoreloye)³⁶⁶에 가까이 오자 양쪽 국경의 경비대가 모두 중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국경의 양쪽은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망원경으로 지켜 보고 있었고 검을 들고 있는 모습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곳에서 기차를 바꾸어 타고 오후 7시 45분에 특급 일일 급행열차로 러시아 쪽으로 출발하여 다음 날인 7월 19일 오전 9시 45분에 모스크바에 도착했다. 모스크바 역에서 외국인 관광국(Intourist) 직원을 만나 커다란 오픈카를 타고 뉴 모스크바 호텔로 가서 525호실에 투숙했다.

오전 7시 10분, 3등 열차로 모스크바를 향해 바르샤바 출발.

오후 6시, 폴란드-러시아 국경지대 네고렐로예에서 열차를 환승(2시간 연착).

오후 7시 30분, 침대가 있는 2등 칸 열차로 네고렐로예 출발.

러시아인들이 의심할까 봐 여행에 대한 느낌을 일기에 적지 않음.

7월 19일

오전 9시 30분(모스크바 시간), 모스크바에 도착하여 역에 마중 나온 관광국 직원과 미국인 두 사람을 만났다. 네고렐로예의 관광국이 내가 이 기차를 타고 네고렐로예로부터 이곳으로 올 것이란 사실을 이들에게 알려 준 것으로 보인다. 관광국에서 나온 직원은, 러시아 외국인 관광국에는 약 8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면서 우리 짐을 들고 커다란 링컨 승용차로 크렘린이라 불리는, 붉은 광장 맞은편의 모스크바 강가에 있는 뉴 모스크바 호텔(525호실)로 우리를 데려갔다. 우리가 투숙한 호텔은 모스크바에서 3등급 정도에 해당한다. 많은 미국인이 우리 호텔에 묵고 있었다.

나는 호텔, 식사, 관광 등을 포함하여 하루에 5불인 5일짜리 관광 티켓을 샀다. 여행 티켓을 사는 것은 그들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다른 관광객들과 자동차 투어를 하러 나갔다.

오후 2시에 호텔로 돌아오니 호텔 로비에 있는 관광국 직원 토빈슨(G. Tobinsson) 양이

366) 현재 동부 유럽의 벨라루스 공화국의 수도인 민스크와 국경도시인 브레스트의 중간에 위치한 철도 도시이다.

‘외무성 직원이 당신을 찾았다’고 전해 주면서 호텔 방에 가 있으면 그 직원에게 전화하라고 알려 주겠다고 했다. 나는 비엔나 주재 피터브스키(Peterwsky) 러시아 대사가 전보로 요청하여 외무성에서 누군가가 나를 만나러 왔나 보다고 생각하고 내 방으로 올라왔다. 나는 방에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외무부(The Office of the Foreign Commissar)

모스크바

귀하:

모스크바에 도착하였으니 외무성 관계자와 빠른 시일 내에 비공개 면담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비엔나에 체류할 때 비엔나 주재 피터브스키 러시아 대사에게 저의 모스크바 방문의 성격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 피터브스키 대사도 이를 승인하고 저에게 이곳에 도착하면 귀하에게 서신을 보내라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저는 뉴 모스크바 호텔에서 묵고 있으며 귀하께서 답을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S. R.

날씨가 매우 무덥고 끈끈했다. 편지를 다 썼을 때는 4시 반쯤 되었다.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토빈슨 양이 어떤 젊은이를 데리고 와서 “외무성 직원인데 통역이 필요할 것 같아 함께 왔다.”고 했다. 모두 자리를 잡고 앉자 그 젊은이는 “선생에게 러시아 입국을 허용하면서 발급해준 비자가 오늘 밤으로 만료가 됩니다. 러시아 외무성은 선생에게 속히 러시아를 떠날 것을 통보하게 되어 이를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고 매우 정중하게 말했다.

나는 방금 쓴 외무성 앞으로 보내는 편지를 그에게 보여 주며 “내가 여행자 신분으로 입국했으나 외무성에 전달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고 왔으며, 이 편지를 외무성 앞으로 발송해야 하며 파리의 러시아 총영사 안토노프 씨가 나의 비자 신청을 모스크바 당국으로 보내어 외무성이 그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라고 지시를 내렸고, 비엔나에서는 피터브스키 러시아 대사에게 나의 방문 목적을 알렸더니 그는 나의 러시아 방문에 관심을 보이며 나에게 모스크바에 도착하면 제3자를 거치지 말고 직접 서신을 보내라고 언질을 주었고, 바르샤바에

서는 내 여권이 이미 만료된 것을 알게 되어 보통 여행 비자의 절반 비용으로 외교 여권인 현재의 비자를 한 달 더 연장했으니 나는 러시아에 입국할 당연한 권리가 있고 한 달간 머물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러시아 외무성 직원은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외무성은 당신과 당신의 방문을 알고 있습니다. 비자는 실수로 발급된 것이지 비자 발급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외무성이 러시아를 떠나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비자가 발급된 후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내가 뭘 잘못했나?”고 질문을 했더니, 그는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당신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다면 정부 당국이 벌써 군인들에게 당신을 강제 추방하라고 지시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니므로 외무성이 자기를 공식적인 대표로서 이번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이런 상황에서 비자를 발급한 데 대해 사죄를 하러 보낸 것.”이라고 답했다.

나는 웃으며 “누가 뒤에 개입했는지 알 것 같다. 당신네 외무성의 진심을 이제 알았으니 더 이상 머무를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는 내 편지를 접어서 관련 부서에 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내 편지를 받으며, “전달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전달한 메시지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 편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공손하게 절을 하고 나갔다.

토빈슨 양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라. 비자가 있으니 강제 출국시키지는 못할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일본이 나를 러시아 밖으로 쫓아내려고 획책한 것이며 러시아 외무성이 자기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내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마당에 친구들의 도움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상황이 이러하니 나도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가 않았다. 나는 일본인들이 방해할까 봐 호놀룰루로 내가 모스크바에 왔다는 전보도 못 보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 나의 도착을 알리기로 했다. 호놀룰루로 전보를 보내고 중국 공사관으로 갔다. 옌 박사의 조카인 젊은 옌이 나를 들어오라고 하며 우난저우[吳南州] 대사와 웨이지엔성[魏良聲] 대리대사는 외출 중이나 곧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오후 8시경에 그들이 돌아와서 나는 타옹 박사의 편지를 내어놓으며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을 대충 설명하고 떠나기 전에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했다. 그들 모두 진심 어린 안타

까움을 표명하며 어떻게 도우면 되겠냐고 물었다. 나는 그들에게 현 시점에서 동청철도(東清鐵道)³⁶⁷ 문제를 놓고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매우 긴장된 상태에 있으니 나를 도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들은 마츠야마(Matsuyama)가 이끄는 일본철도위원회가 동청철도를 매입하려고 러시아 정부와 협상을 하기 위해 현재 모스크바에 와 있는데 중국은 러시아가 철도를 매각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매각을 저지하려 애를 쓰고 있다고 전했다.

이제 보니 일본이 나를 계속 추적하여 내가 모스크바에 도착하자마자 러시아 정부에 압력을 넣었고, 러시아 정부는 일본과의 어떠한 마찰이나 자극을 피하려고 노심초사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처음에는 발끈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공개하여 신문에 센세이션을 일으킬까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 보니 이 문제는 나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때가 오면 이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중국인들이 저녁을 먹고 가라고 졸라서 나는 우난저우 대사와 웨이지엔성 대리대사 그리고 그들의 부인들과 함께 자리를 잡았고, 다른 이들은 다른 식탁에서 식사를 했다. 식사 후 우 대사와 긴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무슨 일이든지 나를 돕고 싶다고 했으나 그의 개입은 소용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러시아인들을 자극하는 현명치 못한 처사이기가 십상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이 일을 러시아인들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왔다.

7월 20일

오전에 관광국으로 가서 기차표를 사고 비자 문제 등을 알아보았다. 호텔로 돌아오니 오후 2시였다. 토빈슨 양이 러시아 외무성 대표가 나를 찾았다고 전해주며 그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했다. 점심을 먹고 호텔 로비에 있으니 그녀가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우리를 호텔 지배인의 개인 사무실로 안내했다.

문을 닫고 자리를 잡고 앉자 그는 내가 외무성에 전하라고 그에게 주었던 편지를 주머니

367) 중국 동북 지구(만주)의 동서와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 철도이다. 19세기 말 러시아가 일본에 대한 삼국 간섭의 대가로 부설권을 획득하여 만주에 건설하였다. 만주사변 후에 일본에 양도한 길이 2,430km의 철도로 만주리(滿洲里)에서 하얼빈(哈爾濱)을 지나 수분하(綏芬河)까지의 본선과 하얼빈에서 창춘(長春)을 경유하여 따렌(大連)까지의 남부선이 있다. 일본의 만주 점령 당시는 동청철도(東清鐵道), 동지철도(東支鐵道)라고 불렀다.

에서 끄집어내며, “외무성은 이 편지를 받을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 편지를 도로 받아서 봉투에 그의 이름을 적어 달라고 했다. 토빈슨 양에게도 그녀의 이름을 적으라고 했다. 외무성 대표의 이름은 플리겔타네(Fligeltane)였다.

나는 토빈슨 양의 통역을 통해 “귀하의 외무성에 어떠한 불쾌한 감정도 없이 이 나라를 떠난다고 전해 달라. 오히려 외무성이 내게 보여 준 태도에 감사드린다. 나 개인에 대한 감정에서가 아니라 작금에 처한 상황 때문에 현재로서는 나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이해한다. 외무성의 공식적인 유감과 사과 표시에 나는 오히려 만족한다.”고 그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일어서자 그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가 내게 머리를 숙여 절을 했고 나는 밖으로 나왔다. 그도 자신의 갈 길로 갔다.

7월 20일 밤 11시, 나는 만주 열차(Manchurian train) 3등 객차로 모스크바를 출발하여 러시아와 폴란드의 국경인 네고렐로예³⁶⁸까지 왔다. 그곳에서 모든 승객이 열차를 바꿔 탔다. 국경에는 조그만 평지가 있는데 철조망으로 울타리가 쳐진 중립 구역이라고 알려진 곳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중립 구역의 양편으로 국경을 지키는 무장 병사들의 막사가 있었다.

기차가 멈추자 칼을 든 군인 하나가 객차 밑에 숨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기차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막사의 다른 병사 하나는 망원경을 들고 서서 기차를 검색하는 모습도 보였다. 한 시간 반가량 러시아 국경에서 여권과 짐을 검색한 후 승객을 태운 열차는 국경의 저편으로 미끄러져 갔으나 이는 저쪽 나라 병사들이 검사를 다시 하기 위해서였다.

철길을 따라 이어진 폴란드의 농가들은 대부분 초가지붕이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농가보다도, 러시아의 가장 가난한 농가보다도 더 가난해 보였다.

모스크바 거리에서는 택시를 볼 수가 없었고, 단지 낡아 빠진 마차들만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기차에서 만났던 한 미국인은 거리에서 굶주림으로 죽어 가는 사람들을 실제로 보았다고 내게 말했다. 어떤 사람은 러시아가 나아지고 있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그 반대라고 증언한다.

368) 원문의 'Negareloze'는 'Negoreloye'의 오타이다.

7월 21일

밤 11시 반에 폴란드 바르샤바에 도착하여 이전과 같이 폴로니아(Polonia) 호텔로 감.

7월 22일

오전 7시 30분에 3등 열차로 바르샤바를 출발,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를 거쳐 밤 8시 반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도착. 처음에는 쿠머 호텔에서 하룻밤 푹 쉬고 타운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모스크바 여행 결과를 보고하면 그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인 프라하로 가서 타운 씨가 써준 소개장을 들고 베네시(Edvard Benes)³⁶⁹ 총리를 만나면 마사리크(Tomas G. Masaryk)³⁷⁰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둘 다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서 돌아갈 여비가 모자랄 것 같아 결국은 시외의 값싼 조그만 호텔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곳은 배드 보스라우(Bad Vöslau) 호텔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온천 휴양지.

7월 24일

오후 3시 반에 배드 보스라우를 떠나 쾰텐(Pölsen)인지 세인트 쾰텐(St. Pölsen)인지 하는 곳에 도착. 피트너(Pittner)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냄.

7월 25일

오전 7시 45분에 비엔나 출발, 밤 10시 반에 스위스 취리히 도착. 역에는 이한호와 그의 아내 애니, 애니의 동생 몰리가 마중을 나와 호텔 레지나(Regina)로 나를 데리고 갔다.

비엔나발 취리히행 열차는 두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곳을 통과하였다. 특히 잘츠부르크

369) 생몰은 1884-1948년. 1916년 체코슬로바키아 초대 대통령 마사리크와 함께 파리에서 국민의회를 결성하여 독립운동을 개시하였다. 1919년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선포 후 외무장관을 역임하다가 1935년 마사리크에 이어 제2대 대통령에 올랐다. 독일 침공 후 1940년 영국에서 망명정부를 구성하여 1945년에 다시 대통령에 올랐으나 1948년 공산당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임하였다.

370) 생몰은 1850-1937년. 1876년 비엔나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프라하의 체코 대학 교수를 거쳐 1890년 오스트리아 국회의원에 임명되었다. 제1차 대전 후 런던으로 망명하여 1916년 파리에서 체코슬로바키아 국민의회 창설하고, 베네시 등과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의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18년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초대 대통령에 오르고, 1935년까지 네 차례나 대통령직을 맡았으며, 체코의 국부로 추앙받는다.

(Salzburg)에서 취리히 사이의 시골은 정말 아름다웠다. 오스트리아의 알프스 계곡을 통과하는 인강(River Inn)을 따라 고풍스런 성들이 서 있었고, 시골 마을뿐만 아니라 인스부르크(Innsbruck)와 잘츠부르크 같은 큰 산업도시들도 지나쳐서 긴 여행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7월 26일

오전에 뉴욕으로 메시지를 보내려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로 갔다. 그러고는 '이 선생(Mr. Rhee)' 앞으로 온 편지가 있냐고 생각지도 않은 말을 물어보았다. 7월 6일자 호놀룰루에서 온 전보를 내게 내밀었다. 김성기 목사의 사망 소식과 동지식산회사를 강제 경매에 부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것이었다. 김 목사의 소천 소식은 내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다. 그는 하와이 한인들 중에서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질풍노도와도 같은 여러 일을 함께 겪으면서 내가 가장 신뢰하고 의지해 온 친구였다. 물론 강제 경매 소송 소식도 내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참사였다.

나흘 동안 나는 레지나 호텔 방에서 자고 이한호의 집에서 먹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 이한호와 그의 가족은 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지극정성으로 나를 보살펴 주었다.

7월 29일

토요일 오후 이한호 부부와 뮐러 부부가 나를 위해 루체른(Luzern)으로 자동차 여행을 계획했다. 우리는 저그(Juz) 호수와 다른 여러 호수들을 따라 달리며 시골 풍경을 마음껏 즐겼다. 루체른에서는 그날 밤, 매년 열리는 불꽃놀이가 있는 날이어서 아름다운 루스(Reuss) 호수를 따라 수천 명의 구경꾼이 모였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카펠 교(Kapellbrücke)³⁷¹로 오래된 나무다리 위에 나무로 된 긴 통로가 있고 한때 감옥으로 쓰였던 호숫가의 큰 석탑과 연결되어 있었다. 루스 호수를 통과하여 흐르는 강은 라인 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렌스 강이다.

371) 스위스 루체른 로이스 강에 있는 길이 200미터의 다리로 1333년에 놓인 유럽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긴 나무다리로 루체른의 상징이다. 다리 위를 덮은 지붕의 들보에는 스위스 역사상 중요 사건이나 루체른 수호성인의 생애를 표현한 112매의 삼각형 판화 그림이 걸려 있다.

우리는 등그런 방에서 차를 마셨는데 그 방은 벽면이 모두 스위스 연방과 관련된 역사적인 전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다. 차를 마신 후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산으로 올라가 많은 사람과 함께 불꽃놀이를 구경했다. 불꽃놀이가 막 시작되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여 더 이상 불꽃을 쏘아 올릴 수가 없자 사람들은 흩어졌다. 원래는 그곳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 날인 일요일에 가볼만한 곳을 여러 군데 들르기로 했다. 그런데 비가 와서 그날 밤으로 취리히로 돌아왔다. 우리는 오늘 하루 약 100마일(약 161km)을 달렸다.

7월 30일

일요일 오후, 그들은 나를 데리고 시골로 나가 쉴로스 할빌(Schloss Hallwil)이라는 큰 성을 구경하고, 쉴로스 브레스턴부르크(Schloss Bresterburg) 호텔에서 차를 마셨다. 이한호 부부는 호수에서 수영을 했다.

저녁이 되어 취리히로 돌아왔다. 오늘 오후에는 약 150마일(241km)을 달렸다. 그들은 널찍한 헝가리 식당에서 나를 위해 송별회를 베풀어 주었다.

7월 31일

오전 7시 45분에 취리히를 떠나 이탈리아의 밀라노로 향했다. 이한호 부부와 뮐러의 아내가 나를 전송하러 역으로 나왔다. 기차가 천천히 움직이자 그들은 플랫폼에 서서 손을 흔들며 울기 시작했다. 나도 그들과 헤어지는 것이 몹시 가슴 아팠다.

기차는 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호수와 산봉우리엔 하얀 눈이 덮인 아름다운 산길을 따라 지그재그로 달려갔다. 고타르(Gotthard) 산을 관통하는 터널은 스위스에서 가장 긴 터널이다. 루가노(Lugano) 부근에서 미 국무성에서 근무하는 미국 여성 두 명이 외교관 여권으로 기차에 탑승하여 세관원은 그들의 짐은 물론 내 짐까지 그냥 통과시켰다.

오후 1시 반, 이탈리아 밀라노에 도착했다. 사전에 여행사를 통해 예약해 둔 메트로폴(Metropole) 호텔로 갔다. 호텔은 유명한 밀라노 돔 부근의 혼잡한 시내 중심부에 있었다. 오후 3시에 같은 기차를 타고 온 세 명의 스위스 관광객과 우연히 같은 자동차 투어를 하게 되어 돔과 교회, 묘지 등을 둘러보았다.

밀라노와 로마의 교회들은 민소매 옷을 입은 여성들의 출입을 금했다. 때문에 한 여성은

바깥에서 기다려야만 했고 다른 여성은 남편의 걸옷을 빌려 팔을 가리고 들어갔다. 그런데 다음 방으로 들어가자 신부님이 그 남편에게 걸옷을 입지 않았다고 나가라고 했다. 남편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제야 출입을 허락했다. 관광 안내소가 여성들에게 검은색 재킷을 대여해 주고 있었다.

8월 1일

오전 7시 40분, 세 명의 스위스 관광객과 또다시 만나 밀라노를 출발하여 오후 1시 48분에 플로렌스(Florence)에 도착했다. 이탈리아에서는 2등 객차가 스위스의 3등 객차만큼 붐볐다. 여행의 절반은 아르노(Arno) 강을 따라 산과 계곡, 터널을 지나갔고 나머지는 포도농장이 대부분인 평평한 시골길에 포도넝쿨이 일정한 간격으로 줄지어 서 있는 곳을 지나갔다.

오후 1시 48분, 플로렌스에 도착한 우리는 사전에 여행사를 통해 예약한 헬베티아(Helvetia) 호텔 15호실에 투숙했다. 이곳은 스위스 정부의 관리 하에 있는 곳이어서 그런지 밀라노의 메트로폴 호텔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좋았다. 아르노 강을 따라 자리 잡은 마을은 볼거리가 아주 많았고 교회와 건물들은 지금까지 내가 본 것 중에서 가장 고색창연하게 느껴졌다.

8월 2일

오후 2시, 나는 플로렌스를 떠났다. 세 명의 스위스 관광객은 며칠 더 그곳에 머물다 떠난다고 했다. 기차에서 도너 양을 만났다. 그녀도 로마로 가는 중이었다.

오후 7시 15분에 로마에 도착했다. 길을 따라 전개되는 풍경은 완만한 산들이 여기저기 솟아 있는데 대부분 나지막하고 험뎠어 보였다. 로마에서는 여행사가 추천해 준 헬베티아(Helvetia) 호텔에 투숙했다.

8월 3일

다수의 여행객과 관광버스로 다음과 같이 여러 곳을 둘러보았다.

바티칸

바티칸 시국은 44에이커(178,066km²/53,865평)에 이르며 오래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음. 바티칸 시국이 고용한 664명의 직원과 300명의 스위스 수비대가 거주.

성 요한 바실리카 대성당

교황의 관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중요한 교회 시설. 나폴레옹 정권 시절, 교황이 프랑스 아비뇽(Avignon)에서 돌아와³⁷² 바티칸을 건설하고 그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했다고 함. 그 옆에는 성스러운 계단 ‘스칼라 산타(Scala Santa)’ 위에 교황 전용의 작고 소박한 교회가 서 있음. 많은 사람이 문패에 입을 맞추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감.

가장 아름다움 성당인 성 베드로 대성당, 라파엘 룸(Raphael's Rooms), 시스틴 성당, 테 피스트리 화랑, 박물관 그리고 성 바오로 대성당 등을 관람.

세레소(Baptistry). 콘스탄틴 대제(Constantine the Great)³⁷³가 세례를 받았다는 이곳은 오래된 청동 문들이 삐걱거리는 음악 소리를 냄.

산타 마리아 마조레(St. Maria Maggiore) 성당은 A.D. 352년 리베리우스(Liberius)에 의해 건립. 천정은 ‘미국에서 가져온 최초의 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유명.

성 라테라노 성당은 이탈리아 정부와 바티칸 사이에 화해 조약이 체결된 곳.

아피아 가도(Via Appia)는 B.C. 312년에 로마의 클로디우스(Appius Claudius) 감찰관

372) 1309년 클레멘스 1세가 아비뇽에 정주한 이래 1377년 그레고리 11세가 로마로 복귀할 때까지 교황들은 아비뇽에서 프랑스 국왕의 간섭을 받으며 거주하였다. 이후 이탈리아인 교황과 프랑스인 교황이 동시에 선출되어 40년간 서방 교회의 분열을 겪다가 1417년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마르티노 5세가 새 교황에 선출됨으로써 종식되었다. 따라서 나폴레옹 정권 시기에 교황이 아비뇽에서 로마로 돌아왔다는 일기의 내용은 오류이다.

373) 생물은 274~337년. 재위는 306~337년. 이름은 Flavius Valerius Constantinus, 콘스탄티누스 대제(大帝) 혹은 콘스탄틴 1세라고도 불린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퇴위 후 로마 제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로마 제국을 재통일시켰으며, 로마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옮겼다.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교를 공인하였다.

(censor)³⁷⁴)이 건설한 옛 도로로서 현존하는 도로 중 가장 오래됨.

사방으로 20개의 문이 나 있는 옛 성벽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음.

8월 4일

판테온 신전. 원래는 B.C. 30년에 건립된 이교도 신전. 지름이 9미터로 하늘이 보이는 커다란 돔이 있음. 콘스탄티누스 2세의 통치 시절에 가톨릭교회로 전환. 최근에는 이태리 국왕이 왕족 무덤으로 만들.

넵툼 신전: 로마 광장, 트로이 광장, 제국 광장, 공화국 광장 등에 대해 발굴 작업이 진행 중임. 지진으로 이들 광장이 파괴되었으나 로마인들이 그 폐허 위에 신도시를 건설함. 약 30년 전에 이탈리아 정부가 발굴 작업을 시작했는데, 파묻힌 도시의 복원 작업 대부분은 무솔리니(Benito Mussolini)³⁷⁵)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함.

티투스 개선문과 콜로세움. 콜로세움은 티투스(Titus)³⁷⁶) 황제가 A.D. 80년에 완성. 원형 극장은 5만 명 수용이 가능.

세베루스(Flavius V. Severus)³⁷⁷)의 개선문. 세베루스 황제와 그의 두 아들의 명령으로 건립(개선문 앞에서 사진을 찍음). 콜로세움의 파괴된 돌들로 다섯 개의 큰 궁을 세웠다고 함.

8월 5일

지안콜로 언덕(Giancolo Hill): 로마를 둘러싸고 있는 아페인(Apenine)과 알반(Alban) 산들 그리고 로마를 가로질러 흐르는 티버(Tiber) 강이 파노라마처럼 전개됨. 강가에는 티베르니 섬이라고 부르는 작은 섬이 있음.

374) 로마의 핵심 기반 시설인 수도와 고속도로를 설계하고 건설한 것으로 유명한 로마제국의 감찰관이다.

375) 생몰은 1883~1945년. 이탈리아의 파시즘적 독재자로 제1차 대전 발발 후 사회당을 떠나 우익으로 전향하여 국가주의적 단체인 파시스트당 결성하였다. 산업자본가의 원조로 내각을 조직하고 국제연맹과 그리스를 위협하며 독재정치를 강행하여 신로마 제국을 건설하려다가 제2차 대전의 패배로 무산되었다. 재기를 꾀하다가 1945년에 의용군에게 체포되어 피살되었다.

376) 생몰은 39~81년. 로마제국의 제11대 황제로 부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시작한 콜로세움 건설 사업을 마무리 지었다.

377) 생몰은 ?~307년. 재위는 306~307년이고, 카이사르(부황제)로서 판노니아, 이탈리아, 아프리카 지역을 다스리다가 306년 콘스탄티누스 1세 사후에 동부의 황제 갈레리우스에 의해 서부의 황제로 임명되었다.

언덕 위에는 말 위에서 적군을 바라보듯 바티칸을 내려다보고 있는 가리발디(Giuseppe Garibaldi)³⁷⁸)의 동상이 서 있음.

몬타리오(Montario) 교회의 상 피에트로(San Pietro)는 베드로가 네로(Nero) 황제에게 순교를 당한 곳. 작고 둥근 브라만테(Bramante) 사원 중심에는 금모래가 보임.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못 박힌 십자가가 그곳에 서 있었다고 함.

세스티우스의 피라미드³⁷⁹): B.C. 1,200년에 세워진 것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본뜬 것이며, 로마인 세스티우스(Galus Cestius)³⁸⁰)가 A.D. 30년에 이곳에 묻혔다고 함.

저녁에는 파시스트 전시회 관람. 파시스트 정권이 들어선 후의 발전과 개선된 모습을 보여줌.

성 칼리투스(St. Callitus)의 지하 동굴 카타콤베 방문.

8월 6일

오전 9시에 로마를 떠나 오후 1시 30분에 피사(Pisa)에 도착했다. 도너 양은 나와 같은 기차로 로마를 출발하여 플로렌스로 떠났고, 나는 제노아(Genoa)로 갔다. 기차가 막 역을 출발하기 시작하자 기울어지고 있는 그 유명한 피사의 탑이 가까이에 보였다. 로마에서 피사까지는 대부분 평범하고 별 볼거리가 없었다. 길도 건조하고 먼지투성이인 비포장도로였다.

이탈리아의 남서부 해안선을 따라 뻗어 나간 에페인 산맥 사이로 철로를 놓아 피사에서 제노바까지 가는 동안 거의 3분의 2는 터널로 지나갔다. 사람들은 자동차 도로를 따라 달리는 것이 환상적이라고 하지만 기차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긴 터널 속으로만 달려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할 수가 없었다. 간간히 터널 사이로 해변에서 수영을 하거나 일광욕을 즐기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탈리아는 멀리서나 가까이에서 많은 산을 볼 수 있다. 산꼭대기에는 오래된 성과 마을이 있으며, 일부는 오래된 성벽으로 둘러 싸인 작은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378) 생몰은 1807~1882년. 이탈리아의 국가통일운동과 독립운동에 헌신한 장군이자 정치가이다.

379)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모방하여 B.C. 1세기 후반에 지은 로마의 고관 세스티우스의 무덤이다. 사방 22미터, 높이 27미터의 사각 추가 콘크리트로 만들어지고 표면은 대리석으로 덮여 있다.

380) 로마제국의 호민관과 행정관을 역임하였으며, 4대 종교기관 중 하나인 셉템비룸의 회원이다.

프랑스 국경지대의 벤티미그리아(Ventimiglia)에 이르자 해안선이 그 어느 곳보다도 더 아름답고 현대적이었다. 멩통(Menton), 몬테 카를로(Monte-Carlo), 니스(Nice) 같은 해변 휴양지들이 해안선을 따라 하나씩 연이어 나타났다. 그중 니스는 프랑스 리비에라(Riviera)³⁸¹의 도시들 중에서 여왕으로 불리는 곳이다.

오후 4시 58분, 제노바에 도착하여 미리 예약해 둔 아르헨티나 프린세스 호텔 111호실에서 묵었다. 날씨가 너무 덥고 먼지가 많이 날려 관광을 하고 싶지가 않았다. 식사를 하고 목욕을 한 후 잠자리에 들었다.

8월 7일

아침에 두 명의 여행객과 함께 관광버스를 타고 외출.

수태고지 교회(The Church of Annunciation)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함. 1650년에 완성되었는데, 천정과 벽을 순금으로 장식함.

성 로렌조(St. Lorenzo) 대성당은 세례자 요한의 유해를 1097년 미라(Mira)에서 가져와 아직까지 그곳에 안장하고 있음.

‘가장 오래된 구역(oldest district)’에 있는 콜럼버스의 집은 콜럼버스가 1451년에 살았던 곳.

레지나 알레나(The Regina Alena) 터널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터널과 흡사.

전쟁 기념 아치(The War Memorial Arch)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으로 불리는 곳.

공동묘지(The Cemetery): 내가 이제까지 본 묘지 중 가장 잘 꾸며진 묘지. 묘지 입구에서 구입한 일련의 그림들은 인상적인 동상과 무덤을 잘 보여 줌.

8월 7일 오후에 나와 같은 호텔에 묵고 있고 독일어를 구사하는 한 스위스 청년과 함께 외출했다.

서로의 말을 잘 알아듣지는 못해도 같이 관광을 하기로 했다. 우선 케이블카 선이 가장 긴

381) 이탈리아령 라스페치아로부터 프랑스령 칸까지의 지중해 해안이다. 풍광이 아름답고 겨울에도 따뜻하여 휴양지로 널리 알려졌다. 니스, 칸, 몬테카를로, 산레모 등의 관광지 목걸이처럼 줄지어 있다 하여 목걸이를 뜻하는 ‘리비에라’로 불린다. 프랑스에서는 라 리비에르(La Rivière) 또는 코트다쥐르(Côte d’Azur)라고 부른다.

후니쿨래(Funiculare) 역으로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아펜닌 언덕 위에 서 있는 리기(Righi) 호텔로 갔다. 호텔 현관 마당에서 차를 마셨다. 언덕 아래로 아름다운 제노바 시가, 항구, 바다가 그림처럼 한눈에 펼쳐졌다. 언덕 저편에는 깊은 계곡 사이에 공동묘지가 있고, 아펜 산맥을 따라 크고 작은 산봉우리들이 여기저기 솟아나 있었다. 그 위로는 지금은 버려진 오래된 요새의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리기에서 내려와 작은 공원으로 걸어가자 그곳에는 여러 종류의 새와 오리 등 날짐승이 있었다. 보도가 매우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이 많아 처음에는 스위스 친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재차 오라고 재촉하자 마지못해 나를 따라왔다가 마침내 대로에 다다르자 끝없는 미로를 벗어난 것을 기뻐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외출했다. 나의 스위스 동료는 호텔 직원을 통해 내게 제노아의 진짜 오래된 도로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를 따라나섰다. 곧 자갈이 깔린 좁고 꼬불꼬불한 미로가 나타났다. 거리가 어두컴컴하고 사람들로 붐벼서 처음엔 좀 불안했다. 그러나 군중들 사이로 경찰관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 곧 두려움을 떨쳐 버렸다. 고풍스럽고 높게 우뚝 솟은 건물은 처마들이 모두 도로를 향해 마주보고 있었다.

저녁에 바리에타(Varieta)라고 하는 커피집으로 갔다. 간판을 보고 무슨 버라이어티 쇼가 있나 보다가 들어갔는데, 이곳은 맨발의 아가씨들이 나와 흥겹게 춤을 추는 유명한 커피 하우스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우리가 자리를 잡고 앉아 시원한 음료를 주문하자 아가씨들이 우리 주위로 몰려와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중 한 사람은 우리 옆 자리에 앉아 나에게 일본어와 영어로 우리와 합석하고 싶다고 했다. 우리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자 주인이 와서 그녀들을 저지했다.

8월 8일

오전 10시 15분에 제노바를 출발하여 프랑스 니스로 갔다. 기차가 프랑스 국경의 벤티미그리오(Ventimiglio) 역으로 들어서자 날씨가 후덥지근했다. 역에는 이탈리아 청년들이 붐볐는데, 이들은 여권을 조사하는 세관 앞의 좁은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다. 프랑스 세관원이 미국 여권은 입국할 때마다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에서 멀지않은 프랑스 영사관으로 가서 비자를 재발급받고 한 시간 후에 떠나는 다음 기차를 타라고 말했다.

내가 영사관으로 가자 영사는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가고 없었다. 나는 그곳에서 기다렸다. 그가 돌아오자 부영사가 영사와 함께 내 여권을 보더니 내가 한국인인데 일본 여권을 거부하고 미국 시민도 아니면서 미국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에 매우 흥미 있어 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내 여권이 많은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한 달간 체류할 수 있는 외교 비자를 발급해 줄 것이며, 내가 원한다면 더 오래 체류할 수도 있다고 매우 정중하게 말했다. 나는 그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기차역으로 왔다. 영사의 지시로 세관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 가방을 검사도 하지 않고 짐꾼에게 객차까지 들고 가도록 시켰다. 외교관 신분이라 검사를 면제받았다.

오후 3시 30분, 니스행 기차를 탔다. 오후 4시 30분에 제노아에서 미리 전보를 보낸 조지 황을 역에서 만났다. 그는 내 짐을 들고 해안가의 큰 호텔 중의 하나인 룩셈부르크 호텔로 안내했다. 나는 57호실에 투숙했다. 방은 넓찍했고 창문들이 모두 해변을 향해 나 있었다. 이곳에서 앞으로 이틀간 머물 예정인데 조지 황과 정석해(鄭錫海)³⁸²가 모든 비용을 다 지불했다.

8월 9일

조지 황과 나는 이탈리아 여객선 사무실로 갔으나 아무런 서신도 도착하지 않았다. 이한호가 스위스 취리히에서 짐을 배로 보낸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니스 시로 가서 편지를 몇 통 확인했으나 이한호의 편지에는 트렁크에 관한 말은 없었다. 취리히에 전화를 했고 저녁이 되어서야 내 트렁크가 제노바의 렉스(Rex) 증기선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오후에 조지 황이 나를 데리고 모나코로 갔다. 이곳은 별개의 독립국이며 국가의 주요 수입원이 도박인 곳이다. 모나코는 여기저기 고성들이 있고 언덕 위에 국왕이 거주하는 성이 있으며 해변에는 커다란 카지노와 정원들이 있는 작고 아름다운 도시였다.

카지노에 들어서니 넓찍하고 화려하게 장식된 홀에 전 세계에서 모인 도박꾼들이, 대개가

382) 생몰은 1899-1996년. 연희전문학교 YMCA 회장으로 3·1운동에 참여하여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각지에 배포하며 3월 5일 남대문 역두시위를 주도하였다. 1920년 프랑스로 건너가 프랑스와 독일에서 공부하여 1930년 수학과 과학사로 파리 대학을 졸업하였고, 1933년 이승만을 파리로 초청하여 독립운동을 논의하였다. 1939년 귀국했다가 체포되어 구금 생활을 하다가 광복을 맞았다.

미국인들이라고 하는데, 거의 밤낮으로 자신들의 ‘사업(business)’을 계속하고 있었다. 조지 황이 1인당 10프랑을 주고 입장권을 사와서 우리도 입장을 했다. 홀에는 온갖 종류의 도박 기구가 가득했고 어디를 보아도 남녀노소 사람으로 가득했다. 안쪽으로는 특별히 고가의 입장료가 부과되는 곳이라 출입이 통제되었다.

저녁에는 정석해가 나를 식사와 ‘머라이어티’ 쇼에 초대했다.

8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버스로 빌프랑슈(Villefranche)로 가서 오후 3시 30분에 이탈리아 정기선 렉스 호에 승선.

8월 11일

오후 5시 30분에 지브롤터(Gibraltar)³⁸³에 잠시 멈추었다가 대서양을 향해 출항했다. 지브롤터 해협 뒤로 보이는 항구와 산맥들은 하와이의 다이아몬드 헤드(Diamond Head)³⁸⁴와 꽤나 흡사했으나 그만큼 아름답고 크지는 않았다. 렉스 호는 아주 빠른 속도로 달려 같은 방향으로 향해하는 큰 증기선들을 여럿 따라 잡았다.

8월 16일

새벽 4시에 엠브로스(Ambrose) 등대를 지나 오전 9시에 뉴욕 항에 정박했다. 1,118명의 승객이 탑승한 렉스 호는 지브롤터에서 4일 15시간 30분 만에 3,210마일(5,166km)을 항해하는 새로운 기록을 수립하여 이탈리아가 대서양 횡단 최고의 기록을 독일로부터 탈환했다.

최용진을 부두에서 만났고, 나를 환영하려고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던 12명의 한인도 만났다. 하선하기 전에 승객들이 조사를 마칠 때까지 외국인 승객들과 기다려야 했다. 한참이 지난 다음 검사원 하나가 와서 내 여권을 보여 달라고 했다. 내가 여권을 주었더니 미국 승객

383) 스페인의 이베리아 반도 남단에서 지브롤터 해협을 향하여 뻗은 반도로 영국의 속령이다. 길이 5킬로미터, 너비 1.3킬로미터, 면적 5.8제곱킬로미터로 대서양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입구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384) 하와이 오아후 섬의 화산 분화구이다. 오아후 섬을 처음 발견한 쿡 선장이 햇빛에 반짝이는 분화구 정상 암석을 다이아몬드로 착각해 다이아몬드 헤드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들이 먼저 내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상관에게 데리고 가서 뭐라고 설명을 하더니 내 여권을 그에게 건넸다. 그의 상관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며 내 이름과 워싱턴 한국위원부(Korean Commission) 위원장이라고 사인을 하라고 하며 책상 위에 있는 큰 장부를 내게 건넸다.

이어 제복을 입은 사람에게 나를 갑판과 연결된 부두에 있는 세관원에게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그리하여 승객들을 지나 승차표를 승무원에게 줄 시간도 없이 하선했다. 세관원에게 가자 그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내 이름과 직위를 장부에 적으라고 했다. 그러고는 검사원에게 내 짐은 그냥 통과시키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등글게 모여 서서 아직 도착하지 않은 내 짐을 기다렸다. 내 짐이 모두 도착하자 세관원은 열어 보지 않고 그냥 도장만 찍어 주었다. 미국 정부가 내게 베푸는 완전한 외교적 예의였다. 이는 일본에 대한 감정의 변화를 말해 주는 뚜렷한 징표였다. 친구들은 부두 입구에서 내가 모든 수속을 마칠 때까지 줄곧 기다렸다가 택시를 타고 펜실베이니아 호텔로 가서 1185호실에 투숙했다.

8월 18일

오후에 펜실베이니아 호텔을 나왔다. 최용진, 남궁염 및 그의 아들 준과 택시를 타고 브로드웨이 103가 마르세이유 호텔로 왔다. 320호에 투숙했다.

8월 19일

토요일 저녁 뉴욕의 모든 한인회가 나를 초대하여 한인교회와 한인학원이 주최하는 환영회가 열렸다. 고채원이 사회를 보고 장덕수(張德秀)³⁸⁵가 환영사를 했다. 나도 청중들에게 내가 들른 유럽 여러 나라에 대한 나의 인상과 스위스 제네바와 다른 여러 곳에서 겪었던 외교적 경험 그리고 앞으로 주력할 계획에 관해 이야기했다.

8월 20일

오후에 뉴욕 중화公所(中華公所)³⁸⁶의 중국인 지도자들이 차이나타운 근처의 한 중국집으로 나를 초대함. 만찬에는 우치엔추[吳乾初], 량리티엔[梁麗天], 천수탕[陳樹棠, George Chintong], 버트 엔테메이(Bert Entemey), 리쥘산[李卓山] 그리고 별도의 조직 대표 등이 참석.

8월 26일

일요일, 국민당(國民黨) 건물에서 모임이 있었다. 중국인들은 「민기일보(民氣日報: The Chinese Nationalist Daily)」³⁸⁷에 두 번이나 이 모임을 광고하는 글을 실었다. 여기에는 나를 이 모임의 연사로 소개하는 긴 사실과 함께 제네바에서 중국 대표들과 나와의 공조 관계 그리고 중화公所에서 개최된 이전의 모임 등이 실려 있었다. 그들은 국민당 미국 동부지부 집행위원인 자오딩룽[趙鼎英]과 시투이핑[司徒一平]이 서명한 공식 초대장을 내게 보냈다. 중국인들은 모임 내내 화기에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남궁염과 장덕수가 나를 수행했다. 차와 중국 과자가 나온 후 그들은 나에게 한마디 하라고 했다. 나는 제네바에서 중국 대표들과 일귀 낸 외교적 승리, 제네바와 그밖에 다른 지역에서의 중국 대표와의 기분 좋은 공조, 일본의 선전 공세에 맞서기 위해 미국에서의 홍보 필요성 등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

모임을 마치자 그들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수요일 저녁까지 뉴욕에 머물라고 말했다. 원래는 다음 날 캘리포니아로 떠날 계획이었으나 그들이 요청하는 대로 며칠 더 뉴욕에 남기로 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재정적 후원으로 『극동잡지(Far Eastern Magazine)』 발간 프로젝트가 이 무렵,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저녁엔 장덕수가 주동이 되어 뉴욕의 한인들이 시 외곽의 한 중국집에서 나를 위한 만찬을 베풀어 주었다.

386) 19세기 말에 북미 도시에 거주하는 화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화교단체로 영문명은 'Chinese Consolidated Benevolent Association'이다.

387) 뉴욕 시에 거주하는 국민당 지지자들이 간행한 신문이다.

8월 30일

중국인과의 만찬이 국민당 건물에서 있었다. 대규모 연회에는 지방의 많은 중국인 지도자가 대거 참석했다. 아무런 구체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으나 중국인들은 미국 서부 및 중서부 도시의 국민당 지부에 나의 서부 방문을 알리고, 기회가 오면 나를 잘 대접하라고 요청하는 추천서를 전 지부에 발송할 것을 약속했다.

8월 31일

리버사이드 드라이브 548번지의 김버랜드(Kimberland)의 새 아파트에서 나를 위한 만찬이 있었다.

9월 1일

오전 9시 30분, 장기영과 뉴욕을 출발하여 세이프 웨이 버스로 시카고로 향했다. 남궁염, 톰 우, 최용진, 백남용³⁸⁸⁾ 등이 나를 전송하러 버스 정류장까지 나왔다.

밤 10시 반에 피츠버그 도착. 장기영이 피츠버그 경찰과 말다툼을 벌였으나 그 경관은 군중들 앞에서 망신만 당하고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우리가 탄 버스가 펜실베이니아의 이스톤(Easton)을 경유하여 리하이(Lehigh) 언덕과 서스퀴하나(Susquehanna)와 오하이오 강을 따라 달려 피츠버그에 도착할 때까지 여행이 재미있고 즐거웠다. 피츠버그에서 시카고까지는 대체로 평평한 들판뿐이었다. 이 거대한 평원을 비추는 휘영청 밝은 달빛이 밤새도록 나를 잠 못 이루게 했다.

9월 2일

시카고 시간으로 12시에 우리는 시카고에 도착했다. 시카고 동지회 위원인 김흥기와 오한수가 마중을 나왔다. 이들은 오한수의 대형 승용차로 버스 정류장으로 나를 기다렸다.

점심을 먹고 그들은 내가 목을 방을 알아보려 애썼다. 그러나 때마침 세계박람회(World's

388) 1920년 도미하여 뉴욕에 거주하다가 1937년 이후 사업차 보스턴으로 이거하였고, 1942년 1월 뉴욕에서 결성된 동지회 계열의 대한인부인회 활동을 뒤에서 후원하였다.

Fair)가 개최되고 있어서 50만 명이 몰린 데다 노동절까지 겹쳐 있었다. 게다가 박람회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린 시기여서 방을 구하기가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웠다. 여러 군데 전화를 수십 번도 더 한 후 YMCA 호텔에 가까스로 방을 하나 구해 14054호에 묵었다.

오후에는 금세기발전박람회(Century Progress Fair)에 들러 여러 가지 흥미 있는 전시물을 관람하였다. 정태은이 남정현(南廷憲)³⁸⁹⁾과 함께 우리를 안내했다. 우연히 박람회에서 많은 친구들도 만나고 옥으로 만든 파고다, 벨기에 마을, 과학관 등을 구경했다.

9월 3일

일요일 저녁, 동지회 지부 회원들이 인디애나 애비뉴 2321 정태은의 회사에 모여 환영 파티를 개최했다. 나는 제네바 여행에 관해 보고했다. 회원들은 한인회 모두가 참여하는 대규모 환영회를 갖자고 제의했으나 나는 서부에서 돌아올 때까지 연기하자고 했다. 그날 저녁, 회원들은 나의 여행 경비로 100불을 모아 주었다. 다음 날 나는 중고차 윌리스(Willys)를 200불을 주고 샀다. 여행 경비로 받은 100불을 선금으로 주었다.

9월 5일

정태은의 집에서 만찬을 가졌다. 오한수 내외, 김흥기 내외와 다른 사람들도 참석했다. 저녁에는 휘황찬란한 조명을 구경하러 박람회장으로 갔다. 22번가 입구까지 걸어갔다.

9월 6일

오후 3시 30분, 중고차 윌리스 쿠페를 몰고 위스콘신 주의 밀워키를 향해 시카고를 떠났다. 내가 운전을 하고 장기영이 지도를 보고 차도를 일러 주었다. 계기판이 19,835마일을 가리키고 있을 무렵 시카고를 출발했다.

저녁 7시, 밀워키에 도착하여 블러엣(Vliet)가 3909번지에서 동양식품점을 운영하는 조(C. C. Joe)의 식당으로 갔다. 식사를 마치자 호놀룰루에서 온 조의 처남 마 영(Young Mah)

389) 1888년생으로 1904년에 미국 이민하였다. 1928년 콜로라도 주 덴버 지역에 동지회 지회 설립 후 제1공화국기까지 동지회 회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노동으로 생활하며 평생 독신으로 지냈다.

이 그의 차에 나를 태워 1912년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도 묵었을 만큼 그곳에서는 ‘최고의 호텔’로 알려진 그랜드 호텔 쉬뢰더(Grand Hotel Schroeder)로 갔다. 나를 위해 이곳에 방을 예약해 두었다.

8월 7일

오전 10시, 밀워키를 출발했다. 도시를 미처 벗어나지 못했는데 오토바이를 탄 경찰관이 우리를 세웠다. 내가 시간당 50마일의 속도로 달렸다는 것이다. 장기영은 40마일을 조금 넘었다고 했고, 나는 덴버까지 급하게 가야 해서 좀 서둘렀다고 했다.

그 경찰관은 주머니에서 수첩을 끄집어내며 질문을 시작했다. “주소가 어딥니까?” 라고 그가 물었다. “워싱턴 DC”라고 내가 대답했다. “그곳에선 무엇을 하십니까?”라고 계속 질문을 했다. 나는 “외교 일을 한다.”고 답했다. “미국에 관한 외교 업무요?”라고 그가 재차 물었다. 나는 “한국위원부”라고 답했다. 그는 고개를 돌리더니 목소리를 바꿔 내가 자기가 만난 ‘최초의 한국인’이라고 했다. 그는 한참을 더 이야기를 나눈 후 어떤 길로 가면 혼잡한 도로를 피할 수 있는지 알려 주었다. “낮선 도시를 달리다 보면 가끔은 덜 유쾌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으니 조금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하고는 돌아갔다.

오후 7시, 우리는 아이오와 주의 급류 도시 시더 래피즈(Cedar Rapids)에 근접한 곳에 ‘여행자용 숙소(Tourist Rooms)’라는 간판을 내건 한 가정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다.

8월 8일

오전 5시, 다시 길을 떠나 정오 무렵에 미시시피 강을 가로지르는 높은 다리인 아이오와 주의 클린턴(Clinton)³⁹⁰을 건넜다. 네브래스카 주의 링컨 하이웨이는 관찮은 곳도 있지만 매우 위험한 구간도 있다. 커니(Kearney)로 가는 약 15마일(24km)가량의 도로는 그야말로 자갈길이고 우회 도로도 영성하게 모래가 깔려 있어 그만 차가 미끄러지면서 도랑에 깊이 처

390) 미국 아이오와 주 동부에 미시시피 강 줄기를 따라 형성된 도시로 여기에 일리노이 주 이스트클린턴과 폴턴으로 가는 교량이 있다.

박혀 버렸다. 다행히 도랑의 양 둑이 돌이나 딱딱한 흙이 아니라 부드러운 모래여서 충격은 줄일 수 있었다. 차 앞 축이 조금 들어갔으나 다치거나 다른 손상은 없었다. 지나가던 큰 트럭이 우리 차를 끌어내 주어 다시 시동을 걸고 목적지까지 차를 몰았다.

밤 8시 30분, 네브래스카 주의 커니에 도착했다. 앞 축과 들어간 부분을 고치려고 차를 수리점에 맡기고 민가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8월 9일

오전 8시 45분에 커니를 출발하여 어둑어둑해질 무렵 와이오밍 주의 샤이엔(Cheyenne)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자동차에 휘발유를 가득 채우고 75 내지 80마일(120~129km) 떨어진 콜로라도 주 덴버로 출발했다. 칠혹같이 어두웠고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사흘 전 덴버에 심한 폭풍우가 몰아쳐 도시 한 부분이 물속으로 잠겨 버렸다.

도로는 좁고 꼬불꼬불하고 자동차 라이트도 희미했다. 깜깜한 밤중에 비까지 억수로 내리 퍼부었다. 극도로 조심 운전을 하여 시간 당 20 내지 30마일(32~48km) 이상 달릴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 밤에 덴버에 도착해야만 가능한 빨리 몬태나 주의 뷰트(Butte)³⁹¹까지 갈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차까지 오는 개울인지 웅덩인지에 빠져 버려 하늘과 땅이 모두 내려앉은 것만 같았다. 다행히 차가 곧 떠올라 굽히지 않고 물웅덩이를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이로써 난제가 해결되었다.

나는 가다가 첫 번째 마을에서 무조건 자고 가자고 제안했다. 마침내 콜로라도 주의 눈(Nunn)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하여 이름도 없이 그저 ‘호텔’이라고만 적힌 그다지 내키지 않는 곳을 발견했다. 하지만 달리 갈 곳도 없어서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나이 든 주인 여자가 저녁으로 햄과 계란을 요리해 주었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동안 주인 노파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친척이 뉴욕 여행을 위해 차와 옷을 새로 샀는데, 3일 전 밤에 끔찍한 폭풍우가 몰아쳐 우리가 지나온 그 물웅덩이에서 차가 거북이처럼 뒤집혀져서 언덕 아래로 굴렀으나 다행히 다치지지는 않고 멈추었지만 차 안은 온통 물이 가득 찼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래서 그들 일행도 이 호텔로 와서 모든 것이 다 마를 때까지 머물다 갔다고 주인 할머니가 말했다.

391) 미국 몬태나 주 서부에 있는 광산 도시이다.

9월 10일

오전 6시 30분에 콜로라도 주 누암을 출발하여 덴버에 도착했다. 의사당 건물과 웰링턴 호텔 부근의 아르고넛(Argonaut) 호텔에 투숙했다. 빅모어(Bickmore) 부부와 친척들이 호텔과 컨츄리 클럽, 대학 클럽 등에서 만찬과 점심을 대접했다.

덴버 포스트 신문이 나를 인터뷰하고 내 사진과 함께 장문의 칼럼³⁹²⁾을 실었다. 나를 인터뷰한 여기자는 내 이름을 호텔 숙박부에서 보았다고 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나의 친구들이 신문사 편집장에게 내가 온다는 사실을 알린 것 같다.

덴버 대학의 쉐링턴(Ben Mark Chellington)³⁹³⁾ 교수가 호텔로 와서 우리는 극동이 처한 상황에 관해 긴 대화를 나누었다.

9월 12일

오전 8시에 장기영과 함께 덴버를 출발하여 몬태나 주의 뷰트를 경유하기로 했다. 콜로라도 주의 포트 콜린스(Fort Collins)에서는 다정다감한 빅모어(Bickmore) 양의 사촌인 위태커(Whitaker) 부부와 또 다른 부부를 보고 가기로 했다. 위태커 부부는 호놀룰루에서 살았었다.

덴버의 친구들은 콜린스와 엘로스톤 공원 사이의 드라이브 길이 아름다우니까 공원의 동쪽 문으로 들어가라고 권했다. 그들에게 말은 안 했지만 덴버에서 자동차 수리를 하느라고 경비를 다 써버려 자동차에 넣을 휘발유값도 없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최단 거리로 뷰트에 가야만 했다.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운전을 했다. 그러나 길은 험했고 다리들은 너무 좁아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피곤해서 잠까지 쏟아졌다. 물론 덴버를 떠난 후 하루 종일 식사도 못했다. 밤 12시 45분에 와이오밍 주의 버펄로라는 조그만 마을에 도착하여 '여인숙(Tourist Inn)'이라고 간판을 내건 작은 집으로 들어갔다. 나이 든 주인 아주머니에게 나와 장기영 둘이서 한 방을 1불에 쓰기로 흥정을 했다. 그래서 장과 둘

392) 「The Denver Post」, 1933년 9월 12일자에 웨인(Frances Wayne)이 쓴 「President of Korea Says Japs Attempt to Cripple America」 참조.

393) 생몰은 1885~1980년. 1910~1920년대 캘리포니아 주와 콜로라도 주에서 YMCA 간사로 활동하였으며 국제관계 분야 교수로서 1943~1946년간 덴버 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다. 미 국무성에 문화교류국을 조직하는 데 기여하고 유엔헌장의 공동 기초자이며,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공동 설립자이다. 박용만이 세운 한인소년병학교가 위치한 헤이스팅스에서 40마일, 정한경의 고향 Kearney에서 13마일 떨어진 네브라스카 주 깐본(Gibbon)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서 한 침대에서 잤다.

9월 13일³⁹⁴⁾

오전 6시 30분에 버펄로를 출발했다. 우리는 한 마을에 도착하여 요기를 좀 하려고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다. 장기영이 잠깐 실례하겠다고 하더니 그의 코닥 카메라를 가지고 나갔다. 한참 후 그 카메라를 가지고 돌아와서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 뷰트까지 갈 휘발유를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내가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그는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는 한 보석 가게로 무작정 들어가서 매니저에게 자신의 코닥 카메라를 사든지 아니면 담보로 잡고 뷰트까지 갈 휘발유값을 좀 빌려 달라고 했다. 여행 중에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더니 수리비가 너무 비싸게 나와 여비가 다 떨어졌다고 사실대로 딱한 사정을 털어놓았다. 그랬더니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인 그 보석상 매니저가 선뜻 그에게 2불을 내놓은 것이었다. 우리는 둘이서 한바탕 크게 웃고는 숨을 좀 돌리며 즐거워하였다. 정말 그 빌려준 2불 덕분에 자동차에 기름도 넣을 수 있었다.

로스앤젤레스로 와서는 빌린 돈도 갚았다. 장기영은 그 보석상 매니저에게 깊은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버펄로에서의 즐거운 추억이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되새겼고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다.

9월 13일

밤 9시 10분에 몬태나 주의 뷰트에 도착했다. 높은 산길을 밤에 달려 저 멀리 뷰트의 수천 개 불빛이 우리 앞에 전개되자 우리는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친구 집으로 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 뷰트 호텔로 갔다.

9월 14일

오전에 윌슨 흥 박사가 우리를 만나러 왔다. 뷰트에 머무는 동안 흥 박사 부부가 램sey(Ramsay), 화이트 홀(Whitehall), 몬타나(Montana)로 우리를 데리고 갔다. 열한 가구의 한

394) 1933년 9월 13일자 일기가 두 개이다.

인들을 방문했다. 뷰트에서 40마일(64k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열한 가정의 자녀들은 모두 60명이나 되었는데, 이들 중 몇몇은 벌써 18세 혹은 19세가 되었다. 하루는 저녁에 지역 신문사 하나가 기자를 보내어 인터뷰를 하고, 나의 뷰트 방문과 한국의 독립운동 등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³⁹⁵⁾

16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나를 환영하는 모임이 중국인 교회에서 개최되어 나의 유럽 여행과 우리 앞에 놓인 크나큰 기회 등을 참석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은 나의 여행 경비로 200불을 모금하여 주었고, 또한 구미위원부에 대한 지지를 맹세했다. 어떤 가족은 우리를 대접할 기회가 없음을 아쉬워하며 좀 더 머물다 가라고 조르기도 했다.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눈이 조금 내렸다. 올해는 8월 20일에 눈이 6인치(98.3cm)나 왔다고 한다.

9월 17일³⁹⁶⁾

일요일 오전 8시 30분, 흥 박사와 그의 부인이 차로 우리를 화이트홀로 안내했다. 윤성규도 차를 몰고 그리로 왔다.

오후 8시 45분에 우리 일행은 웨스트엘로스톤 공원에 도착하여 국립공원으로 들어갔다. 공원 안에서만 거의 150마일(214km)을 달려 올드 페이스풀(Old Faithful)³⁹⁷⁾과 다른 여러 간헐천, 온천, 끓는 우물 등을 둘러보았다. 여러 곳, 특히 그랜드 캐니언을 따라가는 도로는 좁고 꼬불꼬불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운전을 해야만 했다. 그 덕분에 나중에 친구들이 구경 잘했냐고 물으면 “구경은 장기영이 하고 나는 도로만 보고 왔다.”고 농담을 하곤 했다.

9월 17일

저녁 8시 45분에 웨스트 엘로스톤으로 돌아와 메디슨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395) 1933년 9월 16일자 [Butte] Montana Standard, 「Man without a Country is Visitor in Butte」 참조.

396) 1933년 9월 17일자 일기가 두 개이다.

397) 65~70분 주기로 분출하는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이다.

9월 18일

오전 6시 40분, 웨스트 엘로스톤 공원을 출발하여 밤 10시 50분에 유타 주의 솔트레이크(Salt Lake) 시에 도착. 페리(Perry) 호텔에 투숙.

9월 19일

오전 7시 20분에 솔트레이크를 떠나 ‘활짝 열린 도시(wide open city)’로 알려진 네바다 주의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했다. 그랜드 호텔은 우리에게 방을 두 개 주었다. 시카고와 덴버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방 하나에 1불 이상은 안 된다고 하며 시카고와 덴버에서는 1불에 묵고 왔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우리에게 2불에 방을 주었다.

이 작은 마을은 거대한 네바다 사막에 위치하고 있어서 마치 오아시스처럼 보였다. 거리에는 거의 모든 상점이 일종의 클럽과 같았고 밤이면 화려한 네온사인이 들어오는 큰 간판들이 특징이었다. 클럽들은 동양에서라면 도박장에 불과했다. 우리도 서너 곳을 구경했다.

9월 20일

오전 7시 25분에 라스베이거스를 출발하여 캘리포니아 주의 샌버나디노(San Bernardino)를 지나 오후 4시 10분에 로스엔젤레스에 도착. 친구들이 뉴 로슬린(New Rosslyn) 호텔로 데리고 가 이곳에서 한 주간을 지냄. 김순권, 김종립 그리고 여러 사람이 우리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냄.

9월 21일

전진영³⁹⁸⁾의 자택에서 동지회 임원 모임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나는 나의 유럽 여행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

로스엔젤레스의 동지회 임원들은 중국인들이 내가 온다는 소식을 뉴욕으로부터 전해듣고 나를 위한 환영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순기를 통해 중국 부영사(Yi-seng S. Kiang)

398) 1938년 LA한인장로교회 집사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1943년 재미한족출정군인친족회의 재무로서 제2차 세계대전에 미군에 참전한 한인 자제를 돕는 데 앞장섰다. 1945년 4월 국제연합창설대회에서 활동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에 당도한 이승만에게 LA지방을 대표해 환영식을 거행해 주었다.

와 화상총회(華商總會) 회두(會頭)가 나를 중국식 특별 만찬에 초대했다. 그들은 나를 환영하는 디너 파티와 대규모 모임을 일요일 저녁에 열기로 계획을 세워 놓았다. 나는 한인 만찬과 모임을 같은 시각에 갖기로 이미 약속을 해놓은 상태여서 취소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자 그들은 일주일을 더 머물 수 있으면 다음 일요일에 모임을 가지면 어떠냐고 재차 물었다. 나는 서류에 서명할 것이 있어서 뉴욕으로 급히 돌아가야 하고 로스앤젤레스에는 다시 또 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실 하루 전에 호놀룰루에서 온 전보 메시지에 하루 속히 뉴욕으로 돌아가 이용직과 그의 도당에 대하여 크리스티 법원(Cristy's Court)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인기독교회 관련 소송에 관한 조서에 서명을 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용직과 그의 도당은 1929년 우리가 1만 7,500불에 매각하려 했던 교회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중국인들에게 로스앤젤레스에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다고 응답했다.

우리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중국 영사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나의 방문 소식을 알려 주어 마틴(Claren Martin) 특파원이 사진사를 데리고 뉴 로슬린 호텔로 와서 사진도 찍고 나를 인터뷰했다. 사진과 기사는 다음 날 아침 신문에 게재 예정이다.³⁹⁹⁾ 마틴은 우리에게 관한 책자를 몇 부 보내 주면 일요일판 특집 기사로 꾸며 보겠다고 했다.

9월 26일

일요일 저녁 한인들의 총회가 개최되었다. 중국 식당에서 열린 연회에는 거의 100명에 이르는 남녀 한인과 청년들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동지회 지부장 구⁴⁰⁰⁾가 연회를 주재했다. 이어진 대규모 집회에는 한인 오케스트라의 특별 연주와 노래, 연설, 젊은이들의 꽃다발 및 선물 증정 등이 있었다. 나는 나의 유럽 임무 수행과 극동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 등에 관해 연설을 했다.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이 참석하여 한인들의 뜨거운 열성과 충성심을 과시했다. 그들은 우리의 여행 경비를 모금해 주었다.

399) 이 기사는 『Los Angeles Times』에 보도된 적이 없다. 아마 이승만이 신문의 이름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400) 동지회 지부장 구 씨이다.

9월 25일

오후에 장기영과 함께 조승렬⁴⁰¹⁾과 그의 부인을 만나려고 약 100마일(160km) 떨어진 산타바바라로 차를 몰고 갔다. 그곳에서 김영우를 만났다.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데 조승렬과 그의 아내가 자신들의 차를 몰고 여러 마을을 지나 고속도로까지 안내해 주었다. 우리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타고 인랜드 루트(Inland Route)로 돌아왔다. 경치가 정말 아름다웠다.

저녁에는 지역 대학 한 곳이 후원하는 국제 포럼에서 연설을 했다. 하튼(Harton) 교수, 이순기와 그의 두 딸을 포함하여 몇몇 젊은이가 나를 회의장으로 안내했다. 그들은 나를 위해 큰 모임을 준비하려고 하니 더 머물다 가라고 했지만, 나는 다음에 올 때는 사전에 미리 알리고 오겠다고 하며 양해를 구했다.

9월 27일

오전 9시에 우리는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하여 솔트레이크 시로 갔다. 도중에 스투어트 부인(Mrs. William Boyd Stewart)⁴⁰²⁾ 집을 방문하려고 캘리포니아 업랜드(Upland)로 갔다.

오후 6시 20분에 네바다 주의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하여 볼더(Boulder) 호텔에 투숙했다.

9월 28일

오전 6시 50분에 라스베이거스를 출발. 애리조나 주와 네바다 주의 사막을 거쳐 저녁 8시 50분에 유타 주의 솔트레이크 시에 도착하여 페리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다음 날 아침 9시 10분에 솔트레이크 시를 떠났다. 도시를 뒤편으로 하고 계곡 사이를 천천히 운전하며 매혹적인 가을의 정취가 절정을 이루고 있는 자연을 만끽했다. 지온(Zion) 국립공원의 일부를 다시 지나왔다.

오후 6시 20분에 와이오밍 주의 로린스(Rawlins)에 도착했으나 더 여행하기에는 너무 피곤했다. 페리스(Ferris) 호텔로 갔다.

401) 1907년 공립협회 레드랜드 지방회 구제원, 1908년 공립협회 험포드 지방회 응접부장, 1911년 대한민국민회 나성지방회 평의원을 역임하였고, 대한민국민회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402) 업랜드(Upland) 장로교회의 주일학교 선생이다.

9월 30일

오전 6시 50분에 로린스를 출발하여 오후 1시 40분에 콜로라도 주의 덴버에 도착했다. 같은 호텔 아르고너트(The Argonaut)에 투숙했다.

저녁에는 장기영 혼자 덴버를 떠나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로 갔다. 내가 도착할 무렵 시카고에서 다시 합류하기로 했다.

덴버에 있는 동안 많은 미국인 친구를 만났고 볼더 대학의 로저 윌리엄스 교수를 만나려고 볼더로 갔다.

10월 4일

오전 7시 30분에 덴버를 출발, 미주리 주 캔자스 시⁴⁰³로 갔다. 그곳에서 시카고까지 나홀로 여행을 했다.

덴버에서 약 100마일(160km) 정도 달렸을 때 조그만 다리가 나왔다. 그레이더(도로를 고르는 차)가 나를 향해 오고 있었는데, 나는 트럭인 줄 알았다. 다리 위를 지날 때 다가오는 그레이더의 강철로 된 삽같이 생긴 무엇이 내 차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갑자기 차를 멈출 수가 없었고 그레이더도 계속 나를 향해 전진해 와서는 내 차의 뒷바퀴를 박아 버려 내 차는 지그재그로 가더니 깊은 모래 구덩이에 처박혀 버렸다. 나는 가까스로 시동을 걸고 웅덩이를 빠져나와 다시 도로로 들어섰다. 하지만 집도 절도 없는 외딴 곳에서 일어난 사고였다.

덜컥거리는 시골의 자갈길이라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운전한 덕분에 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최악의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 앞바퀴의 캡도 떨어져 나가고 한쪽 창문의 안전유리도 금이 갔다. 지나가던 차에 있던 젊은이 다섯이 내 차를 그들의 차에 연결하여 콜로라도 주의 샤인 웰즈(Cheyenne Wells)라는 작은 마을까지 30마일(48.3km)가량을 견인해 왔다.

오후 4시에 도착하여 차를 수리하도록 정비소에 맡기고 플레인즈(Plains) 호텔로 갔다. 덴마크인 호텔 지배인은 아주 온화하고 친절했다.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 후 나는 교사인데 휴가차 여행을 왔노라고 나를 소개했다. 그는 나를 그 마을의 판사와 보안관에게 소개를 해주

403) 미국 미주리 주의 북서부에 있는 도시이다.

었고 그의 아내에게도 나를 소개했다. 그곳에서 나는 캔자스로 가길 원하는 히치하이킹을 하는 한 남자를 만났다.

10월 5일

오후 12시 15분에 차 정비를 마쳐 캔자스 시로 가는 히치하이커와 샤인 웰즈를 출발했다. 한참 후엔 그가 운전을 하도록 했다. 우리는 밤새도록 달려 미국의 지리적 중심지를 나타내는 비석이 서 있는 포트 라일리(Fort Riley)를 지났다. 새벽 3시 15분에 캔자스 시에 도착했다. 나는 히치하이커와 헤어져 근처의 라파예트 호텔로 갔다.

다음 날 아침 10월 6일, 동양식품회사(the Oriental Food Product Co.)로 갔다. 이관수와 이성식(李聖植)⁴⁰⁴이 나를 반갑게 맞아 주어 회사 근처인 프린스턴 호텔로 숙소를 옮겼다.

10월 7일

오전 8시에 캔자스 시를 출발했다. 동양식품회사의 젊은 직원이 고속도로로 향하는 길을 안내해 주었다. 오후 7시 30분에 일리노이 주의 블루밍턴(Bloomington)에 도착하여 해밀턴 호텔에 투숙했다.

다음 날 아침, 블루밍턴을 떠나 오전 11시경에 시카고에 도착했으나 오후 12시 20분이 되어서야 인디애나 애비뉴 2312번지의 정 앤 코(Jung and Co.)에 도착했다. 길을 찾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정태은, 오한수와 그의 아내, 김흥기 그리고 다른 한인들이 내가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나를 대접했다. 그들은 팔머 하우스 호텔에 방을 예약해 두었다.

일요일 저녁 한인 교회에서 동지회 회장인 김흥기가 주재하는 대규모 리셉션이 있었다. 우리는 세계 박람회에도 다시 갔다. 친구들이 우리를 '중국관'으로 데리고 갔다. 참가자 모두가 중국인이었다.

404) 1894년생. 송실중학을 거쳐 1910년대 초경 유학차 도미하였고, 1915년 상항한인교회 웹릿청년회의 교제국장으로서 활동하였으며, 1919년 대한인국민회 뉴욕지방회에 입회하고, 성악을 공부해 레코드판을 제작하였다. 시카고에서 식물상을 운영하다 로스앤젤레스로 이거하고, 1934년 흥사단에 입회하였다.

10월 9일

오후 3시 15분에 시카고를 출발하여 뉴욕으로 향함. 장기영이 하루 전날 인디애나 주의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옴. 오후 6시 30분에 인디애나폴리스의 세인트 조셉에 도착하여 데니스(Denness) 호텔에 투숙.

10월 10일

오전 6시 30분에 세인트 조셉 출발, 오후 12시 15분에 디트로이트 도착. 정 앤 코(Jung and Co.) 방문. 정양필(鄭良弼)⁴⁰⁵, C. C. 안, 조오흥(趙五興)⁴⁰⁶, 조대흥이 우리를 환영. 안(C. C. Ahn)의 자택에 묵음.

10월 11일

오전 10시에 디트로이트 출발. 정양필과 그의 아내가 미시간 주의 앤 아버(Ann Arbor)로 안내했다. 미시간 대학의 칼 루퍼스(Will Carl Rufus)⁴⁰⁷ 교수 부부에게 전화를 했다. 루퍼스 교수는 우리를 대학 구내인지 아니면 클럽인지로 데리고 가 식사를 대접했다. 그 후 루퍼스 교수의 안내에 따라 쿠키 홀(Cooke Hall)의 여학생 기숙사로 가서 로즈 손(Rose Shon, 손창희 딸)⁴⁰⁸을 만났다.

저녁 8시 우리는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 도착하여 한인 잡채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곳의 한인들이 우리가 암스테르담 호텔에 머문 경비를 부담했다.

405) 생몰은 1893-1974년. 독립운동가 정순만(鄭淳萬)의 아들로 1905년 박용만 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하였다. 1909년 박용만이 세운 한인소년병학교에 들어가 사관생도로서 전투 훈련을 받고 졸업하였고, 1919년 4월 한성임시정부의 평정관으로 선임되었다. 1942년에 수차례에 걸쳐 군자금을 제공하고, 북미 대한인국민회 디트로이트 지방총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406) 1898년생. 1904년 부모를 따라 하와이로 이민하였으며, 1909년부터 네브라스카 주 헤이스팅스의 소년병학교에서 군사 훈련과 민족교육을 받았다. 1919년 국민회 프예블로 지방회에 입회, 1926년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 본부를 둔 유한회사의 이사원, 1928년 정안회사의 총무를 역임하였다. 1929년 디트로이트에서 동지회 지방회를 결성해 총무로 활동하고, 이승만이 1942년 워싱턴 DC에서 한인자유대회를 개최할 때 디트로이트 대표로 참가하였다.

407) 생몰은 1876-1946년. 미시간 대학의 천문학 교수이다. 루퍼스 부부는 1909~1917년간 한국에서 감리교 선교사로서 북무하고, 평양의 합성승실대학(Union Christian College)과 조선기독교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쳤다. 미시간 대학의 Barbour Scholarship Program의 총무를 역임하였다.

408) 하와이 호놀룰루 출신으로 미시간 대학의 Barbour Scholar에 올랐다.

10월 12일

오전 7시 45분에 클리블랜드를 출발했다. 도중에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아주 잠깐 쉬었다. 밤 11시 50분에 뉴욕 주 시러큐스에 도착하여 주유소에서 알려진 민가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우리가 돈이 모자란다고 하자 그들은 1불에 들어서 한 방을 쓰라고 했다.

10월 13일

오전 7시 50분에 시러큐스를 출발하여 오후 7시 10분에 뉴욕 주의 트로이 도착. 그곳에서 안(安)과 다른 한인과 회동. 트로이잔(Trojan) 호텔에 투숙.

10월 14일

오전 7시 15분, 트로이를 출발하여 오후 12시 15분에 알바니(Albany)를 거쳐 뉴욕에 도착했다. 내 가방과 물건들을 맡겨 둔 마르세이유 호텔로 갔다. 남궁염과 최용진 그리고 다른 한인들이 내가 그곳에 체류하는 동안 나를 보살펴 주었다. 나는 호놀룰루 교회 재판 건과 관련하여 공소장에 서명하기에 앞서 호놀룰루 변호사들이 선정한 변호사 사무실에 여러 번 들렀다.

10월 17일

오후 2시 40분, 뉴욕을 출발하여 오후 12시 10분에 볼티모어의 그랜드 호텔에 투숙했다. 다음 날 아침 오전 7시 45분에 그곳을 출발하여 워싱턴으로 와서 프랭클린 파크 호텔에서 여장을 풀었다.

미국 일주

여행 기간 : 1933. 9. 1. ~ 10. 17.

총 37일간

여행 구간 : 총 9,000마일(1만 4,484km) 이상

12월 7일

존 스태거스(John W. Stagggers)⁴⁰⁹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콜롬비안 빌딩을 소유하고 있어 사무실 하나를 연말에 갱신할 수 있는 조건으로 월 15불에 세를 주었다. 또한 구미위원부의 자문역으로서 초과로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위원부의 법적 사무를 맡기로 하고 초과 시간에 대한 보수는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그에게 문서로 명시하자고 해서 그가 그렇게 했다. 장기영과 상의를 한 후, 우리 사무실을 내일 즉시 콜롬비안 빌딩으로 옮기기로 했다.

내가 외출한 사이 로렌스 토드(Laurence Todd)가 와서 러시아 대사관이 그를 보내어 미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축하하며 내가 리트비노프(Litvinoff)와 스키퍼스키(Boris Skiversky)⁴¹⁰에게 보낸 축하 편지에 대한 감사를 표시했다고 장기영이 말했다. 토드는 러시아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명하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그들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12월 11일

구미위원부는 노스웨스트 D와 E 사이의 5번가 콜롬비안 빌딩으로 이주했다. 건물주인 존 스태거스가 연간 월 15불에 312호실을 세를 주었다. 연말마다 계약을 갱신하고 그도 구미위원부의 자문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하에서는 무료로 자문을 제공하고, 이외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사전에 미리 보수를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료로 자문을 해주기로 했다. 장기영은 새 집으로 집을 옮겼다. 피플즈 라이프 빌딩의 매니저는 내가 유럽 여행을 간 봄과 여름 사이 밀린 집세가 총 130불이라고 지불을 요청했다.

409) 1887년생. 워싱턴DC의 변호사로 구미위원부 초대 법률고문인 돌프(Fred A. Dolph)의 동료로서 1920년 이래 이승만과 친분을 유지하였다. 1941년 이후 이승만과 주미외교위원부의 법률고문, 1942~1943년 한미협회 이사, 자신 소유 빌딩에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주미외교위원부에 사무실을 내주고 자신의 사비를 쓰면서 이승만의 독립운동을 후원하였다. 미국 법무부와 국무부에 이승만의 '대리인(agent)'으로 등록하고, 이승만의 전략 참모 팀인 일명 'Kitchen Cabinet'의 멤버로서 이승만을 위한 정치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하였다.

410) 1932년 미국과 소련이 외교 관계를 재개했을 당시 워싱턴 주재 소련 대리대사를 지냈다.

CHAPTER 3

1934년

1월 10일

며칠 전, 여러 교우가 찰스 러셀(Charles E. Russel)⁴¹¹과 존 스태거스(John W. Stagggers)와의 점심 식사 중에 한인회(Korea Society)나 한국친우회(League of the Friends of Korea)의 재조직 문제를 거론하고, 나와 콜롬비안 빌딩의 스태거스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이 문제를 재차 논의했다.

오늘은 윌리엄스(J. Jerome Williams)⁴¹²와 오찬을 함께하며 내가 구상하고 있는 단체의 설립 목적과 명칭 등을 그에게 내비치며 한인회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 극동협회(Far Eastern Association)나 그와 유사한 이름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자 그는 전적으로 내 말에 동의했다.

이어서 내가 비엔나에서의 일을 윌리엄스에게 털어놓자 그는 미국 입국 시에 필요한 도너(Donner) 양의 여권 발급을 주 비엔나 미국영사관에 의뢰하라고 하면서 월요일 뉴욕으로 돌아가면 나를 위해 여권 발급 문제를 알아보겠다고 언질을 주었다.

1월 21일

일요일 오후 1시, 존 스태거스와 내 차로 워싱턴을 떠나 뉴욕으로 갔다. 도중에 몇 군데를 들렀는데, 펜실베이니아 주 브린 모어(Bryn Mawr)의 밀러(Herbert A. Millers)⁴¹³ 자택에서 오래 머물다 왔다. 나도 운전을 좀 했지만 대부분 스태거스가 차를 몰았다.

411) 생몰은 1860~1941년. 미국 언론인이자 정치가로 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he Advanced Colored People, NAACP)의 공동 창립자이다.

412) 1893년생. 신문기자 출신으로 INC 통신사를 운영하였으며, 1942~1943년 이승만의 독립운동 후원단체인 한미협회 재무 담당 이사, 주미외교위원부와 한미협회의 위촉을 받아 한국에 대한 홍보 선전 활동을 전개하였다. 존 스태거스와 함께 미국 법무부와 국무부에 이승만의 '대리인(agent)'으로 등록하고, 이승만의 전략 참모팀인 일명 'Kitchen Cabinet'의 멤버로서 이승만 후원활동을 전개하였다.

413) 1933년에 브린모어 대학(Bryn Mawr College)의 교수가 되었다.

밤 12시 30분에 뉴욕 시에 도착했다. 스테거스는 펠러스 호텔에서 내렸고, 나는 브로드웨이 103번가 마르세이유 호텔 421호에 투숙했다. 동지회 간부들이 1월 23일 화요일 오후 7시에 펠러스 호텔 부근의 중국 음식점에서 스테거스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다.

2월 18일

일요일 오후 3시에 마르세이유 호텔을 떠나 장기영과 함께 뉴욕 시 31번가 윌코트(Wilcott) 호텔 1411호에 투숙 중인 우(Tom Wooh)에게 갔다. 시드니 스트롱(Sidney Dix Strong)⁴¹⁴은 같은 층 1406호에 묵고 있었다.

4월 7일

바우어리 저축은행(Bowery Savings Bank) 건물 612호로 입주했다. 『화 이스턴 유니온(The Far Eastern Union)』과 『뉴 오리엔트(The New Orient)』라는 잡지 발간 사업을 시작했다⁴¹⁵. 원래 계획은 러셀(Charles E. Russel)을 편집장으로 모셔 놓고 조그맣게 워싱턴에서 시작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내가 뉴욕에 머물 때 중국인들에게 초대되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들이 출판 일에 흥미를 보였고, 미국인 친구들도 뉴욕에서 출판을 시작하자고 제안을 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중국인들이 뉴욕 차이나타운에 여러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회를 조직하자 한국인들도 그렇게 하였다. 장덕수와 이철원(李哲源)⁴¹⁶이 도움을 주고 있다.

나는 뉴욕의 중국인들에게 1년 구독료 4불에 1,000명의 정기구독과 기타 지역에서 1~2,000명의 정기 구독을 요청했다. 우리는 인스피레이션 출판사(Inspiration Publishing Co.)의 울만(W. T. Ullman) 사장과 줄이 닿았다. 그는 8,000달러에 상당하는 『Orient(極東雜誌)』 1만 부를 출판하고 우리는 400불을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앞으로 6개월 내지 8개

414) 생몰은 1860-1938년. 평화주의자, 작가, 언론인, 사회적 복음전도사이다. 1930년대 전반 국제연맹의 읍저버로서 수년간 제네바에 머물렀다.

415) 1934년 9월에 Charles Edward Russel이 편집을 맡아 『The Orient』라는 제하에 영문잡지 첫 권이 발간되었다.

416) 생몰은 1900-1979년. 배재고 재학 중 3·1운동에 가담하고, 중국과 프랑스에서 영어와 불어를 공부하고, 1922년 미국으로 건너가 마운트힐민 중학을 마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에서 만국학생청년회 조선부 간사, 조선학생총회 총무를 역임하였으며, 1934년 귀국 후 흥업구락부 사건과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해방 후 초대 국회사무처장, 제2대 제4대 공보처장, 조선공사 사장 등을 역임하였다.

월 동안 잡지 발간이 잘되면 출판사가 순이익의 절반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나는 헐버트(Homer B. Hulbert)를 뉴욕으로 오게 하여 한 달 동안 머물면서 기사 쓰는 일을 돕도록 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올만 사장이 갑자기 병석에 눕게 되어 4주간이나 병가를 내게 되었다. 그 때문에 5월 10일까지 초판 출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인들로부터 단체로 정기 구독을 약속받기로 노력했다.

그동안에 설상가상으로 중화公所(中華公所) 우치엔추[吳乾初] 회장이 임기가 만료되어 은퇴하였고, 후임으로 온 루이제(Luise) 회장은 잡지 발행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위원회는 아무런 후원을 받아 낼 수가 없었다. 나는 차이나타운에서 식사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날권이나 단체 정기 구독 등 가시적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며 그렇지 않고서는 한국인들 홀로 잡지 발간 일을 맡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윌리엄 리(William Lee, 李培), 하워드 리(Howard Lee, 李傑民), 조지 친통(George Chintong, 陳樹棠) 등 중국위원회의 열성 활동가 세 사람과 시투이핑[司徒一平]이 우선 뉴욕에서 정기구독 홍보와 기타 일들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최소한 1년 동안은 출판을 계속할 수 있는 충분한 숫자의 정기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6월 7일

오전 9시에 차로 뉴욕을 출발하여 오후 5시에 워싱턴 도착. 해밀턴(Hamilton)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음.

8월 8일

해밀턴에서 파크사이드 호텔로 숙소를 옮겼다. 워싱턴에 머무는 동안 교우들도 만났고, 찰스 러셀과 잡지 출판에 관해 의논을 하였으며, 윌리엄스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미 국무성에 전화도 하고 극동분과 훈백(Stanley K. Hornbeck) 국장을 직접 찾아가 내 명함을 주고 오기도 했다. 윌리엄스는 드루 피어슨(Drew Pearson)⁴¹⁷에게 비엔나 문제를 거론하며 줄이

417) 생몰은 1892-1969년. 본명은 Andrew Russell Pearson이다. 저명한 신문 및 라디오 저널리스트. 『워싱턴 포스트』지에 연재한 정치 칼럼 『Washington Merry-Go-Round』가 유명하다.

닿을 수 있는지 타진해 보았다.

후에 안 일이지만 미 국무성이 비엔나 주재 미영사관에 두 번이나 전보를 보냈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 드루 피어슨은 일간지 칼럼을 통해 미영사관이 비자 문제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난성의 기사를 실었다. 저명한 동양의 어떤 신사가 비엔나 여성의 비자를 신청하여 그녀가 미국으로 와서 그와 결혼할 계획이나 미영사관이 명확한 이유도 없이 늑장을 부리고 있다는 등의 논조였다⁴¹⁸. 하워드 스크립스(Howard-Scripps) 신문사에 들러 그와 흥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해외 특파원'으로 4개월간 전 세계를 누비며 다니다 막 돌아왔다.

조지 아벨(George Abel)이 나의 워싱턴 방문에 대해 쓴 기사가 「워싱턴 데일리 뉴스(The Washington Daily News)」에 실렸다.

존 스태거스는 한국인 최선주⁴¹⁹가 스킵필드 바락스(Schofield Barracks)⁴²⁰에 입대하려는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여 그가 입대 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6월 15일

오전 6시에 워싱턴 출발. 홀로 운전을 하여 오후 4시 30분에 뉴욕 도착. 남궁염을 데리고 클레몽가 140번지 아파트로 가서 630호에 입주.

7월 22일

오전 9시에 뉴욕을 출발했다. 홀로 운전하여 저녁 7시에 워싱턴에 도착하여 파크사이드 호텔 205호에 투숙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국무성의 혼백 박사에게 전화로 잡지 『Far Eastern』 문제와 개인적인 사정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나를 국무성 비자국의 코틀러(Coulter) 국장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418) 「Salt Lake City Tribune」 1934년 9월 23일자 피어슨(Drew Paerson)의 「The Weekly Washington Merry-Go-Round」를 참조하였다.

419) 1930년 1월 호놀룰루에서 29명의 한인들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벌이고자 한인협회를 발기할 때 참가하였다. 그 후 중립적 위치에 서서 1930년대 하와이 한인사회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였고, 1939년 호놀룰루에 중한민중동맹단이 조직될 때 부단장에 선임되어 한길수의 선전외교활동을 적극 후원하였다.

420) 호놀룰루 진주만의 해군기지로 1872년 앤드류 존슨 미국 대통령이 하와이 진주만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파견한 존 스킵필드(John McAllister Schofield) 장군의 이름을 따 명명되었다.

코틀러와 환담을 나누었다. 코틀러는 다시 영사관에 전보를 보내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스태거스와 나는 최선주 문제를 끄집어내어 루커필드(Luke Field)⁴²¹의 육군 장교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서 사본을 그에게 보내 줄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이 문제도 알아봐 주겠다고 대답했다.

7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스태거스와 함께 워싱턴을 떠나 밤 11시경에 뉴욕에 도착했다. 대부분 그가 내 차를 운전했다. 나는 트렁크 가득 책을 샀다. 클레몽 애비뉴 140 클레몽 클럽으로 돌아와 이전처럼 630호에 투숙했다. 이번 여름 내내 우리는 뉴욕의 바우어리 은행(Bowery Bank) 건물 사무실에서 『화 이스턴 매거진(Far Eastern Magazine)』의 출판에만 매달렸다.

9월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로부터 전보를 받았다. 화니(Fanny)⁴²²가 미 영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9월 28일 유로파(S. S. Europa)호로 출발할 것이라는 내용이였다.

10월 4일

오후 3시에 유로파호가 뉴욕 항에 도착했다. 배는 제 시간에 도착했지만 김벌랜드(Angie G. Kimberland) 부인⁴²³, 남궁염 부인 그리고 내가 교통 체증 때문에 늦게 도착했다. 화니(Fanny)는 마중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알았다. 그녀는 하선하여 부두에서 홀로 한 시간가량 우리를 기다렸다.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초초해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우리가 그녀를 마중하러 도착하여 모두가 말할 수 없이 기뻐했다.

김벌랜드 대령⁴²⁴ 부부가 모든 일을 주선해 놓았다. 그들은 렉싱턴 가(Lexington Ave.)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맞은편의 몽클레어(Montclair) 호텔에 방을 하나 잡아 주었다.

421) 하와이 진주만 포드 섬(Ford Island)에 있는 미군기지이다.

422) 이승만은 이날부터 자주 프란체스카 도너(Francesca Donner)를 'Fanny', 'Fany', 'Fanie', 'Fannie'라고 불렀다.

423) 1881년생. 1921년 이래 이승만과 친분을 유지하며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424) 앤지 김벌랜드의 부군인 H. Maynard Kimberland이다.

택시를 잡아타고 그 위에 짐을 얹고 몽클레어 호텔로 갔다. 김벌랜드 부부는 몽클레어 호텔에 머물고 있고, 나는 여전히 인터내셔널 하우스 부근의 클레몽 클럽(Clairmont Club)에 묵고 있다.

저녁 무렵에 우리는 남궁염의 자택으로 갔다. 남궁염 부인이 화니와 나를 버틀러 홀(Butler Hall)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 우리는 식사를 하며 우리의 결혼 문제를 상의했다.

10월 5일

우리는 김벌랜드 부인과 함께 시청으로 가서 결혼 허가증을 발급받았다.

10월 6일

우리는 남궁염 부인과 함께 메이시(Macy's) 백화점으로 갔다. 나는 반지를 하나 샀고, 화니는 베일을 하나 샀다.

10월 7일

일요일, 우리 둘은 『화 이스턴 매거진(Far Eastern Magazine)』 사무실에서 호놀룰루의 동지회 간부 안현경에게 장문의 편지를 한 통 보냈다. 그리고 한인기독교학원(Korean Christian Institute)의 김노디 교장에게도 우리들의 결혼 계획을 상세히 적은 편지를 보냈다.

10월 8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에 우리는 몽클레어 호텔 기념 홀에서 결혼을 했다. 존 하인즈 홈스(John Haynes Holmes)⁴²⁵ 목사와 윤병구(尹炳求) 목사가 주례를 섰다. 김벌랜드 부인과 남궁염 부인이 신부 들러리를 섰고, 김벌랜드 대령과 레이머(Reimer) 목사, 프린스턴 대학 옛 친구들이 신랑의 들러리가 되어 주었다. 미국인, 중국인, 한국인 친구가 모두 와서 방명

425) 생몰은 1879-1964년. 유니테리언교의 목사이자 평화주의자이다. 전미흑인지위향상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와 미국자유인권협회(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공동 설립자로 소련 볼셰비키 혁명을 지지하고, 제1,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반전 입장을 견지하여 미국에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약소민족의 재결권을 옹호하는 소약속국동맹회의 후원자로 알려졌으며, 이승만은 1919년에 소약속국동맹회 회의에서 홀스를 만났다.

록에 축하의 말을 남겼다.

결혼식이 끝나자 호텔 다이닝 룸으로 가서 피로연을 가졌다. 우리가 식사를 하는 동안 호텔의 오케스트라가 신랑 신부를 위해 결혼행진곡을 연주했다.

10월 9일

오후 3시에 뉴욕을 떠나 오후 6시에 필라델피아에 도착하여 파커 하우스에 투숙했다. 저녁엔 화니와 함께 폭스(Fox) 극장에서 영화를 보았다.

10월 10일

브린 모어 대학(Bryn Mawr College)의 밀러(Rudolph A. Miller) 박사 부부를 만나 그의 자택에서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우리 부부에게 캠퍼스를 구경시켜 주었다. 우리는 펜실베이니아 주 미디어(Media)의 서재필 부부와 체스터(Chester)의 박범구 박사 집을 방문했다.

10월 11일

오전 10시경에 워싱턴을 향해 길을 떠나 오후 6시쯤 도착했다. 파크사이드 호텔 202호에 투숙했다. 저녁 무렵엔 의사당 주변을 둘러보며 드라이브를 즐겼고, 중국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다.

10월 12일

아침에 혼백을 만나러 국무성으로 갔으나 자리에 없었다. 이민국의 코틀러 국장에게 비자 문제를 잘 처리해 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우리 부부는 존 스태거스, 드루 피어슨, 제이 제롬 윌리엄스에게 줄 선물을 샀다.

링컨 기념관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윤치영 부부에게 들렀고, 오후에는 윤홍섭을 만났다.

10월 13일

오후에 버지니아 주 체리데일(Cherrydale)의 제이 제롬 윌리엄스의 집을 방문했다.
드루 피어슨과 프린스 윤(Prince Yoon)⁴²⁶ 부부에게도 들렀다.

10월 14일

윤홍섭 부인(한유상)과 우리 부부는 마운트 버넌(Mount Vernon)의 조지 워싱턴 생가로 갔으나 그곳은 닫혀 있었다. 그리하여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념비가 있는 알렉산드리아로 차를 몰고 갔다.

10월 15일

오후에 버니(Birnie) 여사⁴²⁷ 자택을 방문.

10월 16일

오전 10시에 뉴욕을 향해 워싱턴 출발. 뉴 포트(New Port)에서 페리호를 타고 윤병구 목사를 만나기 위해 앨런타운(Allentown)을 경유하는 25번 루트를 탐. 밤 10시경에 뉴욕에 도착 클레몽 호텔 319호에 투숙.

10월 20일

『Orient(極東雜誌)』 제2호가 나옴.

10월 21일

『Orient』는 「한국인과 필리핀인」이란 제호의 기사 때문에 다시 인쇄를 해야만 했음.
신병으로 누워 있는 편집장 찰스 러셀 박사에게 병문안을 감.

426) 윤홍섭의 누이동생이 순종황제의 황후인 순정효황후 윤 씨(1894-1966)이다. 이 때문에 윤홍섭을 'Prince Yoon'으로 부른 것이다.

427) 하와이 호놀룰루 연합교회(Union Church)의 목사를 지낸 버니(Douglas Putnam Birnie) 목사의 부인이다.

10월 23일

우리는 호놀룰루로부터 결혼 축하 전보를 받음. 아내를 뉴욕에 남겨 놓고 우선 나 홀로 호놀룰루로 오라고 함.

10월 25일

호놀룰루에서 다시 나 혼자 오라고 함.

『Orient』 재발간본이 나와서 우편으로 발송.

11월 2일

오전 9시 30분에 뉴욕을 출발하여 뉴욕 도선장을 가로질러 갔다. 하이웨이 9번을 타고 허드슨 강을 따라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며 달렸다. 킹스턴(Kingston)에서 점심을 먹느라 잠시 멈추었다. 오후 3시 30분쯤 알바니(Albany)를 지나 4시에 트로이(Troy)에 도착하여 트로이잔 호텔에 투숙하고 안(安), 김(金)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

11월 3일

오전 8시 30분에 안, 김과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트로이를 출발했다. 아름다운 호수들을 지나 워터루(Waterloo)에 도착하여 로체스터(Rochester)로 가는 도로를 탔다. 8시 30분에 나이아가라 폴스(Niagara Falls) 시에 도착. 잠은 민가에서 잤다.

11월 4일

오후에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았다. 내가 여권을 분실한 탓에 캐나다를 경유하여 디트로이트(Detroit)로 갈 수가 없었다.

오후 1시 30분에 이리(Erie)를 향해 길을 떠났으나 도중에 심한 비바람을 만났다. 5번 루트를 타고 해변을 달려 5시 30분에 이리(Erie)에 도착했다. 하이웨이 20에 있는 조그만 여인숙(Town Inn)에서 묵었다.

11월 5일

오전 7시 30분에 하이웨이 20을 타고 달리자 11시경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를 지나갔다. 하이웨이 2번을 타고 가다가 150번가에서 베이 브리지(Bay Bridge)를 건너 오후 4시에 톨레도(Toledo)⁴²⁸에 도착했다. 하이웨이 25번을 따라 내려가자 6시 30분쯤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에 도착했다. 그랜우드(Granwood) 호텔에서 짐을 풀었다.

11월 6일

안재창 집에서 점심을 먹고 조대홍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식사 후 중국인 지도자들과 회동하였다.

11월 7일

안재창 집에서 아침과 점심을 먹었다. 저녁엔 디트로이트의 유지들이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우리 부부는 은으로 만든 결혼 선물을 받았다.

11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인디애나 주의 사우스 벤드(South Bend)를 향해 길을 떠났다. 루퍼스(Rufus) 박사를 만나려고 앤 아버(Ann Arbor)에 들렀다. 사우스 벤드에 도착하여 한백선 여사 집에서 묵었다.

11월 9일

오전 10시에 출발하여 오후 1시에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 도착했다. 메트로폴(Metropol) 호텔에서 여장을 풀었다.

저녁엔 김흥기와 남궁택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428) 미국 중북부 오하이오 주 북서부의 항만으로 공업 도시이며, 시카고, 디트로이트, 클리블랜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11월 10일

차를 몰고 오한수 부인과 베네스빌(Benesville)로 가서 몬태나 주에서 이주해 온 한국인 농부들을 만났다. 저녁에는 실(Shill) 여사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우리는 그녀가 잡지 판매에 관심을 가지게끔 환심을 사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11월 11일

오후에 『농업 지도자 요람(Agricultural Leader's Digest)』 출판인 테일러(Estes P. Taylor) 부부의 초대를 받았다.

저녁 7시에 『극동잡지(Far East Magazine)』 문제로 중국인 지도자들과 회동을 가졌다.

11월 12일

저녁에 우리 부부를 위해 한인들이 파고다(Pagoda)에서 디너 파티 개최.

밤 11시에 중국 대사관에서 열린 쑨원[孫文] 박사 탄신 축하연 참석.

11월 13일

저녁 7시에 차이나타운에서 중국인 지도자들과 회동.

11월 16일

오후 1시 30분에 시카고를 출발. 하이웨이 47-52로 오후 5시 20분에 인디애나 주의 인디애나폴리스에 도착하여 링컨 호텔에 투숙. 김흥기와 장기영과 함께 저녁 식사.

11월 17일

비치 그루브(Beech Grove)의 종합병원에서 김영대⁴²⁹⁾ 박사와 점심 식사. 저녁엔 방사겸(方四兼)⁴³⁰⁾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한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11월 18일

오전 9시에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출발. 오전 11시에 테리 호터(Terre Haute)에서 약 13마일(21km)쯤 달렸을 때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침수되었다. 우리가 탄 차도 빗길에 미끄러져 선회하며 뒷바퀴가 고장이 났다. 다음 마을에서 스페어 휠로 바꾸어 달았다.

오후 2시에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St. Louis)를 향해 다시 출발. 미국자동차협회(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가 운영하는 야영장에 멈춤.

11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캔자스 주의 캔자스 시를 향해 출발. 분빌(Boonville)에서 점심 식사. 목적지에 도착하기 직전 강풍과 폭우를 만남. 오후 6시경 도착, 프린스턴 호텔에 투숙.

11월 20일

화이어스톤(Firestone) 정비소에서 차를 수리하고 타이어도 2개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5시 30분에 하이웨이 66번을 타고 해리스빌(Harrisville)로 향함.

11월 21일

오전 7시 30분, 오클라호마 주 툴사(Tulsa)를 향해 길을 떠났다. 고약한 비바람을 만났다. 도로가 매우 위험했다.

429) 생물은 1923-1925년. 미국 일리노이 주 에반스톤에 위치한 노스웨스턴(Northwestern) 대학교를 다녔다.

430) 생물은 1881-1955년. 1904년 하와이로 이민하여 1905년 미주 한인 교육 진흥단체인 대동교육회에 참여하였고, 1907년 새크라멘토에서 대동보국회 지방회를 세우고 솔트레이크시티 등지에 대동보국회 경찰소를 설치하였다. 1910년 국민회와 대동보국회가 합쳐 대한인국민회를 결성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1923년 시카고 등지에서 한국독립연구회를 창립하여 간사로 활동하고, 1931년 이후 「신한민보」 등에 사설을 게재하여 재미한인의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11월 22일

오전 7시에 툴사를 출발, 하이웨이 66번을 타고 오클라호마 시로 향했다. 오전 10시 30분에 도착하여 11시에 다시 길을 떠나 오후 6시 30분쯤 텍사스 주 포트워스(Fort Worth)에 도착. 하이웨이 80번상에 있는 락웨이 코트(Rockway Court)에서 밤을 지냈다. 오늘은 407마일(655km)이나 달려 자동차 야영장에서 밤을 보내게 되었다.

11월 23일

오전 7시에 텍사스 주 페코스(Pecos)를 향해 길을 떠났다. 텍사스는 나무들이 울창하여 아열대성 밀림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우리는 409마일(658km)을 달려 밤 11시에 페코스 야영장에 도착했다.

11월 24일

오전 7시에 페코스를 출발하여 돌사막을 가로질러 몇 시간을 계속 달렸다. 켄트(Kent)를 지나자 다시 높은 산들이 나타났고 아열대 지방의 밀림과 같이 울창한 나무들이 무리지어 있었다.

오후 2시쯤, 멕시코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엘 파소(El Paso)⁴³¹⁾에 도착. 이곳은 표준시도 달라서 마운틴 타임(Mountain Time)으로 시간을 맞추었다. 또다시 뉴멕시코 주의 라스 크루세스(Las Cruces)를 향해 데닝(Denning)으로 계속 달렸다. 사막을 건너다가 끔찍한 모래 폭풍을 만나기도 했다. 사막 속을 300마일(483km)이나 달린 끝에 오후 7시에 마침내 데닝 야영장에 도착했다.

11월 25일

오전 7시 10분, 애리조나 주 피닉스(Phoenix)를 향해 길을 떠났다. 멋진 드라이브 길이었다. 오후 6시쯤 피닉스에 도착하여 아담(Adam)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431) 미국 텍사스 주 서부의 국경에 위치한 고원 도시이다.

11월 29일

노던(Northern) 호텔로 숙소를 옮겨 전호택 여사와 추수감사절 만찬을 함께했다. 한인 교회의 예배도 참석.

11월 30일

김용중의 부인과 저녁 식사를 했다. 오후 8시에 감리교회에서 우리를 환영하는 리셉션이 있었다.

12월 1일

중국의 장파쿠이[張發奎]⁴³²⁾ 장군 내외와 헐리우드 루즈벨트 호텔에서 점심 식사를 했고, 김용중 부인과 저녁을 함께했다.

오후 6시에 우리 부부를 위한 연회에 참석했다.

12월 3일

캘리포니아 주 리들리(Reedley)에서 온 김형순 부인과 조찬을 함께했다.

12월 4일

오후 4시 20분,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밤 10시경에 리드에 도착했다. 위니스 호텔에 투숙했다.

12월 5일

저녁 7시 30분, 다뉴바(Dinuba)의 한인 교회(이살음 목사)에서 리셉션이 있었다.

12월 6일

상하이 카페(Shanghai Cafe)에서 우리를 위한 연회가 있었다.

432) 생몰은 1896-1980년. 중국 국민당의 장성이다.

12월 7일

오전 9시에 캘리포니아 주 오클랜드(Oakland)를 향해 길을 떠나 오후 3시에 도착하여 성 마르코 호텔에 투숙했다. 저녁 8시에 연회에 참석하여 한인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12월 8일

오전 10시 30분, 오클랜드를 출발하여 페리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중국 영사관에 들렀다가 차이나타운 부근의 워싱턴 호텔에 투숙했다.

시카고에서 받은 150불을 뉴욕으로 송금했다.

12월 9일

오후에 전차를 타고 바닷가로 갔다. 오후 6시에 백일규 부인과 저녁을 먹었다.

12월 10일

차이정케이[蔡廷楷]⁴³³⁾ 장군이 새크라멘토(sacramento)로 떠나기 전에 잠시 그 장군을 방문했다. 그는 유명한 19로군(路軍)을 이끌고 침략자 일본군과 상해에서 격전을 벌인 인물이다.

12월 13일

김형순이 리들리(Reedley)로 돌아감.

12월 14일

저녁 7시 30분, 기독교인자선협회(Christian Benevolent Association)에서 모임 개최.

433) 생몰은 1892-1968년. 북벌전쟁, 중일전쟁 등 수많은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1932년 중일 양국군이 충돌한 상하이 전투 때 중국 19로군을 총지휘하여 1개월간 격전을 치러 항일 영웅으로 유명해졌다. 상하이 전투 후 국공합작을 주장하며 반장제스 활동을 벌이다가 1934년에 도미하였으며, 이듬해 귀국하여 실권 없는 명예직을 맡다가 국공내전 말기에 공산 측으로 전향하고 한국전쟁 때는 항미원조위원회 상무위원을 역임하였다.

12월 15일

크리스마스카드 작성.

12월 20일

페리를 타고 오클랜드로 갔다가 당일로 돌아옴.

12월 22일

부시(Bush) 가와 스탭튼(Stockton) 가에 있는 빅토리아 호텔로 숙소를 옮김.

12월 25일

저녁 8시에 한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

12월 26일

버클리 대학의 맥로히(Vaughan MacCaughey) 교수 부부와 저녁 식사.

12월 28일

맥클래치(V. S. McClatchy)⁴³⁴와 점심 식사. 오후 4시에 장발규 장군과 회동. 그 후 기사에 관해 「클로니클(Chronicle)」 신문의 편집장 로웰(Chester H. Rowell)⁴³⁵을 만남.

434)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활동하던 언론인으로 1919년 동양 시찰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접촉하였으며, 이승만의 구미위원부 활동을 측면에서 지원하였다.

435) 생몰은 1867~1948년. 1932~1939년간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San Francisco Chronicle)』의 편집자로 태평양문제연구회의 회원이자 국제연맹의 강력한 지지자이다.

CHAPTER 4

1944~
~1944

CHAPTER 4

1944년

1월 5일(수요일)

뉴스위크 페리스코프(Newswirk Periscope)⁴³⁶가 전화로 다음과 같은 보고를 했다. “미국과 영국의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승인은 프랑스해방위원회(French Liberation Committee)를 승인한 것과 같이 조만간 제한된 형태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임. 우연찮게도 일본인들에 대한 한인들의 저항운동이 카이로선언(Cairo Declaration) 이후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이후로 배가되고 있음.”

1월 18일(수요일)

오후 2시에 워싱턴을 떠나 오후 5시 20분, 펜실베이니아 주의 노리스타운(Norristown) 도착. 데이비스(Louis J. Davis)가 마중 나와 나를 자신의 멋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후 그와 함께 밸리 포즈(Valley Forge) 호텔로 가서 윌리엄(William Hendrickson), 스마일리(Smillie) 시장, 지방 검사, 그밖에 지인들과 식사를 했다. 에반스(Benjamin J. Evans)는 10년간 상공회의소 소장직을 맡고 있다.

9시에는 유대인공동체센터(Jewish Community Center) 기숙사(B'nai B'rith Lodge)⁴³⁷에서 연설을 했다. 밤 11시 50분에 필라델피아에 도착하여 새벽 2시 20분까지 워싱턴으로 가는 콩나물시루 같은 만원 열차를 역에서 기다렸다. 다음 날 19일 새벽 5시 30분에 숙소로 돌아왔다.

436) 미국의 주간 잡지 『뉴스위크(Newswirk)』에서 큰 인기를 얻은 장수 칼럼이다.

437) B'nai B'rith는 히브리어로 '계약의 자손(the sons of the Covenant)'이라는 의미이다.

1월 19일(목요일)

오후 6시 30분, 화니(Fanny)⁴³⁸가 나를 차로 유니언 역까지 태워다 주었다. 워싱턴발 애쉬랜드(Ashland) 열차로 워싱턴을 출발했다. 사라 파크(Sara Park)⁴³⁹, 더글러스 중위(Lt. Douglass)와 정운수(鄭雲樹)⁴⁴⁰ 중위도 같은 기차를 탔다. 나는 잠자리에 들어 잠을 청했다.

1월 20일(금요일)

오전 8시경, 오하이오 주 맨스필드에 도착했다.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장기영과 이순용 그리고 제복을 입은 ‘소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애쉬랜드로 가서 죠셉 음식점으로 갔다. 길가엔 성조기가 휘날리고 있고, ‘한국인 환영(Welcome Koreans)’이라고 쓰인 깃발이 대로변을 따라 걸려 있었다. 태극기도 사방에서 나부끼고 있었다.⁴⁴¹

우리는 임정 승인 촉구대회(Korean Recognition Conference) 본부인 상공회의소 건물로 갔다. 주요 인사들과 할러(Haller) 시장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 도시는 이제 전적으로 당신들의 것.”이라고 말했다. “감방 열쇠와 경찰관 배지는 모두 압수되었으니 대회가 열리는 동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다.”고도 했다.

더글러스(Paul F. Douglass) 박사⁴⁴², 스태거스, 윌리엄스와 나는 마이어(John C. Myer)⁴⁴³의 자택으로 갔다. 더글러스와 정운수, 피치(George A. Fitch) 부인⁴⁴⁴, 사라 파

438) 프란체스카 도너(Franziska Donner) 여사이다.

439) 이승만의 후원자인 윌리엄스(J. J. Williams)가 운영하는 INS통신사의 기자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INS통신사 서울 주재 특파원을 역임하였다.

440) 생물은 1903-1986년. 1926년 연희전문 재학 중 6·10만세운동에 가담하였고, 그 뒤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 대학 신학교에서 수학한 후 대한인동지회와 교민회에 가담하였다. 1942년부터 주미외교위원부 서기로서 이승만을 도와 신임을 얻었고, 1944년 미 공군소위로 임관되어 중국·버마·인도 전투구 항공대에서 항일전을 준비하였다. 한미합작으로 유격대를 훈련하라는 미 국방성의 지시를 받고 광복군의 통신교육을 담당하였다.

441) 1944년 1월 21~22일 양일간 미국 오하이오 주 애쉬랜드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연합국의 일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임정 승인 촉구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의 일부는 mutual radio Network를 통해 미 전역에 방송되고, 대회의 연설 몇 점은 『The Congressional Record』에 수록되었다.

442) 생물은 1905-1988년. 언론인 겸 목사로 1941~1952년 워싱턴의 아메리칸 대학의 총장을 역임하였다. 1952~1955년 이승만의 고문을 지냈다.

443) 미국의 양수기 주요 생산 회사인 F.E. Myer and Brother의 사장이다.

444) 생물은 1892-1976년. 중국과 한국에서 활동한 피치 선교사의 부인인 Geraldine Townsend Fitch. 1940년대에 미국인의 한국 독립 지원을 촉구하는 논설을 여러 편 발표하고, 1942년 한인자유대회(the Korean Liberty Conference)에서 연설하였으며, 이승만 후원단체인 한미협회 전국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다.

크, 앵글스(Engles) 부인과 조안남궁⁴⁴⁵⁾은 대회가 개최되는 동안 마이어(Guy Myer) 여사 집에서 묵었다.

2월 4일(금요일)

중화제국[Chinese Empire]의 정보장관 류치에(Liu Chieh)⁴⁴⁶⁾ 박사는 나를 위해 전 러시아주재 중국대사 장팅푸[蔣廷黻]⁴⁴⁷⁾와 토요일 오후 4시에 회동을 주선했다.

2월 5일(토요일)

오후 4시에 와드맨 파크 호텔로 갔다. 류 박사가 와서 함께 291호로 올라갔다. 장팅푸 박사의 비서 시아(Shia)가 우리를 맞으며 들어오라고 했다. 나는 장 박사가 연설에서 한국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카이로선언에서 장제스 총통의 역할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명했다. 그는 유엔이 한국인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것보다 한국이 자유롭고 독립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는 자신의 연설문을 보여 주었다.

장 박사가 한국인 중에서 충칭[重慶]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여 조소앙이 그곳에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다. 내가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그는 “우리가 도울 것.”이라고 대답했다. 내가 미국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자 얼마나 했냐고 되물어 약간의 금액이라고 답하며 계획서를 그에게 보내겠다고 했다.

445) 남궁염의 부인이자 독립운동가 우흥태의 딸인 우복자로 미국명은 Joan Woo이다.

446) 생물은 1905~1991년. 워싱턴 근교의 Dumbarton Oaks와 서부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국제연합 창설을 위한 국제제비회담의 중국대표를 맡았고, 1962~1971년 국제연합 자유중국 종신대표로서 때때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을 맡았다.

447) 생물은 1895~1965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 취득 후 귀국하여 난카이[南開] 대학, 칭화[淸華] 대학 교수로 역임하였다. 후스[胡適]와 『독립평론』을 창간하였으며, 1936년 국민당 정부 행정원 정무처장, 주소련대사, 1948년 국제연합 중국대표로서 국제연합 총회 정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월 8일(화요일)

스태거스, 윌리엄스, 이(Rhee) 여사⁴⁴⁸⁾가 한미협회(The Korean-American Council)⁴⁴⁹⁾의 공식 이사회 모임을 개최하였다. 이 박사⁴⁵⁰⁾도 의장의 자격으로 스태거스와 함께 참석했다. 현재 보유 중인 1,400불의 한미협회 기금 운용과 정규직 비서를 둔 별개의 사무실 설립에 관한 조치가 취해졌다. 지금까지 기금 부족 때문에 주미외교위원부와 기독교인친한회(The Christian Friends of Korea)⁴⁵¹⁾가 함께 결합되어 운영되었으나 지금부터는 약간의 기금이 마련되어 분리될 예정이다.

2월 10일(목요일)

중국 대사관의 류치에(Liu Chieh) 대사는 내가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왕시치에(Wang Shih-Chieh) 박사와 약속을 잡아 놓았다. 왕 박사는 충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쇼어햄(The Omni Shoreham)⁴⁵²⁾에 머문 중국의 대영우호단(Chinese good will mission to Great Britain)을 이끌고 있었는데, 전적으로 한국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신 꾸러미를 가지고 갔는데 한 통은 김구(金九)⁴⁵³⁾에게, 다른 한 통은 조소앙 앞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의 일행에는 뉴우안밍(Neu Yuan Ming)과 한리우(Han Li-Wu)가 포함되어 있었다.

448)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이다.

449) 1942년에 이승만, 윌리엄스(Jay Jerome Williams), 스태거스(John Staggers), 해리스 목사(the Rev. Frederick Brown Harris) 등이 조직한 친한 로비 선전 단체이다.

450) 이승만이 자신을 이 박사(Dr. Rhee)라고 3인칭으로 표현하였다.

451) 정치활동에 주저하는 기독교 선교사들과 유명 인사들을 상대로 한국 독립 지지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 이승만이 친한적인 의료 종교선교사 에비슨(Oliver R. Avison)의 발의로 1943년에 조직한 로비 선전 단체이다. 1943년 2월경 회장에 아메리칸 대학의 총장 더글러스(Paul F. Douglass), 서기 겸 재무에 에비슨 그리고 연방상원 원목(院牧) 해리스(Frederick B. Harris), 연방대법원 판사 머피(Frank Murphy), 이승만 등이 이사를 맡았다. 미국의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청원활동을 전개하고 대중집회를 개최하였다.

452) 널리 알려진 워싱턴 DC의 호텔이다.

453) 생물은 1876~1949년. 경술국치 이전 동학운동, 의병운동,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1911년 안약사건으로 일제에 체포되어 수감을 생활하였고, 3·1운동 후 임시정부 경무국장, 내무총장, 국무령을 역임하였다. 1932년 이봉창 의거, 윤봉길 의거 등 한인 애국단의 의열투쟁을 총지휘하였으며, 1933년 중국정부의 지원으로 한국인 무관학교를 설치하고, 1940년 민족주의자들의 정당인 한국독립당을 조직하였다. 1941년 임시정부 주석의 자격으로 대일(對日) 선전포고, 8·15광복 후 신탁통치 반대운동 주도, 대한독립촉성중앙협의회 부의장, 민주의원 부의장, 민족통일총본부 부총재 등을 역임하였다. 1948년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에 반대하여 남북협상을 제창하고 북한에 들어가 정치회담을 열었으나 실패하고, 1949년 경교장에서 암살당하였다.

3월 7일 (화요일)

국무부 사무실에서 스탠리 혼백과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그가 국무부 차관보로 임명된 것을 축하해 주었다. 한국에 관한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고 의견을 구했다. 그는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답했다. 나는 왜 한국인들이 제외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공정한 아니든 간에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마찬가지로 날씨도 우리에게 오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나는 날씨는 변화하는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적어도 비가 오는지 해가 오는지는 알 수 있는 것처럼 공정한지 불공정한지는 알지 않느냐고 응수했다. 그는 네덜란드에 주는 것을 한국에 줄 수는 없다고 했다. 나는 우리가 미국이 러시아나 영국에 주는 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단지 차별받는 것을 반대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차별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나는 차별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한국을 제외한 유럽과 아시아의 모든 나라가 유엔에 가입하였다. 어떤 민족은 국적도 없지만 동맹국의 자격으로 모두 가입이 되었다. 국민과 역사와 민족성을 모두 갖춘 한국이 첫 번째로 고려할 대상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는 제외되었다. 만일 한국인이 핀란드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의 적성국(敵性國)들과 손을 잡았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이나 한국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조소앙과 다른 4명은 미국으로 오라는 요청을 받았다. 조소앙은 J & K 부⁴⁵⁴의 새 의장으로 하마평이 있었다.

대화를 마치고 일어섰더니 혼백이 덕코버(Erle Roy Dickover)를 불러 나에게 소개를 시켰다. 그가 나의 요청을 검토한 후 나중에 내게 알려 줄 것이라고 했다.

454) 한일국(韓日局). 미 국무성에 '한일국'은 존재하지 않으며, 아마 이승만이 국무성 극동국(Office of Far Eastern Affairs)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3월 9일 (목요일)

나는 앵글스 양에게 스태거스가 힐스 여사를 계속 그의 사무실에서 일하기를 원하는지 물어보았다. 힐스 여사는 한미협회(KAC)에 새로 온 속기사인데 스태거스는 그녀가 전화를 연결해 주는 일을 하도록 했다. 나는 그녀를 기독교인친한회 사무실로 보내 프라이(Gwendolyn R. Frye) 여사⁴⁵⁵와 일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3월 10일 (금요일)

스타거스는 한미협회와 기독교인친한회의 등록에 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미국 법무부에서 우리가 질의한 내용에 관해 보내온 답신에 의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등록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나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윌리엄스와 나는 앰배서더 호텔의 그의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3월 11일 (토요일)

밤 10시에 뉴욕을 향해 워싱턴을 출발하여 다음 날 오전 8시에 도착했다. 16일 뉴욕 시 리버사이드 드라이브 85-86의 우체피(Woochefee) 대학 민주주의연구소(The Institute of Democracy) 창립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의 우체피 대학 총장 오우사오퐁(Wou Saofong) 박사과 중국의 우체피 대학 총장 리위잉[李石曾]⁴⁵⁶ 교수가 참석 예정이다.

3월 14일 (화요일)

우리 이웃인 히시아오(Hsiao) 대령 부인에게 충칭의 남편에게 전해 달라고 편지 한 통을 건넸다.

455) 1940년대 전반 워싱턴 DC에서 이승만의 비서로 활동하였다.

456) 생몰은 1881-1973년. 본명은 리위잉[李煜瀛]으로 중국 국민당 원로이며, 프랑스에 유학하여 무정부주의를 주창하고 중국혁명동맹회에 가입하여 신해혁명에 가담하였다. 중화민국 수립 후 유법검학회를 조직하여 중국 학생의 프랑스 유학을 돕고, 북경대학 교수, 중법(中法)대학 학장, 북평(北平)연구원 원장, 국립 고궁박물관 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1924~1950년 국민당 중앙감찰위원으로 항일항전 시기에 구미에서 외교 활동을 전개하고, 총통부의 자정(資政), 국민당 중앙평의원 등을 역임하였다.

3월 15일 (수요일)

오우사오폭 박사가 총장인 리버사이드 드라이브 85-86의 미국 우체피 대학의 민주주의 연구소 창립식에 참석하기 위해 밤 10시에 뉴욕을 출발했다. 우체피 대학은 리위잉 교수가 총장인 중국 대학의 미국 분교이다. 리 박사는 쑨원과 함께 중화민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이다. 장제스 부인 송메이링[宋美齡]⁴⁵⁷은 그녀가 미국에 있을 때 리 박사야말로 유일한 신사라고 선언했다. 1940년 유럽에서 왔을 때, 그는 비서 린(Lin) 여사와 함께 사전 통보나 약속도 없이 우리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3월 16일 (목요일)

오전 8시에 뉴욕 시에 도착하여 코모도어 호텔 914호실에 투숙했다.

오전 10시 반에 언더우드(Horace H. Underwood)⁴⁵⁸ 박사가 와서 정오가 지나서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용진과 나는 89번가와 브로드웨이에 있는 중국 식당 한영(Han Young)으로 갔다. 그곳에서 민주주의연구소는 성대한 오찬을 베풀었다. 귀빈 100여 명이 참석했다. 리위잉 박사와 관계자들이 우리를 환영했고 뉴욕 대학의 페인(E. George Pane) 학장, 프랑스 대사,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 유 박사 등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우리를 안내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81번가와 리버사이드 드라이브(Riverside Drive)에 소재한 민주주의연구소를 둘러보았다. 그 집은 학교를 위해 구입한 것이어서 그곳에서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나도 연사 중 하나였다. 식이 끝난 후 우리는 리 박사, 마담 장징장[張靜江]⁴⁵⁹(역시 중화민국 건국 공로자의 일원이다), 오우사오폭 여사, 등과 사진을 찍었다.

빌하임(Wilhelm), 최용진과 함께 러시아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457) 생몰은 1897-2003년. 절강성 재벌 송 씨가의 세 자매 중 막내로 미국 웨슬리 대학을 졸업하고, 장제스와 결혼 후 그의 통역을 지내며 대미관계 조정에 수완을 발휘하였다. 중일전쟁 중 카이로 회담에 장제스를 수행하고, 1946년에 국민당 중앙집행 위원, 1950년 이후 중국부녀반공항아(婦女反共抗俄) 연합회장, 항일전과 공산당과의 내전 중에 미국 각지를 돌며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유세하고, 1975년 이래 미국에 살며 자유중국과 미국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활약하였다.
458) 생몰은 1890-1951년. 연희전문 설립자인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의 아들로 2대에 걸쳐 한국에서 선교사 겸 교육가로 활동하였다.
459) 생몰은 1877-1950년. 중국 근대기의 상인이자 정치가로 쑨원과 장제스의 재정 후원자이며, 차이위안페이[蔡元培], 우즈후이[吳稚暉], 리스청[李石曾]과 더불어 '국민당 4대 원로'로 일컬어진다.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위원회 주석을 역임하였다.

3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브루노 쇼(Bruno Shaw)⁴⁶⁰가 나를 보러 호텔로 왔다. 사진사 두 명을 대동하고 와서 내 사진을 찍어 갔다.

에드 페리시(Ed Parish)가 점심 식사를 하자고 나를 찾아왔다. 그러나 잡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느라 시간이 너무 늦어 버려 이야기를 다 마치고 식사는 다음에 하기로 했다. 나는 1시 55분에 프린스턴을 향해 뉴욕을 출발했다.

오후 3시 30분, 프린스턴에 도착하여 프린스턴 여인숙(Princeton Inn) 232호실에 투숙했다. 트리니티 낫소(Trinity Nassau) 빌딩으로 가서 슬라이(John F. Sly)⁴⁶¹ 교수와 카펜터(William S. Carpenter)⁴⁶² 박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 헌트 스쿨(Hunt School) 건물로 갔다. 그곳에는 채닝 임(Channing Liem, 林昌榮)⁴⁶³ 교수와 가족이 살고 있다. 임 여사와 자녀들은 집에 있었으나 임창영은 뉴욕에 가고 없었다. 그는 저녁 7시에 돌아온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러 오라고 했다. 그러나 예정 시간까지 오지 않아서 나 혼자 식사를 했다. 저녁 늦게 내외가 와서 자정까지 이야기를 했다.

3월 17일 (금요일)⁴⁶⁴

프린스턴 시 투엔티 나소(Twenty Nassau)의 슬라이 교수 사무실에서 나는 전후 총선거 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슬라이 교수에게 미국무부와 중국대사관에 서신을 보냈다고 말했다. 중국

460) 생몰은 1895-1984년. 중국 문제에 정통한 미국 언론인으로 「The Hankow Herald」 및 「The Trans-Pacific News Service」 설립자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 정부의 선전기관인 전시정보국(the Office of War Information)의 극동부에서 근무하였다.

461) 생몰은 1893-1965년. 1936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1940년부터 1961년까지 프린스턴 대학 정치학과 교수를 역임하여 '미국정치론'을 강의하였다. 교수 재직 시 웨스트버지니아 주와 뉴저지 주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 또 라이베리아공화국 몬로비아 자유항의 조세제도를 연구한 공으로 라이베리아 정부로부터 '아프리카의 별'이라는 훈장을 수여받았다.

462) 1890년생, 프린스턴 대학 교수이다.

463) 생몰은 1909-1996년. 1933년 평양 숭실학교 졸업 후 도미하여 1935년까지 뉴욕 한인교회 목사로 시무하고, 1938년 프린스턴 대학 졸업 후 오하이오 주 미스킹엄 대학 정치학과 주임교수를 거쳐 프린스턴 대학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1938년 뉴욕한인연합중국후원회 회원, 1944년 이승만의 주미외교위원부 교육부 부장을 거쳐 1945년 샌프란시스코 회의 때에 이승만을 도와 독립활동을 전개하였다. 광복 후 서재필의 개인 비서로 있다가 1949년 서재필을 따라 다시 도미하여 이승만정권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4·19 혁명 직후 유엔주재 한국대사를 역임하였으며, 1961~1978년 뉴욕 주립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반독재, 민주통일운동을 전개하였다.

464) 1944년 3월 17일자 일기가 두 개이다.

대사관은 호의적인 회신을 보내왔고 미국무부는 회신을 보냈다고 말했으나 우리 측은 아직 받은 바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일본국 국장 디코버(Dickover)가 슬라이 교수가 법무부에 등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했다고 전했다. 슬라이 교수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프린스턴의 독립 한국을 위한 미국위원회(American Committee for Independent Korea)의 창설에 관해 잘 모르고 있다. 카펜터 교수는 자기가 그 위원회 회원이라고 시인했다. 나는 카펜터 교수에게 더글러스 박사와 내가 한국 청년들이 프린스턴에 와서 다양한 훈련을 받도록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저녁에는 채닝 임(Channing Liehm)과 그 문제에 관해 이야기했고, 독립 한국을 위한 프린스턴 위원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므로 한국독립위원회와 헌법 및 선거 프로그램 위원회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3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워싱턴에 도착했다.

프린스턴에 있는 동안 임창영 박사와 나는 여러 사람과 인터뷰를 하였다.

프린스턴에서 만난 친구들: 윌리엄 카펜터(William Carpenter) 정치학 과장 및 프린스턴 서베이스 이사, 루터 아니젠하트(Luther P. Eisenhart) 대학원장, 존 맥케이(John Mackay) 프린스턴 신학대학장 부부, 코윈(Corwin) 박사 부부, 아인슈타인(Albert Einstein) 박사.

그가 독일 속담 하나를 소개했다.

영어로 번역하면 ‘편안한 삶이란 숨어서 조용한 삶을 사는 것이다(He who lives a good life, lives hidden)’.

스와니(Swani) 부인이 역으로 나를 전송 나눔.

3월 22일 (수요일)

노스웨스트가 16의 집을 매입하기로 함.

3월 25일 (토요일)

스토리사의 루이스(Lewis) 여사가 마침내 우리가 제시한 2만 8,500불의 가격으로 16번가의 4700 집을 윌킨슨(Wilkinson) 박사와 계약하기로 했다.

4월 12일 (수요일)

정한경(DeYoung) 박사가 나와 이원순(李元淳)⁴⁶⁵과 셋이서 황사용(黃思溶) 목사⁴⁶⁶를 만나자고 했다. 나는 그러겠다고 하고 사무실로 갔다. 그는 내가 왜 황 목사를 만나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그러자 황 목사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워싱턴에 살고 있는 한인 대부분을 만나 보았는데 그들의 공관에 의사부(議事部)가 없으니 주미외교위원부(Korean Commission) 내에 그와 같은 부서를 조직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모두가 원한다면 나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원순은 위원부가 더 낫겠다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좀 더 생각해 보라고 말했다.

4월 21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이원순 내외와 임병직이 배석한 가운데 정한경 박사를 만났다. 나는 프린스턴 대학의 슬라이(Sly) 박사를 대한민국의 헌법과 선거 방식에 관한 전후(戰後) 프로그램(postwar program)을 준비하기 위한, 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미국인 고문으로 임명하는 건에 관해 설명했다. 헌법과 선거 방식은 한인총회에 제출하여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플라이(Fry) 여사의 금월 보수 168불은 기독교인친한회가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주미외

465) 생몰은 1890-1993년. 배재학당을 거쳐 관립외국어학교 영어과와 1914년 보성전문학교 법과를 졸업하고, 1910년 YMCA에서 영문타자를 습득하던 중 이승만과 친분을 맺었다. 1914년 미국 하와이로 망명하여 1919년 대한독립단 회장, 1929년 대한인동지회 회장, 미주 하와이태평양주보 주필, 하와이 YMCA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193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미 행사위원, 194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위원, 1947년 한인인민위원회 위원장, 1949년 대한상공회의소 주미 대표, 한미협회를 창설하여 초대 회장을 지냈다.

466) 1881년생. 1903년 노동이민으로 하와이로 와 1905년 샌프란시스코로 이거하여 공립협회에 가입하고, 민찬호와 중가주 지역 순회교역자로 활동하였다. 1909년 방화중과 함께 대한인국민회 멕시코 순방위원을 지냈으며, 1910년 이후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장, 중앙총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1914년부터 남캘리포니아 순회목사로서 오클랜드 한인감리교회 목사, 하와이 제일한인감리교회 제6대 감리사, LA한인감리교회 담임 목사로서 민족 종교활동과 교육활동에 힘썼으며, 1919년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의 하와이 특파원, 1942년 미국의소리 한국어 방송 담당, 1944년 주미외교부 협찬회 서기, 1945년 샌프란시스코회의 한국대표단(단장 이승만) 단원을 지냈다.

교위원부가 지불해야 한다. 135불의 사무실 임대료는 기독교인 친구들이 지불해 왔으나 24일 16번가로 이사를 갈 예정이어서 플라이 여사는 콜롬비안 빌딩의 새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고 임대료는 주미외교위원부가 지불하기로 했다.

호놀룰루와 호나우난(Honaunau)에서 온 두 통의 편지가 제기한 질문과 2월과 3월 웨스턴 유니온(Western Union)의 청구서 미납 문제를 의논했다.

4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임병직을 데리고 국무부로 가서 그를 디코버(Dickover)와 아모스(Amos)에게 소개시켰다. 우리는 조소앙의 입국 허용 신청과 기타 문제점들을 논의했다. 그는 정부 내의 조직과 문제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사관은 나의 전보 등을 보여 주면서 두 명이 입국 신청을 했다는 답장을 보냈다. 그러나 여전히 비자 발급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편상으로는 별 다른 거부 사항은 보이지 않았다.

프린스턴(The Princeton)은 한국 기술자들을 훈련시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국제연합구제부흥기구(United Nations Relief and Rehabilitation Administration:UNRRA)⁴⁶⁷에서 한국을 대표할 사람을 요청했다.

출판업자 슈너퍼(Morris B. Schnepfer)⁴⁶⁸에게 올리버(Robert T. Oliver)⁴⁶⁹ 박사의 책⁴⁷⁰에 들어갈 서문을 보냈다.

조소앙과 함께 입국하길 원하는 충칭의 융(David Yung)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467) 1943년 11월 9일 창건된 국제연합 산하기구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광범위한 사회복지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44개국의 합의로 설립된 기구로 주요 업무는 식량, 의류, 연료, 거주지, 의약품과 같은 구제물자의 배급이다. 전문요원에 의한 구제사업, 농업·경제 부흥원조, 난민들의 보호와 본국 송환을 위한 수용소의 인력, 식량 등의 제공을 담당하였다. 1947년에 활동이 정지되고, 관련 업무가 국제난민기구, 세계보건기구, 국제연합아동긴급기금(지금의 국제연합아동기금)에 이관되었다.

468) 미국 워싱턴의 「Public Affairs Press」의 발행인 겸 소유주이다.

469) 생몰은 1909~2000년. 미국 위스콘신 대학 박사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시라큐스 대학 교수를 역임하였다. 1942년 미국 전시식량국 식량보관소장 재직 시 이승만을 처음 만나 인연을 맺었으며, 언론, 홍보, 집필 활동을 통해 일제의 식민 통치를 규탄하고, 미국정부와 여론에 한국 지지 촉구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승만의 측근 고문 중 한 사람이며 이승만 전기 집필자이다. 1946~1960년 이승만의 국제정치 고문을 역임하며 대한민국의 정부수립과 대미외교 구축에 기여하였고, 한일회담, 제네바회담 등 국제회의에 한국 측 자문위원과 대표를 역임하였다. 미국 내 대표적인 지한파 지식인이다.

470) 올리버(Robert T. Oliver)가 1944년에 이승만의 서문을 붙여 미국 워싱턴의 Public Affairs Press에서 출판한 「Korea: Forgotten Nation, 「잊혀진 나라 한국」이다.

4월 23일 (일요일)

미국 우정국의 노스(North)가 한국에 헌정될 새 우표⁴⁷¹가 발행될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나는 태극기가 좋은 디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길수(韓吉洙)⁴⁷²가 여러 한인과 미국인에게 우정국의 피터 펠러(Feller)인지 필러(Philer)인지 하는 사람이 그에게 우표 발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문의했다는 내용의 회람을 돌렸다.

4월 24일 (월요일)

화니와 나는 호바트(Hobart) 가(街) 1766의 집을 비워 주고 좀 더 넓은 노스웨스트 가 16으로 이사를 했다. 월킨슨 박사 내외가 이 집을 지어 줄곧 이곳에서 살았다. 하지만 월킨슨 박사는 병이 들었고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여 따로 살기 때문에 월킨슨 부인에게는 이 집이 너무 크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들은 이 집을 처분하기로 했으나 막상 집이 매매가 되자 그녀는 너무나 슬퍼했다.

4월 25일 (화요일)

호바트 가에서 노스웨스트 가로 이사를 하느라 하루 종일 분주했다.

4월 27일 (목요일)

이삿짐을 꾸리고 다시 푸느라 하루 종일 씨름했다. 물건을 제자리에 옮기느라 내내 일손이 바빴다. 이사를 결정한 후 오늘 입주하는 날이 나에겐 처음으로 이 집에 온 날이다. 스태거스가 플로리다에서 돌아와서 나는 그의 사무실에 들렀다.

471) 1944년에 미국 우정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유를 박탈당한 유럽 12개국 국기를 주제로 자유수호우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때 비유럽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태극기를 넣은 한국 우표가 함께 발행되었다.

472) 생몰은 1900~1976년. 1905년 하와이 이민 후 1914~1915년 이승만이 세운 한인중앙학원에서 수학하였다. 1922~1926년 구세군 대위로 하와이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였고, 1932년 하와이 대한인교민단이 세운 대한인홍보부 구미부 서기로 선전외교활동, 1933년 한인혁명당을 만들어 비밀정보요원으로 활동, 1935년 김규식이 대표로 있는 중한민중대동맹의 미주 대표를 지내고, 중한민중동맹단을 설립해 강력한 반일활동 전개하였다. 1936년 하와이 주재 일본총영사관에서 근무하며 첩보활동을 벌이고, 1937년 미국 상하양원 합동조사위원회에서 하와이 내 일본총영사관의 음모 폭로, 1938년 중한민중동맹단 대표로서 미국의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일본의 팽창주의와 전쟁음모를 폭로하는 외교활동과 강연, 기고 활동을 전개하였다. 1941년 미국방공작원으로서 대미외교활동을 벌이다가 이승만과 충돌을 빚었으며, 1942년부터 미국 정부가 미국 내 일본인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정책을 펴는 데 기여하였다.

토마스 파크(Thomas Park)는 내가 정원에 백합과 수선화를 심는 것을 도왔다.

5월 14일 (월요일)

남궁엽이 와서 유익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이원순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야간 기차로 돌아갔다.

5월 16일 (화요일)

슬라이 교수가 프린스턴에서 와서 타이프로 친 종이에 자신의 제안 사항을 적어 제출했다. 더글라스 박사와 로빈슨 학장이 참석했다. 임병직과 이원순도 동석했다.

5월 17일 (수요일)

제임스 신⁴⁷³이 여성의원클럽(Congressional Women's Club)에서 연설을 하려고 뉴욕에서 왔다. 스태거스가 가서 듣고 오더니 매우 좋았다고 했다. 임병직은 국무부의 덕코버와 다시 면담을 했는데, 그는 조소앙이 혼자 입국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5월 19일 (금요일)

김세선, 임창영, 해리 황⁴⁷⁴에게 전보를 쳤다. 김세선이 뉴욕에서 왔다.

5월 20일 (토요일)

해리 황이 20일에 도착했고, 임창영도 토요일에 왔다.

세 명 모두 주미외교위원부의 협찬부 부장직 제안을 수락했다.

473) 본명은 신상근. 직업은 의사로 1941년 9월 한미협회 창립에 관여해 이승만의 외교활동을 도왔다. 이승만이 수장을 맡은 주미외교위원부 협찬회의 군무부 위원을 역임하였다.

474) 황창하(Harry Whang, 黃昌夏).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다니다 서울 YMCA에서 영어를 배웠고, 1920년 상해를 거쳐 파리로 유학을 간 후 다시 미국 뉴욕으로 건너갔다. 시카고의 하이드파크 고교 졸업 후 1923~1927년 시카고 대학 상과를 다녔다. 부친 황도종이 안창호와 친분 관계여서 시카고 대학 시절 안창호를 만나 흥사단에 입단했다고 하나 흥사단 명부에 그의 이름은 없다. 북미대한인유학생총회의 사회부장, 편집위원으로 활동했고, 1944년 6월 이승만이 주미외교위원부 협찬부를 조직할 때 내무부 부장에 선임되었다.

5월 23일 (화요일)

임병직을 데리고 치양(Tsiang) 박사에게 갔다. 그는 중국대사가 그날 저녁 나를 만나러 올 것이며, 한국 문제를 의논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목요일 저녁에 슬라이 교수를 만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뉴욕으로 갈 예정이어서 2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만날 수 있다고 했다.

5월 24일 (수요일)

중국 대사관의 필립스 여사가 전화를 하여 대사가 내일 뉴욕으로 가게 되어 오늘 오후 5시에 나를 만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이미 선약이 있어서 뉴욕에서 돌아오면 다시 시간을 정하자고 했다.

5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슬라이 박사가 사전에 약속한 대로 치양(Tsiang Ting-fu) 박사를 만나러 왔다. 나는 그와 임병직을 데리고 브로드모어(Broadmoor) 호텔로 가서 그를 치양에게 소개시켰다. 우리는 여러 대학과 교수 그리고 친구에 관해 답소를 나누며 자신을 소개했다.

치양 박사는 국무부 관리들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러시아의 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카이로선언의 세 열강⁴⁷⁵이 자유방임주의(hands-off policy)를 선언하면, 중국은 단독 행동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중국대사 웨이 박사가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슬라이 박사가 루즈벨트 여사에게 접근하여 그녀나 대통령이 국무부에게 방임주의정책을 선언하는 메시지를 러시아, 중국, 영국에게 보내도록 지시하라고 요청할 것이다. 그는 향후 10일 이내에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이다.

475) 미국, 영국, 중국을 말한다.

6월 2일 (토요일)

슬라이 박사 내외가 프린스턴에서 왔다. 우리는 이를 기념하여 정한경 박사, 이원순, 임병직도 초대하여 차를 대접했다. 슬라이 박사가 다음 날 아침 11시에 영국 대사관의 로버트 샘손(Samson) 경을 만나도록 더글라스 박사가 주선을 했다.

6월 3일 (토요일)

최용진이 주미외교위원부가 조직한 협찬부의 5개 부서⁴⁷⁶⁾ 회의에 참석하려고 뉴욕에서 왔다.

6월 4일 (일요일)

김세선, 전처선 그리고 다른 한인들이 오전에 도착했고 6명은 오후에 뉴욕에서 왔다. 신상근 박사는 직접 차를 몰고 왔다. 회원 중 21명이 주미외교위원부에 모여 오후 6시 반 아리곤논(Arrignon)에서 만찬을 마친 후 협찬부 5개 부서의 구성을 마무리 지었다. 뉴욕과 프린스턴에서 온 회원들은 오후에 돌아갔다. 화니와 나는 스토티버리(Stotsbury) 부인⁴⁷⁷⁾이 차례 준 크롬웰(James H.R. Cromwell)⁴⁷⁸⁾의 생일 파티에 차를 마시러 갔다.

슬라이 박사가 프린스턴에서 전화를 하여 샘손(Samson) 경이 매우 동정적이며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이 한국 문제를 논의하여 그 결과를 몇 주 후에 통보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슬라이 박사는 루즈벨트 여사와 조셉 그루(Joseph C. Grew)⁴⁷⁹⁾를 면담할 예정이다.

6월 9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최근 충칭에서 돌아온 웨이 타우밍(Wei Tauming)⁴⁸⁰⁾ 중국 대사와 면담을 가졌다. 그는 “충칭을 떠나기 오래 전에 조소앙을 만나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

476) 내사부, 교육부, 경제부, 정치부, 군무부를 말한다.

477) 스토티버리(Lucretia Eva Roberts Cromwell Stotsbury) 부인은 James Henry Roberts이다. Cromwell의 모친이자 J.P. Morgan의 동업자로서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인 Edward T. Stotsbury(1849-1938)의 두 번째 부인이다.

478) 생몰은 1896-1990년. 미국 작가이자 외교관으로 1942~1944년 한미협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479) 생몰은 1880-1965년. 1931~1942년 주일미국대사로 1944년 미 국무부 극동국의 국장, 1944년 국무성 차관에 지명되었다.

480) 생몰은 1899-1978년. 1942~1946년 주미중국대사를 역임하였다.

부 관리와 국민은 한국의 독립과 임시정부의 승인을 지지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고 했다. 내가 중국인들과의 협력 방안으로 중국에서의 한인 훈련 문제를 언급하자 그는 내가 이 문제에 관해 서신을 보내면 이를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⁴⁸¹⁾

나는 미국 전쟁장관과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보낸 편지 사본을 그에게 보냈다.

6월 12일 (월요일)⁴⁸²⁾

밤 10시에 뉴욕 출발.

펜실베이니아에서의 순회 연설.

6월 12일

밤 10시 정각에 워싱턴 출발.

6월 13일⁴⁸³⁾

뉴욕에 도착하여 펜실베이니아 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오후 1시에 타임 & 라이프 빌딩 66층에서 점심을 먹었다. 베일리(Bailey), 「타임」과 「라이프」와 「포춘」지에서 온 세 명의 기자들, 제임스 신 그리고 내가 함께 배석했다. 우리는 한국 문제를 논의했다.

오후 6시에 한인 교회와 학교에서 식사를 하였다. 버나드 김과 그의 아내가 자기들의 집으로 가자고 졸랐다.

저녁 8시에 그리스도의 교회(Christ's Church)로 갔더니 많은 한인이 와 있었다. 피치(Fitch) 부인이 사회를 보았고 미국인도 다수 참석했다. 쿠바 대표 타라파(Tarafa) 양과 언더우드 박사 내외도 있었다. 피치 부인이 회의를 시작했고 개회사가 끝나자 나를 소개했다. 그러고는 주요 연사로 신상근 박사를 소개했다.

481)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이승만은 한반도 수복을 위한 대일(對日) 비밀작전의 수행을 위해 미국 전략정보처(OSS, CIA의 전신)와 합동참모본부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OSS의 지원하에 착수된 독수리 작전(Eagle Project)과 냅코 작전(Napko Project)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482) 1944년 6월 12일자 일기가 두 개이다.

483) 1944년 6월 13일자 일기가 두 개이다.

우리는 한미협회(Korean American Council) 뉴욕 지부의 임원을 선출했는데 피치 여사가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언더우드 박사는 재무 담당으로 지명되었으나 그는 “어떠한 직책도 맡을 입장이 아니다.”며 고사하였다. 윌리엄(Maurice William)⁴⁸⁴ 박사가 부의장, 김(John Starr Kim) 목사가 지부 총무로 선출되었다.

선출된 세 명의 임원에게 회계 선정권이 주어졌다.

회의가 끝나자 언더우드 박사가 우리를 샤퍼스(Shaffer's)로 데리고 가 다과를 대접했다. 밤 11시가 지나서야 호텔로 돌아왔다.

6월 13일 (화요일)

오전 8시에 뉴욕에 도착하여 펜실베이니아 호텔로 갔다. 정오에 제임스 신과 라디오 센터로 갔다. 베일리(Wesley L. Bailey)⁴⁸⁵와 헨리 루스(Henry Luce)의 비서가 우리를 라이프 & 타임 빌딩 66층의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특실에 오찬이 준비되어 있었다. 베일리, 「타임」과 「라이프」와 「포춘」지에서 나온 세 명의 기자, 신 그리고 내가 배석했다. 우리는 한국의 당면 과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전후(戰後) 프로그램에 관한 입장을 들었다.

나는 베일리에게 한미협회의 사무국장(executive secretary)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고, 루이스에게 총회장직을 맡아 달라고 했다. 그는 피치 여사와 의논해 보겠다고 했다.

저녁에는 만찬에 초대되어 한인 교회로 갔다. 버나드 김 내외 등 많은 한인 친구를 만났다. 식사 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Christ's Church)로 갔고 많은 한인은 나중에 왔다. 삭크만(Sockman) 박사는 참석해야 할 모임이 또 있다고 하였다. 언더우드 박사 부부를 비롯하여 많은 미국인이 참석했다. 피치 여사가 개회사를 한 후 나를 소개하여 내가 몇 마디를 했고 제임스 신도 연설을 했다.

그 후 한미협회 뉴욕 지부의 임원 선출이 있었다. 피치 여사가 의장이 되었고, 모리스 윌리엄은 부의장, 존 스타 김 박사는 총무로 선출되었다. 언더우드 박사는 회계에 지명되었으

484) 생몰은 1881-1973년. 치과 의사 겸 저술가로 쉰원의 맑시즘 비판에 영향을 미친 『A Social Interpretation of History』(1921)의 집필자이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중국 국민당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60년대까지 이승만의 지지자로 활동하였다.

485) 생몰은 1910-1990년. 1937~1947년 헨리 루스(Henry Luce)의 특별보좌관을 지냈다.

나 수락을 고사했다. 기존의 임원 활동은 모두 중지되었고 새로 선출된 임원들에게 다른 임원들의 추천권이 부여되었다(이스턴 여행에 관해선 다른 날 일기 참조).

6월 14일

오후 7시, 뉴저지 주의 트렌턴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 그곳에서 펜실베이니아 주의 필립스버그(Philipsburg)로 향하여 오전 11시에 도착했다. 라이머(Reimer) 목사와 페일(Peil)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이스턴(Easton)의 이스턴 호텔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 투숙을 하고 연설도 했다.

오후 12시 30분, 호텔 만찬장에서 개최된 오찬 모임에 여러 단체가 참석했다. 215명의 현지 유지들이 참석했고 라이머 박사가 나를 소개했다. 나는 30분간 연설을 했다.

오후 3시경에 페일이 나를 컨트리 클럽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저녁에 성대한 만찬이 있었다. 남녀 2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식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이 내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여 약 한 시간가량 답변도 하고 논의도 했다. 모임을 마친 후 페일과 라이머 박사가 베들레헴 호텔까지 데려다주어 그 곳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6월 15일

베들레헴의 키와니스(Kiwanis) 클럽⁴⁸⁶의 본부가 베들레헴 호텔에 있었다. 뭉마(Mumma)가 회장.

오후 12시 30분에 점심 식사. 약 140명이 오찬 모임에 참석. 라이머 박사가 나를 소개했다.

오후 3시 30분, 뭉마가 차로 알렌타운(Allentown)의 아메리쿠스(Americus) 호텔까지 데려다주었다. 나는 1004호에 투숙했고 라이머 박사는 저녁까지 나와 함께 있다가 갔다. 호텔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은 아주 폭 잡다. 16일까지 내내 비가 오고 쌀쌀했다. 나중에 햇빛이 나니 더웠다.

486) 키와니 인터내셔널(Kiwanis International)은 1915년에 창설된 교육서비스 제공 자선단체로 현재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 약 60만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미국 미네소타 주 미네아폴리스에 본부가 있다.

6월 16일

정오에 다시 날씨가 맑아졌다. 알렌타운 로터리 클럽은 매우 활기 넘치는 모임이었다. 호텔 바가 로터리 클럽의 주간 모임 장소. 회의가 오후 12시 15분에 시작되었다. 레이커(Raker) 목사가 클럽 회장, 벤츠(Bentz)가 총무이다. 벤츠는 내게 사탕 한 상자를 선사했다. 알렌타운은 이 주변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인 것 같았다. 밀러는 「모닝콜」, 「이브닝 크로니클(Evening Chronicle)」 그리고 또 한 곳 등 신문사 세 곳을 소유한 편집장. 어제 그의 사무실에 들렀더니 오늘 답례로 오찬에 참석했다.

모임이 끝나자 벤츠가 알렌타운의 기차역까지 데려다 주었다. 오후 4시 30분, 필라델피아 브로드스트리트 역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 택시로 북 필라델피아 30번가 역으로 갔다. 그곳에서 오후 5시 13분에 워싱턴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저녁 7시 30분에 워싱턴 도착. 매우 즐거운 기차 여행이었다. 마미(Marmie)⁴⁸⁷가 루스 홍(Ruth Hong)과 토마스 박(Thomas Park)과 함께 유니온 정거장에서 나를 반겼다.

6월 20일 (화요일)

오후 1시, 칼튼 호텔에서 윗톤 크로스(Upton Close)⁴⁸⁸, 조지 마샬(George Marshall)⁴⁸⁹, 월터 트로한(Walter J. Trohan)⁴⁹⁰, 제롬 윌리엄스(J. J. Williams)와 점심 식사를 했다. 윌리엄스가 나를 크로스와 만나도록 주선했다.

크로스는 1919년 나에게 여러 전갈들을 한국에서 가지고 온 적이 있었다. 다음에 워싱턴에 오면 그가 저녁을 사겠다고 했다.

트로한은 한국에 관한 기사를 다섯 번이나 게재한 시카고 트리뷴 신문의 기자.⁴⁹¹

487) 이승만이 프란체스카 여사를 정감 있게 부른 말이다.

488) 'Upton Close'는 1894년생인 Josef Washington Hall의 필명이며, 미국의 유명한 언론인, 저술가, 방송인, 극동문제 전문가로 널리 알려졌다.

489) 그 당시 미국 국무장관인 조지 마샬(George Marshall)과 동명이인이다.

490) 생물은 1903-2003년. 「The Chicago Daily Tribune」의 워싱턴 지국장이다.

491) 이 마지막 문장은 1945년 이후에 덧붙여진 것임. 「The Chicago Daily Tribune」은 1945년 6월까지 트로한 기사가 한국에 관해 쓴 어떠한 기사도 게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6월 21일 (수요일)

국방성 건물에서 거하트(Gerhardt) 대령과 오후 3시에 약속.

6월 28일 (수요일)

쿵(H. H. Kung) 박사를 위해 중국 대사관에서 티 모임이 있었다. 폴 유빈(Paul Yu-bin) 감독과 웨이 타우밍(Wei Tauming) 대사가 우리를 쿵 박사, 상칭(Shang-Ching) 장군, 그 밖에 여러 사람에게 소개를 했다.

저녁에는 위빈[于斌]⁴⁹² 감독이 우리를 중국 식당으로 초대했다. 감독과 그의 보좌관 판(Pan) 박사 그리고 우리, 단 네 명만 배석했다. 그는 곧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1월에 다시 미국으로 올 예정이다. 그는 내가 보내는 서신을 조소양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로 되어 있다.

7월 2일 (일요일)

해리 황이 오전에 디트로이트에서 도착하여 이원순 박사와 셋이서 대화를 나누었다. 조금 후에 임창영이 프린스턴으로부터 와서 우리 집에서 점심을 모두 함께 먹었다. 12명이 배석. 모임의 주요 목적은 주미외교위원부의 구성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해리는 단합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고, 황사용(黃思溶) 목사도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7월 4일 (화요일)

재미한족연합위원회(United Korean Committee)⁴⁹³와 주미외교위원부 간의 이해를 도모

492) 생물은 1901-1978년. 종교철학을 연구하고자 로마로 유학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중국 전국 공교구(公教區) 총감독, 1936년 천주교 난징교구 주교를 지냈다.

493) 1941년 4월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해외한족대회의 결과 성립된 재미한인사회 최대의 독립운동 연합단체이며, 북미대한민국민회, 동지회,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중한민중동맹단, 대조선독립단, 한국독립당 하와이 지부, 의용대미주후원회, 대한부인구제회, 대한여자애국단 등 9개 단체가 참가하였다. 조직은 의사부와 집행부와 주미외교위원부(위원장 이승만)를 두었고, 재정 모금을 통해 임시정부의 활동과 미주에서의 외교 및 국방 공작활동에 대한 재정 후원에 주력하였다.

하려는 황사용 목사의 노력으로 나는 이원순의 집에서 김원용(金元容)⁴⁹⁴, 전경무⁴⁹⁵, 김용중, 해리 황(황창하), 이원순, 황 목사를 만났다. 나는 그곳에 10시 30분에 도착하여 일일이 악수를 했다. 한인들 간의 여러 조직 사이의 단합의 필요성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다.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하고는 안승화가 점심을 내기 위해 차이나인(China Inn)으로 갔다. 안승화와 아이네즈 킹 배(Inez King Pai)⁴⁹⁶가 기다리고 있었다. 점심 식사 후 나는 먼저 왔고, 그들은 라파예트(Laffayette) 호텔로 가서 저녁 늦게까지 의논을 계속하다가 황목사는 디트로이트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이원순이 후에 보고를 했다.

7월 8일 (목요일)

굿펠로(Millard Preston Goodfellow)⁴⁹⁷ 대령이 유럽 전선에서 돌아와 전화를 했다. 저녁에 이원순의 자택으로 가서 스태거스 가족과 식사를 했다.

7월 12일 (수요일)

대사관에서 ‘최초의 공식 만찬’이 베풀어졌다. 굿펠로 대령 부부, 크롬웰(James H.R. Cromwell), 스태거스 부부와 딸 델로리스(Delores Staggers Pecor)⁴⁹⁸, 윌리엄스 부부, 이원순 부부, 임병직 그리고 우리 부부가 참석했다.

494) 생몰은 1896-1976년. 미국명은 Warren Y. Kim으로, 1917년 도미 후 대한민국민회 프에블로지방 재무, 1928년 시카고 동지회 의사부원을 역임하였다. 1930년 하와이에서 열린 동지미포대회에 시카고 대표로 참가했다가 이승만 노선에 항거하여 이승만과 결별하고, 1931~1936년 교민단 기관지인 『국민보』의 편집인, 주필로 활동하고 상하이의 한인애국단을 후원하였다. 1941년 해외한족대회준비회 비서를 거쳐, 1944~1945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행정위원, 의사부 위원장, 해방 후 귀국해 남조선과도입법의원 관선의원을 지냈다. 이승만에 비판적인 내용이 많이 담긴 『재미한인오십년사』를 발간하였다.

495) 생몰은 1900-1947년. 미시간 대학 정치학과 졸업 후 하와이에서 자동차 도장업으로 큰 재산을 모았다. 이후 하와이 지역 한인사회 발전과 조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데 앞장섰으며, 1931년 단합회에 가입한 이후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후원·선전하는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고, 1941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 위원, 중경 특파원, 1944년 워싱턴 외교사무소 외교원, 주미외교위원부 외교위원장 비서, 1945년 재미한족연합위원회 파견대표를 역임하였다.

496) 본명은 공백순(孔伯順, 1919-1987). 하와이 출신의 한인 2세이며 배의환의 부인이다. 이승만이 1942년 2월 말 한인자유대회를 열 때 연사로 활동하며 이승만의 외교활동을 후원하였고, 1953년 3월부터 해당화 클럽을 통해 6·25전쟁 고아들을 구제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해당화 클럽은 1932년 3월 한국의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발전시키기 위해 하와이 한인 2세들이 조직한 여성단체이다.

497) 생몰은 1892-1973년. 미국 정보조정국(Coordinator of Information)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던 1941년 여름 이승만을 처음 만난 이래 이승만의 임정 승인과 냅코작전(Napko Project)을 포함한 광복군 지원활동을 적극 지원한 미국 전략정보처(OSS)의 부국장이다. 『Brooklyn Eagle』의 저자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정의 하지(John G. Hodge) 중장의 정치 고문으로 한국에 파견되어 활동하였다.

498) 미 해군 여성예비군의 특별 부대인 여군 예비 부대에서 소위로 복무하고, 나중에 한국 마산의 적십자사에서 일하였다.

굿펠로 대령은 이제 사태가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변화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말했다. 크롬웰은 해병대와 해군의 고위급 인사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그는 마음을 바꿔 그들을 만나지 않고 대신 한미협회 의장직의 사표를 제출했다. 윌리엄스는 드골(De Gaulle)이 이곳에 없기 때문에 프랑스 대사관의 보데트(Beaudet) 박사를 만났다. 그는 흥미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비망록 참조.⁴⁹⁹

7월 14일 (금요일)

이원순이 김원용에게 받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UKC)의 요구사항 사본 두 통을 가져왔다. 한 부는 내게 주었고 다른 한 부는 임병직에게 주었다. 그들은 요구 조건에 일부 변경이 있을지 모르니 이를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 첨부한 원본 참조.⁵⁰⁰

제이 제롬 윌리엄스, 존 스태거스와 내가 라파예트 호텔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크롬웰의 한미협회 의장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동의했다.

7월 15일 (토요일)

폴 유핀(Paul Yu-pin) 감독과 판(Pan) 박사, 그의 보좌관이 대사관에서 베푸는 만찬에 참석했다.

제이는 굿펠로 대령과 약속이 있었다.

7월 19일 (수요일)

군사 훈련에 대한 호소문을 미 합참의장에게 제출했다. 굿펠로우 대령이 이번에는 호소문이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임병직과 나는 노스 우정국 장관을 만나러 갔다. 그는 외출 중이었고 블랙이 우리를 맞이했다. 그는 미국 우표에 들어갈 상징으로 태극기에 동의하는지 의견을 물었다. 우리는 이에 동의를 하고 한인들이 그린 우표 디자인 2부를 제출했다. 우표가 유통될 준비가 되면 어떤

499) 일기 원문에 관련 비망록이 빠져 있다.

500) 일기 원문에 원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프로그램이 하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월 24일 (월요일)

중국 군사임무 책임자 상젠[商震]⁵⁰¹ 장군을 위한 만찬이 있었다.

상젠 장군,

차이윈즈[蔡文治] 장군,

티엔쓰잉[田世英] 대령,

첸홍젠[陳宏振],

리민시엔[李民憲] 대령,

판차오잉[潘朝英].

8월 1일 (화요일)⁵⁰²

오전 9시 45분에 뉴욕을 향해 워싱턴 출발. 록시(Roxy) 극장의 새 영화 ‘윌슨(Wilson)’⁵⁰³의 시사회에 초대받음. 오후 2시에 뉴욕 도착, 펜실베이니아 호텔 1328 C호실에 투숙했다.

8월 1일

오전 9시 45분에 워싱턴 출발. 화니가 차로 역까지 태워 주었다. 임병직도 나를 전송하러 나왔다. 오후 2시에 뉴욕에 도착하여 펜실베이니아 호텔 1324호실에 투숙. 호텔 홍보 담당 스미스가 그 방으로 주선해 주었다.

브루노 쇼(Bruno Shaw)가 오후에 나를 만나러 왔다. 그는 라디오 방송 자료를 요청했고 한국에 관한 스토리를 영화로 만드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501) 생몰은 1887-1979년. 1912년 북경정부 육군부 고문으로, 1927년 국민당 정부 군사위원회 위원, 1929년 국민당 중앙감찰위원, 1930년 제22군장, 1935년 육군상장, 1936년 중일전쟁 발발 후 제20집단군 총사령, 국민정부 주미군사대표단 단장, 1945년 국민당 중앙감찰위원을 역임하였다.

502) 1944년 8월 1일자 일기가 두 개이다.

503) 자녹(Darryl F. Zanuck)이 감독을 맡아 제작한 미국 제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1856-1924)에 관한 영화이다. 이 영화는 윌슨이 대통령에 오르는 과정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모색하기 위한 윌슨의 투쟁을 그렸으며, 윌슨은 이승만 박사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할 때에 총장을 지냈다.

오후 늦게 윌리엄(Maurice William) 박사와 함께 라디오 시티의 레인보우 룸으로 갔다. 중국 공사 유 박사가 쿵(H. H. Kung) 박사를 위한 리셉션을 개최했다. 중국인과 미국인들을 많이 만났다. 웨이 대사 부부와 유핀 감독, 그밖에 많은 사람을 만났다.

저녁 8시 30분, 록시 극장으로 갔다. 임원 전용 출입구를 통해 들어갔다. 몽고메리의 비서 미스 영이 록시 극장에서 개최되는 ‘윌슨’ 시사회에 입장권을 보내 주었다. 내 좌석은 104번 무대에서 6번째 혹은 7번째 줄의 오른쪽 중앙이어서 최고의 귀빈석 중 하나였다. 내가 입장하자 ‘D’ 칸의 모든 사람이 일제히 나를 쳐다보았다.

영화는 아주 훌륭했다. 대학 교수였던 우드로 윌슨은 대학총장을 거쳐 뉴저지 주지사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에 올랐다. 그의 국제연맹 조약은 미 상원이 기각하였다. 특히 롯지(Lodge) 상원의 반대가 컸다. 윌슨은 건강도 쇠약해지고 인기도 수그러들어 1920년 선거에서 패하고 말았다는 내용이었다. 영화는 밤 11시 55분경에 막을 내렸다.

호텔까지 걸어와서 새벽 2시에 잠자리에 들었다.

8월 2일 (수요일)

최용진, 데이빗 남궁염, 김세선과 호텔 커피숍에서 아침을 먹었다. 40 E 49번가의 동서협회(East and West Association)에 들러 웰시(Walsh) 부부⁵⁰⁴와 담소를 나누었다. 그 후 최용진과 나는 호텔 커피숍에서 점심을 먹었다.

임창영이 나를 보러 와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후 3시 반에 뉴욕을 출발하여, 오후 7시 반에 워싱턴에 도착했다.

8월 11일 (금요일)

임병직은 R 여사와 나, 글래디스(Gladys) 여사와 브로드문(Broadmoon) 호텔에서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해안(Coast)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504) 펄벅 여사 부부이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중국 전문가인 펄벅(Pearl S. Buck, 1892-1973)은 1941년에 그녀의 두 번째 남편 웰시(Richard J. Walsh)와 함께 동서협회(The East and West Association)를 설립하였고, 동서협회는 미국 대중들에게 동아시아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였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인 4명이 들어왔다. 한 사람은 전 미국 주재 중국대사 알프레드 체(Alfred Sze) 박사였고, 다른 사람은 전 러시아 주재 중국대사 치앙 텡후(Tsiang Ting-fu) 박사였다. 나머지 두 젊은이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다. 두 대사가 내게 와서 인사를 했다.

치앙은 국제연합구제부흥기구(UNRRA)에 서신을 보내어 주미외교위원부가 9월 15일에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대표가 아닌 옵서버의 참석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하라고 했다. 그러면 그가 힘을 좀 써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는 서신을 작성했다.

8월 21일 (월요일)

국제연합구제부흥기구(UNRRA)의 딕킨슨(Edwin Dickinson) 외교보좌관이 전화를 걸어 9월 15일에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옵서버로서의 참석 허용을 요청하는 서신을 받았다고 하며 나를 방문 대표(visiting delegate)로 허락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참석 대표들의 수가 증가하여 좌석 부족이 중대한 문제라고 죄송스러워했다. 그는 우리만 좋다면 우리 대표들을 옵서버 국가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감사를 표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정함과 정의라고 응수했다. 그는 그와 같은 취지로 서신을 보내겠다고 했고 나는 주미외교위원부 대표로 두 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답했다.

8월 27일⁵⁰⁵⁾

자정에 워싱턴을 출발했다. 화니가 차로 역까지 데려다 주었다. 오후 4시 7분에 뉴욕에 도착했다. 사전에 조율이 있었던 탓에 왈도프 아스토리아(Waldorf Astoria) 호텔에서 2316실에서 2318실까지 스위트 룸을 마련해 주었다.

제임스 신이 식사를 하러 와서 타운 홀로 갔다. 그 곳에서는 공자의 탄신을 기념하는 큰 행사가 있었다. 공자의 70번째째 되는 자손인 쿵(孔) 박사가 연설을 했다. 치 멩(Chi Meng) 박사가 나를 귀빈 자격으로 초대했다.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 이틀 일찍 갔다.

505) 1944년 8월 27일자 일기가 두 개이다.

8월 27일 (월요일)

타운홀 모임은 저녁 8시 반에 시작되었다. 제임스 신과 나는 왈도프 아스토리아에서 그곳으로 곧장 갔다. 중국인과 미국인들이 물밀 듯이 밀려왔다. 모두가 입구에서 입장권을 보여주면서 들어왔다. 어떻게 입장권을 구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창구에서 불렀다. 한 여성이 내게 입장권을 주면서 다른 귀빈과 함께 단상으로 가라고 했다. 그곳에서 젊은 피치, 조지 피치(George Fitch)의 아들⁵⁰⁶⁾을 만나 악수를 했다. 그도 이틀 전에 왔다고 했다.

중국인 안내인이 나를 단상으로 데리고 갔다. 내 자리는 대사들 사이에 마련되어 있었다. 쿵 박사, 윌키(Wendell L. Willkie)⁵⁰⁷⁾, 오버린 대학 총장, 캔톤(Canton) 대학 총장 등이 연사석에 앉았고, 그다음 줄이 귀빈석이었다. 빅터 후 외무부 차관, 텡-후 치앙 박사, 리유(Liu) 대사, 후 슈(Hu Shu) 박사, 건(Kon) 박사, 웰링턴 쿠 박사 그리고 그 옆이 내 자리였다. 내 오른쪽은 C. K. 리(Li).

40여 명의 중국 남녀 어린이합창단원들의 공연이 있었고, 흑인 여가수는 인기 만점이었다. 쿵 박사가 멋진 연설을 했다. 밤 10시 반경에 폐막했다.

8월 28일 (월요일)

한두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전 내내 방에 있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나갔고 잠깐 산책을 하느라 외출한 것이 전부. 오후 5시에 화니가 워싱턴에서 도착했다. 제임스 신이 콜롬비아 네트워크를 통해 라디오 방송을 주선했다. 윌리엄스도 워싱턴에서 왔다.

506) George Kempton Fitch, 생몰은 1913-1972년.

507) 생몰은 1892-1944년. 법인 고문 변호사이자 공화당 정치인으로, 1940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서 프랭크린 루즈벨트에게 패배했다. 대선 패배 후 토지임대법 제정을 주창하고, 진주만 폭격 이전 미국의 영국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의 저서 『One World』는 1943년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9월 18

오전 11시 30분, 국무성의 조셉 그루(Joseph Grew)와 면담을 했다. 지난 주 내가 자리를 비운 동안 조지 맥쿤(George M. McCune)⁵⁰⁸이 전화를 해서 ‘그루가 이 박사를 만나길 원한다’고 전했다. 내가 돌아왔을 때 맥쿤이 다시 전화를 걸어와 약속을 잡았다.

374호실로 들어서자 직원이 오더니 곧 발렌타인(Joseph W. Ballantine)⁵⁰⁹이 왔다. 그가 나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니 그루가 내 손을 잡고 “만나서 정말 기쁘다.”는 등 인사말을 했다. 나도 그에게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어 오히려 내가 감사한다고 했다.

자리를 잡고 앉자 그루가 내게 워싱턴의 여름 기후에 익숙해지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나는 이곳에 오래 살아서 익숙해졌다고 답했다. 그는 마닐라, 랑군(미얀마), 상하이, 동경 등지에서 근무해 보았지만 워싱턴의 여름이 제일 덥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서울의 여름이 어떤지 한국에 가본 적이 있냐고 물었다. 그는 “없지만 언젠가 서울로 당신을 보러 가는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나는 그에게 “그루 대사님, 우리가 한국으로 곧 돌아갈 수 있도록 대사님이 저희를 좀 도와주십시오. 동경에 10년이나 계셨으니 일본인들이 어떤지, 어떻게 그들을 다루어야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귀국하신 후 미국인들에게 일본인들에 대한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대사님이야말로 우리의 훌륭한 투사(great champion)가 되실 분이라고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는 “제가 당신과 당신 국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카이로선언이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으니 이제 필요한 건 약간의 인내심입니다.”라고 답했다.

내가 “네, 우리 한인들도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바로 그 세 단어 ‘적절한 과정을 거쳐(in due course)’란 말이 우리를 또다시 30년 내지 40년간을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저들은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격려를 해주어 자신들의

508) 생몰은 1908-1948. 평양 주재 북장로교 선교사 맥쿤(George S. McCune)의 아들로 한국에서 출생했고, 한국 이름은 윤 안국(尹安國)이다. 워싱턴 미국 전략정보국(OSS)의 조사분석실 극동 분야에서 활동한 한국 분야 전문가이며, 1944년 5월부터 1945년 10월까지 미국무부 극동국 한국과의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1941년 버클리 대학에서 『Korean Relations with China and Japan』(1800-1864)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2차 대전 종전 후 버클리 대학에서 한국학을 강의하다 사망하였다.

509) 1888년생. 일본 문제에 정통한 미국 외교관으로 미 국무성 극동국의 참모이며, 1944년 국무성 극동국 국장에 올랐다.

진심을 입증하지 않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그는 “이 박사님, 우리가 의논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박사님이 안보 회의로 보낸 두 통의 서신입니다. 공식적인 답변보다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한 통은 옵서버로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요청이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른 한 통은 영토 합병과 정치적 주권에 관한 서신인데 이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이 회의는 정치나 영토 문제를 제기할 성격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철회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편지 두 통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이 박사님이 원하시면 제가 지금 돌려 드리겠습니다. 만약 철회하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박사가 회의의 성격조차도 모른다고 생각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우리 한국은 국제연합이란 집안에서 우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만 유일하게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지 정의와 공정함입니다. 한국은 강대국들이 모이기만 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 울어 댈 것입니다. 우는 아이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위입니다. 모든 나라마다 자기네 민족이 있지만 유엔에는 대표할 나라가 없는 민족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침략의 첫 희생자이고 투쟁이 저지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제발 마음을 여시고 약간의 동정심과 공정함으로 저희를 봐 주십시오.

1905년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은 카츠라 다로[桂太郎]⁵¹⁰ 공작과 비밀 협정을 맺고 한국을 일본에 팔아넘겼습니다. 이는 1882년 미국과 한국이 맺은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후 한국은 지난 40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독립을 기다려 왔습니다.

1919년 윌슨 대통령은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했습니다. 한국인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우리의 결심을 입증하기 위해 독립만세운동을 벌였다가 수천 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루즈벨트 대통령)를 협박하였고, 그는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여 일본에게 중국 산둥반도를 내줌으로써 일본과 유화정책을 맺고 한국의 정의를 바라는 호소를 묵살해 버렸습니다.

510) 생몰은 1848-1913년.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 유신의 출발에 기여한 일본의 정치가이자 군인이다. 1886년 육군차관, 1896년 타이완총독, 1898~1901년 육군대신을 역임하였다. 1901~1906년, 1908~1911년, 1912~1913년 3차례 일본수상을 역임하였고, 두 번째 수상 재임 시에 한국을 병합하였다.

우리는 미국과 일본이 곧 충돌하리란 걸 알고 있으며 그 때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주만 공격이 있었을 때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우리 민족만 제외되어 한국인들은 물론 우리의 많은 미국 친구들도 한국을 다른 강대국에 팔아넘길 또 다른 비밀 협약이 있거나 없는지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내가 설명을 했다.

그들은 좀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그는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시는군요.”라고 입을 열었다. 나는 “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미래를 판단하는 것이니까요.”라고 응답했다.

그루 대사는 내가 편지를 되가져가기를 바랐으나 나는 동지들과 의논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가 한인들을 대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계속 서신을 보내야 하고, 내가 보낸 서신들의 사본을 파일에 보관하여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했는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우리 민족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나는 마침내 조지 맥쿤에게 전화를 걸어 발렌타인이나 그루 대사를 만나기로 약속을 잡는 데 동의했다.

9월 5일 (화요일)

조지 맥쿤이 전화를 하여 내가 안보 회의에 보낸 서신들을 철회할지의 여부를 결정했는지 문의했다. 나는 다음 날 그에게 알려 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루 대사에게 편지를 보내어 그의 뜻을 존중하여 그 두 통의 서신은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발렌타인과의 약속은 7일 목요일로 정했다.

9월 6일

임병직이 왔다. 우리는 그가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국제연합구제부흥기구 회의에 참석하는 문제를 조용히 논의했다. 후에 그는 치앙 박사에게 전화를 하여 디킨슨과 스태거스가 그의 여권 문제를 좀 더 알아보도록 했다.

9월 7일 (목요일)

오전 9시 워렌 김(Warren Y. Kim)⁵¹¹이 왔다. 그는 자신이 한 일들을 내게 보고했다. 그 후 이원순이 와서 그가 캘리포니아로 가려는 계획을 의논했다. 나는 그에게 아무런 약속도 할 수 없으나 내가 협조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시대로 모든 한인 단체가 모여면 진정한 단합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 11시에 중국대사 메이 타오밍(Mei Taoming) 박사와 담소를 나누었다. 그는 임병직이 국제연합구제부흥기구 회의에 참석함을 알리는 나의 전갈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기꺼이 전하겠다고 했다. 나는 전갈을 한문으로 썼다.

헐(Cordell Hull)⁵¹² 국무장관에게 보낸 서신에 관해 그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는 사본을 보았으나 헐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현재로서는 한국 문제를 취급하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답변했다는 보고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덤바턴 옥스(Dumbarton Oaks)⁵¹³에서 그와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안보회의는 영토 문제가 다루어질 장소가 아니다. 그는 우리끼리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 2시 「상하이 이브닝 포스트」지의 워싱턴 특파원 운게른(Alix Ungern) 양이 인터뷰를 하러 왔다.

9월 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유핀(Paul Yu-pin) 감독과 회동했다. 나는 전후(戰後) 안보회의 앞으로 보낸 내 서신의 사본을 그에게 주었다. 나는 덤바턴 옥스에서 열리는 회의에 우리 측 대표를 옹서버로 보낼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서신도 함께 보냈다. 그루 대사와 발렌타인은 그 서신을 철회할 것을 우리 측에 요청했다. 그는 김구와 조소앙에게 이 문제를 보고하겠다고 했다.

511) 김원용(金元容)이다.

512) 1933~1944년 미국 국무장관을 역임하였다.

513) 유엔 창립 예비회의(1944.8.21.~10.4.)의 개최 장소로 제공된 워싱턴 DC 소재의 저택으로, 여기서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회의를 열고 국제연합 창설의 모체가 될 제안을 채택하였다.

9월 10일 (일요일)

오전 11시 반에 브로드문 호텔에서 텡후(Ting-fu) 박사와 만났다. 그는 곧 충칭으로 갔다가 1월에 돌아올 예정이다. 그는 장제스 총통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울 것이다. 그는 예정된 리셉션을 그가 돌아오는 1월로 연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임병직을 모든 대표에게 소개하면서 “그가 돈이 필요하다면 내게 알려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9월 14일 (목요일)

임병직이 특별열차로 몬트리올을 향해 출발했다.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대표들도 대부분 같은 열차로 출발했다. 후에 전경무(Jacob Dunn)가 몬트리올에서 호텔을 예약하려고 애썼으나 허사였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김용중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안 미 국무성의 누군가가 그에게 전보를 보내 되돌아갔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는 통행증을 구해 그날 밤으로 몬트리올로 갔다.

9월 18일 (월요일)

김원용이 전화를 하여 로스앤젤레스로 떠난다고 했다. 그는 가능한 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나는 단합의 문제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난 일이라면 나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는 재미한족연합위원회(UKC)가 김용중을 UNRRA회의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나는 나의 유일한 바람은 김용중과 임병직이 서로 협력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곤란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9월 19일 (화요일)

약속 일정:

상 쟈(Chen Chang) 장군: 오전 11시, 뮤니션스 빌딩(Munitions Building),

윌리엄 킹 상원의원: 밤 11시, 라파예트 호텔.

상 장군과 회동. 충칭의 중국 F.B.I. 파이리[戴笠]⁵¹⁴ 국장은 중국 영토에서의 외국 군대의 작전에 반대함을 밝혔다. 호우[侯] 장군은 한국에 대한 협조에 반대하는 또 다른 인물이었으나 최근 면직되었다. 추(Chu) 장군과 무관인 히샤오(Hsiao) 대령은 파이 리(Thai Li) 장군으로부터 명령을 하달받는다. 도노반(William J. Donovan)⁵¹⁵ 장군도 그들과 뜻을 같이해야만 했다.

나는 상 장군에게 중국에서 500~1,000명의 한인을 훈련시키려는 우리의 계획⁵¹⁶을 허용해 줄 방안을 열어 달라고 총통에게 부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즉시 총통의 의견을 타진해 보겠다고 했다. 굿펠로 대령이 오후에 상 장군을 만나도록 주선을 하여 셋이서 상 장군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훈련 계획과 관련된 서신들을 발송했다.

9월 20일 (수요일)

거하트(Gerhart)⁵¹⁷ 대령과 담화를 나누었다. 중국에서의 한인 500명에 대한 훈련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우리가 중국 정부의 협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 12시 20분, 웨이(Wei) 대사와 한인 500명 훈련 건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는 관련 서신들을 검토해 보고 내게 전화를 주기로 했다.

9월 25일 (월요일)

스테거스와 윌리엄스가 서명한 미 상원에 보낸 호소문이 인쇄되어 왔다. 우리는 이를 의회 의원들 모두에게 발송하고, 1,200 내지 1,300개 일간지에도 보냈다.

9월 27일 (수요일)

제임스 신과 임병직이 뉴욕에서 돌아와 라파예트 호텔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원순, 스테거스, 윌리엄스도 함께 배석했다.

514) 생몰은 1897~1946년. 1926년 국민혁명군 총사령부 연락참모로, 1932~1939년 국민당 정부 군사위원회 조사통계국 처장, 부국장, 1939년 중앙경관학교 교무위원, 1940년 군위원회 운수통제국 감찰처 처장, 1942년 중-미 특종기술합작소 소장, 1945년 육군소장을 역임하였다.

515) 생몰은 1883~1959년. 1942년에 창설되어 1945년에 폐지된 미국 전략정보처(OSS)의 책임자이다.

516) 아마 미국 전략정보처(OSS)의 냅코 작전(Napko project)이나 이글 작전(Eagle project)을 말하는 듯하다.

517) 1944년 6월 21일자 일기에 나오는 'Gerhardt'와 동일인으로 보인다.

식사를 마친 후 제롬 윌리엄스의 사무실로 가서 선거 유세 기간 동안 홍보의 중요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는 한인 10명 내지 20명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을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으라고 했다. 그는 “이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더 이상 자신의 일을 희생할 수 없다고 했다. 연봉 5만 불의 항공사직을 이미 잃었다.”고도 했다.

스태거스와 윌리엄스가 방을 나간 후 우리 한국인 셋이서 논의를 계속했다. 이원순은 한인들의 반대가 거셀 것이라고 하며 동의하지 않았다.

10월 10일 (화요일)

12시 정각에 출발하는 뉴욕행 기차를 탔다. 임병직이 유니온 역까지 차로 바래다 주었다. 오후 4시에 뉴욕에 도착하여 펜실베이니아 호텔 814호실에 투숙했다. 제임스 신이 와서 내 방에서 잠시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나갔다. 그 후 그는 더블-텐 모임(Double-Ten meeting)⁵¹⁸에 참석하러 왈돌프 아스토리아 호텔로 갔다. 만찬 전에 윌리엄 박사과 중국 총영사 유(Yu)의 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나는 참석하지 않았다.

저녁에 최용진이 와서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 숙소로 돌아와 함영춘이 미 육군과 해군에 한국 부대를 조직하려는 노력을 지원해 주라고 최용진을 설득했다. 함영춘은 미국 측이 부지 임대를 비공식적으로 월조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최용진이 그의 오른팔이 되어 미 육군에서 복무하라고 했으나 그는 함영춘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제의를 거절했다.

10월 11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제임스 신과 김세선이 와서 함께 아침을 먹었다. 내가 함영춘을 도와주라고 강력하게 권했으나 김세선이 동의하지 않아서 우리는 장시간 의견을 주고받았다. 결국엔 내가 두 손을 들었다.

제임스 신이 제임스 화레이(James A. Farley)⁵¹⁹에게 전화를 했다. 그는 외출하고 없었다. 타임지 편집장 필립 로맨(Philip Lohman) 박사가 나를 만나러 왔다.

518) 1911년 10월 10일 청 왕조를 무너뜨린 우창봉기(武昌蜂起)를 기념하여 제정된 대만의 건국기념일인 쌍십절(雙十節) 기념행사이다.

519) 생몰은 1888-1976년. 미국 뉴욕의 유력한 정치인이자 전 우정장관이다.

오후에 제임스 신과 나는 토마스 왓슨(Thomas J. Watson)⁵²⁰을 만나러 갔다. 그는 전후 산업 관계를 위해 한국의 자원과 원료에 관심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경제 전문가 하틀리(Hartley)에게 전화를 하여 우리와 면담을 하도록 조치했다. 나중에 그는 한미협회(KAC)의 재무담당직을 거절했다.

왓슨은 제임스가 대형 은행의 은행장을 만나도록 소개서를 써주었다. 그가 우리를 방문하여 재무 담당으로 그의 이름을 사용해도 되는지를 물었더니 거절을 하였다. 내가 신탁인들의 이름을 거론하자 그는 제임스 신에게 다음 월요일 만나러 오라고 했다.

10월 12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뉴욕의 한인들이 나를 위해 한인기독교학원(Korean Church Institute)⁵²¹에서 만찬을 베풀었다. 김세선과 제임스 신이 나와 함께 갔다. 만찬은 지하 식당에 준비되었다. 버나드 김 여사가 헬렌 옴(Yum)을 오라고 초대하여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녀를 만났다. 모리스 윌리엄(Maurice William)⁵²² 박사 부부도 초대를 받았다. 15명가량이 함께 만찬을 즐겼다.

식사를 마친 후 위층으로 가서 예배당에서 모임을 시작했다. 존 스타 김(John Starr Kim) 목사가 모임을 주재하여 윌리엄 박사를 제일 먼저 소개하자 그가 25분가량 정치적 상황, 공산주의 문제, 국제적 불의 등에 관해 연설을 했다.

다음으로 내 차례가 되었다. 내가 타인들과 협력을 하지 않는다고 나를 비난하는데 나는 주미외교위원부(Korean Commission)가 추천하는 사람들 모두를 위원부에 받아들였다고 말하며 어떻게 협력을 하라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반박했다. 옳든 그르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명령에 의한 위원부의 조직 개편은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나는 위원부가 개최하는 총회에 모든 기구가 참석하여 조직 개편에 동의한다면 위원부의 조직 개편을 실천할 것임을 위원부의 게시판을 통해 여러 번 알렸다. 그러나 대한인국민회(KNA)가 동의하지 않아서 총회를 개최할 수 없었다.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를 명령하였고 우리도 이를 환영한다.

520) 생몰은 1874-1956년. 1914~1956년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IBM)의 대표이사이다.

521) 1921년에 설립된 뉴욕의 뉴욕 한인교회(Korean Methodist Church and Institute)를 말한다.

522) 한미협회 전국위원회 회원이며, 중국 의료원조 미국 사무국 부회장이다.

모든 한인이 함께 모여 재조직 계획에 동의를 하면 나도 이를 따를 것이고 내 후임자가 선정 되면 나는 물러날 것이다.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중국의 국민당이 중국 정부를 통제하는 것처럼 민족주의자들인 한국독립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양국 정부 모두 공산주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면 이와 관련하여 외국 세력의 개입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거철인 이때에 우리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나는 뉴욕의 한인들이 모든 한인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단을 구성하고 하나의 대표 기구로 워싱턴으로 가서 미국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제출할 것을 제안한다.

연설을 마치자 그들은 나의 제안을 동의하고 재청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도록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였다. 그들은 10월 26일에 모이기로 날짜를 정했다.

10월 13일

뉴욕에서 돌아왔다. 오전 11시 스텐우드 멘켄(Solomon S. Menken)과 그의 윌스트리트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었다. 그가 내게 서신을 보내면 나는 그를 우리 측 법률 고문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추천하기로 했다. 그는 한미협회(KAC) 이사회 구성에 동의했다.

오후에 맥킨타이어(James F. McIntyre)⁵²³ 주교와 대화를 나누었다. 호텔로 돌아오자 최용진이 와서 함께 저녁을 먹고 짐을 싸서 호텔을 나왔다.

저녁 7시 반경에 뉴욕을 출발하여 밤 11시 30분에 워싱턴에 도착했다.

10월 14일 (토요일)

이원순의 집에서 굿펠로우 대령 부부와 식사.

523) 생몰은 1886-1979년. 1940~1946년 뉴욕의 스펠만(Francis Spellman) 대주교 밑에서 일한 보조주교이다.

10월 16일 (월요일)

이원순의 집에서 식사. 쿤(Koon) 박사 부부와 벡커(Becker)⁵²⁴ 박사가 배석.

10월 17일 (화요일)

함영춘, 김 박사와 저녁 식사.

10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제연합의 식량 및 농업 임시위원회 사무총장 피케트(Howard S. Piquet)⁵²⁵ 박사와 극동부 시먼(Russel G. Shiman)⁵²⁶ 박사와 회동.

10월 20일 (금요일)

워싱턴 호텔 원탁의 기사(Washington Hotel of Knights of Round Table), 오찬 모임에 초대 연사.

10월 21일 (토요일)

정오에 굿펠로우 대령 사무실에서 놀런버그(Bernhard Knollenberg)⁵²⁷와 조우.

10월 23일 (월요일)

밤 12시에 굿펠로우 대령.

11월 7일 (화요일)

미국우표회(Society of Philatelic Americans)의 수집가 클럽 5지부에서 연설. 의장은 윌리엄 스튜어트.

524) 한국에서 20여 년간 선교사로 활동하였고, 서재필, 이승만 등과 함께 3·1운동 직후 미국사회에 일본의 잔인한 식민통치의 실상과 한국인의 독립열망을 널리 알리며 한국친우회를 결성하는 데 앞장섰다.

525) 프린스턴 대학 교수를 지낸 경제학자이다.

526) 태평양문제연구회 회원으로, 유엔의 식량 및 농업에 관한 임시위원회 극동분과 의원을 역임하고 수년간 『The Eastern Survey』 편집을 담당하였다.

527) 생몰은 1892-1973년. 미국 전략정보처(OSS)의 차장이다.

11월 8일 (수요일)

오후 8시에 리 웨라톤 호텔 워싱턴 우표회에서 연설. 회장은 앨버트 콘즈(Albert F. Konze).

11월 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중국 대사관 웨이 타오밍(Wei Taoming) 대사와 약속.

11월 13일 (월요일)

한미협회 회의에서 이원순과 정한경 박사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재미한족연합위원회(UKC)의 주미외교위원부 회원 선출 승인을 거부하는 전보를 보여 주었다. 이원순은 우리가 생각하는 명단을 임시정부에 보내자고 제안했다. 나는 그러자고 응답했다. 이가 제안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民團: 하와이 민찬호(閔燦鎬)

國民會: 하와이 김원용(金元容) 또는 전경무(田耕武)

캘리포니아 김호(金乎)⁵²⁸

學生會: 장기형(張基亨)⁵²⁹

同志會: 정한경(鄭翰景), 이원순(李元淳)

임병직이 전경무(Jacob Dunn)와 면담을 했다. 그는 내가 원하면 나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모리스 윌리엄 박사의 친구 훅(Constance Hook) 양과 약속이 있었다. 뉴욕 『코퍼레이터(The Cooperator)』지⁵³⁰와 관련된 일이다.

528) 김정진(金廷鎭)이다.

529) 미주 지역 독립운동계에서 이승만의 적대적 경쟁자였던 한길수가 대표를 맡은 중한민중동맹단 미주 지부의 회원이다. 1943년 조선민족혁명당 미주 지부 기관지인 주간신문 『독립(Korean Independence)』을 창간했고, 1944년 재미한족연합회 전체대표회의에서 위교위원에 선임되었다.

530) 뉴욕에서 발간되는 경제 관련 월간지이다.

11월 17일 (금요일)

화니와 나는 저녁 7시에 파운드리 교회(Foundry Church)에서 거행된 해리스(Frederick B. Harris)⁵³¹ 박사의 20주년 기념 만찬에 초대받았다. 드라마틱 홀(Dramatic Hall)은 약 100명에 이르는 초대 손님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연사석은 중앙에 머피(William F. Murphy) 대법원장⁵³², 부통령, 윌리스(Henry A. Wallace)⁵³³ 여사를 중심으로 여러 교회에서 온 감독들과 목사들이 자리했다. 우리는 연사석 맞은편의 첫 테이블에 에드워드 박사 부부와 합석했다.

해리스 박사는 귀빈들 중에서 호주와 체코 대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등을 언급했고 한국을 기념하기 위한 미국 우표 발행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11월 20일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미국가톨릭복지회의(National Catholic Welfare Conference)의 캐롤(Carroll) 몬시뇰과 약속.

11월 21일 (화요일)

라이브스(J. J. Rives) 목사 초청으로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의 센터너리 감리교(Centenary Methodist Church)에서 연설. 임병직, 윌리엄스(Gladys Williams) 여사와 그녀의 딸 루스 홍(Ruth Hong)을 동반했다.

11월 22일 (수요일)

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의 바우얼즈(Bowles)가 황(Whang) 목사에 관해 문의하려고 전화를 했다.

531) 생몰은 1883-1970년. 1924~1955년 미국 워싱턴 DC 파운드리 감리교회의 목사로, 1942~1947년, 1949~1969년 미국 연방상원의 원목(院牧)으로, 이승만의 독립운동 지원단체인 한미협회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1956년 대한민국 제3대 이승만 대통령 취임식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532) 생몰은 1890-1949년. 1940~1949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사를 지냈다. 이승만 일기에 머피를 연방대법원장이라고 기술한 것은 잘못이다.

533) 생몰은 1888-1965년. 미국의 제33대 부통령이다.

11월 25일 (토요일)

뉴욕의 최용진이 와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11월 26일 (일요일)

토마스 민(Captin)이 전화를 했다.

11월 28일 (화요일)

스테거스를 통해 누군가가 우리 서신을 도중에 가로채는 것 같다는 불평을 제기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우정성(郵政省)의 팔코너(Falconer)와 만나기로 했다.

12월 15일 (금요일)

주미외교위원부 모임에 정한경 박사와 이원순이 참석했고 나중에 임병직도 출석했다. 다음의 3개 항이 논의되었다.

1) 8명의 선출 임원에게 1월 10일, 위원부 사무실에서 열리는 협의 모임에 참석하라는 서신 발송.

2) 1월 5일, 버지니아 주 핫 스프링스(Hot Springs)에서 개최되는 태평양문제연구회(IPR) 회의에 정한경 박사 참석 예정. 한인 대표로 전경무, 유일한, 정한경 박사 내정. 12월과 1월 급여로 여행 경비를 충당하기로 함.

3) 세부 사항

A. 신분증(준비 완료)

B. 배지

C. 로스앤젤레스 동지회가 요청한 자동차 스티커

배인(Bain)과 점심 식사를 했다. 윌리엄스 여사가 휴가를 고향에서 보낸다고 한다.

12월 16일 (토요일)

9시 30분 정각에 출발하는 뉴욕행 기차를 탔다. 화니가 차로 바래다주어 9시에 역에 도착했으나 기차는 출발 시간이 30분이 지나도 출발을 하지 않았다. 오후 12시 45분, 예정 시간

보다 1시간이나 늦게 트렌튼에 도착했다.

오후 2시에 프린스턴에 도착하여 낫소 태번(Nassau Tavern)까지 걸어갔다. 빈 방이 없어서 오후 4시 이후에 하나를 준비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곳에서 점심을 먹고 외출했다. 머리를 깎고 낫소 20번가까지 걸어갔다.

슬라이(Sly) 박사와 담소를 나누었다. 그는 요즘 나를 “소홀히 했지만 잊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전후 재건을 위한 한인 기술자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아인슈타인, 코헨, 마이어스, 카펜터, 슬라이 등이 포함된 프린스턴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그는 1월 워싱턴으로 오고 싶어 했다.

슬라이 박사를 만난 후 낫소 거리를 걸어 내려가 164번가의 슬레백(Slayback) 양을 만나러 갔다. 그녀는 낫소 태번에 나를 만나러 온 임창영과 전화 연결을 해주었다. 그가 저녁을 먹으러 와서 식사를 마친 후 내 방에서 밤 10시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일요일 정오에 그의 자택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여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12월 17일 (일요일)

오전 8시에 기상했다(208호실). 간밤에 숙면을 취한 기분이었다. 날은 화창했고 좀 쌀쌀했으나 상쾌했다. 아침을 먹고 산책을 했다. 돌아와서 11시 정각에 임창영이 왔을 때까지 신문을 읽었다.

우리는 대학 채플로 가서 아침 예배를 드렸다. 그 후 그의 집까지 걸어갔다. 그의 부인이 우리를 위해 닭요리를 준비했다. 오후 2시가 될 때까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뉴욕행 2시 30분 기차를 타기 위해 역까지 함께 걸어갔다.

오후 3시 30분에 뉴욕에 도착했다. 코모도어 호텔은 1층에 있는 조그마한 방 164호를 내게 주었다. 전철을 타고 남궁염의 집으로 가서 거한 닭요리 만찬을 먹었다. 김세선이 와서 여러 가지 일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다. 밤 10시 30분에 호텔로 돌아와서 편히 쉬었다.

12월 18일 (월요일)

최용진이 와서 39번가 메리놀(Maryknoll) 본부까지 걸어갔다. 캐롤(George Carroll) 주교가 우리를 맞이하며 3층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코너스(Joseph W. Connors) 신부와

클리어리(Patrick H. Cleary) 신부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한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제들이다. 그들은 길버트(Prentiss B. Gilbert)가 기고한 한국 관련 기사가 실린 가톨릭 신문 두 종류를 내게 보여 주었다. 내가 주로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들에게 기독교인친한회(Christian Friends of Korea)와 한미협회(Korean-American Council)를 통합하여 기구를 재조직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사장을 맡을 비중에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그들은 후버(Hoover)⁵³⁴가 적당하다고 말했다.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반공감정을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알고 있다. 만일 우리가 후버를 맞이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벌리티스(William C. Bullitt, Jr) 전 대사 같은 거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그들도 내 생각에 동의했다.

처음 시작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캐롤 신부가 사무국장직을 맡아 주기를 원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리(Rhee) 여사⁵³⁵와 서머필드(Summerfield) 여사가 모든 일을 도맡아 경비를 아끼려고 애를 썼다. 그러던 중 애쉬랜드(Ashland)의 존 마이어가 1,000불짜리 수표를 주었다. 스태거스가 일을 처리할 상임이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한 사람을 고용했으나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해 해고하였다. 그래서 지금 400불 내지 500불이 남았다.

그 후 윌리엄스 부인이 오하이오 주의 캔톤(Canton)에서 와서 사무국장직을 맡고 있지만 별 진전이 없고 더구나 5월에 결혼을 하게 되어 곧 그만둘 예정이다. 수중에 남은 현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직원을 새로 고용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좀 기반을 잡을 때까지는 캐롤 신부가 재무를 맡아 주기를 바란다고 설명을 했다.

그들은 천주교인친한회(Catholic Friends of Korea)를 조직하고 미국인들에게 한국 문제를 이해시키도록 성당의 최고위자(Superior General)에게 소개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캐롤 신부는 새해 정초부터 이 일에만 전심전력을 하게 되었다. 천주교인친한회는 한미협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고 기독교인친한회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을 좀 해 본 후 내게 알려 주기로 했다.

534) 미국 제31대 대통령을 지낸 후버(Herbert Clark Hoover, 1874-1964)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535)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이다.

정오가 가까워져서 최용진과 나는 모두를 데리고 중국 음식점으로 가서 점심 식사를 한 후 나는 호텔로 돌아왔다.

오후 4시경에 카프만 박사가 와서 스테튼 섬으로 갔다. 나는 그곳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카프만 박사는 청중이 적은 데 대해 사과를 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가 고교 교사들로 지식인들이라고 했다.

나중에 가보니 단지 두 사람, 한 사람은 남자이고 한 사람은 여자 교사만이 와서 발표된 연설 날짜가 18일이 아닌 28일로 잘못 통보되었다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잠시 준비한 연설을 했고 그들은 내게 질문을 했다. 그리고 일어났다.

라슨(Larsen) 여사가 일행을 차로 페리를 타는 곳까지 바래다주었다. 사우스 페리(South Ferry)에 도착하여 카프만 박사는 웨스트사이드 전철을 탔고 나는 이스트사이드 전철을 탔다. 호텔에 도착하니 7시가 넘었다. 제임스 신이 내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차이나타운에서 저녁을 먹었다. 임병직, 제임스 신, 윌리엄 등이 배석했는데 윌리엄이 늦게 와서 오래 기다려야 했다. 식사 후 배의환(裵義煥)⁵³⁶과 존 김을 만나러 호텔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들은 밤 11시가 되어도 오지를 않아 소등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11시 20분에야 그들이 와서 한 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다 밤 12시 20분이 넘어서 돌아갔다. 나는 잠이 오지 않아 애를 먹었다. 끔찍한 밤이었다.

12월 18일 (수요일)

「한국의 재탄생」에 관해 연설을 했다.

12월 19일 (화요일)

코모도어 호텔의 홍보 담당 레이 도일(Ray Doyle)이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 그는 오후 5시 45분에 인터뷰를 녹화하길 원했다. 그래서 내가 일정을 바꾸어 오후 2시 30분이 아니라

536) 생몰은 1904-2001년. 평양의 은행에서 근무하다 1928년 도미 유학해 드북 대학교와 뉴욕 대학교에서 수학하고 1937년 북미대한인유학생총회 뉴욕 지부 회장을 역임하였다. 1944년 『Conversational Korean』이라는 문법책을 출판하고, 1944년 주미외교위원회 개조 때 북미대한인유학생 대표로 서기에 피임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한국은행총재, 주일대표부 공사, 주영대사 등을 역임하였다.

오후 6시 30분에 워싱턴을 출발하기로 했다.

연합통신(The United Press)의 치슬러(Chisler)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와서 도일이 700호 실을 사용하도록 주선해 주었다. 나와 제임스 신이 그녀의 질문에 답변을 했다.

우리는 2층 플로어에서 방송을 보았다. 그 후 임병직, 제임스 신, 최용진이 택시로 나를 펜실베이니아 역까지 데려다 주어 오후 6시 30분 기차에 올랐다.

12월 22일 (금요일)

신상근 박사가 뉴욕에서 왔다.

12월 26일 (월요일)

워드맨 파크(Wardman Park) 호텔에서 18명이 배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만찬을 가졌다. 식사 후 차를 마시며 답소를 나누었다.

12월 28일 (목요일)

오찬: 중국대사관의 리유 치에이(Liu Chieh) 대사와 치앙(Chiang) 박사가 초대 손님.

12월 30일 (토요일)

침대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오후에 후즈(Sze) 박사 부부의 딸 앨리스 후즈(Alice Sze)⁵³⁷가 쓴 책을 설그레이브 클럽(Sulgrave Club)에서 읽었다.

12월 31일 (일요일)

필립과 하얼빈 춘명(春明)의 림(Rim) 박사가 전화를 했다. 감기가 지독하게 걸려 침대에 누워 있었다. 굿펠로우 대령 부부와 딸이 전화를 했다.

537) 1920~1929년, 1933~1935년 주미중국공사, 1935~1936년 주미중국대사를 역임한 시조기(施肇基, 1877~1958)의 딸이다.

「부록」

1. 이승만이 작성한 여정 일지 (1909.11.~1945.10.)

1904. 11. 04. 미국행 증기선 오하이호에 승선하여 11월 10일에 고베 도착.
1904. 11. 18. 증기선 시베리아호를 타고 고베를 떠나 19일에 요코하마 도착. 호놀룰루로 가는 한인 이민자들과 함께 3등 선실에 승선.
1904. 11. 20. 요코하마를 떠나 29일 호놀룰루 도착.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의 윤병구 목사, 감리교 선교부 감독 존 W. 와드먼 박사와 다른 친구들을 만나 함께 에바 농장에 가서 한인 200여 명과 즐거운 시간을 보냄.
1904. 11. 30. 해변으로 향해.
1904. 12. 06. 증기선 시베리아 호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도착.
1904. 12. 26. 워싱턴행 산타페 기차를 타고 로스앤젤레스 출발.
1904. 12. 31. 저녁 7시에 워싱턴 DC에 도착.
1905. 01. -----
1907. 06.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 받음.
1907. 09. -----
1908. 08. 하버드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 받음.
1908. 09. -----
1910. 06.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 취득.
1910. 09. 03. 화이트 스타 해운의 증기선 발틱호를 타고 뉴욕을 출발, 유럽과 시베리아를 거쳐 한국으로 향함.
1910. 10. -----
1912. 03. 서울 소재 YMCA 고등학교 교장을 지내며 학생민족운동을 시작하고 실형. 연설 여행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님.

1912. 03. 26. 5월에 미네소타에서 열리는 국제감리교 4년총회 평신도 대표로 참가하기 위해 서울을 떠나 미국으로 향함. 일본 동경과 가마쿠라에서 열린 한인학생 대회를 주재하고 동경 YMCA 건축 기금을 학생들로부터 모금.

1912. 04. 10. 해리스 감독와 함께 증기선 탐바호를 타고 요코하마를 떠남. 14일에 타이 타닉호 침몰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17일에 들음.

1912. 04.25. 빅토리아 항 도착했다가 오후에 빅토리아 항을 떠남.

1912. 04. 26. 워싱턴 주 시애틀 도착.

1912. 05. 5월 한 달간 미네아폴리스에서 열린 국제감리교 회의에 참석.

1912. 06~12. 시카고, 프린스턴, 시 거트, 뉴저지, 워싱턴 DC 등지에 있는 친구들을 방문.

1913. 01. 28. 증기선 시에라호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호놀룰루로 향함.

1913. 02. 03. 호놀룰루 도착.

1918. 12. 호놀룰루에 거주하며 업무차 때때로 다른 섬들을 방문. 이 시기에 한인기독교회, 한인기독교학원, 나중에 주간으로 바뀐 (월간)『태평양잡지』를 시작.

1919. 01. 06. 호놀룰루발 증기선 엔터프라이즈호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당도하여 10일 워싱턴 DC 도착. 워싱턴 DC에서 구미위원부를 시작하고 미 전역 순회 연설을 다님.

1920. 06. 22. 로스앤젤레스발 증기선 마노아호로 29일 호놀룰루 도착.

1920. 11. 16. 웨스트 히카호를 타고 호놀룰루를 떠나 12월 5일 중국 상하이 도착.

1920. 12. -----

1921. 05. 상해에 거주하며 친구들과 몇 차례 남경, 소주 및 다른 도시들을 여행.

1921. 05. 28. 증기선 콜롬비아호를 타고 상해를 떠나 6월 2일 필리핀 마닐라 상륙.

1921. 06. 15. 증기선 그레나이트 스테이트호를 타고 마닐라를 떠나 6월 29일 호놀룰루 도착.

1921. 08. 10. 증기선을 타고 호놀룰루에서 출항하여 샌프란시스코로 향함. 16일에 도착.

1921. 08. 27. 워싱턴 DC에 도착하여 군축회담 기간 동안 워싱턴에 머뭇.

1922. 09. 02. 증기선 윌슨대통령호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7일 호놀룰루 도착.

1924. 01. 23 증기선 마우이호를 타고 호놀룰루를 떠나 29일 샌프란시스코 도착.

1924. 01. 31. 증기선 베네주엘라호를 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출항하여 여러 항구를 거쳐 파나마운하를 경유하여 뉴욕으로 향함.

1924. 03. 06. 매릴랜드 주 볼티모어에 도착하여 워싱턴 DC로 감.

1924. 10. 25. 증기선 캘러와이호를 타고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11월 1일 호놀룰루 도착.

1929. 10. 05. 증기선 호놀룰루 시티호를 타고 11일 로스앤젤레스에 당도, 시카고, 뉴욕, 워싱턴 DC, 뷰트, 몬타나 및 다른 도시를 방문.

1930. 01. 02. 증기선 로스앤젤레스 시티호를 타고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8일 호놀룰루로 돌아옴.

1931. 11. 21. 증기선 로스앤젤레스호를 타고 호놀룰루를 떠나 3월 27일에 로스앤젤레스 도착.

1932. 12. 23. 뉴욕에서 큐나드 해운의 증기선 라코니아호를 타고 리버풀로 향함.

1933. 01. 02. 영국 리버풀에 도착.

1933. 01. 04. 비행기를 타고 런던을 떠나 프랑스 파리에 내린 후 리옹에서 비행기를 갈아 타고, 오후에 제네바 도착.

1933. 01. 제네바에 머물며 가끔 파리, 취리히 및 다른 도시를 방문.

1933. 07. 04. 제네바를 떠나 런던경제회의가 개최되던 런던으로 감. 거기서부터 비엔나를 비롯하여 파리, 바르샤바, 모스크바, 로마, 밀란, 니스 및 다른 도시들로 여행.

1933. 08. 10. 이탈리아 해운의 증기선 렉스호를 타고 니스를 떠나 뉴욕으로 향함. 이 항해에서 렉스호가 속도 기록을 갱으며, 16일 뉴욕에 도착.

1935. 01. 19. 프란체스카와 함께 증기선 말로로호를 타고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1월 24일 호놀룰루에 도착.

1939. 03. 30. 워싱턴에서 한국대표부를 열기 위해 일본 증기선 엠프레스호를 타고 호놀룰루를 떠남.

1939. 08. 10. 프란체스카와 함께 증기선 맛소니아호를 타고 호놀룰루를 향해 출항.

1939. 11. 17. 증기선 러라인호를 타고 로스앤젤레스를 향해 출항.

1945. 10. 04. 밤 9시에 워싱턴 DC 국립공항을 출발.

-
- 1945. 10. 08. 캘리포니아 해밀튼 비행장을 떠남.
 - 1945. 10. 12. 오전 11시 10분에 아즈키 비행장에 도착.
 - 1945. 10. 16. 정오에 김포비행장에 도착.

2. 「이승만의 해외 체류 기록(1904~1940)」

1940년 12월 3일까지 나의 미국 체류 기간은?

1904년 12월 6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 해외에 머문 기간을 제외하고 총 36년간.

해외에서 보낸 기간

1910년 9월 3일에 유럽으로 떠나, 1912년 4월 26일에 시애틀 도착, 총 1년 8개월.

1920년 11월 16일에 호놀룰루를 출발하여 중국으로 떠남. 1921년 6월 29일에 호놀룰루에 돌아옴. 총 7개월 반.

1932년 12월 23일에 뉴욕을 떠나 제네바로 향함. 1933년 8월 16일에 뉴욕에 돌아옴. 총 7개월 반.

1910년 9월 3일 ~ 1912년 4월 26일(1년 8개월)

1920년 11월 16일 ~ 1921년 6월 29일(7개월 반)

1932년 12월 23일 ~ 1933년 8월 16일(7개월 반)

합: 2년 11개월

미국 체류기간 36년 중에서 해외 체류 기간은 2년 11개월, 미국에서 실제 머문 기간은 33년 11개월.

3. 워싱턴 및 미국 기타 지역의 기독교 친우들께

1875년, 서울에서 출생한 이승만 씨를 소개합니다. 그는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한학을 훌륭하게 교육받았으나 요즘 시대에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영어 공부에 열정적으로 매진하였으며, 한자를 통해 다른 분야에 대한 연구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주독립을 굳게 믿습니다. 조국인 대한민국의 독립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이 현재의 무기력함으로부터 깨어나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간지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신문」을 시작으로 후에는 영어판도 있는 「제국신문」을 창간하여 이 일간지들을 통해 자유에 대한 사상을 설파하였습니다. 이는 수구파 내각과는 상치되는 이념이어서 그는 1897년 9월 체포되어 7년간 영어의 몸이 되었습니다.

투옥된 후 7개월 동안 그의 목에는 20파운드(9kg)가 넘는 목재 칼이 매어졌고, 설상가상으로 두 발에는 족쇄를 채우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이 끌려 나가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교수형에 처해지거나 참수형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형장에서 칼이 둔탁하게 내리치는 소리들도 감각으로 모두 느낄 수 있었으며 이제 곧 자신도 그와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간신문들이 “이승만이 간밤에 참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어깨에는 무거운 쇠사슬이 묶이고 등에는 자물쇠가 채워졌으며 죄수들도 함께 묶인 채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가 민중집회의 자유를 주장하며 만민공동회에서 동료들과 토론을 벌이고 계몽사상과 자주독립을 주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투옥되기 전에 복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지만 수감된 후 극도의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비로소 이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으로서 가장 힘든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동료 죄수들이 구원되기를 바라며 감옥

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출판된 중국어 책들로 꾸며진 도서관이었습니다. 감옥 도서관은 계속 잘 운영되었습니다.

이승만 씨의 노력으로 개종한 사람 중에는 초대 주미공사의 사무관 이상재 씨, 19세기 말 특히 문학에 능했던 한국 최고의 학자 이원규 씨, 1895년과 1896년 경무관을 지낸 김정식 씨 등이 있습니다. 그밖에 40여 명이 이승만 씨의 진심 어린 끈질긴 노력으로 감화를 받아 개종을 하였습니다.

이승만 씨는 곤장 10대의 태형과 종신 중노동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나 지난 여름(1904년 8월 9일) 사면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는 동양인의 슬픔과 고통들을 낱알이 진실되게 증언할 것입니다. 자유의 땅 아메리카에서 백인 형제들 가운데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 앞으로 3년 동안 그곳에서 수학하고, 생활하고, 저작 활동을 하면서 많은 용기를 얻고 많은 도움을 받은 후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훌륭한 과업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승만 씨는 양반이고, 타고난 학자이며, 하나님의 쓰임 받은 기독교인입니다. 때문에 전적으로 여러분의 참된 친구가 될 충분한 자질을 갖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게일

16년간 한국에서 지냈으며 『밴가드(The Vanguard)』의 저자

1904년 11월 2일

「색인」

[가]

강영소 - 104
고려통신사 - 159, 182, 198
교토 - 48
구미위원회 - 65, 80, 83, 84, 89, 93, 100, 102, 105, 112, 113, 114, 115, 117, 120, 125, 136, 140, 141, 194, 232, 240
국민당 - 109, 162, 196, 206, 225, 226, 254, 260, 263, 264, 274, 280, 289, 292
국제연맹 - 55, 106, 113, 156, 160, 161, 162, 163, 164, 166, 167, 168, 169, 170, 171,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7, 188, 189, 190, 195, 218, 242, 256, 281
국제연합구제부흥기구 - 268, 282, 286, 287
국제의원연맹 - 176
기독교여성금주회 - 29
길선주 - 89, 119
김경준 - 134, 148
김계봉 - 97
김구 - 105, 261, 287
김규식 - 105, 107, 143, 269
김노디(노디김) - 103, 246
김도연 - 142
김성기 - 73, 129, 214
김승제 - 65, 120
김신실 - 103
김영섭 - 101, 121,
김영우 - 74, 78, 146, 235
김장호 - 57
김정식 - 51, 307
김정진 - 116, 118, 140, 141, 149, 294
김종림 - 105, 117, 139, 147, 233,

김종철 - 142, 144
김헌식 - 82, 84
김형순 - 140, 141, 149, 254, 255

[나]

난징 - 107, 108, 142,
남궁염 - 125, 126, 143, 151, 152, 153, 224, 225, 226, 239, 244, 245, 246, 260, 270, 281
노백린 - 105, 115
노블 - 53, 62
노정일 - 50
뉴욕 타임즈 - 161, 162
뉴욕 헤럴드 트리뷴 - 173

[다]

대동여사 - 108
대한민국 임시정부 - 6, 49, 51, 67, 79, 105, 106, 115, 125, 159, 160, 167, 194, 224, 256, 259, 266, 267, 274, 278, 287, 288, 290, 291, 292, 294, 295
대한민국의 대통령 - 168
대한인동지회 - 74, 75, 83, 119, 139, 178, 259, 267
대한인총대표회의 - 21, 86, 143
데이빗 리 - 80
돌프 - 113, 240
동경조선기독교청년회 - 48, 51
동아일보 - 179, 224
동지식산회사 - 81, 130, 156, 214

[라]

라이프 - 273, 274

레이 - 73

레이머 - 63, 246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 147, 234

리튼 보고서 - 169, 175, 176, 177, 178, 181, 183, 184

[미]

마하트마 간디 - 201
만주국 - 169, 170, 174, 176, 177, 178, 181, 182
문양목 - 115, 118
미국의 영향하에 성립된 (국제법상) 중립 - 55
민규식 - 85, 88, 89, 90, 92
민대식 - 113
민병수 - 113, 115
민영휘 - 85, 113
민찬호 - 65, 82, 131, 178, 267, 294
민총식 - 51

[비]

박길문 - 120
박봉래 - 83, 84
박상하 - 66
박용만 - 20, 57, 59, 80, 82, 83, 105, 115, 144, 230, 238
박처후 - 65
박호근 - 119
박희성 - 115, 117, 118, 145
백남칠 - 114
백남훈 - 49
백만수 - 120
백일규 - 80, 81, 255
범인도의회 - 201

[사]

샬리스버리 - 155
서재필(제이슨) - 21, 57, 63, 64, 84, 85, 86, 88, 89, 93, 103, 121, 125, 127, 142, 143, 146, 154, 155, 197, 247, 265, 293
세계감리교대회 - 48
세브란스 - 34
셔우드 에디 - 58
손문 - 162, 206
손병희 - 89
송양환 - 83
송필만 - 144
스코필드 - 152, 162, 164
스타크스 - 54, 64, 69, 70, 72, 102, 126
스팀슨 - 155, 179, 180
시모노세키 - 12, 48
신성구 - 84
신익희 - 109
신형호 - 100, 102, 112, 113
신흥우 - 16, 95, 111

[오]

아펜젤러 - 17, 61
안승화 - 142, 144, 278
안영렬 - 115, 116, 117, 118
안원규 - 132
안정수 - 15, 16, 64, 105, 116
안창호 - 79, 80, 82, 83, 84, 89, 91, 151, 270,
안현경 - 67, 72, 78, 178, 246
약소국과 주권국 회의 - 82

양유찬 - 97
 언더우드 - 17, 32, 33, 34, 105, 264, 274
 애플스 청년회 - 23, 28, 44
 여운형 - 80, 107
 올리버 - 269
 우드로 윌슨 - 54, 55, 86, 280, 281
 윌콕스 - 58, 59, 60, 90
 윌리엄 보스워 - 106, 111
 유억겸 - 151
 윤병구 - 14, 15, 20, 21, 91, 111, 115, 116, 246, 248
 윤병희 - 83
 윤치영 - 142, 144, 150, 151, 247,
 오기선 - 101
 이극로 - 136
 이범녕 - 81
 이살음 - 140, 141, 254
 이상재 - 47, 89, 95, 152
 이순기 - 81, 116, 123, 139, 141, 233, 235
 이용선 - 83, 84
 이용직 - 115, 234
 이종관 - 75, 178
 이창규 - 123, 128, 146
 이훈구 - 142
 인도국민회의 - 201
 임병직 - 80, 93, 94, 95, 97, 98, 99, 100, 105, 106, 267,
 268, 270, 271, 278, 279, 280, 281, 276, 287, 288, 289,
 290, 294, 295, 296, 299, 300
 임정구 - 117
 일본 기독교청년회 - 48

[자]

장기영 - 194, 226, 227, 228, 230, 231, 232, 235, 236,
 238, 240, 241, 251, 259
 장덕수 - 224, 225, 242
 장봉 - 106, 108
 장인명 - 83
 장택상 - 84, 85, 89, 90
 재미한족연합위원회 - 116, 125, 132, 136, 139, 151, 277,
 278, 279, 288, 294
 제시 윌슨 - 54, 55, 56
 조선기독교대학 - 33, 238
 조용은 - 49, 166
 조지 맥균 - 284, 286
 조지 황 - 80, 81, 222, 223
 주미외교위원부 - 116, 125, 132, 136, 144, 194, 240, 241,
 259, 261, 265, 267, 268, 270, 272, 277, 278, 282, 291,
 294, 296, 299
 질레트 - 108

[차]

찬들러 - 100
 최상호 - 12, 50, 51
 최응선 - 117, 118

[카]

카이로선언 - 258, 260, 271, 284
 크리스천 랭 - 176, 189
 클레망소 - 87

[태]

태산아 - 20, 25, 26
 태평양문제연구회 - 165, 166, 293, 296
 테오도르 루즈벨트 - 180, 228, 285
 토마스 - 113

[피]

파리예비강화회의 - 55, 79, 84, 85, 87, 88, 101, 105,
 107, 117, 162, 187
 파텔 - 201
 포춘 - 273, 274

[히]

하디 - 12
 하버드 대학 - 43, 151, 265
 한국공사관 - 17, 47, 84
 한국독립당 - 261, 277, 292
 한국친우회 - 21, 103, 134, 150, 196, 197, 241, 293
 한국 YMCA - 22, 108
 한국의 총통 - 191
 한길수 - 244, 269, 294
 한미협회 - 150, 240, 241, 259, 261, 263, 267, 270, 272,
 274, 279, 291, 291, 294, 295, 298
 합성숭실대학 - 238
 해리스 - 52, 53, 54
 해밀턴 - 155
 허버트 밀러 - 150
 허정 - 121, 143
 할버트 - 33, 93, 100, 101, 154, 243
 헨리 김 - 136

헨리 아펜젤러 - 61, 161
 헨리 정 - 84
 현순 - 89, 116
 훈백 - 155, 243, 244, 247, 262
 홍치범 - 116, 117, 118, 123, 131
 후스짜 - 187, 188, 189, 191, 194, 195

국역 이승만 일기

2015년 10월 16일 발행
2015년 10월 16일 1쇄

지 음 이승만
공 편 류석준, 오영섭, 데이빗 필즈, 한지은
발행인 김왕식
발행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031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02) 3703-9200 / www.much.go.kr

디자인 · 제작 북마크 (02) 325-3691
총판 및 유통 정부간행물판매센터

ISBN 979-89-98443-92-4 (94900)

발간등록번호 11-1371480-000097-0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책값은 뒷표지에 있습니다.
인지는 생략합니다.